
2019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연구: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개발 및 적용

2019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연구: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개발 및 적용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19.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교육기반본부장 김자현

교육R&D팀장 노준석

교육R&D팀 이현승

등록

KACES-1940-R035

ISBN

978-89-6748-342-5(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9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연구: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개발 및 적용」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자

서리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융합연구원 전임연구원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앤컨설팅 대표
차지민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공동저자 가나다순)

연구보조원

김미연 전남대학교 문화학과 박사과정
서민정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11년 제 36회 UNESCO 파리총회에서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2010 서울어젠다: 예술교육의 발전목표(Seoul Agenda: Goals for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의 국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2018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 연구>(김인설 외)에서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의 보완과 확장된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로 수행되었음.
-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적용에 있어 국제지수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시범적으로 타진하는 동시에 국내 서울어젠다 이행 실적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함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데 있음. 이를 통해 2020년 서울어젠다 수립 1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 공유 및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란?

서울어젠다의 3개 목표와 13개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① 보편적 접근성, ② 질적 향상성, ③ 사회적 가치 확산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

2) 연구 내용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로직모형과 프레임워크 검토
 - 서울어젠다의 개요 및 의의 검토
 - 관련분야 지수 및 지표 개발에 대한 국내 주요 선행 연구 검토
 - 관련분야 국제지수 및 지표 개발에 대한 국외 주요 선행 연구 검토
 - SAEI의 로직모형 프레임워크 개선과 활용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수집 및 분석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국제적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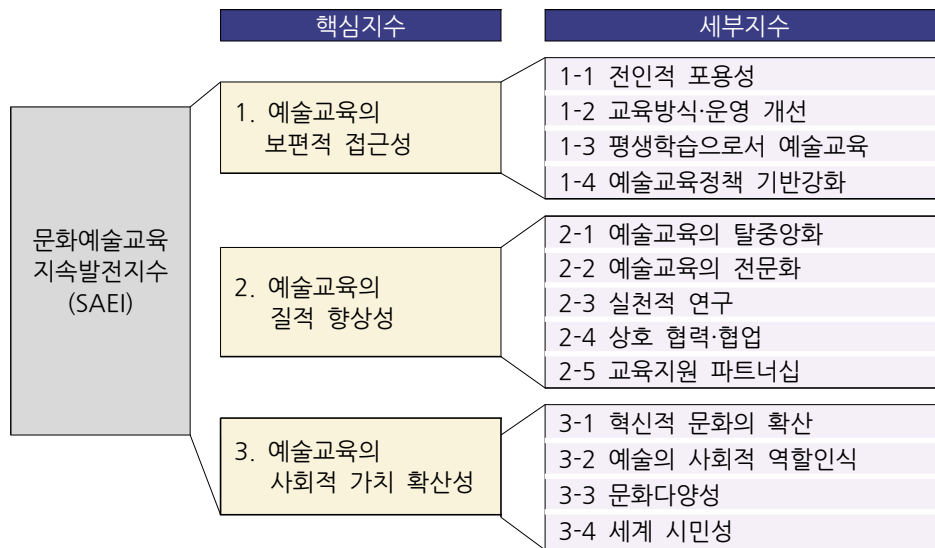
- SAEI의 개념적 구조와 핵심지수, 세부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국외 전문가 검증
- SAEI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국외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
- 국외 전문가 해당 국가별 SAEI의 정량지표 보유여부 조사
- SAEI의 정성지표를 활용한 서울어젠다 이행에 대한 국가별 전문가 평정 및 의견 분석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점검

- 국내 이행실적을 SAEI를 적용하여 2년 주기(2011, 2013, 2015, 2017, 2018년)로 점검¹⁾
- SAEI의 정성지표를 적용한 서울어젠다의 국내 2019년 점검과 2018년 점검 결과 비교
- 향후 개선방안을 위한 국내 전문가 제언 수집 및 분석

○ 조사 결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제언

- 2019년 조사 결과와 2018년 조사결과 비교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시
-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의 의의, 발전방안 및 정책 제언 도출
- 향후 연구 활용과 기대효과 및 발전방안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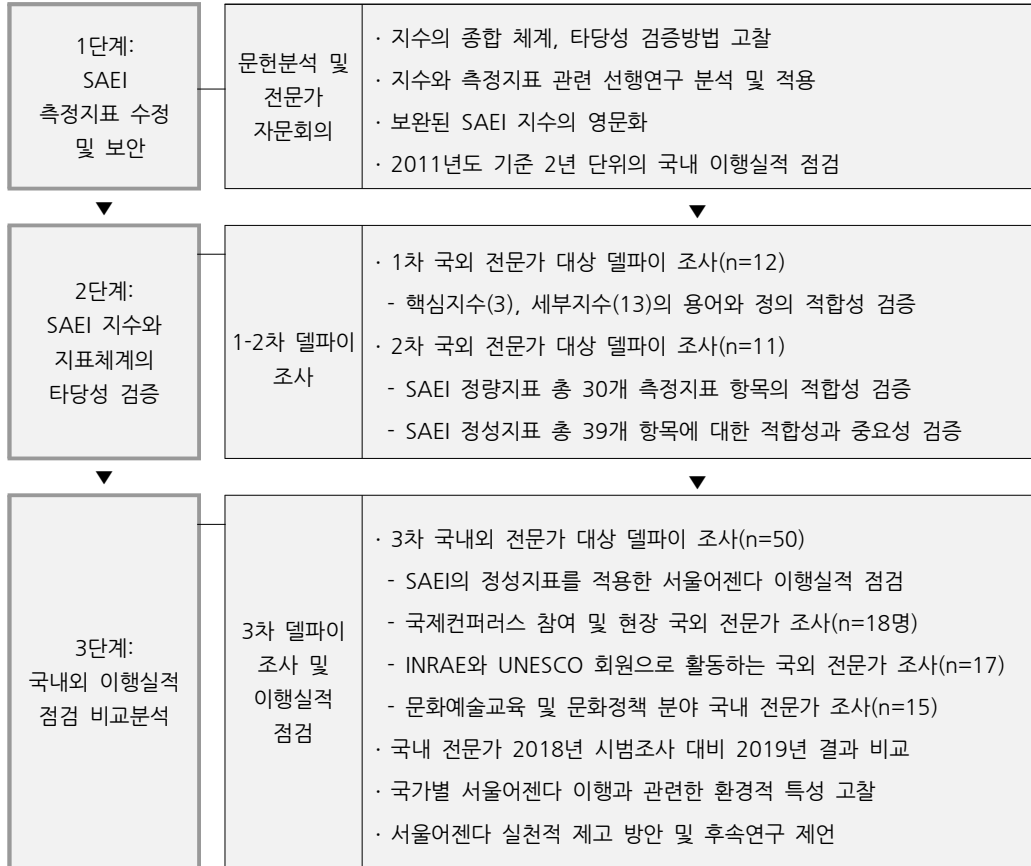
※ SAEI 정량지표(30개) | 정성지표(39개):
정량지표(계량)와 정성지표(비계량)로 구분하여 평가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구조>

1) SAEI의 정량적 측정지표로 사용된 국가기반통계의 경우, 2019년 자료는 통상 2020년 이후에 발표되는 이유로 2018년 자료로 대체함.

□ 연구방법

○ 연구의 단계



○ 연구방법과 분석

-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척도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국제적 시범조사를 위하여, UNITWIN 핵심회원국의 전문가(n=23)를 대상으로 총 2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1차에는 12명의 전문가가 2차에는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 SAEI의 핵심 및 세부지수의 명칭, 개념의 문항 적절성, 산술방식, 정량지표, 정성지표를 영문으로 전환 후,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과 합의도, 의견 수렴도, 중요도 등을 산출하여 검증을 진행하였음.
- 서울어젠다 국가별 이행실적 점검은 국외 전문가의 검증과정 완료 후, 검증된 SAEI의 정성지표를 적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음. 조사대상은 국외 전문가(n=35)와 국내 전문가(n=15)로 총 50명이 참여하였으며, 국외 전문가의 문화예술교

육 경력은 평균 20.36년으로, 국내 전문가의 경력은 평균 15.13년으로 집계됨.

- SAEI의 로직모형 정교화와 활용방안을 위하여 초점집단면접과 개인면접의 형태로 총 6차의 자문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국내 전문가 총 9인이 참여하였음. 동일한 목적으로 국외 전문가에게는 서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23명이 참여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적용

- 서울어젠다의 3개 핵심목표와 13개 전략에 기초한 SAEI는 3개의 핵심지수, 13개의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의 정량지표(투입지표 13개, 과정지표 4개, 산출지표 13개)와 3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형태의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음.²⁾
- SAEI의 정량지표 종합 값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보고통계³⁾와 국제지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11년으로 설정하고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까지 2년 주기 변화와 함께 최근 2018년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함.
- SAEI의 정성지표는 정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해석을 돕도록 구분해서 사용함.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측정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_측정지표 〉

핵심지수	세부지수	구분	정량적 측정지표	정성적 측정지표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1 전인적 포용성	투입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정부 예산 (인구 1인당)	3문항
		산출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인구 100인당)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투입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3문항
		산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투입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교육 예산액 (인구 1인당)	3문항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혜자 수 (인구 100인당)	
	1-4 예술교육 정책 기반강화	투입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지방교육재정포함) (경제활동인구 1인당)	3문항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 (경제활동인구 100인당)	

2) 이 외에 추가적으로 9개의 과정지표가 존재하나, 지수산술의 간략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합지수의 산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해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 신고, 등록, 신청 등 서류상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집계함으로써 작성한 통계(통계교육원, 2015)

핵심지수	세부지수	구분	정량적 측정지표	정성적 측정지표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투입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액 (인구 1인당)	3문항
		산출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시설 수 (인구 100인당)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투입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지원학교 당)	3문항
		산출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 (예술강사 1인당)	
	2-3 실천적 연구	투입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	3문항
		산출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예체능 분류 논문 발표 수 (인구 100인당)	
	2-4 상호 협력·협업	투입	예술강사 채용 학교 수 (학령인구 100인당)	3문항
		산출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인구 100인당)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투입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명)	3문항
		산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명)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3문항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산출	WIPO 세계혁신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3문항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산출	UNDP 인간개발지수	
	3-3 문화다양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3문항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산출	다문화수용성 지수	
	3-4 세계시민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3문항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산출	IEP 세계평화지수	

○ SAEI의 로직모델의 이론적 설계는 프로젝트 프레임워크(Project Framework)에 의거하여 설계되었음. 지수의 산술식은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라스파이레스의 산식(Laspeyres' Formula)을 참고하여 완성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 = 기준 연도 • t = 해당 연도 • i = 지수번호 • IP = 투입지표값(In-put) • TP = 과정지표값(Through-put) • OP = 산출지표값(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 핵심지수(Goal Index) • SU = 세부지수 (Sub Index) (i.e., $G_{t,1}$ 는 해당 연도의 핵심지수 1번 값을 의미함) (i.e., $SU_{t,1}$ 는 해당 연도의 세부지수 1번 값을 의미함) • CPI =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 α = 기준 연도의 CPI를 100으로 환산한 CPI
--	---

핵심지수(G)1 & 핵심지수(G)2의 세부지수(SU) 산술식	핵심지수(G)1&2의 산술식
<p>▶ 기본 산술식㉠</p> $SU_{t,i} = \frac{(\frac{IP_{t,i}}{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G_{t,1} = \frac{\sum_{i=1}^4 SU_{t,i}}{4}$
<p>▶ 투입지표가 예산액일 경우, 산술식㉠ 적용 [당해 연도 투입지표에 환산된 소비자물가지수(α) 반영]</p> $SU_{t,i} = \frac{(\frac{IP_{t,i}}{\alpha \times 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alpha = \frac{CPI_t}{CPI_o} \times 100$	$G_{t,2} = \frac{\sum_{i=5}^9 SU_{t,i}}{5}$
핵심지수(G)3의 세부지수(SU) 산술식	핵심지수(G)3의 산술식
$SU_{t,i} = \frac{G_{t,1} + G_{t,2} + (\frac{OP_{t,i}}{OP_{o,i}} \times 100)}{3}$	$G_{t,3} = \frac{\sum_{i=10}^{13} SU_{t,i}}{4}$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최종지수는 각 핵심지수의 평균값으로 산술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함.

$$SAEI_t = (\frac{G_{t,1} + G_{t,2} + G_{t,3}}{3})$$

□ 연구결과

1) 국제사회 적용 가능성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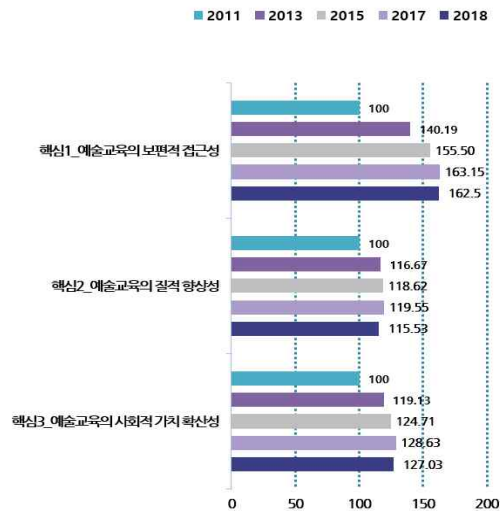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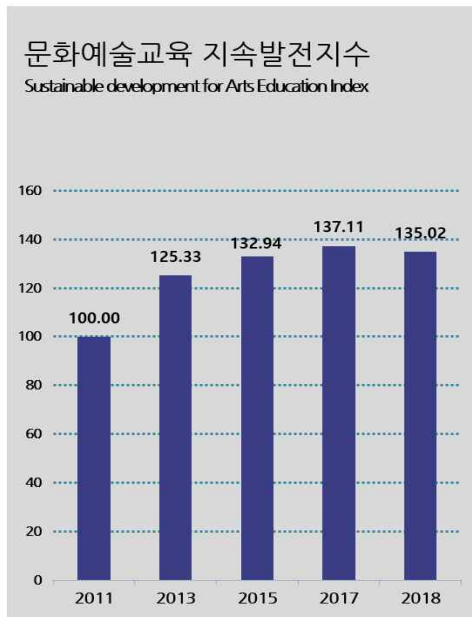
-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차 델파이 조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핵심지수 3개와 세부지수 13개에 사용된 명칭과 조작적 정의의 적합성(appropriateness)에 대한 내용 타당도, 의견 수렴도, 합의도를 4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검증하였음. 타당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이 1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소값 0.56을 상회하는 0.64~1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
- 2차 델파이 조사는 핵심지수와 세부지수를 산정하는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정량적 측정지표 30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appropriateness)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점검하였으며, 정성적 측정지표 39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appropriateness)과 중요성(importance)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동일한 척도를 통하여 검증하였음.
- SAEI의 30개 정량적 측정지표 타당성의 경우, 5점(매우 적절)을 기준으로 최고점이 4.6, 최하점이 3.67로 분석되어 적용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국외 전문가의 의견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표준편차는 0.51~1.37로 나타남.
- 해당 국가별 측정지표 보유여부 조사의 경우, 독일과 뉴질랜드, 이스라엘은 일부 국가통계 자료가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나,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중국 제외), 케냐의 전문가는 해당 자료가 없거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음.
 -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보고통계 존재 현황이 나라별로 상이하고 집계 방식이나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용어가 공통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별 비교를 위한 공통되고 표준화된 계량적 지수의 도입은 장기적이고 긴밀한 국가별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SAEI의 39개 정성지표(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타당도 조사 결과, 문항 적합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39개 지표 중 38개 항목이 1점 만점 기준 0.8이상의 높은 내용 타당도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가별 맥락과 상황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 시, 국제사회에서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실제로 활용 가능한 SAEI의 지표는 비계량적 접근을 통한 정성지표의 활용이 우선될 것으로 판단됨.
- 국외 전문가 집단은 SAEI를 적용하여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를 매우 긍정적이며 의미 있게 판단하고 있었음. 다만, 이러한 연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며, 국가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고 장기적인 고민과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2)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점검 결과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는 2000년 서울어젠다를 발의한 다음해 2011년을 기준(2011년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5.33점, 2015년 132.94점, 2017년 137.11점, 2018년 135.02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에 대한 정량적 점검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분석결과, 상승세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으로,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장을 통해 그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함.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점도 함께 발견되었음. 특히,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은 2013년 이후 별다른 상승 동향을 보이지 않고 유지에 머무르고 있음. 2019년 연구를 통해 분석된 SAEI의 정량적 종합지수 값의 이러한 추이는 2018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

〈 SAEI_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량지표 종합 산출결과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100	125.33	132.94	137.11	135.02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00	140.19	155.50	163.15	162.50
세부지수 1	전인적 포용성	100	146.92	162.15	164.01	168.00
세부지수 2	교육방식 · 운영 개선	100	146.41	172.72	185.42	184.90
세부지수 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100	203.11	210.66	217.52	208.44
세부지수 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100	64.34	76.46	85.67	88.65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100	116.67	118.62	119.55	115.53
세부지수 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100	108.49	115.25	131.10	131.30
세부지수 2	예술교육의 전문화	100	95.95	72.74	53.38	47.97
세부지수 3	실천적 연구	100	108.17	106.37	103.02	103.02
세부지수 4	상호 협력 · 협업	100	131.87	164.32	172.56	171.24
세부지수 5	교육지원 파트너십	100	138.88	134.39	132.71	124.10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100	119.13	124.71	128.63	127.03
세부지수 1	혁신적 문화의 확산	100	119.73	124.87	130.06	127.84
세부지수 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100	119.14	125.08	128.13	126.50
세부지수 3	문화다양성	100	119.86	126.52	128.88	127.08
세부지수 4	세계 시민성	100	118.79	122.37	127.46	12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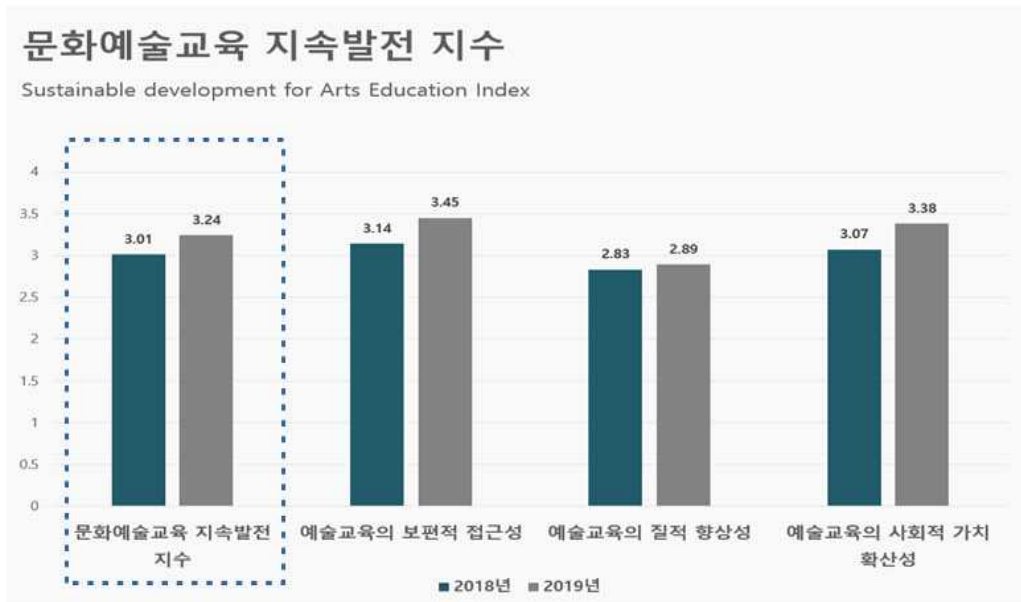


- 국내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에 대한 정성적 점검 결과는 2018년 ‘보통이다’의 3.01점에서 2019년 3.24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별로 살펴보면, 2019년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3.38점)’,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2.89점)’의 순으로 나타남.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경우, 2018년 2.83점에서 2019년 2.89점으로 작년 조사 결과 대비, 여전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SAEI의 정량적 점검 결과 기준,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동향을 중심으로 볼 때도 매우 일치하는 결과로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을 위한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SAEI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연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SAEI_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성지표 종합 산출결과 〉

구분		2018년(N=19)	2019년(N=15)	증감률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3.01	3.24	7.64%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3.14	3.45	9.87%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3.54	3.80	7.34%
세부지수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2.77	3.18	14.8%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3.12	3.56	1.41%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3.14	3.27	4.14%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83	2.89	2.12%
세부지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3.02	2.80	△ 7.56%
세부지수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91	3.02	3.78%
세부지수 2-3	실천적 연구	3.00	2.93	△ 2.33%
세부지수 2-4	상호 협력·협업	2.68	2.93	9.33%
세부지수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2.53	2.76	9.09%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3.07	3.38	10.1%
세부지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3.02	3.62	19.9%
세부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3.21	3.56	10.9%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	3.25	3.15	△ 3.08%
세부지수 3-4	세계 시민성	2.81	3.20	13.9%



3)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SAEI의 정성지표를 활용한 국외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음. 비록 참여 전문가의 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도출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종사 평균 경력의 20년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SAEI의 정성지표는 평정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서울어젠다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정량지표의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조사대상인 국가의 현 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SAEI의 정성지표를 활용한 국가별 비교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이 SAEI의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에 준하는 자국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패턴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 즉, 서울어젠다 이행에 있어 각 국가별 트렌드와 흐름을 읽어 내는 척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순위를 측정하기 위함이 아님을 강조함.
- 다만 정성지표는 평정자의 주관이 중심이 되기에 정량지표의 결과보다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전문가의 의견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는 서울어젠다 이행에 대한 실천적 노력과 함께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
- 조사 결과, 미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 국가의 전문가들은 서울어젠다 이행에 있어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으로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을 지목하였음. 이는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기도 함. 즉, 본 연구에 참여한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SAEI_서울어젠다 국가별 이행실적 정성지표 종합 산출결과 〉

참여 국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캐나다(N=10)	2.86	3.00	2.57	3.00
미국(N=6)	2.69	2.67	2.72	2.68
독일(N=4)	2.80	3.11	2.50	2.79
호주(N=4)	3.02	2.99	2.81	3.26
뉴질랜드(N=2)	3.81	4.09	3.37	3.96
싱가포르(N=2)	2.91	3.33	2.83	2.58
네덜란드(N=1)	3.01	3.17	3.27	2.58
방글라데시(N=1)	2.97	2.92	2.00	4.00
영국(N=1)	3.07	3.09	3.13	3.00
중국(N=1)	3.54	3.53	3.50	3.59
콜롬비아(N=1)	1.58	1.67	1.33	1.75
케냐(N=1)	3.18	3.83	2.53	3.17
이스라엘(N=1)	3.13	3.42	2.80	3.17

※국가의 순서는 응답자가 많은 국가의 순으로 나열함

- 서면조사 및 개인면담을 통해 얻은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각 국가별 환경이 상이하긴 하나, 공통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공공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질적 향상성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교과과정에 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화 현상과 이에 따른 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에 대한 필요도 공통적으로 수집됨. 아래의 표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각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의 요약임.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_3대 핵심지수를 통해 본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

국가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차가 나타남. 행정인력의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 필요 자원 지원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강사를 포함한 매개 인력 간 협력과 소통이 성숙해야 하는 단계 민간, 공공, 학계 간 협력 관계와 지원 그리고 예술 전문 교육에 대한 지역 차 존재 예술강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연수 관리 체계 필요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 정리가 선행될 필요 있음.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타인에 대한 이해, 세계 시민성 등 사회적 가치 확산성은 향후 더욱 향상되어야 함.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단, 예술교육 시수 결정은 학교 자율임.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도록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예술교육과 취미 활동으로의 예술교육은 민간 분야에 의존도가 높음. (8:2 정도)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도록 정책 마련 	-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국가 (표준) 커리큘럼에 포함된 예술 교과는 무용, 드라마, 음악, 시각예술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가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예술 교과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 	-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공유됨. 다만 과학 등 STEM 교과 교육과의 우선순위 경쟁에서는 취약 취약계층의 예술교육 참여 기회 부족 예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 클래식 예술 장르에 집중된 예술적 표현 중심 교육 제공 담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많은 반면 양질의 예술교육 실행과 실천에 대한 논의는 적음. 예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 한 예술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 '지속 가능성'과 같은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및 실행이 어려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평등한 제공이 주요 이슈 중 하나임. 창의 자본(creative capital) 형성의 근간이 예술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교원 부족 현상 예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예술단체 간 협력이 부족 예술가와 교사 간 협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다만 언어 및 수리와 같은 교과에 비하여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분야 연구 및 예술가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부족함. 교육부에서 미술, 음악 분야 교사를 위한 전문가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포용과 관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국가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예술위원회 지원을 통한 비정규 예술교육 (informal, non-formal) 분야의 신장이 나타남. 	<p>아카데미(Singapore Teachers Academy for the Arts)를 설립하였음.</p>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좋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적음. 또한 사립 교육체계에서 예술교육이 주로 시행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른 지역 편차가 큼. 	-	-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교육의 커리큘럼 변화를 비롯한 전환의 시기 예술교육을 통한 기술과 역량 개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남. 예술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낮음. 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자원 부족 교사와 예술가 간 협력이 부재 협력 없이 예술강사 홀로 일하는 경우가 다수 	-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문화적 의제 시각화에 기여 예술교육은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언어와 수리영역보다 차순위에 속함. 2019-2025년 사이 예술교육 및 타 교과와 커리큘럼에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 교류'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사고의 통합과 실천을 예술교육 내에서 강화하고자 예술교육자와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상호 문화 교류' 개념과의 연결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확대하고자 함. 2019-2025년 사이 예술교육 및 타 교과와 커리큘럼에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 교류'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제언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어젠다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주요 주체와 이들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함께 아래의 정책제언을 제시함.

구분	제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계생산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지원 및 개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원책 마련
	문화예술 교육 지원 및 실천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어젠다에 대한 범지구적 가치 제고와 이해 확산을 위한 노력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화된 환경조성과 지원체계 마련
	예술강사의 전문화를 위한 효과적인 연수 시스템과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연도별 산출과 지속적 공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활용한 단위 사업별 평가지표 구성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국내 활용 목적과 국제 상용화의 이분화 전략 모색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국제적 수용과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전략과 장기적 협력 추진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 개발 노력
	지역의 학교와 예술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협업을 위한 지원 확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지원 및 확대
학계	문화예술교육 실천적 기여와 현장을 위한 실행연구 독려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노력
	서울어젠다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연구 지원

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eoul Agenda: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InSul Kim, Ph.D.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ena Seo, Ph.D.

Full-time Researcher, Cultural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yesun Shin, Ph.D.

Co-founder & Director, WECULTURE research and consulting

Jimin Cha, PhD

Postdoctoral Researcher, The Ohio State University

□ Purpose and contents of the study

1) Purpose of the study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mestic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2010 Seoul Agenda: Goals for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which was unanimously adopted by 193 countries at the 36th UNESCO Paris General Assembly in 2011. It serves as follow-up research to *A Basic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Seoul Agenda in Korea* (Kim et al., 2018), which develop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and explored the feasibility of its international applicabil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d amount an effective policy throug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AEI's international applicability and asses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omestic performance results of Seoul Agenda. Consequently,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Seoul Agenda in 2020, this research also aims to expand societal and cultural shared values and awareness of arts education internationally.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The SAEI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was designed to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measure ① Accessibility, ② Quality Enhancement, and ③ Advocating Social Impacts of arts education based on the three goals and 13 strategies of the Seoul Ag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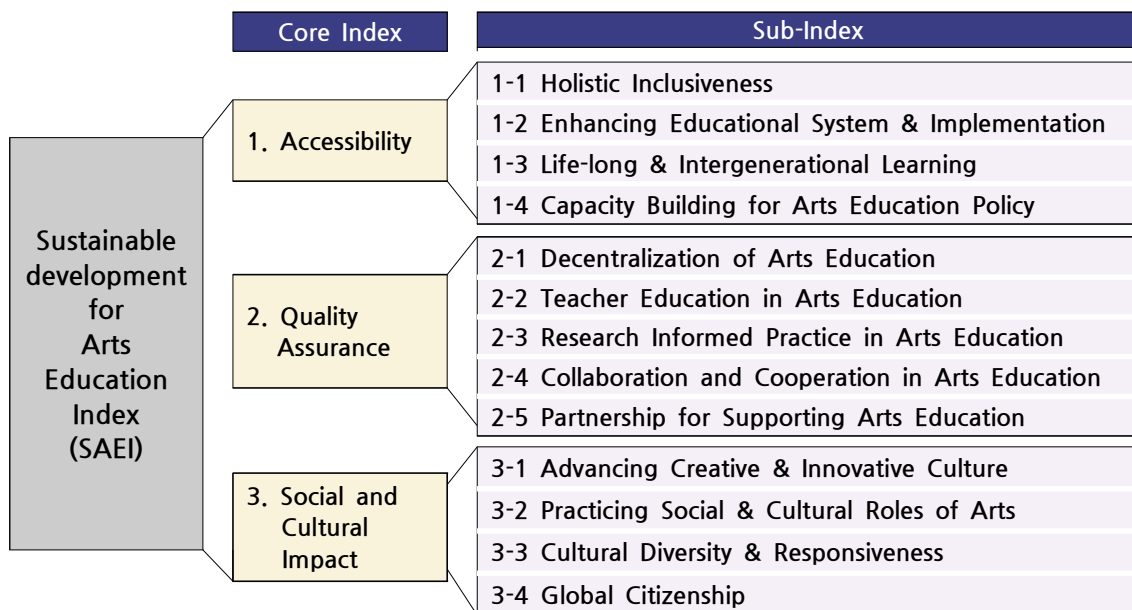
2) Contents of the study

- Evaluating the logic model and frame work of SAEI
 - Assessment of the outline of Seoul Agenda and its significance
 - Assessment of previous domestic studies on developing index and indicator in related fields
 - Assessment of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on developing index and indicator in related fields
 - Collec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feedback for the improvement and applicability of SAEI's logic model framework
- Evaluating validity of the SAEI's feasibility for its international applicability
 - Verifying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SAEI's conceptual frame, core index and sub-index by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 Verifying validity of the SAE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checklist) by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 Assessing whether country of each foreign expert possesses the quantitative indicator of SAEI
 - Each country's expert's rating and feedback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Seoul Agenda based on the SAEI's qualitative indicator
- Seoul Agenda's domestic performance result evaluation based on the SAEI
 - Evaluating Seoul Agenda's domestic performance result biannually(2011, 2013, 2015, 2017, 2018) by utilizing the quantitative indicator of SAEI⁴⁾

- Comparing result of Seoul Agenda's domestic evaluation in 2019 to the one in 2018 based on the quantitative indicator of SAEI
- Collecting and analyzing suggestion from domestic expert for improvement

○ Analyzing research result and offering direction of development

- Comparative analysis on research result of 2018 and 2019
- Draw the significance of Seoul Agenda performance result evaluation,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political suggestion.
- Propose how the research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its expected effect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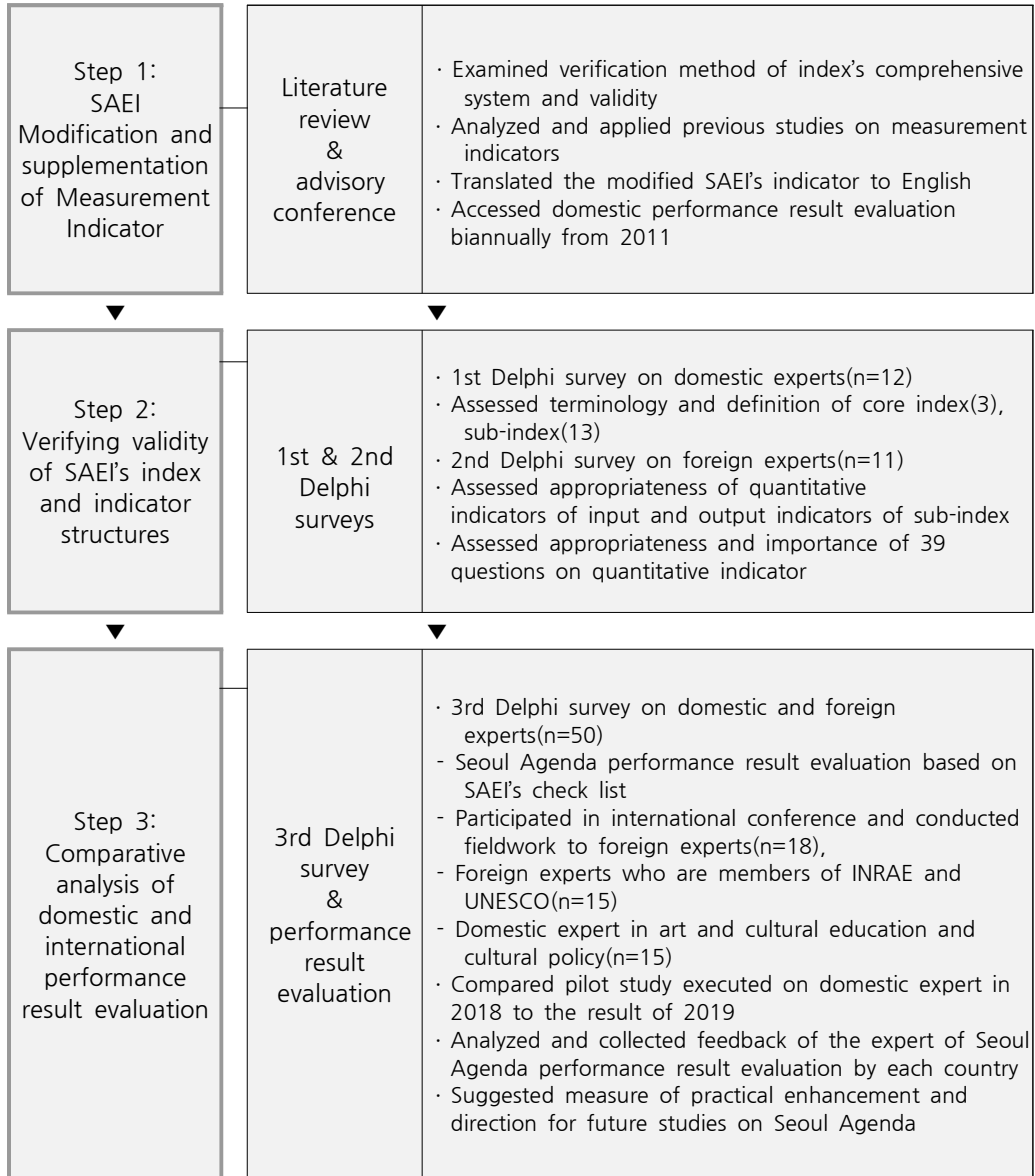
※ SAEI has two types (30 qualitative and 39 quantitative indicators) of indicators and used separately

<The Struc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4) For country-based statistics that was employed as a quantitative indicator of SAEI, 2018 data replaced the one from 2019 since report is published after 2020.

□ Methodology

○ Research Process



< Research Process >

○ Methodology and analysis

-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SEAI's international applicability as a measure for Seoul Agenda performance result evaluation, the study conducted two Delphi

surveys on experts among key members of UNITWIN (n=23).

- After translating the terminologies of core, sub-index, appropriateness of concept of questionnaire, arithmetic method, quantitative indicator, qualitative indicator of SAEI, the study proceeded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Ratio (CVR), agreement along with feedback.
- After the verification of Seoul Agenda performance result evaluation of each country by domestic and foreign expert, verified SAEI qualitative indicator was applied to online and offline surveys. Total of 50 domestic (n=35) and international (n=15) experts participated and the average years of experience by foreign experts was 20.36 and 15.13 for the domestic.
- Total of 6 advisory conferences, which took a shape of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ividual interviews, were held to polish the SAEI's logic model and discuss about tactics to apply, which 9 domestic experts participated. For foreign experts, written investigation, which contained the same purpose has been served and 23 of them participated.

○ Application of SAEI

- SAEI is composed of 3 core index and 13 sub-index that are based on Seoul Agenda's 3 core purpose and 13 strategies and 30 quantitative indicator (13 input indicators, 4 throughout indicator, 13 output indicators) and a quantitative indicator, which is a checklist of 39 questions.⁵⁾
- The total value SAEI has collected and utilized through the statistic reports, which were publish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⁶⁾ and collection of data on international index, also the reference point was set on 2011 and followed the modification biennially, such as in 2011, 2013, 2015, 2017, and analyzed additionally the recent data of 2018.
- While SAEI's qualitative indicator was developed to compliment the limitation of quantitative indicator, as it carries a shortcoming to be influenced by subjective view of evaluator, this research did not combin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5) There are additional 9 throughout indicators, however there were not included in Composite Index of this study for the sake of simplicity of index calculation.

6) Statistics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cords of reports, registrations, applications, etc. submitted 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 (Statistics Education Center, 2015)

indicators but left them to complement the interpretation.

- The final index of SAEI is the average value of each core index and its arithmetic is as follow. Measurement indicator of SAEI are presented in the below table.

<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SAEI)_Measurement Indicators >

Core Index	Sub-Index	Division	Qualitative Indicators	Qualitative Indicators
1. Accessibility	1-1 Holistic Inclusiveness	Input	Government budget for arts education (per capita)	3 items
		Output	Number of participants in arts education (per 100 population)	
	1-2 Enhancing Educational System & Implementation	Input	Government budget for arts education in schools (per school-age population)	3 items
		Output	Number of recipients of arts education in schools (per 100 school-age children)	
	1-3 Life-long & Intergenerational Learning	Input	Government budget for out-of-school education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capita)	3 items
		Output	Number of out-of-school program recipients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100 people)	
	1-4 Capacity Building for Arts Education Policy	Input	Government budget for training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3 items
		Output	Number of participants among personnel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100 economically active people)	
2. Quality Assurance	2-1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Input	Arts education budget of local governments (per capita)	3 items
		Output	Number of arts education facilities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per 100 population)	
	2-2 Teacher Education in Arts Education	Input	Ratio of arts-related majors to all majors in four-year universities	3 items
		Output	Annual training hours for teaching artists (per teaching artist)	
	2-3 Research Informed Practice in Arts Education	Input	Ratio of academic papers in arts-related fields to all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the country	3 items
		Output	Number of academic papers in arts-related	

Core Index	Sub-Index	Division	Qualitative Indicators	Qualitative Indicators
			fields published in the country (per 100 population)	
	2-4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in Arts Education	Input	Number of schools that hire teaching artists (per 100 school-age children)	3 items
		Output	Recipients of arts education in schools (per 100 school-age children)	
	2-5 Partnership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Input	Number of cooperating government agencies for arts education	3 items
		Output	Number of cooperating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3. Social and Cultural Impact	3-1 Advancing Creative & Innovative Culture	Input	SAEI No. 1 Core Index score average
Through put			SAEI No. 2 Core Index score average	
Output			Global Innovation Index (GII) score from WIPO	
3-2 Practicing Social & Cultural Roles of Arts		Input	SAEI No. 1 Core Index score average	3 items
		Through put	SAEI No. 2 Core Index score average	
		Output	Human Development Index (HDI) score from UNDP	
3-3 Cultural Diversity & Responsiveness		Input	SAEI No. 1 Core Index score average	3 items
		Through put	SAEI No. 2 Core Index score average	
		Output	Korean Multicultural Acceptance Index (KMAI) score from the Korean government	
3-4 Global Citizenship		Input	SAEI No. 1 Core Index score average	3 items
		Through put	SAEI No. 2 Core Index score average	
		Output	Global Peace Index (GPI) score from IEP	

○ The SAEI's calculations were designed based on the Laspeyres formula, and financial figures across the years have been adjusted to account for inflation using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 = Baseline year • t = Measurement year • i = Index number • IP = In-put indicators • TP = Through-put indicators • OP = Out-put indic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 Core Index • SU = Sub-Index • CPI = Consumer Price Index • α = Inverted version of CPI to 100
--	--

Formula for Core Index (G)1 & (G)2's Sub-Index	Formula for Core Index (G)1 & (G)2
<p>▶ Basic Formula</p> $SU_{t,i} = \frac{(\frac{IP_{t,i}}{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G_{t,1} = \frac{\sum_{i=1}^4 SU_{t,i}}{4}$
<p>▶ Formula with CPI</p> $SU_{t,i} = \frac{(\frac{IP_{t,i}}{\alpha \times 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alpha = \frac{CPI_t}{CPI_o} \times 100$	$G_{t,2} = \frac{\sum_{i=5}^9 SU_{t,i}}{5}$
Formula for Core Index (G)3's Sub-Index	Formula for Core Index (G)3
<p>▶ Basic Formula for G3</p> $SU_{t,i} = \frac{G_{t,1} + G_{t,2} + (\frac{OP_{t,i}}{OP_{o,i}} \times 100)}{3}$	$G_{t,3} = \frac{\sum_{i=10}^{13} SU_{t,i}}{4}$

- The total value of the SAEI comes with the average values of each core index.
The formula can be expressed as follows.

$$SAEI_t = (\frac{G_{t,1} + G_{t,2} + G_{t,3}}{3})$$

□ Research results

1) Result of evaluating the feasibility of international applicability

- The 1st Delphi survey, which was conducted on foreign expert, evaluated the terminologies and contents validity of appropriateness of operational definitions,

agreement, alignment of SAEI's 3 core index and 13 sub-index by 4 point Likert scale. Consequently, based on 1 as the perfect score,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of all items secured high degree of validity by exceeding the minimum value of 0.56 and scored 0.64 ~ 1.

- 2nd Delphi survey, which assessed the validity of measurement indicator that calculates the core and sub-indexes,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30 categories of quantitative indicators by 5 point Likert Scale and the appropriateness and importance about the content validity of 39 items on the qualitative indicators were examined by the same measure.
- The validity of 30 quantitative indicators of SAEI performed, based on 5(very appropriate) as the perfect score, maximum of 4.6 and minimum of 3.67 thus secured the validity of applicability. The standard deviation,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views among foreign experts, was 0.51~1.37.
- In case of assessing the existence of measurement indicator in each country, while Germany, New Zealand and Israel responded that some of the national statistic existed, experts in Canada, Australia, Singapore, Hong kong(excludes China), Kenya responded that they are not certain whether this data exist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 This revealed that it is extremely challenging to apply each country's common statistic as a measurement indicator in order to achieve each country's SAEI quantitative index.
 - As an alternative, SAEI is designed to allow countries to autonomously select and calculate the measurement indicato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definition of each sub-index. Nonetheless, when a country lacks national statistical data o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the SAEI's quantitative index is considered to be restrictedly applied in terms of the proximity of measurement indicator.
 - Additionally, the fact tha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report system on cultural art education, aggregation method or system that is not transparent and lacks a common terminology have revealed a harsh reality that it can be extremely challenging to apply a standardized quantitative index.
- In case of content validity of SAEI's quantitative indicator (checklist), based on 1 as the perfect score, 38 out of 39 indicators on appropriateness of the questionnaire and

importance performed higher than 0.8. This study's result indicates SAEI indicator for Seoul Agenda performance result evaluation, which can be internationally practiced, can be achieved by utilizing non-measuring approach through qualitative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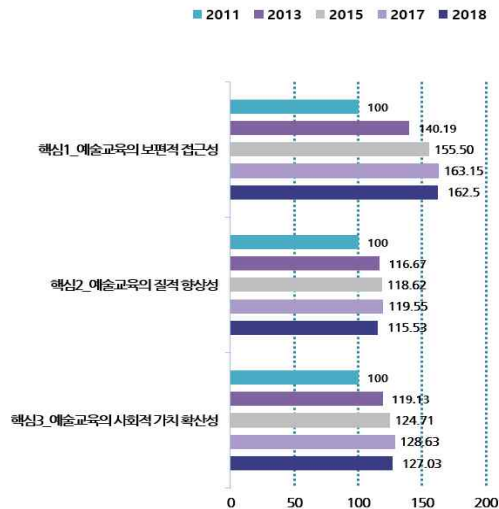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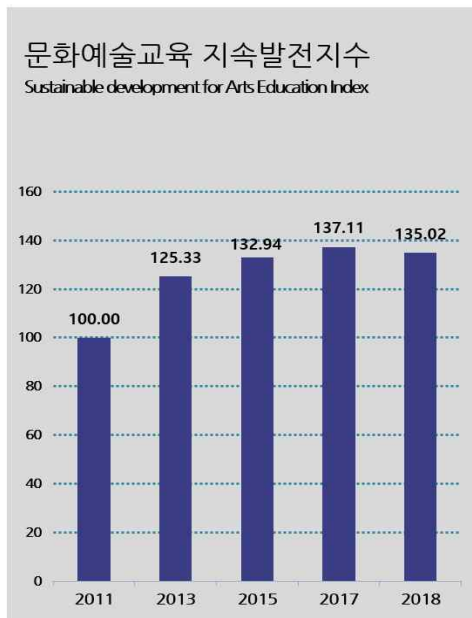
- International expert group considers the international research effort on Seoul Agenda performance result evaluation through SAEI as a positive and meaningful endeavor. The only concern raised was that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is study, the study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of each country and requires a long term effort on how to address the variable that can occur while comparing each country.

2) Assessment Results of the Seoul Agenda the Seoul Agenda in Korea

- In this assessment, 2011, the following year of 2010 Seoul Agenda declaration, is designated as the standard (2011=100) for the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Since 2011(100), Korea's SAEI was biennially calculated except 2018. As a result, the SAEI shows a constant increase from 2013(123.55), 2015(130.08), 2017(134.53), and 2018(132.57).
-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appears as the table below. As a key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rst index of 'Universal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presents a clear increase by years, which can be understood as Korea's arts education has developed and expanded in number during the period.
- However, the result also implies that in order to achieve quality enhancement and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to a similar degree, strategic plans and more investments of resources are required in the Korean context. Especially, the second index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has been stayed on the same level since 2013. This static trend of SAEI quantitative values proved in the 2019 research was also found in the 2018 research.

< SAEI_The Result of Quantitative Indicator Analysis >

Divisions		2011	2013	2015	2017	2018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SAEI)		100	125.33	132.94	137.11	135.02
Core Index 1	Accessibility	100	140.19	155.50	163.15	162.50
Sub-index 1	Holistic Inclusiveness	100	146.92	162.15	164.01	168.00
Sub-index 2	Educational System & Implementation	100	146.41	172.72	185.42	184.90
Sub-index 3	Life-long & Intergenerational Learning	100	203.11	210.66	217.52	208.44
Sub-index 4	Capacity Building for Arts Education Policy	100	64.34	76.46	85.67	88.65
Core Index 2	Quality Assurance	100	116.67	118.62	119.55	115.53
Sub-index 1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100	108.49	115.25	131.10	131.30
Sub-index 2	Teacher Education in Arts Education	100	95.95	72.74	53.38	47.97
Sub-index 3	Research Informed Practice	100	108.17	106.37	103.02	103.02
Sub-index 4	Collaboration & Cooperation	100	131.87	164.32	172.56	171.24
Sub-index 5	Partnership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100	138.88	134.39	132.71	124.10
Core Index 3	Social and Cultural Impact	100	119.13	124.71	128.63	127.03
Sub-index 1	Advancing Creative & Innovative Culture	100	119.73	124.87	130.06	127.84
Sub-index 2	Practicing Social & Cultural Roles of Arts	100	119.14	125.08	128.13	126.50
Sub-index 3	Cultural Diversity & Responsiveness	100	119.86	126.52	128.88	127.08
Sub-index 4	Global Citizenship	100	118.79	122.37	127.46	126.80



○ Qualitative analysis of the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shows 7.64% increase from 3.01 in 2018 to 3.24 in 2019.

○ Listing three core indexes by number, the 'Universal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appears to be the highest with 3.45; the 'Advocating for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is marked as 3.38, and the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shows 2.89. Overall, the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has been the lowest among the three core indexes since 2018 with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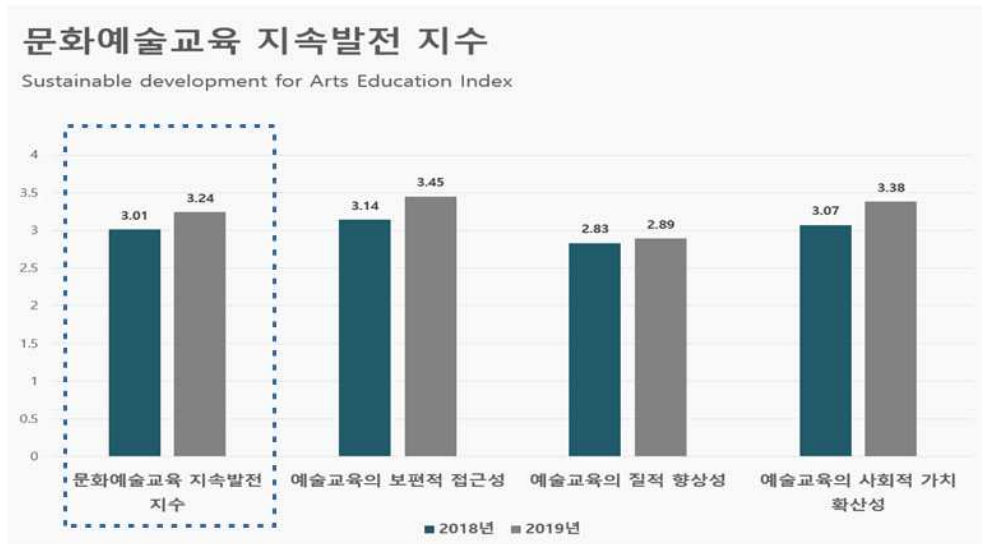
- This result overlaps with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thus it is clear that higher level of attention and strategic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rts education. In addition, that the qualitative analysis coincides with the quantitative results approves the SAEI's effectiveness and validity.

►SAEI_The Result of Qualitative Indicator Analysis

Division		2018 (N=19)	2019 (N=15)	Change Rat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3.01	3.24	7.64%
Core Index 1	Accessibility	3.14	3.45	9.87%
Sub-index 1-1	Holistic Inclusiveness	3.54	3.80	7.34%
Sub-index 1-2	System & Implementation	2.77	3.18	14.8%
Sub-index 1-3	Life-long & Intergenerational Learning	3.12	3.56	1.41%
Sub-index 1-4	Arts Education Policy	3.14	3.27	4.14%
Core Index 2	Quality Assurance	2.83	2.89	2.12%
Sub-index 2-1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3.02	2.80	△ 7.56%
Sub-index 2-2	Teacher Education in Arts Education	2.91	3.02	3.78%
Sub-index 2-3	Research Informed Practice	3.00	2.93	△ 2.33%
Sub-index 2-4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2.68	2.93	9.33%
Sub-index 2-5	Partnership for Supporting Arts Education	2.53	2.76	9.09%
Core Index 3	Social and Cultural Impact	3.07	3.38	10.1%
Sub-index 3-1	Advancing Creative & Innovative Culture	3.02	3.62	19.9%
Sub-index 3-2	Practicing Social & Cultural Roles of Arts	3.21	3.56	10.9%
Sub-index 3-3	Cultural Diversity & Responsiveness	3.25	3.15	△ 3.08%
Sub-index 3-4	Global Citizenship	2.81	3.20	13.9%

3) International Expert Group Survey Analysis by Nations

- In order to measure the different countries'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this research engages with a survey of arts education professionals in different countries, which has been constructed based on the SAEI's qualitative index. Although the number of survey participants is not significant in statistic term, the survey result still entitles its credibility and validity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number of years of the participants' career in the domain of arts education is over 20 years.

- When interpreting the SAEI's qualitative index, one should remember that the numbers generated through analysis by no means represent any type of hierarchical orders of participating nations' advancement in arts education or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It only reflects the survey participants' subjective views yet based on their professional experienc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arts education in their countries.
- This attempt of comparing different countries' SAEI qualitative index is supposed to illustrate how the individual experts perceive their own nation's advancement of arts education based on the SAEI's core and sub-indexes. Therefore, the SAEI qualitative analysis rather aims to display an outline of participating nations' arts education trends, instead of ranking those countries.
- As a result, participants of most countries in this survey except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point out that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is where their countries need to put further efforts for improvement as implementing the Seoul Agenda. This also resembles what has been observed in Korea, and therefore, it suggests that global efforts should take place to improve the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at large.

▶SAEI_The Result of Qualitative Indicator Analysis

Nations	SAEI	Core Index 1	Core Index 2	Core Index 3
Canada (N=10)	2.86	3.00	2.57	3.00
USA (N=6)	2.69	2.67	2.72	2.68
Germany (N=4)	2.80	3.11	2.50	2.79
Australia (N=4)	3.02	2.99	2.81	3.26
New Zealand (N=2)	3.81	4.09	3.37	3.96
Singapore (N=2)	2.91	3.33	2.83	2.58
Netherlands (N=1)	3.01	3.17	3.27	2.58
Bangladesh (N=1)	2.97	2.92	2.00	4.00
The UK (N=1)	3.07	3.09	3.13	3.00
China (N=1)	3.54	3.53	3.50	3.59
Columbia (N=1)	1.58	1.67	1.33	1.75
Kenya (N=1)	3.18	3.83	2.53	3.17
Israel (N=1)	3.13	3.42	2.80	3.17

※ The order or the list are based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 Data collected via online communications and personal interviews from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professionals has been analyzed. Its result demonstrates that even though each country may lie in different circumstances regarding arts education, short in public subsidies and government budgets was addressed as a shared issue in most countries which has prevented enhancing universal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arts education.
- Moreover, we found that in many countries arts education is a part of regular curriculum at schools yet still remains at low priority in education. This implies the need of advocating the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to our society around the globe. The table below is a summary of current state of the arts education by nations.

< Current State of Arts Education in Nations Analyzed by the SAEI Core Index >

Nations	Survey Data Analysis		
Core Index	Universal Accessibility	Quality Assurance	Social & Cultural Impact
South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qual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and its practice by regions • Need to equip the administrative personnel with better understanding of arts education • Short in fu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intermediates including arts educators need to be mature. • Various levels of supporting the three-way cooperation of academ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of identifying clearer definition(s) of cultural diversity • Need to improve in the area of social impact through arts education such as cultural diversity, understanding others, global citizenship

Nations	Survey Data Analysis		
Core Index	Universal Accessibility	Quality Assurance	Social & Cultural Impact
		<p>education by regions have observ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quire arts educator training system for maintaining their growth • Grant opportunities have been available for creating and developing arts education program. 	
Nether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s education in schools is a statutory, obligatory but schools decide how much students' and teachers' time is spent on arts subjects. • Since 2009, government policy focuses on quality of art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ximately 80% of demand for non-formal arts education (i.e., out-of-school classes, the arts as leisure activity) is covered by private providers. • Since 2009, government policy focuses on quality of art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
New Zea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s education if a formal and compulsory part of al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 Arts education is blessed with one national curriculum for the arts (dance, drama, music, visual 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y teachers are not confident to teach arts and their teacher training is not comprehensive enough. 	-
Germ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is a strong belief that arts education cannot be missed. • There is a hierarchy between the fields (e.g., sciences is first.). • Not enough arts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for lower-income families to access. • Short in fu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s education programs mainly focus on the western classical art forms. • Many highly differentiated discourses can be found but not as much practices of high quality arts education. • Short in fu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open the minds of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ited St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ain issue across the country is advocating for arts education in all schools in an equitable manner. • Lack of acknowledging that creative capital 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re partnerships are required between schools and arts and cultural institutions. •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rofessionals, teachers and artists 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should b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social dimension.

Nations	Survey Data Analysis		
Core Index	Universal Accessibility	Quality Assurance	Social & Cultural Impact
	<p>generated by arts edu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cher shortage • Lack of funding 	<p>needed to be cultivated through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p>	
Singap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s education provision is compulsory in all government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 Arts is still not considered important in education system as compared to hard sciences. • Arts education is also growing within the informal and non-formal sectors with strong support from the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is not enough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artists and funding for research in arts. • In terms of continue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music/visual art teach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set up the Singapore Teachers Academy for the Arts to provide a wide range of in-service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is a movement toward greater cultural diversity and inclusion in arts education provisions.
Isra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are great awareness for the values of the arts and good arts education programs, however, there is not sufficient budget for implementation. • There are extreme gaps between the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referring to arts education based on household income levels. 	-	-
Keny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trans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a new curriculum. • There is now recognition of talent and honing skills and capacities through formal arts education and training. • Arts education is still not favored by many parents. • Big challenge of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 enough trained teachers • Not much happening nationally between artists and teachers. • In often cases, arts educators may work alone. 	-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tralian arts education has been a way of developing creating thinking and visualizing social and cultural age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y arts educators and practitioners have reinforced diverse ways of integrating artistic and creative thinking and practices in the a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urrent issue in the arts education is how to create more creative spaces to discuss 'diversity' and social

Nations	Survey Data Analysis		
Core Index	Universal Accessibility	Quality Assurance	Social & Cultural Impact
	<p>for individuals and groups at schoo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rts education still places in the educational hierarchy, which always put the literacy and numeracy as the first tier. A curriculum plan introduced to implement a new agenda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arts education and other areas between 2019 to 2025. 	education.	<p>inclusion' by integrating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dialogue in schools, communit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curriculum plan introduced to implement a new agenda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arts education and other areas between 2019 to 2025.

□ Implications of the Study

-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outcomes, we propose actions plans and guidance for the related stakeholder groups as follows to implement the Seoul Agenda at best.

Stakeholder	Implication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mproving statistic data and supporting the producing entities of such data
	Supporting local institutions for their autonomous governance in arts education
	Developing three-way-governance of academe, private, and public for practice and support of arts education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s (KACES)	Advocating the values and understanding of the Seoul Agenda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Developing supporting mechanism and creating supportive circumstances for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Developing effective training programs and assessment tools for arts educators and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Developing structured monitoring system for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Assuring credibility of the research and statistic data conducted by the KACES and Opening up the information to share with the public
	Adopting SAEI as a evaluating tool for accessing national arts education policy projects in nation-wide

Stakeholder	Implications
	Strategic planning for proper use and application of the SAEI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distinctively
	Planning for a long-term collaboration and step-by-step strategie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SAEI
Local and Provincial Public Agencies	Developing local recourses of arts education
	Increasing supports for proactive cooperation between arts education organizations/institutions and schools
	Expanding support fo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arts education
Academia	Advocating action research and praxis for arts education field
	Researching cases and best practices
	Supporting research and constant research interests about the Seoul Agenda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체계	7
3.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로직모형	18
 II. 연구의 방법	 23
1. 연구의 설계와 구성	25
2. 연구내용 및 절차	27
3. 연구방법	29
 III. 서울어젠다의 개요와 지수 및 지표개발 선행연구	 41
1. 서울어젠다의 의미와 성과	43
2. 지수와 지표의 적용과 산출	48
3. 지수 및 지표 개발 국내 연구사례	50
4. 지수 및 지표 개발 국외 연구사례	65
5. 교육 및 관련 분야 국제지수 개발 연구사례	81
 IV. SAEI의 정량지표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 점검	 93
1.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량적 점검 개요	95
2.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량적 점검 결과	99
3.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16

목차

V. SAEI의 국외 전문가 검증과정과 타당성 조사	120
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증	123
2. 1차 델파이 조사 정성적 검증	135
3. 2차 델파이 조사 정성적 검증	140
VI. SAEI의 정성지표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국가별 비교 분석	153
1. SAEI의 정성지표 조사 개요	155
2. 한국 SAEI의 정성지표 조사결과: 2018년도와 2019년 비교	157
3. 국가별 SAEI의 정성지표 조사 비교결과	164
4.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적 특징	168
VII. 결론	181
1. 연구결과	183
2. 정책제언	189
참고문헌	203
부록	211
1. 1차 델파이 국외 전문가 조사 설문지	213
2. 2차 델파이 국외 전문가 조사 설문지	226
3. 3차 델파이 국외 전문가 조사 설문지	244
4. 3차 델파이 국내 전문가 조사 설문지	249
5. 서울어젠다 전문 (영문, 국문)	257

표 목차

〈표 I-1〉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04
〈표 I-2〉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핵심지수 및 세부지수의 정의	10
〈표 I-3〉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량지표	14
〈표 I-4〉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성지표(체크리스트)	15
〈표 II-1〉 유니트윈 핵심 회원국 명단	33
〈표 II-2〉 1차 2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외자문단 리스트	33
〈표 II-3〉 3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내외 전문가 리스트	35
〈표 II-4〉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일시	37
〈표 III-1〉 국내 지표·지수 개발 관련 주요 연구 사례	50
〈표 III-2〉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 및 절차 요약	51
〈표 III-3〉 지표의 적격성 조사 방법	60
〈표 III-4〉 예술지수 개발연구 지표와 통계자료의 출처	62
〈표 III-5〉 국외 지수개발 관련 주요 연구 사례	65
〈표 III-6〉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 및 절차 요약	66
〈표 III-7〉 해외 지표·지수 개발 관련 주요 연구 사례	81
〈표 III-8〉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전개 과정	82
〈표 III-9〉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5)와 지표	88
〈표 IV-1〉 이행실적 점검 개요	95
〈표 IV-2〉 이행실적 점검 조사의 정량지표 및 자료수집 개요	97
〈표 IV-3〉 이행실적 점검 조사와 정량지표 및 자료수집 개요	97
〈표 IV-4〉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량지표 산출결과	99
〈표 IV-5〉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100
〈표 IV-6〉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105
〈표 IV-7〉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111
〈표 IV-8〉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요약	116

〈표 IV-9〉 3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요약	117
〈표 IV-10〉 2차와 4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요약	118
〈표 IV-11〉 5차와 6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요약	120
〈표 V-1〉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제자문단 리스트	123
〈표 V-2〉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명칭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125
〈표 V-3〉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125
〈표 V-4〉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명칭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126
〈표 V-5〉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정의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126
〈표 V-6〉 예술교육의 질적향상성의 정의에 대한 적합성 평점과 타당도	127
〈표 V-7〉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정의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128
〈표 V-8〉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측정지표별 적합성의 평점	129
〈표 V-9〉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측정지표 적합성의 평점	129
〈표 V-10〉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측정지표 적합성의 평점	130
〈표 V-1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정성지표의 적합성과 중요성 분석결과	131
〈표 V-1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정성지표의 적합성과 중요성 분석결과	133
〈표 V-1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정성지표의 적합성과 중요성 분석결과	134
〈표 V-14〉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135
〈표 V-15〉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136
〈표 V-16〉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137
〈표 V-17〉 핵심지수와 세부지수 정의에 대한 국외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138
〈표 V-18〉 델파이 조사 참여 국외자문단 리스트	140
〈표 V-19〉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자문단 의견 분석 결과	141
〈표 V-20〉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142
〈표 V-2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 정의에 대한 국외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145
〈표 V-22〉 국가별 SAEI 핵심지수 1의 정량지표별 현황	146
〈표 V-23〉 국가별 SAEI 핵심지수 2의 정량지표별 현황	148
〈표 V-24〉 국가별 SAEI 핵심지수 3의 정량지표별 현황	150
〈표 VI-1〉 3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내외 전문가 리스트	155

〈표 VI-2〉 국내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	157
〈표 VI-3〉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	164
〈표 VI-4〉 SAEI 핵심지수를 통해 본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	168
〈표 VI-5〉 인간개발지수 상위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	171
〈표 VII-1〉 SAEI: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량지표 종합 산출결과	185
〈표 VII-2〉 SAEI: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성지표 종합 산출결과	187
〈표 VII-3〉 SAEI: 서울어젠다 국가별 이행실적 정성지표 종합 산출결과	188

그림 목차

〈그림 I-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구조	8
〈그림 I-2〉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종합: SAEI의 로직모형	15
〈그림 I-3〉 서울어젠다 목표와 SAEI의 핵심지수 관계도	17
〈그림 II-1〉 연구 체계도	25
〈그림 II-2〉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의 단계별 구성	27
〈그림 II-3〉 서울어젠다 이행 점검 연구 흐름도	29
〈그림 III-1〉 모두를 위한 교육 6대 목표(UNESCO, 2015)	83
〈그림 III-2〉 모두를 위한 교육 다카르 행동계획 12대 전략(UNESCO, 2015)	83
〈그림 III-3〉 EFA 개발지수 구성(UNESCO, 2015)	84
〈그림 III-4〉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United Nations, 2015)	87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체계
3.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로직모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이 연구는 2011년 제 36회 UNESCO 파리총회에서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2010 서울어젠다: 예술교육의 발전목표(Seoul Agenda: Goals for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의 국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수행된 <2018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김인설 외, 2018)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었음.
- 연구의 목적은 2018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를 보완 및 적용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의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표준화된 국제 지수로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었음.
- 연구의 배경은 2010년 5월 UNESCO와 한국정부가 공동 주최한 「제2차 UNESCO 2010년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로부터 시작됨. 이 대회에서 발의 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의 발전목표’는 일 년 뒤인 2011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6차 UNESCO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이로 인해, 「제2차 UNESCO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었던 5월 넷째 주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되며 매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다루는 논의의 장으로 기능해 왔음.
- 서울어젠다의 근간이 된 제 「1차 UNESCO 2006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리스본 어젠다: 예술교육을 위한 로드맵’이 예술교육의 방향과 의의를 제시한 것이라면, ‘서울어젠다’의 의의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예술 실천을 촉구하고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며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 지침을 전 세계에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서울어젠다의 채택으로 인하여 서울 대회의 역사성이 부여되었으며, 향후 세계 예술교육 발전에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리라고 평가되어 왔음(김영연, 이영애, 2010).
-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9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0차 UNESCO 총회에서 ‘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 증진’ 결의안이 채택되었음. 이 결의안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통해 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UNESCO 회원국의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이행 안의 실행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음.

- 이어서 우리 정부는 2020년 5월 UNESCO의 연구프로그램인 유닛윈(UNITWIN: Arts Education Research for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연례학술회의와 연계하여, '서울어젠다 10년, 새로운 길을 열다'(가제)를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10년 비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더불어 9월에는 세계 예술강사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 대회(ITAC5, International Teaching Artistry Collaborative)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임.
- 이러하듯 서울어젠다의 의의와 가치는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선언문이 아닌 UNESCO 회원국의 동의와 실천, 그리고 평가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서울어젠다 선언을 이끈 주도국인 동시에 2019년 '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 증진' 결의안을 요청한 한국은 UNESCO의 193개 회원국과 준회원인 11개 국가(2019년 1월 기준) 중 누구보다도 서울어젠다의 모범적인 실천과 이행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어젠다는 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입(input) 및 과정(throughput),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문화적 발전의 결과(output/outcome)를 주요 골자로 3개의 상위목표와 이에 따른 13개의 전략 및 46개 실행방안을 제공한 바 있음. 아래는 서울어젠다가 제시하는 3개 주요목표와 13개의 전략임.

〈표 1-1〉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서울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	
목표1	예술교육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1	어린이, 청소년 및 평생학습자의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능력을 조화롭게 계발하는 바탕으로서의 예술교육을 주창한다.
전략 2	예술교육을 통해 교육 시스템과 구조를 건설적으로 변화 시키도록 장려한다.
전략 3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과 세대 간 교육 시스템을 수립한다.
전략 4	예술교육 리더십 강화, 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예술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을 축적한다.
목표 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질적 수준을 확립한다.
전략 1	지역의 요구사항, 인프라, 문화적 맥락에 맞는 예술교육을 위하여 합의를 통해 높은 기준을 개발한다.

전략 2	교육자와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연수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전략 3	예술교육의 연구와 실천사이의 상호교류를 장려한다.
전략 4	학교 안팎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자 사이의 협력을 장려한다.
전략 5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 간의 예술교육 협력관계를 시작한다.
목표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전략 1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예술교육을 적용한다.
전략 2	사회·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시킨다.
전략 3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및 문화 상호 간 대화를 증진하는 데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높인다.
전략 4	예술교육으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운다.

- ‘서울어젠다’의 활용방안으로 제시된 위의 전략들은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집행, 평가하며, 어젠다의 실천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개혁의 모델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며 거버넌스 구축과 실천적 연구에 대한 지침까지 포괄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 이러한 대외적 성과와는 모순적으로, 서울어젠다 선언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이를 주도한 한국의 실천적 변화와 성과에 대한 자기점검 및 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음. 예시로 국내의 경우 서울어젠다에 관련한 보도자료, 칼럼 등은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정식 학술주제로 선택하여 기술한 정책보고서나 연구보고서, 학술논문은 10편 내외로 학계 및 정부 연구기관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구글 학술자료 검색엔진 2019년 11월 30일 기준).
- 해외의 경우, 서울어젠다를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학술 논문 및 보고서, 서적 등은 구글의 학술자료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한 결과 430여 개가 집계되었음(국내논문 검색 일자와 동일). 추가적으로 201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세계예술교육자연맹인 WAAE(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의 제9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2010년 서울어젠다 이후의 무엇이 일어났는가?>(원제: What's happened since Lisbon Road Map 2006 and Seoul Agenda 2010?)를 주제로 약 45개국에서 참여한 150명의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음.
- 202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서울어젠다 10주년 계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와

UNITWIN 연례회의 그리고 9월 예정인 제 5회 국제예술강사대회(International Teaching Artist Conference, ITAC)를 앞두고 서울어젠다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임.

1.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이 연구는 2018년 연구에서 고안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보완, 적용하여 한국의 지난 10년간의 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변화의 특징을 밝히고, 국제지수로서 SAEI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적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서울어젠다의 3개 핵심목표와 13개 전략에 기초하여 3개의 핵심지수, 13개의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의 정량지표(투입지표 13개, 과정지표 4개, 산출지표 13개)와 3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형태의 정성지표로 설계되었음.⁷⁾
 - SAEI의 정량지표 종합 값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보고통계⁸⁾와 국제지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11년으로 설정하고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까지 2년 주기 변화와 함께 최근 2018년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 SAEI의 정성지표는 정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한계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해석을 돕도록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설계함.
 - SAEI의 로직모델의 이론적 설계는 프로젝트 프레임워크(Project Framework)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음. SAEI의 정량지표 산출방식은 해당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라스파이레스의 산식(Laspeyres' Formula)을 참고하여 완성되었음.
- 최종적으로 SAEI를 적용한 국내 이행실적 점검, 국외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SAEI의 국제화 가능성 타진, 그리고 이를 적용한 국가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유용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2020년 서울어젠다 수립 1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공유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에 국제적 담론을 대입한 기초 자료로 쓰이길 기대함.

7) 이 외에 추가적으로 9개의 과정지표가 존재하나, 지수산출의 간략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합지수의 산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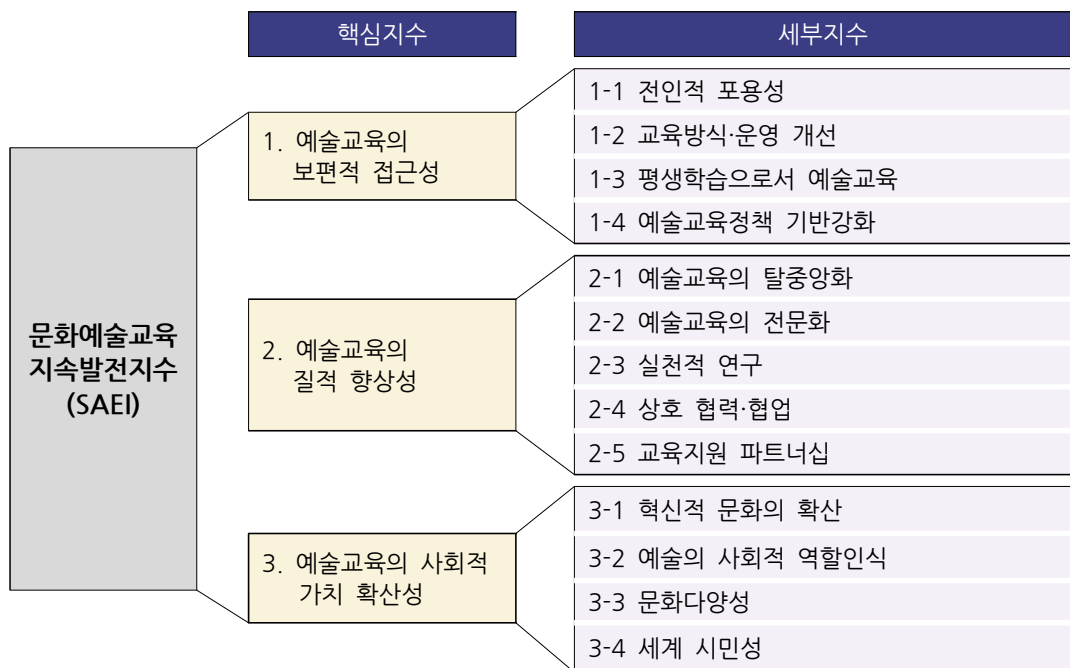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해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 신고, 등록, 신청 등 서류상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집계함으로써 작성한 통계(통계교육원, 2015)

2.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체계

2.1 지수의 구성개념

- 서울어젠다는 예술교육의 3가지 실천적 목표와 이에 따른 13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3개의 핵심지수인 ①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②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③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과 이를 반영하는 13개의 세부지수로 구성되었음.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란? 서울어젠다의 3개 목표와 13개 전략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①보편적 접근성, ②질적 향상성, ③사회적 가치 확산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



〈그림 1-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구조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는 서울어젠다에서 제시된 목표와 전략, 실천 방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서울어젠다의 3개 목표와 이를 위한 13개 전략에 해당하는 핵심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됨.

2.2 주요개념의 정의

- 지수(Index)란, 지표 체계 상 복수의 지표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를 도출하는 합성 측정(Composite Measurement) 방식 중 하나임. 즉, 구체적인 숫자 자체의 크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적, 수량, 가격 등 해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산출하는 산식을 동반한 값임(김창환, 2013).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서울어젠다를 기반으로 예술교육과 관련된 투입, 과정, 산출을 기준시점에 대비하여 비교하려는 표준화된 종합수치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정량적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 가중치, 지수산식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적용에 대해 국가 간 비교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점과 기초단계 연구임을 고려하여 산식에서 제외하였음. 단, 지수산식에 있어 예산과 관련된 항목은 소비자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을 참고하여 개발함.
 - 이 연구에서 기준시점은 2011년도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량적 종합 지수 값과 핵심지수, 하위지수의 값은 모두 100으로 설정하였음.
- 지수(Index)의 장점으로서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요약이 가능하며, 복수의 지표보다 이해 및 해석이 용이하고, 시계열 변화 관찰 및 평가가 편리함. 그러나 단점으로는 지수개발에 있어 정해진 특별한 규칙이 없으며, 중요한 하위 차원의 지표들이 문힐 가능성이 있고, 단순한 결론 및 정책에 이를 위험성과 함께 편의에 따라 오용될 가능성도 잠재함(변준석 외, 2019).

Ⅰ 지수(Index)의 장점과 단점 Ⅰ

장점	단점
복잡다단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요약	작성과정의 자의성/정해진 규칙 없음
복수의 지표보다 이해/해석하기 쉬움	중요한 하위 차원/지표들이 문힐 가능성
시계열 변화 관찰 및 평가가 용이함	단순한 결론/정책에 이를 위험성
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도 용이	편의에 따라 오용될 가능성

(출처: 변준석 외, 2019 p.9)

- 지표(Indicator)란, 하나의 기호로서 기능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됨(서민원, 2004).

Ⅰ 지표(Indicator)의 구분 Ⅰ

구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
특 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음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 예술강사 연수 건수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 연수 만족도 • 서울어젠다 인지도 • 연구의 현장 기여도

- 이 연구에서 지표란 특정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준거를 제시하는 척도로, 세부적 용어에 대한 정리는 아래와 같음.
- 측정지표(Measurement Indicator): 문화예술교육분야의 현황을 수치화 한 데이터로 정량적 측정지표의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자료에 준하여 지속적 추출이 가능한 통계자료를 일컬음. 단, 정성지표는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비계량적 항목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평정한 점수의 합을 뜻함.
- 투입지표(Input Indicator): 예술교육에 투입된 자원, 인력 등으로 사업추진의 생산성을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는 통계 수치임.
- 과정지표(Throughput Indicator): 사업 추진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 수치로 대부분 프로그램 수, 주당 수업 시수 등이 과정지표로 분류됨. 그러나 이는 그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교육의 질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기에 중간단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결과물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보조지표로 사용하며 산술식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함. 이는 지수의 산술방식에 있어 과도한 측정지표의 변량으로 인해 지표의 활용도 저하를 막기 위함이기도 함.
- 산출지표(Output Indicator): 산출지표는 예술교육에 투입된 자원이나 인력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근간으로 수혜자 수, 참여기관, 시설 수 등의 통계 수치가 활용됨. 그러나 산출지표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완벽하게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음.

- SEAI는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통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각 국가나 지역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성지표(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음.

- 정량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과정의 로직모델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각 세부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기존의 국내 통계자료 및 국제지수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음.

- 정성지표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리커트 척도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음.

2.3 SAEI의 핵심지수 및 세부지수의 정의

- SAEI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역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지수임. 이는 연구자가 SAEI의 산출방식을 활용하되, 핵심지수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과 이에 해당하는 13개 세부지수의 개념에 의거하여 각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맞는 타당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가용성(accessibility)이 충족된 측정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임.
- 즉, 국가나 지역별로 데이터 수집의 방법이나 기준, 범위,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울 어젠다를 기준으로 재구성된 각 핵심지수와 세부지수 정의에 가장 타당한 측정지표를 스스로 선택하여 산출식에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설계함.
- 따라서 SAEI는 시간적 속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국가별 발전 정도와 추이를 비교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연도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수준을 비교 또는 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고안된 지수가 아님.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에서의 핵심지수는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이며, 지수별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1-2〉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핵심지수 및 세부지수의 정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정의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연령, 성별, 사회적 배경, 종교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의 정도
세 부 지 수	[1-1] 전인적 포용성	어린이와 청소년, 평생학습자들의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의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과 노력 정도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교육시스템 내 문화예술교육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의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존 교육구조와 방식의 변화를 이끄는 데에 기여하는 정도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모든 연령층의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조직에서 평생학습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도와 세대 간 이해를 돕는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정도
	[1-4] 예술교육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실천가 및 연구자의

		기반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정도 및 문화예술교육 중요성에 대한 시민과 조직의 인식 고양을 위한 노력 정도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수립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합의된 교육과정표준, 문화예술교육자 양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와 평가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실천적, 연구적 측면의 노력 정도
세 부 지 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지역의 필요, 인프라, 문화적 맥락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관련 기관 및 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한 후, 합의되고 개발된 표준적 지표의 적용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학습 체제를 통한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의 시행과 질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의 정도
		[2-3] 실천적 연구	문화예술교육의 이론, 연구, 실천을 연결하고 우수사례 및 우수연구를 공유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기여의 정도
		[2-4] 상호 협력·협업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예술가 간의 협력 방식의 다양성과 개방성 정도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부기관들과 민간단체들 간의 투명하고 수평적인 소통 및 협력의 정도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예술교육이 기여한 정도로서, 사회 전반에서 직·간접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지속적 및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정도
세 부 지 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하여 개인 및 사회 구성원들 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소통이 새로운 감수성을 형성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문화를 새롭게 혁신적으로 만드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활동이 사회적·문화적 '잘 삶'이라는 개인적,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정도
		[3-3]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예술적 표현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민주적 공공성의 가치가 사회의 통합과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정도
		[3-4] 세계 시민성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범세계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발전 가능한 세상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 지수의 산술방식은 2011년을 기준으로 각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라스파이레스의 산식(Laspeyres' Formula)을 참고하여 완성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 = 기준 연도 • t = 해당 연도 • i = 지수 번호 • IP = 투입지표값(In-put) • TP = 과정지표값(Through-put) • OP = 산출지표값(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 핵심지수(Goal Index or Core Index) • SU = 세부지수(Sub-Index) (i.e., $G_{t,1}$는 해당 연도의 핵심지수 1번 값을 의미함) (i.e., $SU_{t,1}$는 해당 연도의 세부지수 1번 값을 의미함) • CPI =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 α = 기준 연도의 CPI를 100으로 환산한 CPI
---	---

핵심지수(G)1 & 핵심지수(G)2의 세부지수(SU) 산술식	핵심지수(G)1&2의 산술식
<p>▶ 기본 산출식㉠</p> $SU_{t,i} = \frac{(\frac{IP_{t,i}}{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G_{t,1} = \frac{\sum_{i=1}^4 SU_{t,i}}{4}$
<p>▶ 투입지표가 예산액일 경우, 산출식㉠ 적용 [당해 연도 투입지표에 환산된 소비자물가지수(α) 반영]</p> $SU_{t,i} = \frac{(\frac{IP_{t,i}}{\alpha \times 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alpha = \frac{CPI_t}{CPI_o} \times 100$	$G_{t,2} = \frac{\sum_{i=5}^9 SU_{t,i}}{5}$
핵심지수(G)3의 세부지수(SU) 산술식	핵심지수(G)3의 산술식
<p>▶ 목표3의 세부지수 산출식㉡</p> $SU_{t,i} = \frac{G_{t,1} + G_{t,2} + (\frac{OP_{t,i}}{OP_{o,i}} \times 100)}{3}$	$G_{t,3} = \frac{\sum_{i=10}^{13} SU_{t,i}}{4}$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최종지수는 각 핵심지수의 평균값으로 산술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함.

$$SAEI_t = \left(\frac{G_{t,1} + G_{t,2} + G_{t,3}}{3} \right)$$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산술식은 소비자물가지수와 경제지수산출에 자주 사용되는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을 참고하여 고안되었음. 기준시점 값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려는 시점의 값 대비 이후 얼마나 상승 혹은 하강하였는지를 구하는 계산식으로 변화의 양을 측정함(기준시점은 서울어젠다가 선포된 2011년임).
- 지수의 종합 값을 산출하기 위한 정량적 측정지표의 원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보고통계 자료와 국제지수를 활용하였음. <2018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2011년, 2014, 2017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시범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9년 연구에서는 조사범위를 더욱 촘촘히 하여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을 지수측정 대상 연도로 선정하고 2년 주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음.

2.3 SAEI의 측정지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정량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정량지표는 투입, 과정, 산출과정의 로직모델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음. 측정지표의 경우 가장 우선 선택의 기준을 국가통계 중 타당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가용성(accessibility)을 고려하여 선택하였으며, 국가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백서를 활용하였음.
- SAEI의 지수는 30개의 정량지표(투입지표 13개, 과정지표 4개, 산출지표 13개)와 39개 문항의 정성지표(체크리스트)로 구성됨⁹⁾.
- 추후 SAEI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투입지표 또는 산출지표 값만을 활용하여 지수의 산출방식을 간략화하고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9) 2019년 연구는 2018년 연구에서 도출된 42개 정량적 측정지표 중 과정지표 12개를 제외한 투입과 산출지표를 산술식에 적용하여 최종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총합을 도출하였음. 이는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과도한 측정지표의 변량 값으로 지수의 활용도가 저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임.

〈표 1-3〉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량지표

핵심 지수	세부 지수	구분	정량적 측정지표	자료출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1 전인적 포용성	투입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정부 예산 (인구 1인당)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열린 재정)
		산출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인구 100인당)	국정모니터링지표 (e-나라지표)
	1-2 교육방식 운영개선	투입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3 평생학습 으로서 예술교육	투입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교육 예산액 (인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혜자 수 (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 예술교육 정책 기반강화	투입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경제활동인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 (경제활동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투입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액 (인구 1인당)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산출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시설 수 (인구 100인당)	문화체육관광부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투입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지원학교 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출	학교·사회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 (예술강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3 실천적 연구	투입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산출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예체능 분류 논문 발표 수 (인구 100인당)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4 상호 협력·협업	투입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예술강사 채용 학교 수 (학령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투입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예술교육의 사회적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SAEI 핵심지수 1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SAEI 핵심지수 2
		산출	WIPO 세계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핵심 지수	세부 지수	구분	정량적 측정지표	자료출처
가치 확산성				(WIPO)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SAEI 핵심지수 1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SAEI 핵심지수 2
		산출	UNDP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 (UNDP)
	3-3 문화다양 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SAEI 핵심지수 1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SAEI 핵심지수 2
		산출	다문화수용성 지수	국가통계포털
	3-4 세계시민 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SAEI 핵심지수 1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SAEI 핵심지수 2
		산출	IEP 세계평화지수	경제평화연구소 (IEP)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비계량적 측정을 위한 정성지표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리커트 척도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음.
- 정성지표의 경우,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이 SAEI를 통해 최초로 이루어진 2018년을 기준으로, 2018년과 2019년 결과가 비교가능함.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체계적인 전문가 패널 구성을 통해 참여자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음.

〈표 1-4〉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성지표(체크리스트)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정성적 측정지표 (체크리스트 문항)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 부 지 수	[1-1] 전인적 포용성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가?
		동시대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창의적, 인지적, 정서적, 심미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가?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학교 내 교육현장에서 예술과 연계한 교과 간 융합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예술교육을 매개로 예술 강사, 학교 교사, 교육행정가 간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상호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예술교육의 원리가 학교 내 타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정성적 측정지표 (체크리스트 문항)	
		있는가?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다양한 학습자들이 각 지역과 조직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전통예술과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문화예술교육 관계부처 및 정책입안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실천가 및 연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시민과 조직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으로 독려되고 있는가?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 부 지 수	[2-1] 문화예술교육의 탈중앙화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교사 및 예술가의 예술교육 전문성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학습 절차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예술교육자(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가?	
	[2-3] 실천적 연구	예술교육 연구들은 실행연구 등을 통해 예술교육현장의 발전에 실천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예술교육 실천과 이에 대한 연구의 우수사례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가?	
		자국의 예술교육 우수 사례 및 연구가 공유되어 세계 예술교육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2-4] 상호 협력·협업	학교 내 예술가와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또는 협업을 하는가?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예술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예술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 협력 또는 협업이 이루어지는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정성적 측정지표 (체크리스트 문항)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실천을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조직,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 간의 협력 관계가 수평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의 협력관계가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 부 지 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적, 혁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도록 시행되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전반의 창의적, 혁신적 역량 강화에 충분히 기여하였는가?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는가?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사회적, 문화적 잘 삶을 위한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사회적 갈등 또는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치유적(복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인식이 사회적·문화적 ‘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3-3] 문화다양성	학습자들의 특수한 상황(저소득층, 장애, 이민자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표현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술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및 교수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3-4] 세계 시민성	문화예술교육은 전 지구적 주요문제(환경오염, 전쟁,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하는가?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와 소통하는 것을 돕고 있는가?	
		③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3.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로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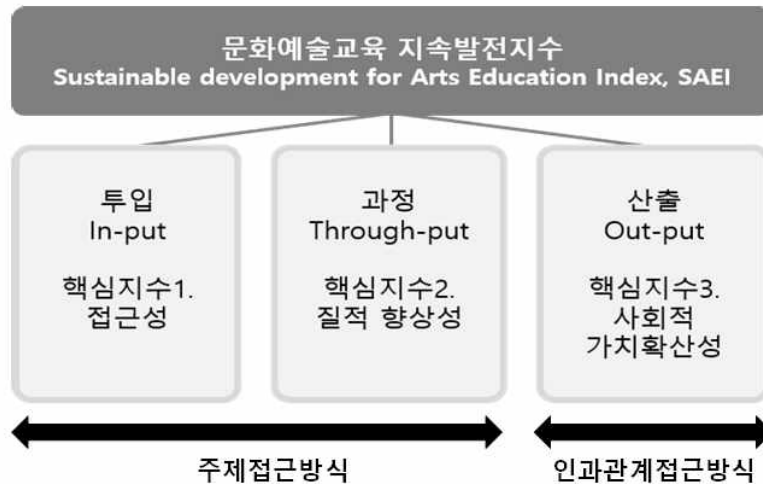
3.1. SAEI의 로직모형 구성단계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서울어젠다에 포함된 구체적인 전략 및 실천방안에 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어젠다의 3개 목표와 13개 전략에 해당하는 핵심개념을 각각 도출하여 구성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서울어젠다에 근거해 핵심지수, 세부지수, 정량적 측정지표와 정성적 측정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산술방식을 요하는 정량지표의 경우, SAEI의 로직모형 구조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프레임워크란 측정대상 또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이론체계로서, 측정대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이론적 개념 지도를 의미함(변준석 외, 2019).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프레임워크는 서울어젠다에서 제안한 목표와 전략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임.
- 프레임워크 구축 방법은 크게 주제접근방식(theme framework)과 인과관계접근방식(cause-effect framework)이 있으며(김정석 외, 2013), SAEI의 프레임워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프로젝트 프레임워크(project framework)를 따르고 있음.
 - 주제 접근 방식(theme framework)을 통한 로직모형은 각 핵심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주제별로 측정지표를 구축하는 방식임.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과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측정지표가 이에 해당됨.
 - 인과관계 접근 방식(cause-effect framework)은 핵심지수 3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로직모형의 이론적 체계로 사용되었음.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 이러한 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지표를 도출하는 구조임.
 - 인과관계접근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OECD의 PSR구조와 이의 변형인 DSR구조와 DPSIR구조가 있으며, 주제접근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과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이 있음(이주현 외, 2011)
- 주제접근방식과 인과관계접근방식을 혼합한 분석틀을 가진 혼합 프레임워크를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라 칭함. 대표적으로 교육영역에서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하며, 교육자원과 기회, 과정과 활동은 주제접근방식으로, 결과와 성과는 인과관계접근방식으로 적용함(김정석 외, 2013).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핵심지수1: 예술교

육의 보편적 접근성’과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은 주제접근방식으로,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은 핵심지수1과 핵심지수2의 결과로서 투영된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과관계접근방식으로 풀어냄.

3.2. 프로젝트 프레임워크(Project Framework)의 이론적 근거

- 본 연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서울어젠다에 예술교육의 3개 주요영역(핵심지수)과 13개 하위영역(세부지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투입지표→과정지표→산출지표의 세 단계를 거치는 인과 구조를 가진 지수임.



〈그림 1-2〉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종합: SAEI의 로직모형

- 인과관계접근방식을 통해 구현되는 세부지수 3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즉,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은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투입지표로,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을 과정지표로 상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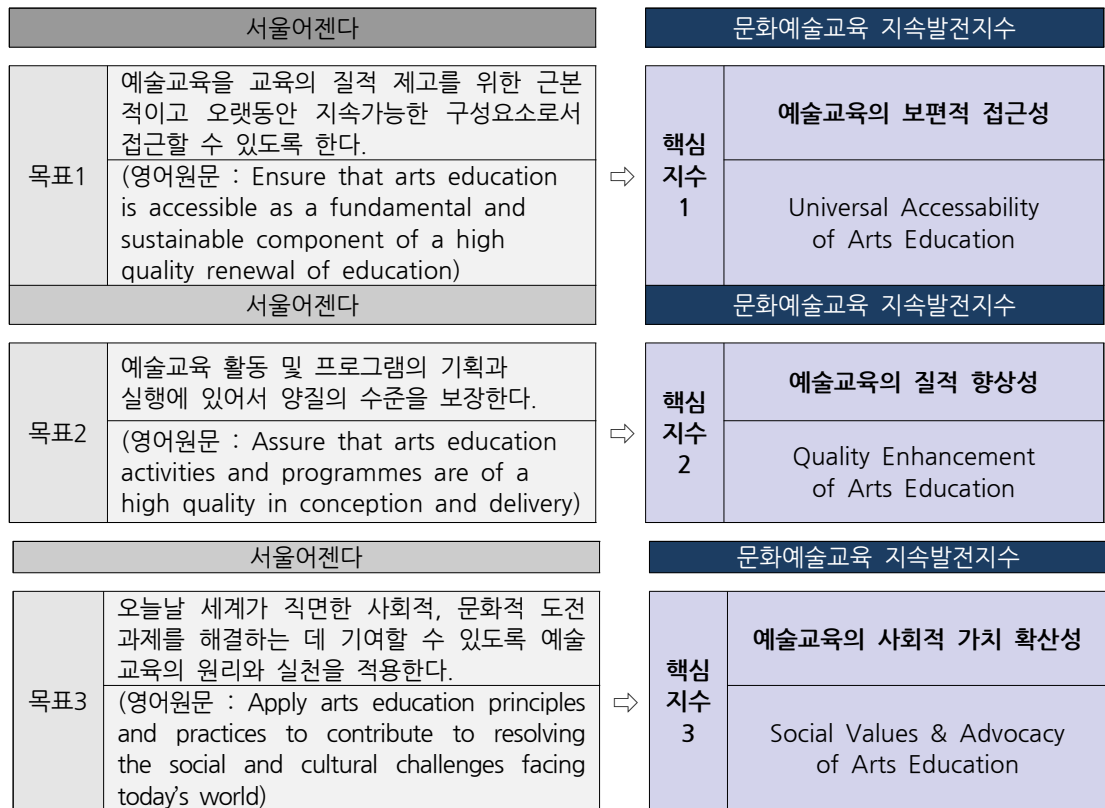
※핵심지수 3($G_{t,3}$)의 산출식

{(핵심지수 1 최종값 $G_{t,1}$ + 핵심지수 2의 최종값 $G_{t,2}$) + 세부지수 산출값 } $\times 1/3$

$$SU_{t,i} = \frac{G_{t,1} + G_{t,2} + \left(\frac{OP_{t,i}}{OP_{o,i}} \times 100 \right)}{3}$$

$$G_{t,3} = \frac{\sum_{i=10}^{13} SU_{t,i}}{4}$$

- 아래의 <그림1-3>과 같이, SAEI의 핵심지수 1과 핵심지수 2에 해당하는 서울어젠다 목표 1과 2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목표 3은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 · 문화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표방하는 것으로 규정됨. 결과적으로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이 해당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어야 하는 핵심지수 3은 태생적으로 무척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림 1-3> 서울어젠다 목표와 SAEI의 핵심지수 관계도

- 이와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접근방식의 논리에 따라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의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는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질적 향상성이 종합적으로 담보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값으로 상정하였음. 즉, 문화예술교육이 사회 전반적으로 접근 가능해지고 질적인 부분이 만족스러울 때 인과적 추측을 통해 예술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획득되는 가치도 점진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꾸준한 노출빈도와 질 높은 수업에서 비롯된 훌륭한 미적경험이 결

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이미 다각적 차원에서 발표되어 온 바 있음.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핵심지수3의 세부지수에 해당하는 문제해결능력으로서의 혁신성, 문화다양성, 세계시민성,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은 더 이상 새로운 논리가 아님.

○ 예시로 수많은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예술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핵심지수 3의 산출방식에 적용된 인과관계모형의 논리를 지지함. 특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장기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 결과는 예술교육과 사회적 성장의 관계에 대해 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있음.

- Catterall(2012)이 참여한 미국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연구는 미국 교육부와 노동부의 지원으로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까지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4개의 종단 패널 데이터(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88, the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lass of 1998-1999, and the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of 1997)를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바 있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경험과 학업 성취도, 자원봉사, 투표, 지역사회 활동과 같은 시민행동,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간의 관계성을 규명하여, 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부터 청년기까지의 생애주기에 따라 학교, 사회, 노동시장에서 창출하는 긍정적 가치를 제시하였음.

- Hill과 Shupp(2015)는 독일사회경제패널(SOEP; German SocioEconomic Panel)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악교육이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비인지적 발달 영역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음.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 음악 활동 참여 경험은 청소년의 인지적 기술과 학업 성적, 성실성, 개방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 비인지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Bowen와 Kisida(2019)는 미국 휴스턴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Houston's Arts Access Initiative(AAI)의 효과성을 42개 학교의 4-8학년에 재학 중인 10,548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음. 이들 연구방법에서 주목할 점은 참여 아동에 대한 1차 데이터와 2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교육 관련 행정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임. 이들은 휴스턴 교육 연구 컨소시엄(HERC; Houston Education Research Consortium)의 종단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미국 휴스턴의 독립학군(HISD;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생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음. 해당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은 학교 내 규율 위반 비율을 감소시키고 학교 참여도, 대학 진학 의지, 작문 실력, 타인에 대한 연민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

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검증하였음.

- 정부의 정책사업, 특히 예술교육 영역은 각 투입요소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반영하는 로직모형은 자원의 투입, 과정 및 산출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명시하는 기능을 가짐. 이러한 관점에서 핵심지수 3은 문화예술교육만의 성과지표로서 해석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임.
- SAEI의 로직모형인 프로젝트 프레임워크는 서울어젠다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에 근거하여 예술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투입(input), 과정(throughput), 결과(output)를 산술식의 형태로 구조화한 것으로 각 단계에 따른 성과지표로도 활용 가능함. 다만 이러한 활용은 주제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는 핵심지수1과 핵심지수 2에만 적용하는 것을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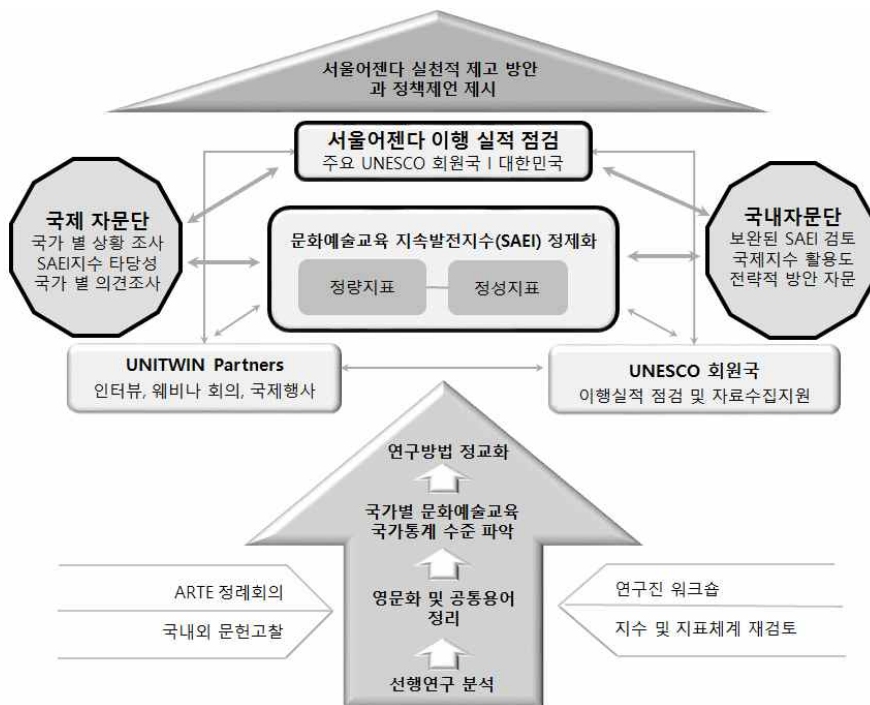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 설계와 구성
2. 연구내용 및 절차
3. 연구 방법

II. 연구의 방법

1. 연구 설계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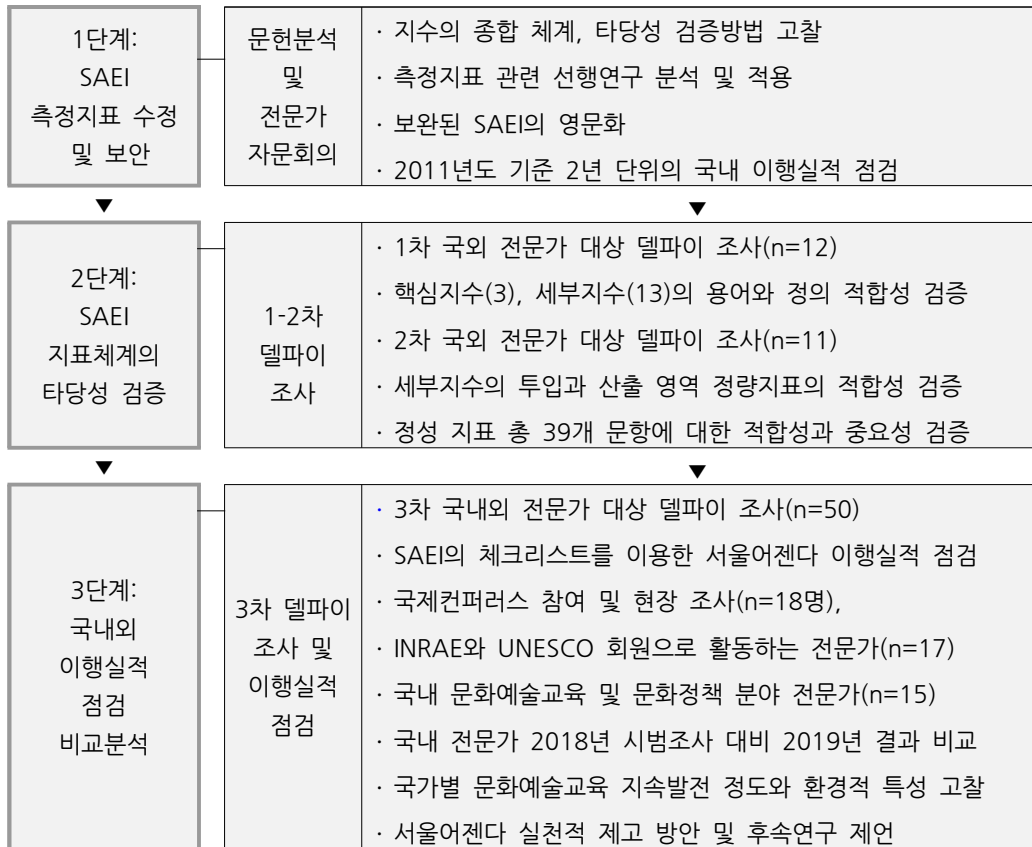
-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의 국제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UNESCO 회원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입, 운영, 성과의 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음.



<그림 II-1> 연구 체계도

-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됨. 첫 번째는 국제회의의 참여를 통한 자문과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여 2018년 기초연구에서 개발된 SAEI의 용어와 정의, 정량과 정성 지표의 타당성 검증하는 것임. 동시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국가별 맥락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어젠다의 목표와 내용에 기반을 둔 국제지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두 번째는 서울어젠다 국내이행실적에 대한 본격 점검으로 국제자문단의 검토와 타당성 검증은 기반으로 보완되고 정제된 SAEI 를 적용하여 2011년을 기준으로 2년 주기(2013, 2015, 2017, 2018년)의 이행실적 점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효과와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 최종적으로 위의 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제지수의 국가별 비교 분석 및 결과와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고, 2020년 서울어젠다 수립 1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예술교육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공유 및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앞서 밝힌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1단계는 2018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선행연구와 자문을 통해 지수의 종합 체계와 산술식을 검토하고, 보다 접근성 높은 통계 자료로 측정지표를 수정함. 이후 수정된 정량 지표를 이용하여 2011년도를 기준으로 2년 단위의 국내 이행실적을 점검함.
 - 2단계는 수정되고 영문으로 번역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국외 전문가들에게 검증받음. UNITWIN 핵심회원 총 11개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는 용어와 개념에 관한 적합성, 2차는 선정된 정량 및 정성 지표의 적합성을 두 차례로 나누어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있어 연구진 워크숍과 자문 회의를 교차 진행하였음.
 - 3단계는 검증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성지표(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국가별 비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3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 국제 조사에는 2019년 10월 캐나다의 제3회 국제 UNITWIN Conference와 독일의 2019 WAAE: The 9th 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여한 전문가와 기타 UNITWIN 핵심 회원국의 전문가 총 35명이 참여하였음. 국내 조사는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 대학과 연구소 및 기관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함.
 - 따라서 3차 델파이 조사에는 문화예술 국제 및 국내 전문가 ‘총 50명(국제 35명과 국내 15명)’이 참여함.



〈그림 II-2〉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의 단계별 구성

2. 연구내용 및 절차

2.1. 연구내용

- 2018년 SAEI의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와 정량지표 수정 및 보완함.
 - 2018년 일차적으로 도출된 SAEI 종합지수와 하위지수들의 수정 및 보완, 산출방식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분야 지수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그 외 분야에서의 지수개발 연구를 탐색함. 더불어 해외 선행연구와 국제문화예술지수 개발 사례를 검토함. 이 과정에서 국내외 지수개발 관련 선행연구에서 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개념과 정의의 타당성을 묻는 1~2차 델파이 조사에 적용함. 나아가 2018년 정량적 측정지표 중 수정이 필요한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함.
- 수정된 정량지표를 적용하여 2년 주기로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을 점검함.

- 2018년 기초연구에서 정량지표를 이용해 2011년 기준 2014년과 2017년 국내이행 실적을 점검한 바 있음.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자문 회의를 거치며 수정된 지표를 적용하여, 2011년을 기준으로 2년 주기인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교를 시행함. 점검 연도를 확장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파악, 정책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효과와 장기적 영향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국외 전문가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구성개념 및 지수체계를 영문화함.

- 2019년 연구의 목적인 예술교육발전지수를 이용한 국제비교를 위해선 2018년 연구에서 도출된 SAEI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지수체계의 영문화가 선행되어야 했음. 용어의 정의와 개념이 잘 반영되었는지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지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문화 작업을 진행함.

○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SAEI의 정의와 측정지표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검증함.

-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의 용어와 조작적 정의, 설정된 측정지표의 국제적 적합성 점검을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UNITWIN 핵심 회원국 자문단(n=23)을 대상으로 1차(용어), 2차(측정지표)로 구분하여 타당도를 조사함. 더불어 정성적 타당도 검증 또한 실시하여 SAEI의 적용과 활용 가능성, 해당 국가의 맥락에서 측정지표 보완방안, 대체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유무, 장애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함.

○ SAEI의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비교 분석함.

- 국가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SAEI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3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 조사에는 총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국외 전문가의 경우 2019년 10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UNITWIN Conference」와 독일의 「2019 The 9th 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에 방문한 전문가 중 연구 참여에 승낙한 전문가(n=18명)와 INRAE와 UNESCO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n=17)가 참여함.
- 국내 조사는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 대학과 연구소 및 기관의 전문가(n=15)를 대상으로 시행함. 수집된 정성지표 결과값을 토대로 국가별 서울어젠다의 이행실적 점검을 비교하고 분석을 시행하였음. 한편, 2018년 시범조사 대비 2019년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서울어젠다 실천적 제고 방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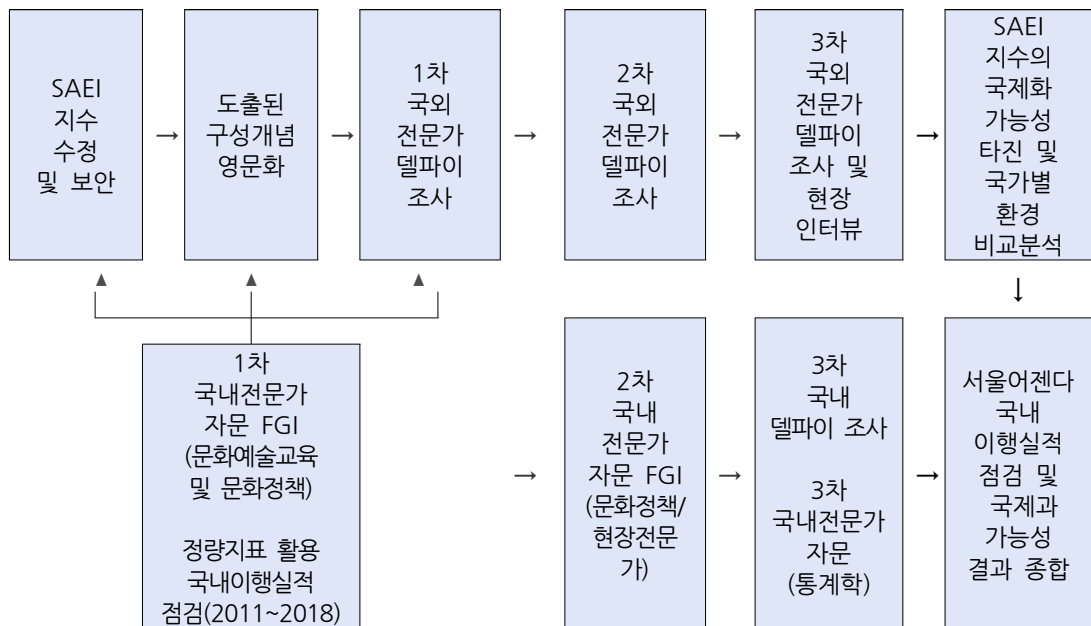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실천적 제고 방안과 정책 및 시사점을 제언함.

- 언급한 내용을 통합하여, 2020년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서울어젠다

관련 국제적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과 서울어젠다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공유, 인식의 확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

2.2. 연구의 절차

- 2019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연구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II-3〉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이행 점검 연구’ 흐름도

3. 연구 방법

3.1 선행연구 분석

- 국내 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육 전반에 관련된 지수 및 지표개발 연구 및 보고서 분석
 - SAEI 종합지수와 하위지수들의 수정 및 보완, 산출방식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분야 지수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그 외 분야에서의 지수개발 연구를 탐색함.
 - 선행 연구의 선정 기준은 측정지표 설정 방법과 지수 산출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있는 연구, 최종 구성된 지표의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에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우선하여 고찰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됨.

- 문화예술교육 지수 및 지표개발에 관련된 국내 주요연구
- 교육 전반에 관련된 지수 및 지표개발 관련된 주요연구
- 서울어젠다 성과 분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연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일차적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세부지표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수작성 과정이 각 지수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분야에 상관없이 문헌연구를 통해 측정지표들을 먼저 산출하고 이를 면담이나 토론회, 델파이조사, 예비조사(설문지), 통계기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지수체계와 측정지표를 확정함.
- 따라서 이후 문헌연구에서는 측정지표의 선정기준 및 연구 방법과 절차, 지수 유형과 산출방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했으며, 이를 통해 SAEI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타당도 검증을 위한 델파이 조사의 주요문항을 적합성(Appropriateness)과 중요성(Importance)으로 설정함.

○ 국외 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육 전반에 관련된 국제지수 및 지표개발 연구 및 보고서 분석

- 국외 선행연구 또한 SAEI 종합지수와 하위지수들의 수정 및 보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국외의 지표와 지수개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가시화함.
- 더불어 도출된 지수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Terminology)의 사용 양상을 탐색함.
- 또한, 국내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던 2018년 연구의 정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지수나 지표 작성 시 이용하는 측정지표를 탐색하고, 이를 반영하여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함으로써 국가비교지수를 고안하는 데 있어 실사용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함.

○ INRAE의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1~5 검토 및 분석

- INRAE(국제예술교육연구네트워크)은 예술교육에 관한 양질의 국제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목표로 설정하고 있기에 본 연구와 관련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파트너기관은 UNESCO와 세계예술교육연맹(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 WAAE) 등이며, 최근 한국교육진흥원도 참여한 INRAE 연감(Yearbook) 5호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Comparative Research Seven Years after the Seoul Agenda(2017)’를 마지막으로 공식적 활동을 종료된 바 있음.
- 총 5권으로 이루어진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은 사실상 서울어젠다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의 집약체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방향성과 방법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기에 국제비

교지수를 고안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며, 논의의 진화과정 또한 분석 가능함.

- 보다 직접적으로는, 2019년 연구의 국내외 대상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취합된 세계 각국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INRAE 연감(Yearbook) 5호에서 세계 각국의 집단별 비교를 위해 사용한 방법-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음.

3.2. 연구진 워크숍

- 1차 워크숍: SAEI 체계 재점검 및 영문화 과정
 - 문헌자료 분석 내용 공유 및 논의
 - 지수체계 프로토 타입 설계: 지수체계 구조 설계 및 개념 정교화
 - 측정지표 후보군 검토 및 유형 도출 및 영문화 과정
- 2차 워크숍: 국제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결과 논의 및 2차 델파이 조사 준비
 - 국외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주요 의견 공유 및 수정사항 여부 반영
 - 지수체계 구조 설계 및 개념 정교화
 - 국외전문가 2차 델파이 조사 방향성 설정 및 준비
- 3차 워크숍: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점검
 - 3개 목표와 13개 전략을 반영한 국내 이행실적 점검 결과 검토
 - 지수체계와 관련한 종합적 논의 및 수정안 도출
- 4차 워크숍: 국내 전문가 1차 자문회의 결과 반영 및 추후 방향성 정리
 -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공유
 -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 지수체계, 정성·정량지표 수정 및 확정
 -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수체계 활용 등에 대한 제언 도출
- 5차 워크숍: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점검 최종 확정
 -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 지수값 확정

3.3. SAEI 국제지수화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국제자문단 대상 델파이 조사

-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1차, 2차, 3차로 구분해 실시하였으며, 1-2차는 2018년에 개발된 SAEI의 지수체계와 개념 및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적 직관을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에 참

여하는 전문가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조사대상자는 해당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임(kim, 1996). 따라서 대상은 ‘서울어젠다’에 대한 의의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유니트원 핵심 회원국 자문단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며 해당 국가와 대표기관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표 II-1〉 유니트원 핵심 회원국 명단

구분	국가	내용
INRAE members	Canada	UNESCO Chair in Arts and Learning, Queen's University
	Germany	UNESCO Chair in Arts and Culture in Education, University of Erlangen-Nuremberg
		UNESCO Chair of Pedagogy with a focus on Culture and Aesthetic Education, University of Erlangen Nuremberg,
	Columbia	School of Music, Fundacion Universitaria Juan N Corpas
	Singapore	UNESCO NI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CARE (Centre for Arts Research in Education)
UNESCO Arts Education Observatory and other University Members	Hong Kong	Department of Cultural and Creative Arts, Faculty of Liberal Arts & Social Sciences at the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Division of Initiatives and Resources,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Australia	Melbourne UNESCO Observatory of Arts Education, 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Thailand	Faculty of Learning Sciences and Education Thammasat University
	Kazakhstan	UNESCO Observatory for Intercultural and Creative Education in Central Asia, Kasteyev's School of Fine Arts and Technical Design, Almaty, Kazakhstan
Associate Members	Hong Kong	Academic Programmes and Educational Innovation, The Hong Kong Academy for Performing Arts, Hong Kong
	Kenya	Department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School of Creative Arts and Technologies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Kenya
	Israel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Haifa, Israel
	Taiwan	College of Arts, National University of Taiwan
	New Zealand	The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Norway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Stavanger

- 전문가 참여의 수는 많을수록 결과의 신뢰도가 커지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Dalkey, 1969), 일반적으로 10-15명의 소집단의 전문가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Ziglid, 1996; Anderson, 1997). 따라서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용어와 조작적 정의 적합성 검증하는 1차 국외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에서는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세부지수의 투입과 산출 영역 정량지표의 적합성과 정성지표 문항에 대한 적합성과 중요성을 검증하는 2차 국외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에는 11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으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구성 그룹:

- ① INRAE members
- ② UNESCO Arts Education Observatory and other University Members
- ③ Associate Members
- 조사 기간: 2019년 7-10월 시행
- 조사 방법: 온라인 서면조사, 현장 조사

〈표 II-2〉 1차 2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외자문단 리스트

구분	성명(성, 이름)	구분	국가	1차	2차
1	Bolden, Benjamin	INRAE	캐나다	●	●
2	Forero, Camilo	INRAE	콜롬비아		
3	Joerissen, Benjamin	INRAE	독일		●
4	Joseph, Krischelle	INRAE	독일	●	●
5	Liebau, Eckart	INRAE	독일		●
6	LUM, Chee-Hoo	INRAE	싱가포르	●	●
7	Moeller, Ike	INRAE	독일		
8	Ofarrell, Larry	INRAE	캐나다		●
9	Unterberg, Lisa	INRAE	독일		
10	VU, Giang Thanh	INRAE	싱가포르	●	
11	Wagner, Ernst	INRAE	독일	●	●
12	Zapata Restrepo, Gloria Patricia	INRAE	콜롬비아	●	
13	Almoca, Adil	UNESCO	카자흐스탄		
14	Coleman, Kathryn	UNESCO	호주	●	
15	Jeanneret, Neryl	UNESCO	호주	●	
16	Juntrasook, Adisorn	UNESCO	태국		
17	LEUNG, Bo-Wah	UNESCO	홍콩	●	●
18	S., Pai	UNESCO	태국		
19	Wright, Susan	UNESCO	호주		
20	Akuno, Emily Achieng	Associate	케냐	●	●
21	Buck, Ralph	Associate	뉴질랜드	●	●
22	Lin, Mei-Chun	Associate	대만		
23	Schonnmann, Shifra	Associate	이스라엘	●	●

- 1차 델파이 조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D)’의 핵심지수 3개와 세부지수 13개의 개념 도출에 사용된 용어(Terminology)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s)의 적합성(appropriateness)에 대한 타당도를 각각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즉 ‘①매우 적절, ②적절, ③적절하지 않음, ④매우 적절하지 않음’ 문항으로만 설계하여 지표의 합의안 도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함.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 개방형 질문을

넣어 국제자문단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집하기 용이하게 설계하였으며 1~2차 델파이 조사 수집과정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음.

- 용어와 조작적 정의의 문항 적절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수렴도와 합의도 역시 검증함. 이후 전문가별 그룹 평균비교와 표준편차(SD) 분석을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음.
-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가 내용타당도에 대해 ‘타당하다’는 응답을 했을 경우, CVR값은 0.999나 1로 나오게 됨(Lawshe, 1975). 1차 서베이에 참여한 국외 전문가 패널 수는 12명이므로 Lawshe(1975)의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기준에 의거하여 0.56 이상이 되었을 때 내용타당성을 가짐. CVR값은 타당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패널 수와 전체 패널 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되었음(Lawshe, 1975).

$$CVR = \frac{n_e - \frac{N}{2}}{\frac{N}{2}}$$

N : 전체 응답한 사례 수
 n_e :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

3.4. SAEI의 정성지표를 활용한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델파이 조사

- 국가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SAEI의 정성지표를 이용하여 3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n=50). 3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정제작업을 거쳐 확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성지표를 적용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자국을 평가하도록 한 후, 결과값에 기초해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참여국별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음.
- 델파이 조사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패널은, 크게 문화정책 및 현장전문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과의 교수 및 연구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세 분야로 구분되며, 경력은 2~50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해외전문가 대상 자료 수집의 경우,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 3회 국제 UNITWIN Conference」와 독일의 「2019 The 9th 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수집되었으며(n=18), INRAE와 UNESCO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참여함(n=17). 국내의 경우엔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n=15)를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법을 사용함.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구성 그룹:
 - ① 문화정책 및 현장 전문가
 - ②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과의 교수 및 연구자
 - ③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 조사 기간: 2019년 10-11월 시행
- 조사 방법: 온라인 서면조사, 현장 조사

〈표 II-3〉 3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내외 전문가 리스트

구분	국가	소속 및 역할	분야	경력
1	캐나다(10)	Arts Administrator in an Arts & Learning Org.	정책전문가	15
2		Arts Administrator	정책전문가	8
3		Museum Educator	교육전문가	17
4		Art Educator(Secondary School)	교육전문가	10
5		Program Coordinator/ Arts Educator	교육전문가	6
6		Master of Education Student/ Drama Teacher	교육전문가	5
7		Professor	교수	30
8		Educator/ Performer	교육전문가	30
9		Program Manager for 2 non-profits	교육전문가	20
10		Queen's University	교수	50
11	미국(6)	Lecturer in Dance Studies	대학강사	25
12		Professor Dance Education	교수	30
13		Geroge Mason University	교수	20
14		Tulane University	교수	10
15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수	20
16		Santa Fe Art Institute	교육전문가	10
17	독일(4)	Professor	교수	35
18		Professor	교수	35
19		Research Analyst	연구원	2
20		Friederichian	현장전문가	20
21	호주(4)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대학강사	2
22		Teacher Trainer	교육전문가	25
23		Lecturer	대학강사	40
24		Designer	교육전문가	5
25	뉴질랜드(2)	The University of Auckland	교수	20
26		The University of Auckland	교수	50
27	네덜란드(1)	Dutch Center of Expertise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연구원	20
28	방글라데시(1)	Theater	정책전문가	7
29	영국(1)	University Lecturer	대학강사	25
30	중국(1)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연구원	7
31	콜롬비아(1)	Universitaria Juan N Corpas	교육전문가	15
32	싱가포르(2)	Centre for Arts Research in duation(CAR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교수	15
33		Researcher/ Centre for Arts Research in Education(CAR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연구원	5

34	케냐(1)	The Technical University of Kenya	교수	30
35	이스라엘(1)	University of Haifa	교수	50
36	한국(15)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30
37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연구원	20
38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1
39		상명대학교 문화정책연구소	교수	13
40		상명대학교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교수	10
41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정책전문가	20
42		수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교수	16
43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예술정책연구실	예술강사	13
44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현장전문가	12
45		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예술강사	13
46		아트컬처 너랑나랑	예술강사	12
47		스잇뮤직가든	예술강사	11
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책전문가	14
4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장전문가	15
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17

- 정성지표 문항은 13개의 세부지수별 3문항씩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매우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를 이용하였음. 또한, 참여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설문지에 삽입하여 본 지수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수집함.
- 이후 완성된 설문지를 수집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국가별 서울어젠다의 이행실적 점검을 비교하고 각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음. 더불어 국내 전문가 평가는 2018년 시범조사 대비 2019년 조사결과와 증감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서울어젠다 실천적 제고 방안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도출함.
 - 국내 전문가 조사결과 비교: 국내 전문가 평가는 2018년 시범조사 대비 2019년 조사결과 비교하기 위해 평균 점수를 각각 분석함. 2018년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20명이고, 2019년은 15명이 조사에 참여함.
 - 국외 전문가의 자국에 대한 평가 및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적 특성 비교: 총 13개 국가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의 자국에 대한 평가를 각각의 세부지수별로 기술하고 3차 델파이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국내외 예술교육 전문가의 답변을 비교하여 국가별 예술교육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 인간개발지수를 상위 국가와 국내 비교: 국내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보기 위해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13개 국가 중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한국(22위)보다 높은 6개 국가, 호주(3위)와 독일(5위), 싱가포르(9위), 캐나다(12위), 미국(13위), 뉴질랜드(16위)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의 수준을 비교함.

- 인간개발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 항목 중 인간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득지수와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로 산정하며, 인간개발지수에 기반을 둔 비교는 INRAE 연감(Yearbook) 5호에서 세계 각국의 집단별 비교를 위해 사용한 방법임.

3.5. 전문가 자문회의

- 지수와 지표체계의 정제화, 상용화, 국제화 및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3차의 전문가 자문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총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음. 참여 전문가들의 전공 분야는 문화정책, 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지수개발로 구성되었음.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그룹:
 - ① 문화정책 및 현장 전문가
 - ②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지역 연계)
 - ③ 통계 및 지수개발 전문가
- 전문가 자문회의 기간: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 전문가 자문회의 형태: 초점집단면접 및 개인면접

〈표 II-4〉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 일시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전문 분야 및 자문일시
1	정연희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외래 교수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 2019. 8. 19. (월)
2	김석범	수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교수	
3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실장	
4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연구원	문화예술교육 2019. 11. 06. (월)
5	이수희	University Of Kent, UK	교수	문화정책 2019. 11. 09. (토) 2019. 11. 14. (월) 2019. 11. 19. (화)
6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7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8	임학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9	박정수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통계 2019. 11. 19. (화)

- 1차 전문가 자문은 ‘서울어젠다’에 대한 의의와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국내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와 문화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2011년 기준 2년 주기의 국내 이행실적점검의 중간 결과에 따른 주요 변곡점 및 정책적 환경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표체계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음.
 - SAEI의 중간점검 결과 값과 정책현장 일치성 여부
 - SAEI의 지표체계에 대한 검토 및 기타 대안
 - SAEI의 핵심지수 2(질적 향상성) 세부지수2.5(교육지원 파트너십) 대체지표 논의
 - SAEI의 핵심지수 3(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3.3(문화다양성) 대체지표 논의
 - 한국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국제지수 대체 가능성 여부 논의
 - UNESCO CDIS, OECD 커뮤니티 지수 또는 삶의질 지수의 적용가능성 논의
- 2차 전문가 자문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정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자문과 마찬가지로 국내 이행실적점검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 향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이후 '예술교육의 접근성'은 크게 발전이 있었으나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약함. 한국적 맥락서 질적향상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시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공용화된 지수를 활용할 시 국가 간 비교 외에 현장에서 혹은 정책적으로 가능한 기능과 역할 제시
 - 지수의 지속적 활용과 지표의 현실 반영도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의견 제시
 - 수혜자 중심의 측정지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만족도 조사 외 대안점 제시
 - 후속연구에 있어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 논의
- 3차 전문가 자문은 1차와 2차 자문에서 제기되어 온 SAEI의 로직체계와 산술식에 대한 대안 및 수정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기 위해 통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SAEI의 종합지수 산술식에 대해 최종 검수
 - SAEI의 산출방식의 대안 제시
- 서울어젠다 관련 국제행사 및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국가별 의견 조사 및 자문
 -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외 전문가의 서울어젠다 인지도
 - 국외 전문가들의 서울어젠다에 대한 이해 수준 점검
 - 국외 전문가들의 서울어젠다 실천 노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 국외 서울어젠다 이행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 현장 인터뷰:
 - 국제행사: 제3회 국제 UNITWIN Conference
 - 국제학술대회: 제 9회 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 5차와 6차 전문가 자문은 SAEI의 결과 값에 대한 합의와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 수집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SAEI의 향후 보완 및 개선 방향
 - SAEI의 향후 활용 방안 및 국제지수 활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수집
 - 문화예술교육정책 제언 시 참고 사항

Ⅲ. 서울어젠다의 개요와 지수 및 지표개발 선행연구

1. 서울어젠다의 의미와 성과
2. 지수와 지표의 적용과 산출
3. 지수 및 지표 개발 국내 연구사례
4. 지수 및 지표 개발 해외 연구사례

Ⅲ. 서울어젠다의 개요와 지수 및 지표개발 선행연구

1. 서울어젠다의 의미와 성과

1.1. 서울어젠다 수립의 배경

-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1999년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제호소(International Appeal for the Promotion of Arts Education and Creativity at school)”를 채택한 이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
-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비정부기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함께 결속하여 문화예술교육 증진에 힘을 더하도록 합의를 이끄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이하 1차 대회)가 개최됨(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1차 대회가 다양한 만남을 통해 예술교육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면,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이하 2차 대회)는 보다 구체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끌어내고 입증하는 자리였음. 21세기 창의성에 대한 요구 및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시화되었고, 다양하고 비판적 시각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활발한 담론과 토의가 이루어짐(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2차 대회를 계기로 21세기 지속발전을 위한 창의성과 문화적 인식에 부합하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탐색하고, 세계 각 권역 각계각층의 연구·사례 공유 및 논의를 통한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연구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부주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방위적 국내 문화예술교육 모범사례의 국제적 소개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선도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세계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성과 공유를 통한 지속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1차 대회 ‘21세기를 위한 창의성’을 통해 얻어진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에 이어, 2차 대회에서는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을 대회 비전이자 슬로건으로 제정하여 더욱 실천적인 논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예술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2차 대회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예술교육 로드맵’ 실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강화’라는 주제로 다변화된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치유와 회복, 시민사회와 경제주체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등의 비전을 확인함. 또한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위해 어떠한 국제적 협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실천방안이 논의됨(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4일간 진행된 2차 대회는 ‘예술교육 로드맵의 실천점검’, ‘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대’, ‘예술교육 가치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대회 4일차에는 예술교육 발전목표로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이하 서울어젠다)’를 발표함(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서울어젠다는 2009년 7월 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C) 회의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대회 폐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문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IAC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2009년 회의 이후 몇 달간 이메일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표를 논의했으며, IAC 위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고려한 수정안이 대회 직전 열린 회의에서 작성됨. 이렇게 수정된 서울어젠다를 대회 동안 전문가들에게 배포하였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 서울어젠다는 2차 대회의 핵심 결과물로서 각국에 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과 실천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임. 이는 세계 각국에 배포되어 지속적인 예술교육 실천을 촉구하고 예술교육 정책이 방향을 선도하며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지침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음. 서울어젠다 채택으로 인해 서울에서 열린 2차 대회는 세계 예술교육의 전환점으로서 역사성을 부여받음(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2011년 11월에는 제26차 UNESCO 총회에서는 서울어젠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UNESCO 및 회원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그 일환으로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 문화 예술교육 주간(the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IAEW)’으로 선포하는 결의안이 채택됨(UNESCO한국위원회, 2011).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함.

1.2. 서울어젠다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서울어젠다는 한편에서는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고질적인 사회 및 문화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자들의 수요 부응에 고심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발전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IAC위원들과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음.
- IAC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는 탈산업화라는 경제적 상황에서 창의적이며 적응력 있는 노동력의 필요성뿐 아니라 평화, 문화적 다양성, 문화 간 이해도 포함됨. 마찬가지로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사회적 및 문화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성공에 특히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구상과 제공에 있어 높은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임. 서울어젠다는 이러한 3가지 문제를 구성 원칙으로 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 2차 대회의 산물인 서울어젠다는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1차 대회의 주 결과물인 UNESCO 예술교육 로드맵(UNESCO Road Map for Arts Education)을 기반으로 함. 이 로드맵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성장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중요한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함. 서울 대회의 핵심목표는 이 로드맵의 재평가와 더욱 발전적인 이행의 권장임. 서울어젠다는 로드맵이 내용을 몇 가지 실질적 전략과 구체적인 행동항목으로, 3가지 포괄적 목표의 구조 안에 통합시키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역할을 하게 될 것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 서울어젠다는 교육제도를 긍정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완벽히 실현하고, 중요한 사회적·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궁극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모든 연령의 평생 학습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UNESCO 회원국, 시민사회, 전문단체, 지역사회에게 운영원칙을 인지하고 제안한 전략을 채택하며 공동노력을 통해 행동항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 서울어젠다는 예술교육의 발전목표로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보, 양질의 예술교육 담보,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아래 각각의 실천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 13개의 실천전략은 각기 여러 차원의 실행 주체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목표 1(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보)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 발달을 위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강화임.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예술교육 촉진,

정규·비정규 교육시스템의 재구축 활성화, 홍보와 정책의 강화, 예술교육 리더십 제고를 위한 역량 개발 등을 명시함(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목표 2(양질의 예술교육 담보)는 예술교육 실행에 있어 예술가와 교육가 간의 협력 초진, 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예술교육 훈련 보장,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개발, 예술교육의 이론, 연구, 실천 간 논의 및 상호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목표 3(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에 기여)은 예술교육이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문화적 복지를 향상을 강조함.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다양성 및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할 것을 명시함. 세계 평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예술교육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1.3. 서울어젠다와 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의 관련성

- 2004년 한국정부는 21세기 급격하고 다양한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문화비전으로 ‘창의 한국’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을 그 핵심적 정책과제로 채택함.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문화예술교육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설치하였으며, 예술강사를 전국 학교 및 사회단체에 파견함. 또한,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와 창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 기반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조직화 및 제도화를 통해 그간 문화정책과 교육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문화예술교육이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시작함(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이러한 결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범적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인정받아 2차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됨.
- 한국정부는 2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양적인 측면과 아울러 질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함(문화체육관광부,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2010).

- 서울어젠다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국제적 기준으로 개편하고 국내 정책사업을 확대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구체적으로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서울어젠다의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맞춰 3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10).
- 첫째, 정책 대상을 학교, 취약계층 등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시·군 단위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는 기초센터를 확대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거점 공간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자생적인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통한 수혜 사각지대 최소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치유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문화체육관광부, 2010).
- 둘째, 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의 강화를 목표로 함.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의 개발,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유아와 초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수혜를 확대하고자 함(문화체육관광부, 2010).
- 셋째, 예술강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시 연수체제를 도입하였으며, 검증된 우수인력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함(문화체육관광부, 2010).
-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계기로 그동안의 학교와 취약계층 위주의 소수자 정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주도의 공급자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제와 중앙과 지역 간 전달체제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적 지도력 확보하고자 하였음. 또한, 2010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확대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함. 여기에서는 행복, 상생, 발전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함.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계층 등의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복지적 성격을 강조하며 수혜대상의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개인, 일상을 키워드로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의 삶에 녹아들어가 문화예술교육을 표방하고 있음.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함으로써,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달하는 일방향 체계를 넘어 지역에서 생성하고 소비하고 공유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 2015년 5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통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2018년 1월에는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 발표됨.

2. 지수와 지표의 적용과 산출

2.1 지수(index)와 지표(indicator)

- 일반적으로 지표란 추상적인 현상이나 개념을 일정한 속성을 가진 변수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함(정영근 외, 2003). 이는 수량화할 수 있는 양적 지표를 포함하여 질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됨(서민원, 2004).
- 반면, 지수(index)는 구체적인 숫자 자체의 크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적, 수량, 가격 등 해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며, 통상 비교 기준이 되는 시점(기준시점)을 100으로 정해서 산출하는 산식을 동반하는 값임(김창환, 2013). 하지만 각각 지수의 산출방법론, 즉 지수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는 지수의 유형과 지수 작성의 목적에 따라 다름(한국교육개발원, 20018). 몇 가지 지수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순위지수
 - 지수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로 절대적인 기준에의 도달보다는 여타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상대적 서열을 보여 줌으로써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위치를 보여 주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시계열적으로는 매년 순위의 변화를 통해 지수의 의미를 해석함. 대표적인 예는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가 있으며, 지표별 표준화를 수행하여 표준점수 값을 가지고 순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산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국가경쟁력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적인 세부 지표의 순위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는 세부 요인별, 하위 요인별 종합 순위를 산정하는 순서임. 여기서 개별적인 세부 지표의 순위 산정이 가장 중요한데 IMD는 표준화 방법(STD)을 적용함. 이는 단위가 다른 모든 개별 지표들을 평균 0, 표준편차 1로 통일하는 방법임.

- 연성 자료의 경우 1~6점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평균을 구한 뒤에, 이를 1~19점까지의 값으로 환산한 다음 표준화 방법을 적용함. 그리고 각 지표별로 표준점수를 국가별로 산출한 뒤에 경성지표(hard data)의 경우에는 가중치 1을 주고, 설문조사와 같은 연성지표(soft data)의 경우에는 가중치 .5를 주어 최종적인 국가별 표준점수를 합산함.

○ 목표지수

- 두 번째 지수화 유형은 목표지수로, 목표점수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에 도달한 비율 또는 지수를 제시하는 방식임. 보통 100점 만점을 목표로 두고 현재 도달한 점수를 지수로서 제시함. 대표적인 사례로는 만족도지수를 들 수 있으며, 리커트(Likert) 응답에 근거한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점수를 100으로 전환하여 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유형은 연도별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해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 만족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에는 단순 집계화 방법,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법,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이 있음. 가중치 적용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에는 강제배분 방식과 계층화 분석법, 상관계수나 회귀계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방식이 있음.
- 강제배분 방식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나 피조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 측정 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 형식으로 조사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임. 일종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또는 델파이 기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계층화 분석법 역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나, 강제배분 방식과의 차이는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상황을 하위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구성요소들을 계층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뒤에 각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수치화된 가치를 할당한다는 점임. 하지만 이는 단지 목표지수 산출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형의 지수를 산출하는 데에도 가중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임.

○ 준거지수: SAEI 에 해당

- 준거지수의 경우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여 주거나, 지역적으로 한 지역을 100이나 1로 설정해서 다른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값을 제시해 주는 방법임.
- 과거의 한 시점의 값을 100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의 변화를 상대적 값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한 지수의 사례는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나 물가지수가 대표적임.
- 한 지역을 100이나 1로 설정해서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인 비교값을 제시해 주는 지수의 사례는 빅맥지수, 구매력지수 등이 있음.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 모두 준거지수에 해당하며, 구체적 산식으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라스파이레스식을 사용하고 있음. 라스파이레스(Laspeyres)식은 다음과 같음.

$$L = \sum P_{it} Q_{it} / \sum P_{0i} Q_{0i} \times 100$$

- 기준시점과 같은 수량의 상품을 비교시점의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구매 금액을 기준시점의 구매 금액으로 나누어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식임. 이를 통해 변화값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혼합지수

- 정책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지수로서 지금까지 제시한 각 지수와 지수 산출 방식을 혼합하여 새로운 지수를 산출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지수를 혼합지수라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사례에는 불쾌지수(discomfort index)나 고통지수(misery index)가 있음.

3. 지수 및 지표 개발 국내 연구사례

- SAEI 종합지수와 하위지수들의 수정 및 보완, 산출 방식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지수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그 밖의 분야에서의 지수개발 연구를 탐색함. 이를 위해 측정지표 설정 방법과 지수 산출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연구, 최종 구성된 지표의 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고찰된 선행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III-1〉 국내 지표·지수 개발 관련 주요 연구 사례

구분	연도		연구명	유형	분야
지 표	2016	박소연 박용호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측정지표 개발 연구	학술논문	문화예술교육
	2014	원영실 김은영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개발	학술연구	문화예술
	2018	정원정 박재현	국가지원 예술경연대회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학술연구	문화예술
	2018	이정희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극장 신규평가지표개발을 중심으로	학술연구	문화예술
지 수	2003	한국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연구보고서	환경
	2007	한국교육 개발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보고서	교육일반

	2008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의 교육지수 개발 연구: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교육일반
	2009	최영출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학술논문	경제
	2013	최선헌 이명진	문화자본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의 문화자본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학술논문	문화예술
	2013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예술지수(art index) 개발 연구	연구발표	문화예술
	2016	강병직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지수 개발연구	학술논문	문화예술
	2018	조덕원 이응규 고두갑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예술지수 개발 연구	학술연구	문화예술

- 고찰한 결과 세부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수를 작성하는 과정이 각 지수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분야와는 큰 상관없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측정지표들을 산출하고 이를 면담이나 토론회, 델파이조사, 예비조사(설문지), 통계기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지수체계와 측정지표를 확정함. 따라서 지표, 지수 관련 선행연구는 측정지표의 선정 기준 및 연구 방법과 절차, 지수 유형과 산출 방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했으며, 내용 요약은 다음 <표 Ⅲ-2>와 같음.

<표 Ⅲ-2>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 및 절차 요약

구분	연도	최종 구성	지표 선정 기준	연구 방법 및 절차					지수 유형 연구 방법
				문헌 연구	면담 토론회	델파이 조사	예비 조사	통계/ 시뮬레 이션	
지표	2016	문화 예술 교육	타당성 현실성 고유성	●		2회	●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2014	문화 예술 교육	타당성 중요성	●		2회		●	내용분석 델파이조사
	2018	문화 예술	일치성 타당성	●		2회	●	●	델파이조사
	2018	문화 예술	적합성 균형성	●		3회	●		델파이조사
지수	2003	환경	적합성 측정가능성 투명성 비교가능성 규칙성	●		1회		●	준거지수 계층분석법

2007	교육 일반	균형발전 취지부합성 실천적 쟁점	●		1회		●	순위지수 델파이조사
2008	교육 일반	측정가능성 현실성	●	1회	3회	●	●	목표지수 계층분석법
2014	여가 행복	타당성 적경성 적절성	●		2회		●	목표지수 계층분석법
2013	문화 예술	이론 기반	●				●	척도형 확인적 요인분석
2013	문화 예술	대표성 비교가능성 데이터의 신뢰성 지속성	●				●	준거지수 2차자료 이용
2016	문화 예술	측정가능성	●	1회	1회		●	목표지수/ 델파이조사
2018	문화 예술	적절성	●			●		문헌고찰

○ 위 표를 살펴보면, 지수 산출 과정에서 사티(Saaty, 1980)에 의해 제기된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계층화분석법은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경험을 조직화, 구조화 및 체계화하여 평가 요소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법이며, 의사결정 단계를 수학적 모형에 적합하도록 고안한 의사결정 기법임.

○ AHP 기법은 주로 평가, 선택,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사용되며, 특히 전문가 집단 간에 일관성과 수량화를 조사하는 방법을 제공함. 즉, AHP는 대안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유연하면서 강력한 방법으로, 대안들이나 평가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여 최종적인 중요도를 도출하게 됨. 평가기준의 중요도가 되는 일대일 비교행렬의 고유벡터와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일선성 비율이 주요 산출물임(한국교육개발원, 2008).

3.1. 지표개발 연구

3.1.1. 비(非)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선행연구 검토

1)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개발, 원영실·김은경(2014)

○ 교사관찰추천제는 영재성 선별을 추정 영재의 담당교사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재성 판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교사는 선행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중요

한 요인이나,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영실 외(2014)는 예술영재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를 개발함.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예술영재교육, 영재교육, 음악 및 국악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의 초안을 작성함. 이를 교수 및 전문연구위원 등 25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1차 델파이조사는 문항 초안에 대한 패널 반응을 통해 타당성 여부와 중요도를 분석했고, 그 밖의 추가할 평가지표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함.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패널들에게 중요도 판단을 다시 제시하도록 했고, 제외된 평가지표들 중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을 재평가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최종적인 중요도 판단 및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고, 산출된 1차,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를 비교했으며, 문항별 CVR를 산출하여 내용타당도와 확보된 지표들만 최종문항으로 선정함.

2) 국가지원 예술경연대회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정원정·박재현(2018)

- 국가지원 예술경연대회의 부정과 비리의 방지와 관련하여 진행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한 대회개최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 대회운영에만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할 뿐 참가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대회개최의 공정성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원정 외(2018)는 국가지원 예술경연대회 개최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무용, 음악, 전통예술 전문가 등 총 9명이 공정한 심사기준과 환경의 중요성, 방해 요인 등에 대해 예비연구를 진행했고, 이후 예술 분야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함. 그 결과를 자료의 핵심 문구의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내용분석을 통해 22개 초기문항을 선정함.
- 22개 문항은 예술경연 분야의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등 전문가 76명에 의해 두 단계에 걸쳐서 델파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일치도와 내용타당도를 검토함.
- 의견의 일치도는 응답 반응을 1점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부터 4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해석을 통해 76명의 의견일치 여부를 확인 및 각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국가지원 예술경연대회 개최 과정의 공정성 평가지표 12문항을 도출함. 내용타당도는 CVR(content validity ratio)와 CVI(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여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12문항과 전체 검사가 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을 확인함.

3)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극장 신규 평가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이정희(2018)

- 국립중앙극장의 그동안 성과지표들은 설립목적이나 예술성, 공공성, 운영효율성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했고, 운영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정희(2018)는 국립중앙극장의 성과를 균형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함.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연구 및 국립중앙극장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를 살펴보고, 성과현황을 분석한 후 세 차례에 걸쳐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1차 델파이조사는 일대일면담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문화예술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극장의 예술성, 공공성, 운영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냄. 2차 델파이조사는 이메일 설문조사로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폐쇄형 질문을 통해 세 가지 항목 평가지표를 도출함. 3차 델파이조사는 2차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전문가들이 기존의 응답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 예술성 4개, 공공성 4개, 운영효율성 3개, 고객만족도 1개 평가지수를 개발함. 그러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리커트 척도로 요인별 가중치를 구하지 못했다는 방법론상의 한계가 있음. 후속 연구를 통해 AHP를 통한 평가지표별 세부 가중치 도출이 필요해 보임.

3.1.2. 문화예술교육 분야 지표개발 선행연구 검토

1)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측정지표 개발연구, 박소연·박용호(2016)

- 이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관련하여 진행된 정책연구에서 공통적인 핵심지표 없이 연구 대상에 따라 새로운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어 시계열적 효과분석이나 메타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측정지표를 개발함.
-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10건을 중점적으로 측정지표를 분석했고, 대표적인 효과로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화예술감수성(art & culture sensibility),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표현력(self-expression), 사회성(socialit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행복감(happiness), 창의인성(creativity and personality)

의 총 8개 상위지표를 도출하고, 지표개발의 초안으로 활용함. 이후 설계된 초안을 전문가와 학생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으며 50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함.

- 50개의 측정지표는 먼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연구자와 실천가들로 구성된 13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두 단계에 걸쳐서 설문을 실시했으며, 각 지표에 대한 타당성, 현실성, 고유성을 중점적으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토함. 즉, 측정문항이 적절한지 여부와 문항의 수정방향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함.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표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델파이 자료를 사용했으며, 총 7개의 지표에 각 지표당 6개 문항이 만들어져서 모두 42개 문항이 구성됨.
- 측정지표의 타당성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실성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정도’를 말함. 고유성은 ‘다른 교육효과에 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특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정도’를 의미함.
- 2차 지표안은 63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데에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및 신뢰도 검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했고, 문항 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이 과정을 거치면서 6개 지표와 32개 문항으로 구성된 최종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측정 지표안이 도출됨. 확정된 지표안을 다시 45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지수의 구성체계가 적절한 요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재검증함.
- 종합하면 이 연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측정지표 도출 과정은 모두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는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초안을 구성했고, 2단계는 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차 수정안을 구성했으며, 3단계는 전문가 검토 후 2차 수정안을 구성했고, 4단계에서는 학생 설문을 통해 최종안을 구성했음.

3.2. 지수개발연구

3.2.1. 비(非) 문화예술교육 분야 선행연구 검토

1)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3)

- 이 연구는 2001년 UNCSD에서 발표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근간으로 이를 국내 상

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한 정영근(2001)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4개 부문 총 43개 지표를 선별하여 지수를 구성함. 환경 분야에서의 지수화(indexation) 작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수체계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임.

-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지수 작성은 통상적으로 변수 선택, 지표 선정, 정규화, 통합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부문별, 지표별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선정 기준이 필요함. 이 기준은 환경과 문화예술 분야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어젠다가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라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포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선정한 기준은 모두 다섯 가지이며 여기에는 적합성(relevance),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규칙성(regularity)이 해당함. 적합성은 ‘해당 지수가 지니는 의미가 명확한 것인지, 그 지수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지, 지속가능발전지수 설정이 국가가 책정한 정책이나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내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임.
- 측정가능성과 투명성은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비교가능성은 ‘국가 간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차적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임. 마지막으로 규칙성은 분야를 막론하고 지수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소로 ‘복합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축약하여 가시적인 형태로 정기적으로 개시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이 연구에서 또한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하는 목적은 전문가 집단이 ‘어떤 부문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서 중요 요인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서로 다른 전문가 집단 간에 하위 부문별 중요도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으로써 부문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함이었으며, 총 8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지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부문별(사회, 환경, 경제, 제도) 하위 부문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표별로 0~10까지의 11단계로 분류하는데, 그 해당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10으로 표기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0으로 표기해서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함.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 대해 중요도를 비교한 것으로써 문항은 응답자가 서로 다른 두 가지 부문에 대해 중요도를 비교 평가하도록 구성했는데, 이때 척도는 1점, 3점, 5점, 7점, 9점을 사용하여 비교함.

- 회수된 설문 조사지를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평균비율을 계산하여 가중치로 사용함. 즉, 각 부문지수의 가중치의 합을 1로 하여 각 지표당 응답자의 설문 결과를 총합하여 해당 부문지수에서 그 지표의 중요도 비율을 계산함. 이러한 가중치의 산출은 단순히 지수식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하위요소가 중요한 요인인지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됨. 예를 들면 전문가 대상 설문을 바탕으로 사회 분야에 있어서 사회분배 문제, 수자원 관리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함.
-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구성하는 하위부문을 각각 두 가지씩 서로 비교한 쌍체비교값을 구하고 이를 정방행렬로 배열한 다음, 이러한 정방행렬을 바탕으로 고유벡터(eigenvector)와 최대고유치(eigenvalue)를 구함. 이때 얻은 고유벡터는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있어서의 가중치(중요도)를 나타내며, 최대고유치(λ_{\max})는 응답의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 이 연구에서는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각 부문에 대한 가중치(우선순위벡터)를 계산했으며, 각 하위부문에 대한 가중치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부문별 중요도 인식은 전문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의 분류 과정에서 종사 업종별로 분류한 6개 분야별로 부문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일치성 비율을 통해 지수와 가중치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2)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지수 개발, 한국교육개발원(2007)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균형발전지수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표면화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지수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교육격차를 드러낼 수 있는 관련 지표항목들을 개발·선정하고, 전반적 수준에서의 판단을 위해 구성된 최종안에서 몇 개 지표를 선정하여 종합한 지수를 개발함.
-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과정-산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중심축으로, 이 연구의 취지와 실천적 쟁점을 반영한 지표와 개발 모형을 설정함. 앞서 언급했듯이 선정한 지표를 모두 이용하지 않고 몇 가지를 선택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함. 이는 여러 범주를 종합했을 때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명료화할 수 없다는 점, 정책적인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며, 지수와 과정에서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 영역(교원, 시설·환경, 진학·성과, 재정)을 분류해서 현실적으로 가용한 자료들을 이용함.
- 종합지수의 산출을 위해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은 두 가

지임. 첫째, 전문가 그룹의 판단에 의한 지표 선정 방식과, 둘째,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경제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교육지표 항목으로 교육균형발전지수를 구성하는 것임.

-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교육균형발전지수: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과 교육 산출의 제반 통계적 지표에 관한 연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시도함. 결론적으로 시설·환경 및 재정 영역만이 채택되었으며 해당 지표로는 초등학교의 특별교실, 도서실, 보건실 보유율, 평균 인터넷 속도와 중학교의 보건실, 급식실 보유율과 평균 인터넷 속도,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학교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과 학교 발전금이 선정되었음. 이처럼 선정된 지표의 표준점수 값을 합산하여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함.
- 경제지표와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육균형발전지수: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분석하여 초등·중학교 관련 지표들을 선정하는 방식을 시도함. 기준으로 삼은 경제적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재정자립도임. 이 두 경제지표는 상관계수가 -0.756 이며 p -value는 $.00$ 수준에서 유의미했음. 따라서 두 지표들과 상관계수의 부호와 값이 일관성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낙후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교육지표로 선정함.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단위에서는 8개 지표가, 중학교 단위에서는 7개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앞서 전문가 판단의 산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각 지표들의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경제지표와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함.

3) 우리나라의 교육지수 개발연구: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2008)

- 이 연구는 학교평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중 하나는 학교성과를 측정 평가하여 공표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기초로서 학교교육성과 측정 및 지수산출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됨. 측정가능성과 자료 수집의 현실성을 반영한 학교교육성과의 개념적 모형과 측정모형 및 지수산출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평가함.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 것은 (1) 문헌연구, (2) 전문가협의회, (3) 면담조사, (4) 정책토론회 및 포럼 개최, (5) 델파이조사, (6) 계층화분석, (7) 자료조사 및 설문, (8) 학교교육성과지수 산출모형 시뮬레이션임.
- 델파이조사: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면담,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성과를 개념화하고 하위 영역 및 지표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이 과정을 통해 학교교육성과모형 지표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함.
- 1차 델파이조사에는 65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학교교육성과의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성과영역 및 성과지표의 적합성), 학교교육성과 개념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함. 이 과정에서 적합성이 부족한 성과영역 및 성과지표를 제외함. 2차 델파이조사는 55명의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개념 모형에 대해 적합성을 재검토했으며, 학교급별 측정지표의 적합성을 평가함. 3차 델파이조사는 성과영역 및 성과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함.

- 전문가의 적합성 판단 자료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50% 이상이 적극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30% 이하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와 보통 이상으로 반응한 전문가가 70% 이상일 경우’ 이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성과지수는 6개 영역(학업, 인성, 자기계발, 학교만족도, 학교수장·인중, 학생보유력)으로 구분됨. 한편, 이 영역별 학교교육성과지수는 목표지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즉, 100점 만점으로 각 영역의 지표들의 값을 전환하여 가중치에 근거해서 합산한 값임. 이는 학교교육성과의 개별 지표들의 자료 성격이 상당부분 100%에 도달 가능한 지표(충원율, 생존율, 취업률)들과 만점 가능한 점수(학점, 토익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 자료 조사 및 설문: 예비적인 학교교육성과지수 산출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조사되고 있는 교육지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정리를 진행함.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측정지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조사 도구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n=174-188).
- 최종 전국 단위의 학교교육성과지수의 경우에는 개별 학교별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6개 영역을 구성하는 학교 단위의 개별 지표값을 산출한 후 다시 영역별로 성과지수를 산출하며, 6개 영역을 합산해서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함.
- 학교교육성과지수 산출모형 시뮬레이션: 수집된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산출하고, 학교별로 차이 검증, 종합지수와 하위 지수 간의 상관분석 등을 진행함. 이를 통해 산출된 교육성과지수의 의미 및 적용, 효과, 정책적 활용을 검토하며 학교교육성과지수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활용도를 가늠해 보았다는 것이 특징임.

4) 한국인의 여가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 윤소영·박두용(2014)

- 이 연구는 여가를 통한 행복 수준에 기여할 새로운 ‘여가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이를 우리나라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여가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강욱(2007)의 여가지표 분류법에 근거하여 분류체계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했으며, 대분류의 경우 여가환경, 여가 자원 및 시설, 여가 활동 및 참여, 여가 태도 및 만족도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중분류를 다시 16개 영역과 각 영역에 따른 세부 지표로 구성됨.

- 제시된 기본 분류를 토대로 여가행복지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적합한 지수항목 선정에 위한 조사를 실시했음. 1차, 2차 조사는 여가 분야 및 행복지수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자 등) 4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표의 적정성을 조사했으며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III-3〉 지표의 적정성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방법	1차 조사: 지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분석 타당성: 세부 지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가능성과 적절성 여부 적정성: 세부 지표가 적절하게 조사되어 데이터 집계 가능한지 여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의 중요도 분석 각 지표의 분류의 구성의 적절성(내용분석)
	2차 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의 적정성 여가행복지수 개발의 제언 (내용분석)
조사된 지표항목	1차 조사: 차원(2개), 대분류(5개), 중분류(17개), 소분류(40개) 2차 조사: 차원(2개), 대분류(5개), 중분류(18개), 소분류(38개)

- 이후 최종적으로 구성된 지표를 바탕으로 17개 시·도 1,58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계층별 분류를 통해 여가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영역별로 소분류에서의 각 항목별 1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여 소분류별 평균값을 중분류 각 항목의 값으로 산출함. 중분류 각 항목의 평균값을 대분류의 값으로 산출한 후 5개 대분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함.

3.2.2. 문화예술 분야 지수개발 선행연구 검토

1) 문화자본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수체계를 중심으로, 최섫별·이명진(2013)

- 이 연구는 디마지오(Dimaggio, 1982)의 문화자본지수 체계와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문화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토대로 수집한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문화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화자본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됨. 이 지수의 경우 앞서 고찰된 지수개발의 사례와는 다르게, 또한 디마지오가 그의 지수체계에 포함된 문항들 각각에 동

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들의 합계를 통해 개인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기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함.

- 문화자본지수는 (1) 문화소양: 문화자본의 태도 측면, (2) 문화활동: 문화자본의 활동 측면, (3) 문화지식: 문화자본의 정보 측면으로 구성됨. 문화소양과 관련해서는 참여자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특정한 문화 관련 직업 및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를 측정함. 문화활동과 관련해서는 응답자가 실제로 문화 관련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측정했고, 문화지식은 클래식 음악, 미술, 문학 작품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도를 측정했으며, 특정작품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음. 문항에 항목으로 제시된 클래식 음악작품, 미술작품, 문학작품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예술 장르별로 각각 15개 작품을 선정함.
- 통계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2011년 <문화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지평: 문화자본에 관한 경제사회적 접근> 연구단이 실시한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함. 이 자료는 전국을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비례할당한 조사구를 이용하여 다단계 층화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이 포함됨.
- 문화자본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관찰변수로 구성된 모형이 문화자본의 기본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임. 이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했으며, 문화자본과 관련이 깊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또는 분산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함.
- 지수 구성 과정에서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엄격성을 가했다는 점.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수 체계를 활용함에 있어 이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누락된 부분 없이 그의 지수체계에 포함된 문항들 각각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분산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타당도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방법론적 엄격성을 부여함.

2) 예술지수(art index) 개발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 이 연구는 국가 전체 수준에서 문화예술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예술지수 개발을 위해 진행됨. 구체적인 목표로는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미술시장실태조사 등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지표를 선정하여 비용과 노력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지수를 개발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함.

- 따라서 예술지수의 구성지표의 선정 기준은 대표성, 지표의 측정 및 비교 가능성,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과 지속성임. 대표성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현황을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 문화가치사슬(culture value chain) 단계를 고르게 대표할 수 있고 문화예술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말하며, 측정 및 비교 가능성은 ‘수치적으로 측정 및 도출이 가능하고 추후 지역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의미하고, 객관성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생산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집 가능한 지표임.
- 예술지수는 문화가치사슬의 창작/생산 → 유통/전파 → 소비/참여와 UNESCO의 문화주기(culture cycle)의 창작-생산-전파-전시-소비/참여 모형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자원을 투입하여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인 투입(input) → 과정(process) → 산출(output)로 구조화함. 투입은 예술인력과 예술재정, 과정은 예술시설, 산출은 예술향유와 예술성과로 구성됨. 즉, 예술지수는 5개 분야지수(예술창작/생산, 예술재정, 예술시설, 예술향유, 예술성과)와 분야별로 2개씩 총 10개의 세부지수로 산출되는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분야지수는 세부지수의 평균으로 산출함. 본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산출 부분의 예술향유와 예술 성과지수의 구성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III-4〉 예술지수 개발연구 지표와 통계자료의 출처

산출	지표	지표 정의	통계 출처
예술 향유 지수	향유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관람횟수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인당 문화 서비스 지출액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독서율 및 도서관 이용률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참여	문화예술 분야 창작발표 경험률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경험률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동호회 참여율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 성과 지수	향유 결과	문화예술만족도 및 관람의향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및 수강의향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산출	지표	지표 정의	통계 출처
	여가생활 만족도	응답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행복 수준	응답자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 수준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삶의 질	응답자의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한 만족도	World Database of Happiness (Happiness Economics Research Organization)
	공연시장 매출액	공연시설 매출액 및 공연단체 매출액의 합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 매출액	미술시장 6개 분야의 작품판매 수입	미술시장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의 총 교류 건수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국제교류활동현황 (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지수 개발 연구, 강병직(2016)

- 이 연구는 문화예술이 창의성 신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단계의 창의성 신장에 문화예술이 기여하는 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앞서 고찰한 연구와 유사하게 선행연구의 창의성지수 초안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진행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에 맞는 문화예술 관련 지표와 지표 산식을 도출하여 지수화함. 이 연구는 학교 창의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론적 체계를 제시했으며, 향후 현장 실증을 통한 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방법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해 구축된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지수 체계는 학교구성원과 교육과정, 학교 환경의 3개 대영역, 7개 중영역, 19개 하위 영역, 40개의 지표로 구성됨.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업 작가 및 대학 교수(강사), 학교 교사 및 관리직 전문가 66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분야에는 다른 분야에서 인식하는 문화예술과 창의성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예술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를 포함했으며, 지역별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 10개 시·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함. 이후 초등교사 협의회를 실시하여 각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내용과 측정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이후 델파이조사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통계 처리했는데, 각 지표들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평균분석, 표준편차 분석, 긍정률 분석을 실시함. 평균분석은 전문가들이 각 개별 지표의 타당성을 1점부터 5점까지 평정척도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개별 지표의 타당성 평정 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함. 표준편차는 평균에 응답의 범주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정도를 보여 주는 값으로서 전체 응답 범주의 20% (표준편차 값 0.8 미만)일 때 의견의 일치도가 높다고 여겨짐(고재성, 2006; 박효정 외, 2008). 그리고 긍정률로서 평점 4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률이 전체의 80% 이상인 정도를 보여 줌. 이 세 가지 값을 지표의 타당성 평가의 준거로 설정함.
-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 창의성지수는 기본 측정 단위인 학교 자료 성격이 100%가 도달 가능한 지표(학생 비율, 수업시수 비율 등)와 5점 척도 응답에 기초한 점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표지수로 지수를 산출했음. 이에 각 지표의 점수와 하위지수 및 종합지수를 100 점 환산 점수로 산정하여 처리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 \bullet \text{ 학교단위 각 하위지수} = (\sum \text{각 하위지수별 개별 지표 전환값}) / \text{각 하위지수별 지표 수} \\ & \bullet \text{ 학교단위 학교 창의성 지수} = (\sum \text{각 하위지수 값}) / 3 \end{aligned}$$

- 가중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표들에 대해 동일 가중치 방식에 의한 가중치를 설정함. 이는 각 지표들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판단되거나 특정한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특정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14개 지표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한편, 선정된 지표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음. 첫째, 가령 문화예술 분야에 석사학위 교사가 많다는 점은 학교의 창의성 시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지만 실제 창의성 성과와 이 지표와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님. 둘째, 이 연구의 측정지표는 투입을 전제로 한 지표로서 산출에 관한 지표가 생략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산출에 관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며 산출과 투입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각 지표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예술지능지수 개발연구, 조덕원·이웅규·고두갑(2018)

- 조덕원 외(2018)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농어촌 지역의 창의융합 인재 육

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예술지능지수(artistic quotient)를 개발함.

-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수산업 분야에서의 예술지능지수 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고찰 및 사회 흐름을 파악함. 이를 통해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교육과 예술지능지수 개발의 관계연구의 기본 방향을 미학, 초월, 몰입, 소통, 유희의 측면으로 설정했으며, 요구되는 예술지능지수를 분석함. 그 결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농어촌 지역의 창의융합 인재가 필요한 능력을 도출함.

4. 지수 및 지표 개발 국외 연구사례

- SAEI 의 수정 및 보완, 나아가 산출 방식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그리고 예술교육 분야 지수개발 관련 해외 선행연구와 국제문화예술지수 개발 사례를 검토하고, 지수개발 절차 및 방법론을 탐색함. 고찰된 선행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III-5〉 국외 지수개발 관련 주요 연구 사례

구분	연도		연구명	유형	분야
지수	2008	미국 뉴저지 예술교육 조사 프로젝트	우리 안의 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의 진전, 역경, 그리고 약속	연구보고서	예술교육
	2013	Eckart Liebau, Ernest Wagner, Max Wyman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1 (2013)	연구보고서	예술교육
	2014	Susanne Keuchel	예술교육개발지수-문화교육의 국제 비교 가능한 실증적 연구 방법	연구보고서	예술교육
	2016	Teunis Ildens	전국 예술교육 시스템 관찰: 전 세계 예술교육 전문가들에게 이뤄진 두 가지 설문조사의 결과	연구보고서	예술교육
	2016	Americans for the Arts, Roland J. Kushner, Randy Cohen	전국 예술지수 리포트 2016: 2002~2013 미국의 예술과 문화의 활력	연구보고서	문화예술
	2016	Roland J. Kushner, Randy Cohen	미국 지역예술지수 2009~2015	연구보고서	문화예술

	2017	National Campaign for the Arts	영국 예술지수 2007~2016	연구보고서	문화예술
	2017	Teunis IJdens, Ben Bolden, Ernst Wagner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5 (2017)	연구보고서	예술교육
	2019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미국 50개 주의 비교연구: 예술교육 데이터 수집과 보고 2019	연구보고서	예술교육

- 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세부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과 지수 작성 과정이 각 지수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예비조사(설문지), 통계 기법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감. 따라서 지표, 지수 관련 선행연구를 선정 기준 및 연구 방법과 절차, 지수 유형과 산출 방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했으며, 내용 요약은 <표 Ⅲ-6>와 같음.

<표 Ⅲ-6>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 및 절차 요약

구분	연도	분야	최종 구성	선정 기준	연구 방법 및 절차					
					문헌 연구	면담 토론회	델파이 조사	예비 조사	통계/사물례이션	지수 유형 연구 방법
지수	2008	예술 교육	분야지수(9) 세부지수(20)	적합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	●			델파이조사
	2013	예술 교육		국제비교적 합성 적합성 대표성	●	●	●	●		델파이조사
	2013	예술 교육		국제비교적 합성	●	●	●	●		델파이조사
	2014	예술 교육		국제비교적 합성 실행가능성	●	●	●	●		델파이조사
	2016	예술 교육	분야지수(5)	실행가능성 현실성	●		●	●		델파이조사
	2016	문화 예술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지속성	●					준거지수
	2016	문화 예술		대표성 통계 데이터의	●			●		델파이조사

				신뢰성 지속성						
2017	예술 교육	세부지 수(20)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						문헌고찰
2017	예술 교육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						문헌고찰
2019	예술 교육		실행가능성 현실성	●						문헌고찰

4.1. 예술교육, 예술 및 문화 분야 지수개발 사례

1) 우리 안의 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의 진전, 역경, 그리고 약속 (Within our Power, the Progress, Plight and Promise of Arts Education for Every Child, the New Jersey Arts Education Census Project) (2008)

- 이 연구는 뉴저지 국립학교들의 예술교육지수(The New Jersey Arts Education Index)를 측정하기 위해 각 학교의 예술교육에 관한 설문지를 통해 지수를 수집하고 측정함. 지수의 점수는 표준화되었으며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짐. 0이 학교의 저조한 예술교육을 의미한다면, 1은 이 연구에서 예술교육을 측정하는 모든 요소들에 부합해서 노력했음을 의미함.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받은 학교의 지수값은 0.77이었으며 0을 가진 학교는 소수였음.
- 지수값은 총 20개 요소들로 구성됨.
 - 질적 데이터와 관련된 8개 아이템: 수업, 학생 참여도, 선생님, 지도 사항, 그리고 예술 분야의 다양성.
 - 3개 아이템: 시설, 그리고 자원.
 - 5개 아이템: 정책과 교사연수, 감독, 그리고 평가.
 - 4개 아이템: 커뮤니티 자원.
- 지수는 다변량 통계 모델들(multivariate statistical models)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요소들이 학교에서 높은 그리고/또는 낮은 예술 수준을 초래하는지 밝히고자 함. 다변량 통계 모델을 위해 지역의 인구 수, 인종의 구성, 실업률, 범죄율, 학생 대 선생님의 비율, 학생 일인당 쓰이는 예산, 수학과 수능 점수, 지역 인자 그룹 (district factor group), 학교 크기가 측정되고 분석됨.
- 지수를 측정한 결과 학교 크기와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요소보다 그들의 전문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이 학교의 예술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산출됨.

2) 예술교육 점검 [Monitoring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1 (2013)] (Ernest Wagner)

- 질적 데이터로 예술교육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존재했음. 본 보고서는 예술교육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 분야의 데이터를 조사했으며, 예술교육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관한 논의를 시도함.
- 예술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야에 국제적인 설문을 시행한 이유는 기존의 방식으로 예술교육 분야에 한정하여 설문을 실시할 경우,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 같은 이분법적인 조사 결과만이 도출되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교육이 아닌 교육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함.
-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국제 규모의 설문이 흔치 않았음을 보여 줌.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교과목들에 비해 예술교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로 제한적으로 이뤄짐.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예술교육 실무진들이 예술교육에 관해 얼마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지에 관한 측정을 가능하도록 함. 따라서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나라별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서술적 질적 연구(descriptive qualitative research)를 방법론으로 사용함. 데이터는 다양한 나라의 전문가들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예비조사는 2012년 다양한 나라 출신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들은 최종 질문지를 발전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함. 예비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지의 질의는 8세와 15세 아동들의 예술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고 공통적인, 그리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활동들에 관한 내용임.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묻는 이유는 특정 환경과 문화에 상관없이 예술교육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항이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는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INRAE)을 통해 (1) 과학적인 연구 기준을 준수하고, (2)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여, (3) 예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을 목표로 함.
- INRAE는 독일 UNESCO 체어와 세인트 오스틴 문화연구센터(Centre for Cultural Research in Sankt Austin)에 의해 기본적인 개념이 발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질문이 만들어졌으며, 10명의 전문가들에게 보내졌음. 서울어젠다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본 연구는 국제적인 예술교육을 완성하는 시작 단계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UNESCO와 예술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제공될 것임. 또 본 연구가 예술이 어떻게 형식적, 그리고 비형식적 교육(formal, non-formal, informal)에서 사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예술교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을 발전시켜서 범국가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함. 연구 결과는 2015년 학회(Polylogue II in Wildbad Kreuth)에서 발표할 예정임.

3) UNESCO의 서울어젠다 시행 점검 [Monitoring UNESCO's Seoul Agenda in Practice: Challenges and Beginnings,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1 (2013)] (Samuel Leong)

- 서울어젠다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임. 2010년 5월에 발표되어 2011년 11월 UNESCO에서 도입했지만, 정작 회원 국가들이 얼마나 서울어젠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임. 또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예술교육에 관한 가치 기준이 부재한 현실도 각국에서 서울어젠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줌. 따라서 각 나라에 적합한 점검, 그리고 평가하고 나라별 시행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함. 그러나 서울어젠다가 650명의 임원들과 95개국의 예술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초석이 놓인 만큼 적어도 국가별로 서울어젠다에 대한 이해 정도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비교 사용이 가능한 프레임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연구는 서울어젠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진행됨. 이 조사는 서울어젠다가 해당 지역 나라들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점검이 시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짐.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평가 또는 정책 점검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실증적이기보다는 서술적인 형태를 취함. 따라서 취합된 데이터는 비교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는 각 나라별 예술교육의 대략적인 현실을 대변하는 요소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 단계의 연구들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두어야 함. 여러 차례의 토론을 진행한 끝에 다음과 같은 프레임이 완성되었음.
 - 주요 예술교육 정책들과 시도들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
 -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에 주의할 것.
 - 예술교육에서 질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함.
 - 서울어젠다의 목표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함.
 - 질 높은 예술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참고해야 함.

- 서울어젠다의 시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참고해야 함.
- 질 높은 예술교육이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참고해야 함.
- 서울어젠다가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참고해야 함.
- 각국에서 시행하는 주요한 예술교육과 문화교육 정책들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참고할 것.
- 예술교육 정책들과 계획들이 서울어젠다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
- 질 높은 예술교육 정책들과 계획들을 시행하는데 허점은 없는지 살펴볼 것.
- 수집되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 서울어젠다 점검을 위한 좀 더 세밀한 지표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안을 받을 것.

- 본 연구는 2013년에 완료되었으며, 논의된 사항들은 국내외 국가들이 어떻게 서울어젠다를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매우 기초적인 요소들에 대해 다룸.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심과 토론을 통해 서울어젠다와 그 목표들이 다양한 나라에 어떻게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한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정제하는 과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함.

4) 예술교육 개발지수: 문화교육의 국제 비교 가능한 실증적 연구 방법 [Arts Education Development Index (AEDI) – Ein international-vergleichender empirischer Forschungsansatz in der Kulturellen Bildung] (Susanne Keuchel, 2014)

- 이 연구는 상이한 국가 간 예술교육의 구조와 문화 분야에 대한 펀딩 정책 시스템이 국내의 예술교육 활동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착안했음. 따라서 이 연구는 UNESCO가 제안하는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이것이 예술교육 개발지수(AEDI)를 연구하는 목적과 배경이기도 함. 이 연구는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의 동시적 협력이야말로 국제적인 교육 시스템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함.
- 교육 분야에서 예술교육에 관한 전국적 통계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아 기존에 존재하는 교과과정, 전국노조(national unions)의 통계, 인구조사 또는 시간운영분석(time budget studies)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이 필수적으로 연구방법론에 개입되었음. 이러한 다양하고 때로는 대체적인 자료들의 사용 때문에 전문가 설문지를 실시함. 표준화 질문서(standardized questionnaire)를 통해 진행된 전문가 설문은 첫 번째 단계로 전문가들에게 예술교육지수에 관해 타깃 그룹을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교육자들의 자격에 대해 물었음. 다음 연구를 위해서는 중재의 정도(intensive of mediation)와 같이 서울어젠다를 연결한 새로운 지수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예술교육 분야의 구조 데이터, 실증적인 연구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사용된 방법론은 국제적으로 예술교육의 실증적 데이터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되고 실행되었음. 따라서 연구 속 지수들에

관해 응답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또는 추정치에 기반하여 대답함.

- AEDI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 INRAE(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는 5대주 8개국의 INRAE 전문가들에게 2012년과 2013년에 걸쳐서 예비 테스트를 실시함. 예비 테스트는 국제적인 콘텍스트에서의 실행가능성, 그리고 표준화 질문서를 검증하기 위해 실행되었음. 예비 테스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본 연구 모델의 국제적인 비교 적합성에 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타당성,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에 관해 답함. 예비 테스트에 참가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불충분한 예술교육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언급함. 예비 테스트에 참가한 모든 전문가들이 AEDI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도출했으며, 대부분 불충분한 데이터, 국가 간 상이한 예술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 예술교육 활동의 범위를 넓히려는 조언과 국가별로 존재하는 특정 상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국제적 비교를 위한 지수로 개발된 AEDI를 두고 소수의 질적 데이터가 예술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에 관련된 결과를 내리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연구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국제적인 지수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지표들을 다룰 때 반영된 지수들의 중요성을 실제로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화하거나 왜곡을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AEDI는 다른 분야의 예술교육 연구와도 연계되어 지수로 사용될 수 있음. 예를 들면, AEDI가 지수로 사용되어 참가 국가의 예술교육 구조를 타입별로 구별하고, 구분된 그룹들을 연구의 질적 연구 콘텍스트에 제공하는 국제연구 프로젝트들에 적합함.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주제에 관한 지수들, ISA, human development index, global peace index, corruption perception index, democracy index 등과 연계하는 가능성이 있음. 이는 서울 어젠다를 통해 예술교육의 국내적 시스템으로서의 가치에 관한 열개를 그릴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예술교육의 국가적인 중요성과 다른 사회 발전 사이의 잠재적 연계를 보여 줌.
- 연구 결과 다른 교육 시스템들에 의존하는 예술교육 기관들, 그리고 예술교육의 다양한 콘텍스트들 사이의 관계 등과 같은 예술교육 기관과 예술교육의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남. 예술교육 구조들의 국내적 개발과 다른 국내 관련 주제들 사이의 상호 의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예를 들어 PISA, 다른 정치구조들, 부패, 경제 등). AEDI와 함께 다양한 국내적인 예술교육 시스템들을 정돈하는 기반을 만들고 이를 다른 예술교육, 특히 질적 연구와 연계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임.

5) 전국 예술교육 시스템 관찰: 전 세계 예술교육 전문가들에게 이뤄진 두 가지 설문조사의 결과(Monitoring National Arts Education Systems (MONAES): Some Results of Two Surveys among Arts Education Experts around the World) (Teunis IJdens, 2016)

- 이 연구는 전국 예술교육 시스템 관찰(MONAES: monitoring national arts education systems)을 목적으로 서울어젠다 2010이 어떻게 UNESCO 회원국들의 예술교육정책과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 서울어젠다는 국제적으로 예술교육 시스템, 실행, 정책들을 비교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함. 따라서 서울어젠다가 본 연구의 큰 틀을 형성함. 2012년 예술교육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Arts Education Research)가 MONAES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파일럿 연구는 2013년과 2014년에 시행된 뒤 2015년에 본격적으로 MONAES 프로젝트가 시작됨.
- MONAES의 연구는 접근, 질, 교육의 새로운 변화, 사회, 그리고 문화적 과제, 연구, 특히 예술의 접근성, 예술교육의 질, 교육자들의 트레이닝, 수준/기준, 평가에 집중했으며 예술교육이 어떻게 교육의 새로운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예술교육의 사회, 그리고 문화적 과제 해결, 예술교육 연구, 특히 연구와 실행 사이의 연계 강화에 대한 지수개발에 초점을 둠.
- 데이터 수집은 전 세계의 예술교육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두 차례 실시함. 그 결과 2016년까지 78개국 1,595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참여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국민들이 예술 또는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응답함.
-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 그리고 유럽과 북미 국가들 사이의 예술교육 연구의 국제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함을 인지함. 각 나라별 설문지 중요했던 이유는 각국에서 스스로 자기 진단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임. 또 연구 결과 예술교육 연구에서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관심이 높았다면, 이러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룹도 존재함이 드러남.

6) 전국 예술지수 리포트 2016: 2002~2013 미국의 예술과 문화의 활력 (National Arts Index report 2016: Vital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2002~2013) (Americans for the Arts, Roland J. Kushner, Randy Cohen)

- 본 보고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의 미국의 예술, 그리고 문화 분야를 분석함. 예술지수 81개의 전국 레벨의 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지표들은 연방정부와 사립연구기관들에서 도출한 가장 최근의 연간 데이터를 사용함. 예술지수는 2003년도의 기본 스코어

인 100으로 지정함. 모든 포인트의 차이는 그 해의 1%의 변화를 의미하며 리포트는 예술의 대불황 이전과 이후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 전국 예술지수 점수는 2013년 99.8까지 올랐는데 이는 2012년도에 수정된 97.4에 비해 상승한 값임. 2008년도와 2009년 사이의 예술 대불황의 영향은 잘 관찰될 수 있었음.¹⁰⁾ 2012년부터 회복기가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도 계속된 이 흐름은 2003년도의 지수 기본값으로까지 오름.

- 경제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의 회복이 느리고 불균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비나 자선 사업 등이 하락되어 발생한다는 것이 드러남. 경제 호황 시기였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50% 이상의 지표들이 매년 상승함. 그러나 2007년과 2009년 사이에는 3분의 1 정도의 지표들만이 증가함. 경제가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 주듯 2013년부터 55% 이상의 지표들이 상승함.
- 연구 결과 최대치의 지수점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을수록 좋은 수치임. 예를 들어, 120점은 가장 높은 점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예술이 사회에 매우 잘 흡수된 구성요소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경제적 상황, 창조에 대한 인식, 적극적인 대중의 예술 참여도 등을 함축적으로 보여 줌.

7) 미국 지역예술지수 2009~2005 (LAI: local arts index, 2009~2015) (Roland J. Kushner, Randy Cohen, 2016)

- 지역예술지수(LAI)는 미국 예술옹호 시민단체(AFTA: American for the arts)에 의해 2001년에서 2017년까지 개발되어 실시되었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AFTA는 미국에서의 예술과 문화의 활성도를 측정한 전국예술지수(NAI: national arts index)를 출판함. 2010년의 NAI 리포트는 AFTA가 관심 있어 하는 예술의 활성도에 관해 측정 함. NAI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되었다면, AFTA의 경우 지역 예술 기관들은 AFTA에게 NAI가 실시한 조사를 지역 범위에서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실행됨.
- LAI는 두 가지 데이터 수집 과정을 진행함. 첫 번째 단계로 지역 예술 활동에 관한 1차 자료는 100개의 커뮤니티에서 지역 예술 에이전트들에 의해 2011년 수집됨. 두 번째 단계에서 2차 자료는 NAI에 제공된 자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함. 정부 기관, 사립 연구 기관, 학문 센터, 그리고 영리 데이터베이스 업체 데이터는 자치군별로 수집되어 분석됨.
- 연구 결과 몇 가지 지표들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분석이 용이했는데 이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균일한 연간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출된 지표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대부분의 정부와 비영리 기관들의 데이터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데이터들은

10)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의 하락은 2002년과 2007년 사이 5년간의 수익의 거의 2배였음.

조정이 요구됨. 예를 들어, 일인당 예술 활동 그리고/또는 상품에 소비하는 지표는 Claritas Nielsen에서 얻어짐. 그 이유는 이들이 매년 새로운 경제측정 모델을 사용하며, Claritas Nielsen은 종적 연구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임. 따라서 매년 Claritas의 데이터가 추가되었고, 오래된 데이터는 삭제되면서 그 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지수가 산출됨.

8) 영국 예술지수 2007~2016(Arts Index 2007~2016) (National Campaign for the Arts, 2017)

- 예술지원기구(NCA: National Campaign for the Arts)에 의해 작성된 본 보고서는 예술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을 위해 예술 분야가 어떠한 상태인지 직시하고 점검하는 의미에서 예술지수를 출판함. 보고서는 예술지수를 예술 펀딩과 연계하여 분석함. 10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던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인 예술 펀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세금우대 조치와 큰 폭으로 상승한 복권 펀드를 예술 분야에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공투자의 급격한 하락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영국의 예술 분야가 공금보다 소득에 의존하는 처지가 되었음.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는 과연 이러한 요소들이 국민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함. 아트지수는 2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 기반으로 경제적 수치들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음.
- 원본 지수는 NCA와 다른 기관들(Audiences UK, Audiences London)에 의해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연구, 분석한 뒤에 2010년 출판되었음. 원본 지수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보고됨.

예술지수 구성요소(측정지표)	
1	인구 일인당 재무부가 영국예술협회(Arts Council England)에 지원하는 기금
2	인구 일인당 국립복권협회에서 지원하는 예술기금
3	인구 일인당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금
4	인구 일인당 수익으로 운영되는 예술기관들의 수입
5	인구 일인당 예술 분야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정도
6	인구 일인당 예술에 대한 신탁과 재단의 기여도
7	인구 일인당 예술을 위한 기부 정도
8	고등교육 학생들 중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인구 비율
9	일반 중등교육 인구 중 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인구 비율
10	인구 일인당 예술기관들을 지원하는 축적된 기금

11	인구 일인당 예술기관들을 지원하는 축적된 기금
12	인구 대비 성인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13	흑인과 소수 인종의 성인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비율
14	지병과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비율
15	세금에서 예술과 문화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비율
16	국립복권협회에서 예술과 문화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비율
17	웨스트 엔드(West End) 극장에서 오는 수입
18	인구 일인당 예술기관을 지원하는 기금의 총 비용
19	창조, 예술, 그리고 연예사업의 총부가가치의 UK의 비영리적 경제에 대한 비율
20	전체 직종에서 예술, 문학, 그리고 미디어 직업의 비율

- 각 지표들은 2007년과 2008년의 수치들과 비교하여 산출되었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또는 그 이전 연도의 수치를 찾아 사용했으며, 본 연구가 지향하는 2007년보다 더 이른 시기의 데이터가 존재하나 그 이후의 자료들에서 공백들이 존재한다면 이전 시기의 데이터를 통해 보완하여 이를 통해 전체 기간의 지수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함.

9)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지식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비교연구를 위한 우선순위에 관한 이슈들과 제안들(How to Build Knowledge in Arts Education for the Future? Some Priority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Comparative Research)(Ligia Ferro 2017)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덕분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예술교육 관련 비교 토론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함. 그러나 높아진 관심에 비례하여 다른 나라의 예술교육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임. 현재 MONAES 프로젝트에 비해 더 과학적이고 실무적이며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논의의 연구는 부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예술교육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공통적인 연구 관행이 국제적인 토론과 협력을 통해 요구되고 있음을 이해함.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예술교육이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연구를 위해 어떠한 어젠다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함.
- MONAES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술교육의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연구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비교연구가 가능함을 보여 줌. 81%의 MONAES 응답자들은 MONAES의 연구 결과가 국내 예술교육 전문가들과 정책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대답함. 이를 통해 본 연구는 MONAES의 분석 결과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대로 원활하게 공유되고 배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정보의 공유는 비교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비교연구는 연구와 실무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주장함. 다양한 실무에 관한 지식이 취합되었을 때 비로소 현장에서의 실무 역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연구는 현장에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연구와 실무를 연결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를 연구할 때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언급함.
- 지속발전가능성은 예술교육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임. 따라서 비록 지속발전가능성이 예술교육을 논의할 때 보완해야 할 요소로 우선시되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에 관한 비교연구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함. 비교교육학 연구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육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교육을 분석함. 이러한 복합적인 틀이 예술교육 연구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 비교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미비함. 현재 MONAES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설문지와 같은 양적 연구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국제 비교적 질적 연구의 데이터는 그 수가 많지 않았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교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어떻게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이것이 예술교육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했을 경우 연구와 실무의 연결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 주장함.

10) MONAES Project 요약(Summary of the MONAES Project) (Teunis IJdens and Ernst Wagner, 2017)

- MONAES(Monitoring Arts Education System)는 INRAE(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에 의해 UNESCO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2010)을 통해 전 세계의 예술교육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음.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어젠다에서 언급된 항목들이 어떻게 UNESCO 회원국들 사이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실행과 정책을 위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지역별로 예술교육의 실행과 정책들의 상태와 성향들을 비교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본 연구의 데이터는 UNESCO 회원국의 다수 예술교육 전문가들에게 예술교육의 핵심 이슈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과 각 전문가들이 소속된 국가에서 예술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경험되는지에 관한 두 차례의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음.
- 서울어젠다에서 예술교육을 정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예술교육을 어떻게 각자 정의하고 이해하는지 물었음. 첫 번째 설문을 통해 MONAES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술교육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지에 관한 설문을 실시함. 예를 들어, 질문지는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정의들, 예술교육이 일어나는 환경들, 예술교육과 관련 있는 핵심 용어들, 예술교육의 콘셉트들, 예술적이면서 문화적인 표현들, 그리고 예술교육을 통해 발생된다고 기대되는 이득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함. 두 번째 설문은 응답자들의 사적인 견해를 묻는 대신, 각 전문가들이 소속된 나라에서 예술교육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함. 두 차례 실시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이해와 각 나라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비교함.

- 첫 번째 MONAES 설문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예술교육의 접근성, 특히 아이들과 젊은 이들의 접근성이 예술교육이 앞으로 직면할 가장 큰 과제라고 응답함. 또 첫 번째 설문지에서 전문가들은 초등·중학교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 대상의 훈련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함. 반대로 두 번째 설문지를 통해 전문가들은 예술교육의 질적 부분이 그들 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이를 통해 전 세계 예술교육 전문가들의 견해 및 의욕과 각 국가의 예술교육 관련 정책과 인지도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이 드러남.
- 해당 연구의 첫 번째 결론은 예술교육이 개인과 사회적 이득에 관한 전문가들의 가치와 각 국가에서 이러한 점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함을 도출함. 즉, 서울어젠다의 주요 목적과 제안들이 예술교육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는데 반해 예술교육의 시행과 정책의 현실은 이에 비해 각 국가마다 뒤쳐지는 실정임이 드러남. 다시 말해 이는 서울어젠다가 국제 예술교육 전문가 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뿐 정부 정책들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데 가이드 매뉴얼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 줌.
- 두 번째 결론은 접근성과 질적인 측면이 각 나라의 인지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에 따라 국가별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드러남. 이러한 점은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경제적 발전 상황이 서울어젠다의 국제적인 접근성에 관한 연구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또 이는 서울어젠다의 맥락화(contextualization)와 구별화(differentiation)가 요구됨을 의미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임.

11) MONAES의 준거 틀과 방법론(MONAES Frame of Reference and Methodology)(Teunis IJdens, Ernst Wagner and Eckart Liebau, 2017)

- MONAES(Monitoring Arts Education System) 연구 프로젝트는 INRAE(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과 UNESCO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2010)에 의해 발족됨. 해당 연구는 서울어젠다가 소개한 사항들이 UNESCO 회원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둬.

- MONAES는 예술교육의 시행, 정책, 그리고 구조가 겪은 변화들과 지속성들(continuities)이 세월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함. 현재까지 국가별 예술교육을 비교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서울어젠다에서 권고하는 목표, 전략, 그리고 실행에 관한 사항들을 참고했음. 또 본 프로젝트는 국가별,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와 유사점이 존재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기이기도 함. 국가별 비교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한 본 연구는 2013년 소수의 국외 전문가들에게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Keuchel, 2014), 이 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가 INRAE와 전문가들에게 회의와 이메일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배포되어 실시됨.
- 해당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참고 된 이유는 서울어젠다가 제안하는 접근성, 질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갈등 해결의 세 가지 목표 때문임. 따라서 UNESCO 회원국들에 서울어젠다의 핵심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서울어젠다에서 제안하는 다섯 가지 주요 사항들이 점검과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됨. 선택된 다섯 가지 핵심 이슈들은 접근성(목표 1), 질(목표 2), 교육의 개선(목표 1과 3), 사회적·문화적 과제 해결(목표 3), 연구(목표 1과 2)와 같이 서울어젠다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 이처럼 서울어젠다의 다섯 가지 핵심 이슈와 세 가지 목표가 MONAES 프로젝트의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쓰임. 완성된 질문지는 예술교육 전문가들에게 두 차례 실시한 설문지로 사용됨.
- 해당 프로젝트는 두 차례 디지털 설문조사를 시행함. 이때 기관에서 종사하는 각국의 다수의 개인 전문가들(large number of individual experts)에게는 예술교육 실행, 정책, 그리고 구조에 대해 질의함.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개인 전문가들(individual experts)의 경우 해당 연구에서 선호되었는데 이는 개인 전문가들이 회신이 빠르고 무엇보다도 독립적으로 예술교육의 실상과 상황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임.
- 2016년 2월에 실시한 첫 번째 MONAES 조사는 예술교육에 관한 개인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이해, 인식, 그리고 의견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총 다섯 가지 섹션으로 이뤄짐.
 - (1)예술교육의 이해, (2)예술교육 이슈에 대한 참여도, (3)앞으로 다가올 예술교육 실행, 정책과 연구가 직면할 과제, (4)전문 지식과 업무 및 개인적인 데이터, (5)2차 설문지의 이슈를 위한 제안.
- 같은 해 5월에 실시될 2차 조사는 각국의 예술교육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예술교육 시행과 정책에 대한 것으로 1차 설문지가 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함. 다음과 같이 2차 조사는 1차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형식으로 디자인됨.
 - (1)컨텍스트: 응답자들의 전문적 직업과 전문지식,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예술교육에 관한 정보, (2)응답자가 소속된 나라에서의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3)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실제적인 참여도, (4)예술교육의 질, (5)예술교육의 이득과 과제, (6)예술교육 연구

- 점검연구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주로 양적 연구인데 반해, MONAES의 연구는 질적 분석을 선택함. 이는 수집된 응답 자료들 간의 연관성 분석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교육의 정의를 밝혀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들 사이에서, 그리고 각 세계 지역과 국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 MONAES는 예술교육 전문가들 사이의 전문적 특성들(professional characteristics)과 아이디어, 그리고 국가별, 각 세계 지역별 예술교육의 실상과 상황에 대한 평가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별하기 위해 실시된 탐색적인 비교연구(exploratory comparative research)임. 연구는 그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 해석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수집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응답들 사이의 극명한 차이, 예상하지 못한 유사성 또는 불가능해 보이거나 반직관적인 상관관계들을 찾아내고 이에 집중함으로써 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돌파구를 제안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임.

12)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지식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비교연구를 위한 우선순위에 관한 이슈들과 제안들(How to Build Knowledge in Arts Education for the Future? Some Priority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Comparative Research)(Ligia Ferro 2017)

- 해당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덕분에 예술교육 관련 비교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함. 그러나 높아진 관심에 비해 다른 나라의 예술교육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에 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함. 따라서 현재 MONAES 프로젝트에 비해 더 과학적이고 실무적이며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논의의 연구는 부재함을 언급함.
-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예술교육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공통적인 연구 관행이 국제적인 토론과 협력을 통해 요구되고 있음을 이해함. 따라서 해당 연구는 국제 예술교육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연구를 위해 어떠한 어젠다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함.
- MONAES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술교육의 연구는 국내 연구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비교연구가 가능함을 보여 줌. MONAES 응답자들 중 81%는 MONAES의 연구 결과가 국내 예술교육 전문가들과 정책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대답함. 이를 통해 본 연구는 MONAES의 분석 결과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대로 원활하게 공유되고 배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정보의 공유가 비교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인지해야 함을 강조함.
- 비교연구는 연구와 실무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주장함. 다양한 실무에 관한 지

식이 취합되었을 때 비로소 현장에서의 실무 역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연구는 현장에 있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연구와 실무를 연결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를 연구할 때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주장함.

- 지속발전가능성은 예술교육을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핵심 문구임. 비록 지속발전가능성이 예술교육을 논의할 때 보완되어야 할 요소로 우선시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에 관한 비교연구 발전과 다양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비교교육학 연구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육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구조 안에서 교육을 분석하는 것처럼 해당 연구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틀이 예술교육 연구에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비교연구의 경우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그 수가 미비함. 현재 MONAES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설문지와 같은 양적연구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국제 비교적 질적연구의 데이터는 그 수가 소수에 불과함.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비교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어떻게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예술교육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했을 경우 연구와 실무의 연결이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임.

13) 미국 50개 주의 비교연구: 예술교육 데이터 수집과 보고 2019(50-State Comparison: Arts Education Data Collection and Reporting)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9)

- 본 연구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의 예술교육 데이터를 비교함. 연구의 목적은 모아진 데이터를 정책 입안자,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 단위에 제공함으로써 모든 미국 학생들이 예술 자체와 예술을 통해 성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어떤 주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출판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예술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임.
- 본 연구는 해당 주들이 예술수업 표준 명단을 출판 또는 유지했는지, 예술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출판했는지, 또한 예술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격에 대한 데이터를 출판했는지 여부를 수집하여 모든 주들의 예술교육 데이터를 출판, 보고했음.
- 주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는 2016년 예술진흥기구(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했음. 예술진흥기구의 연구가 주로 어떠한 주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되었는지 여부에 집중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1) 어떤 주가 예술교육 데이터를 출판하는지, (2) 출판 된 분석 자료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3) 2016년도의 자료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며, (4) 본 연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했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주 교육위원회는 각 주의 교육부 웹사이트를 검토했으며, 각 주에서 수집된 교육 관련 데이터를 연구하기 위해 공개 데이터 게시판, 데이터 사전, 데이터 수집 안내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밖의 문서들을 살펴보았음.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주의 예술 에이전시, 예술 비영리기관들의 웹사이트에 있는 주 교육 데이터 시스템에 관한 리포트, 그리고 게시판도 확인했음.

- 연구 결과 해당 주들은 예술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출판하기보다 수집 단계에서 머무는 확률이 높았음. 또 대부분의 주(42개)들은 예술수업에 대한 공식 명단, 카탈로그 또는 수업 코드를 출판했음. 13개 주는 예술수업의 출석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한 반면, 다른 31개 주는 수집하는 데에 머물렀음. 15개 주는 예술수업에 배정된 선생님들의 인원수를 출판했는데, 전체에서 3개 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했음. 2개 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는 예술에 얼마나 많은 실습시간을 할애했는지 출판하지 않았음. 몬타나 주만이 유일하게 방과 후의 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데이터를 출판했으며, 로드 아일랜드 주만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임. 거의 모든 주들이 학교의 일반적인 성향, 예를 들어 출석 수와 학생 인구 동향에 대해 출판했음. 종합하면 데이터가 여러 차례 수집되어 각 주의 예술교육 특성이 파악되었던 반면, 주 사이에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단편적이고 기록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자료로 제한적으로 이용됨.

5. 교육 및 관련 분야 국제지수 개발 연구사례

- 국제지수 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지수 개발연구는 전무하지만 이와 관련 분야인 교육 분야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UNESCO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4를 위한 교육지표 안내서(UNESCO, 2018)’와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UNESCO, 2015)’가 있음.

〈표 III-7〉 해외 지표·지수개발 관련 주요 연구 사례

구분	연도		연구명	유형	분야
지표 개발	2018	UNESCO-UI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4’를 위한 교육지표 안내서(Quick Guide to Education Indicators for SDG 4)	연구보고서	교육
지수 개발	2015	UNESCO	2015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201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연구보고서	교육

1) 2015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201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 모두를 위한 교육 2000~2015: 성과와 과제(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2015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는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6대 목표와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2000년 포럼에서 설정된 EFA 6대 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시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00년부터 목표 달성 연도로 지정되었던 2015년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새로운 교육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됨.
- 다음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전개와 발전 과정을 요약한 표로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이 그 이후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인천 세계교육포럼 의제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선언한 의제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여섯 가지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행동계획 전략 12가지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다카르 행동계획의 경우 서울어젠다와는 달리 모두를 위한 교육(EFA) 6대 목표와 행동계획 전략 간 연결성을 나타내지 않았음. 다카르 행동계획은 국제적 개입을 통한 국가별 지원을 제안 및 유도하고, EFA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III-8〉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전개 과정

연도	발표장소	내용과 의의
1990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컨퍼런스, 줌티엔 (world conference on EFA, Jomtien)	<p>EFA 목표 발표: ‘줌티엔 선언’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회의에서는 국제 사회의 ‘모두를 위한 교육’ 운동에 대한 동의를 얻고, 기본적 교육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全) 지구적 노력을 모으는 데에 합의함. 기본교육목표는 유아 및 초등교육, 문해력, 직업교육이 포함됨. 줌티엔 선언문에 정의된 6개의 목표를 2000년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2000	세계교육포럼, 다카르 (world education forum, Dakar)	<p>EFA 목표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FA의 진척에 대한 평가 후, EFA 6개 목표 개정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 채택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따라 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과 개정된 EFA 목표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동의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 (world education forum, Incheon)	<p>새로운 교육 어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FA의 성과에 더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심화된 교육목표와 국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 목표를 개발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접근성 확대, 교육의 질적 향상, 국제시민교육이 새로운 교육 어젠다에 포함됨. • 새로운 교육 어젠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연계되어 진행될 것임.
--	--

출처: 주 UNESCO 대한민국 대표부(2015. 3. 6.). 'Education for All (EFA) Chronology,' 재구성.
 웹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unesco-en/index.do> (최종접속일자: 2019. 8. 15.)

○ 다음은 2000년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와 행동계획 전략 상세 내용임.

모두를 위한 교육(EFA)목표
목표 1 - 영·유아 보육 및 교육(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목표 2 - 초등교육의 보편화(universal primary education)
목표 3 - 청소년 및 성인기술(youth and adult skills)
목표 4 - 성인 문해(adult literacy)
목표 5 - 양성평등(gender parity and equality)
목표 6 -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그림 III-1〉 모두를 위한 교육 6대 목표(UNESCO, 2015)

모두를 위한 교육(EFA) 다카르 행동계획 전략
전략 1 - 기초교육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전략 2 - 빈곤 퇴치와 연계된 통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EFA 정책을 마련한다.
전략 3 - 시민 사회가 적극적인 교육개발 전략에 동참하도록 한다.
전략 4 - 책임 있는 거버넌스 및 관리를 마련한다.
전략 5 - 분쟁 및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의 교육체계 필요를 충족시킨다.
전략 6 - 양성평등을 위한 통합 전략을 구사한다.
전략 7 - 에이즈 바이러스(HIV) 및 에이즈(AIDS) 퇴치 행동을 전개한다.
전략 8 - 교육 환경의 안전성, 보건성, 포괄성 및 자원 형평성을 보장한다.
전략 9 - 교사의 지위, 사기,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다.
전략 10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다.
전략 11 -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전략 12 - 기존 메커니즘을 기초로 하여 강화한다.

〈그림 III-2〉 모두를 위한 교육 다카르 행동계획 12대 전략(UNESCO, 2015)

○ The EFA Development Index(EDI), 즉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어젠다의 국제 사회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개발지수임. EFA의 각 목표의 지수(index)는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는 모두를 위한 교육

(EFA) 목표는 모두 6개가 공표되었으나, 개발지수(EDI)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해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4개의 목표를 선별하여 지수로 구성했음. 개발지수(EDI)에 적용되는 목표 네 가지는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인 문해, 양성평등, 교육의 질이며, 이를 ‘표준지수(standard index)’라고 명명했음.

- 이후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ECC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에 대한 지수가 개발되면서 확장지수(extended index)로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에 추가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수(ECCE index)가 기존의 표준지수에 추가되면서 EFA 이행 평가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이해와 시각을 산출할 수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아래 그림은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 표준지수와 확장지수를 구분해서 산출한 것과 종합하여 산출한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종합해서 나타낸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 구성임.

Table 7.3: The EFA Development Index (EDI) and its components, 2012

Ranking according to level of EDI	Countries/Territories	Standard EDI and its components					Extended EDI				
		EDI	Primary adjusted net enrolment ratio (ANER) ¹	Adult literacy rate	Gender-specific EFA Index (GEI)	Survival rate to grade 5	ECCE index	Extended EDI	Standard EDI ranking (1)	Extended EDI ranking (2)	Difference between (1) and (2)

〈그림 III-3〉 EFA 개발지수 구성(UNESCO, 2015, p. 231.)

-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를 산출할 때 대용지표(proxy indicators)를 활용함. 각 지수와 관련성이 있고, 수집 가능하며, 전반적인 진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임시지표를 선별하여 사용함. 표준지수 산출에 활용되는 지표는 각각 다음과 같음.¹¹⁾
 - 초등교육의 보편화(universal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보편성과 교육과정 수료의 보편성 모두를 내포함. 그러나 접근의 보편성과는 달리 초등교육과정 수료의 보편성에 대한 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에서는 해당 목표에 대해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보편성’만 지수에 포함시켰음.
 - 성인 문해(adult literacy): 국가별 ‘성인 문해율(the adult literacy rate)’을 지표로 활용함. 성인 문해율 지표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 15세 이상임. 다만, 해당 지표를 활용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따름. 무엇보다 해당 지표는 변화 속도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연간지수를 산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지표로는 적합성이 떨어짐. 또 대부분의 국가

11) UNESCO(2015). ‘The 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
https://en.unesco.org/gem-report/sites/gem-report/files/2015Report_EDI2012_Annex.pdf
 (최종접속일자: 2019. 7. 24.) 참조.

에서 산출되는 해당 데이터가 비검정 방법(non-tested methods)에 바탕한 보편적인 수집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만족스러운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 최근 문해(literacy)에 대한 보다 적합한 정의와 검정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문해율 산출 방법이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양성평등(gender parity and equality): 해당 EDI 지수의 경우에는 ‘성별 EFA 지수(GEI: the gender-specific EFA index)’라는 종합지수를 통해 산출함. 성별 EFA 지수(GEI)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성인 문해의 세 가지 항목 ‘성별평등지수(GPI: the gender parity indexes)’의 평균값임.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기회에 대한 질적(parity), 양적(equality) 양성평등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음.
-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교육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질(quality)’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음.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할 지표 선정함에 있어 몇 가지 후보가 고려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수료한 학생 비율을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에 활용하기로 함. 5학년을 기준으로 삼을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초등교육 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교육 완료시점으로 사료되는 5학년으로 선정하게 됨. 이 밖에도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학생과 교사 비율’이 지표로 고려되었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용되지 않음.

○ 시사점 및 의의

- ‘2015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는 서울어젠다 이행연구의 목적과 유사하게 2000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6대 목표’ 개정안과 ‘다카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토대로 국제 사회의 교육의 보편화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고자 지수를 산출하는 과정과 구성요소,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시사점이 나타낼 연관성과 유의미성에 있어 적합한 사례로 판단됨.
-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목표는 1990년도 이후 2000년 개정안이 채택되면서부터 15개년을 주기로 목표를 시의성 있게 수정하고, 그에 따라 지표 선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다음에 살펴보는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새로운 계획안과 목표 및 지표를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우선, 2000 세계교육포럼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때 6대 목표를 시대의 수요와 변화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수 산출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선정한 근거는 미약하게 나타남. 그 이유로 지표개발이 체계적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목표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수를 대용지표(proxy

- indicators)로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교육개발지수(EDI)를 산출한 사실을 언급할 수 있음.
- ‘2015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15년 이행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겼음. 유엔(UN: the United Nation)에서 채택한 ‘새천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따라 ‘교육의 보편성’ 강화와 관련된 EFA 목표 달성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그와 연관성이 적은 목표에 대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전후 관계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명확한 분석이 어렵기는 하지만, 복수의 국제기관에서 동일한 목표를 채택하여 국가별 이행을 촉구할 때 그 이행 성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함. 반면, 유엔(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같이 포괄적인 목표의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UNESCO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이 국제 사회에서 고른 이행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전략이 도입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고민지점을 발견할 수 있음. 이는 서울어젠다의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교육 분야와 가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어젠다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하는 데에도 유관한 문제일 것으로 사료됨.

2)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를 위한 교육지표 안내서(Quick Guide to Education Indicators for SDG 4)¹²⁾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유엔(UN: the United Nation)에서 채택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기: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환으로 수립한 회원국이 함께 이행해야 할 공동 목표이며,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음. 이 17개 중 네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교육 분야를 주제 목표로 함.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SDG 4)’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으로 총 10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7개의 목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s)에 대한 것이라면, 나머지 3개의 목표는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means)에 대한 목표임.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에 대한 목표 7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이 목표들은 국가들이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교육 의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 활용될 목적으로 채택된 것임.

12) 이 밖에도 The United Natio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최종접속일자: 2019. 8. 16.) 그리고 UNESCO (2016).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참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SDG 4)

- 목표 4.1 -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 목표 4.2 -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4.3 -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목표 4.4 -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목표 4.5 -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 목표 4.6 -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 목표 4.7 -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 목표 4.a -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목표 4.b -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목표 4.c -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 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그림 III-4〉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United Nations, 2015)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SDG 4)’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서 파생되었지만, UNESCO에서 1990년부터 개발하고 발전시켜 이행해 온 교육목표들의 연장선상에서도 바라볼 수 있음. 2000~2015년의 기간 동안 진척시켜 온 ‘모두를 위한 교육(EFA)’에서 개선 또는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유엔이 채택한 ‘SDG 4’와 통합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했음. 그 행동계획이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 발표되었던 ‘교육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 실행을 위한 인천선언과 실행계획(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임.
-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형평성과 보다 신장된 접근성, 양질의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

하기 위해 UNESCO 및 유엔과 같은 국제기관 간 협력을 통해 15년마다 새로운 의제를 채택하고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채택된 의제와 행동계획은 국제기관뿐만 아니라 회원국과 회원국 내 관련 기관,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행 과정이 모니터링, 즉 평가됨.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SDG 4)’의 방향성은 다음의 개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함.

- 접근성(access)
- 포용과 형평성(inclusion and equity)
- 양성평등(gender equality)
- 교육의 질(quality)
- 학습 기회(learning opportunities)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지표는 크게 다음 4개 층위에서 고안되었음.

- 세계 단위(global level):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로서 목표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유엔통계위원회(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로부터 자문을 받음.
- 주제 단위(thematic level):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로 다수의 지표가 여기에 속함.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육목표를 따르기 위해 교육 분야로부터 제안을 받아 구성함.
- 권역 단위(regional level): 세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적용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지표로서 특정 권역의 맥락과 정책에 국한되어 개발된 지표
- 국가 단위(national level): 각국의 국가적 맥락이나 교육 시스템, 계획, 정책 계획에 적합하게 국가별로 개발되거나 선택된 지표

〈표 III-9〉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4)와 지표

관련 지표 (해당지표관리기관)	목표와 지표의 상세 내용	
목표 4.1	무상, 평등, 양질의 초·중등 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지표 4.1.1 (국제지표관리기관: UNESCO-UIS)	(a) 2학년 또는 3학년, (b) 초등교육 졸업학년, 그리고 (c) 중학교 졸업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 (i) 읽기와 (ii) 수학에서 최소한의 숙련도를 달성한 대상자의 비율, 성별 구분	
지표 4.1.2	(a) 2학년 또는 3학년, (b) 초등교육 졸업학년, 그리고 (c) 중학교 졸업학년 시기에 전국을 대표하는 학습평가의 시행	
지표 4.1.3	최종학년 취학인원 총합 비율(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지표 4.1.4	학위수료 비율(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지표 4.1.5	중퇴 비율(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지표 4.1.6	학년별 표준연령보다 높은 연령의 학생 비율(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지표 4.1.7	법체계에서 보장되는 초등교육과 중학교 교육의 (a) 자유 및 (b) 의무교육 연차 수	
목표 4.2	양질의 유아 발달, 보육과 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지표 4.2.1 (국제지표관리기관: UNICEF)	건강, 학습, 정신적 웰빙 면에서 안정 범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비율, 성별 구분	
지표 4.2.2 (국제지표관리기관: UNESCO-UIS)	구조화 교육(organized learning)의 참여 비율(공식적인 초등교육 시작 1년 전 기준), 성별 구분	
지표 4.2.3	긍정적이고 배움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가정교육환경을 경험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어린이의 비율	
지표 4.2.4	(a) 미취학 아동대상 교육과 (b) 유아교육발달 과정에 대한 유아교육등록 총합 비율	
지표 4.2.5	법체계에서 보장되는 미취학 아동교육의 (a) 자유 및 (b) 의무교육 연차 수	
목표 4.3	양질의 기술직업 교육과 고등 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지표 4.3.1 (국제지표관리기관: UNESCO-UIS)	지난 12개월 안에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훈련과정에 참여한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성별 구분	
지표 4.3.2	대학 및 직업교육(tertiary education)에 등록한 총합 비율, 성별 구분	
지표 4.3.3	기술-직업 프로그램 참여 비율(15~24세), 성별 구분	
목표 4.4	기술과 직업 능력	2030년까지 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지표 4.4.1 (국제지표관리기관: UNESCO-UIS, ITU)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춘 청소년과 성인의 비율, 기술 유형별 구분	
지표 4.4.2	최소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성취한 청소년/성인의 비율	
지표 4.4.3	청소년/성인의 교육 성취도에 대한 연령, 경제활동지위, 교육수준과 직능훈련 분야별 비율	
목표 4.5	교육훈련 전 과정에 대한 취약계층의 평등한 접근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지표 4.5.1 (국제지표관리기관: UNESCO-UIS)	아래 목록의 세부 항목에 있어 모든 교육지표에 대한 양성평등 지수(parity indexes)-여성/남성, 지방/도시, 재산 5분위 수의 최저/최고, 그리고 장애 정도, 토착민, 분쟁 지역 피해자 등 자료 수집이 가능한 항목	
지표 4.5.2	초등학교 학생 중 모국어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동일한 학생의 비율	
지표 4.5.3	명시적 공식(explicit formula)을 토대로 한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은 인구에게 교육 자원을 재분배하는 범위	
지표 4.5.4	교육 수준과 재정 지원별 한 학생당 교육 지출	
지표 4.5.5	최빈개발도상국에 지원된 원조 총액 중 교육에 할당된 금액의 비율	
목표 4.6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지표 4.6.1 (국제지표관리기관:)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리력의 최소한의 특정 수준을 달성한 연령대별 인구비율, 성별 구분	

UNESCO-UIS)		
지표 4.6.2	청소년/성인 문해력 비율	
지표 4.6.3	문맹 청소년/성인의 읽기쓰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	
목표 4.7	지속가능한 발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지표 4.7.1 (국제지표관리기관: UNESCO-UIS)	양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i) 시민의식교육, (ii) 지속가능한 발달을 위한 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과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의 전반에서 중심적 위치(mainstreamed)를 점하고 있는 정도	
지표 4.7.2	생활 기능 중심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교육과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지표 4.7.3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the 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 행동계획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정도(the UNGA Resolution 59/113에 따라)	
지표 4.7.4	세계시민의식과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를 나타내는 연령대별(또는 교육 수준별) 학생의 비율	
지표 4.7.5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지식에 숙련도를 나타내는 15세 학생의 비율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5). 'Quick Guide to Education Indicators for SDG4,' pp. 41-42., UNESCO한국위원회(2018). '한국사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일부 재인용

- 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4)'에 대한 지표 개발은 UNESCO 통계국(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이 담당하고 있음. 지표를 통해 SDG 4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성공적으로 SDG 4 이행 진척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용적이고 참여형의 평가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회원국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등 국제적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지표개발을 통해 UNESCO 통계국(UIS)은 새로운 데이터 수집 방법과 기존의 데이터를 응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표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우선 한 지표에 대한 내용 정의와 개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지표 계산 방법론을 고안함.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 출처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에 회원국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대체 자료 출처를 확보함. 마지막으로 지표를 분석함.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4)' 지표의 구성은 각 세부 목표(예: 4.1)에 연계되는 국제지표 1~2개와 일반지표로 구분되어 있음. 여기서 활용되는 국제지표는 대개 UNESCO, UNESCO 통계국, 유네프(UNICEF), OECD, 그리고 ITU(UN 산하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 등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당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것을 부분 차용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의의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4)'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엔에서 채택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기: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당 목표의 독립성과 상위 의제와의 연계성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함. 즉, 국제 사회에서 교육 분야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경제 환경, 성별,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형평성이 보장되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좀 더 많은 국제 사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 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4)’가 교육의 질이라는 가치와 정성적 또는 본질적 측면과 동시에 교육을 도구로 국제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도구적 측면이 양면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4)’가 제시하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국제지표의 활용임. 각국의 정책 환경과 맥락, 교육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활용 가능한 공통의 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임. 이때 이미 수집 및 관리되고 있는 국제지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과제에 일부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지표 구성의 개선과 조정이 주목할 만한 부분임. 지표의 개발과 수정이 15년마다 새롭게 의제를 채택하여 목표를 수정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새로운 의제가 주기적으로 변화하여 자연스럽게 국제 사회의 필요와 최신의 자료 수집 및 통계 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장점도 관찰됨. 반면, 목표에 보다 적합한 동시에 독립된 지수의 필요성이 지난 2000년 세계교육포럼 이후 부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000~2015년 동안의 지표는 기존 지수에 의존하여 활용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015~2030년 동안 목표 이행 평가에 활용될 지표가 보다 구조적이고 교육 분야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4)’에 특화되어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로써 국제 수준의 지수를 도출할 때에도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와 개발이 중요한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음.

IV. SAEI의 정량지표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점검

1.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량적 점검 개요
2.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량적 점검 결과
3. 국내 전문가 자문 분석 결과

IV. SAEI의 정량지표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점검

1. 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점검 개요

- 2011년 UNESCO의 서울어젠다 공식 채택 및 선언 이후, 2018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개발함. 2019년 연구는 2018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이용하여 국내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점검함.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는 3개의 핵심지수, 13개의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42개의 정량적 지표(투입지표 13개, 과정지표 12개, 산출지표 17개)와 3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형태의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019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은 투입지표 13개, 과정지표 4개, 산출지표 13개의 정량적 지표 값을 수집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를 산출하였음. 핵심지수 1과 2의 과정지표 9개는 조사에서 제외됨.
- 지수 값 산출을 위한 원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보고통계¹³⁾와 국제지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11년으로 설정하여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까지 2년 주기의 지수 변화를 점검하였고, 최근 2018년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함.

〈표 IV-1〉 이행실적 점검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적용 - 국내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 : 국내* - 시간적 범위 :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 내용적 범위 : 정량적 지표 30개
조사방법	- 정량적 지표 : 보고통계

* 국가단위의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조사범위를 제한함.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해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 신고, 등록, 신청 등 서류상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집계함으로써 작성한 통계(통계교육원, 2015)

- 2019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에서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18년 시범조사는 달리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4가지 세부지수에 대한 7가지 정량적 측정지표를 변경하였음.
 -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의 4개 세부지수 중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지수의 투입지표는 2018년 시범조사의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액’에서 2019년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액’으로 변경함. 또한 산출지표는 2018년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에서 2019년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로 변경함. 예술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외에 사회 영역까지 확장하여 문화예술교육 예산액과 수혜자 수를 측정함.
 -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의 4개 세부지수 중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지수의 투입지표는 2018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연수 예산액’에서 2019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으로 변경함.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인적자원이므로 투입 요인으로써 예술강사 지원 예산액을 적용함. 또한 이 지원액은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여 산출함.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의 5개 세부지수 중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지수의 투입지표는 2018년 ‘4년제 대학 전체 학과 대비 예체능계열 학과 비율’에서 2019년 ‘(지원학교 당) 학교문화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액: 지방교육재정 제외’로 변경함. 또한 산출지표는 2018년 ‘(예술강사 1인당) 예술강사 연간 연수 시수’에서 2019년 ‘(예술강사 1인당) 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로 변경함.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에 초점을 두고 4년제 대학 보다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강사 교육으로 제한함.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의 5개 세부지수 중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지수의 투입지표는 2018년 ‘협력 부처 수’에서 2019년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로 변경함. 또한 산출지표는 2018년 ‘협력 기관 수’에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수’로 변경함. 예술교육 관련 협력 부처나 기관의 양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수로 대체하여 지방정부의 예술교육 사업 참여도 포함하여 적용함.
- 2019년 서울어젠다 측정지표를 바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1)국내 전문가의 자문과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고, 2)측정지표의 선정 기준인 타당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가용성(accessibility)을 더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을 선택하기 위한 것임.
- 특히 가용성 부분에서 후속 연구자들의 편의와 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약간의

타당성을 희생하더라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자료의 경우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자료가 아닌 매년 발간되는 연차보고서 내에서 측정지표를 선정하여 보완하였음.

〈표 IV-2〉 2018년과 2019년 이행실적 점검 조사의 정량적 측정지표 변경내용

핵심지수	세부지수	구분	2018년 측정지표	2019년 측정지표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2 교육방식·운영개선	투입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산출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인당)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투입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연수 예산액 (경제활동인구 1인당)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지방교육재정 포함 (경제활동인구 1인당)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투입	4년제 대학 전체 학과 대비 예체능계열 학과 비율(%)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지방교육재정 제외(지원학교 당)
		산출	예술강사 연간 연수 시수 (예술강사 1인당)	학교·사회 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 (예술강사 1인당)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투입	협력 부처 수(개)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명)
		산출	협력 기관 수(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명)

○ 2019년 이행실적 점검 조사의 정량지표와 자료 수집 개요는 〈표 IV-3〉과 같음. 세부지수 중 ‘문화다양성’의 정량지표는 시계열적으로 추이를 제시하는 국제지수의 부재로 여성가족부의 ‘문화수용성’ 지수로 대체함.

〈표 IV-3〉 이행실적 점검 조사의 정량지표 및 자료수집 개요

핵심지수	세부지수	구분	측정지표	자료출처	관련자료	수집 방법*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1 전인적 포용성	투입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정부 예산(인구 1인당)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열린 재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지원예산	1
		산출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인구 100인당)	국정모니터링지표 (e-나라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추이	1
	1-2 교육방식·운영개선	투입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과 사업단위 예산현황	2
		산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학령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과 사업단위 수혜자 수	2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투입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교육 예산액 (인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과 사업단위 예산현황	2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혜자 수(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과 사업단위 수혜자 수	2
	1-4 예술교육 정책	투입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경제활동인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

핵심 지수	세부 지수	구분	측정지표	자료출처	관련자료	수집 방법*
	기반강화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 (경제활동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
2. 예술교육 의 질적 향상성	2-1 예술교육 의 탈중앙화	투입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액(인구 1인당)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연감 (최종예산/결산)	1
		산출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시설 수(인구 100인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총람	1
	2-2 예술교육 의 전문화	투입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지원학교 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
		산출	학교·사회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예술강사 1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
	2-3 실천적 연구	투입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학술지인용통계	1
		산출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예체능 분류 논문 발표 수(인구 100인당)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학술지인용통계	1
	2-4 상호 협력· 협업	투입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예술강사(Teaching Artists) 채용 학교 수(학령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과 사업 단위 지원기관 현황	2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과 사업단위 수혜자수	2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투입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
		산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
3. 예술교육 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	-	3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	-	3
		산출	WIPO 세계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국제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1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	-	3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	-	3
		산출	UNDP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 (UNDP)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report)	1
	3-3 문화다양 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	-	3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	-	3
		산출	다문화수용성 지수	국가통계포털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지수	1
	3-4 세계시민 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	-	3
		과정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	-	3
		산출	IEP 세계평화지수	경제평화연구소 (IEP)	국제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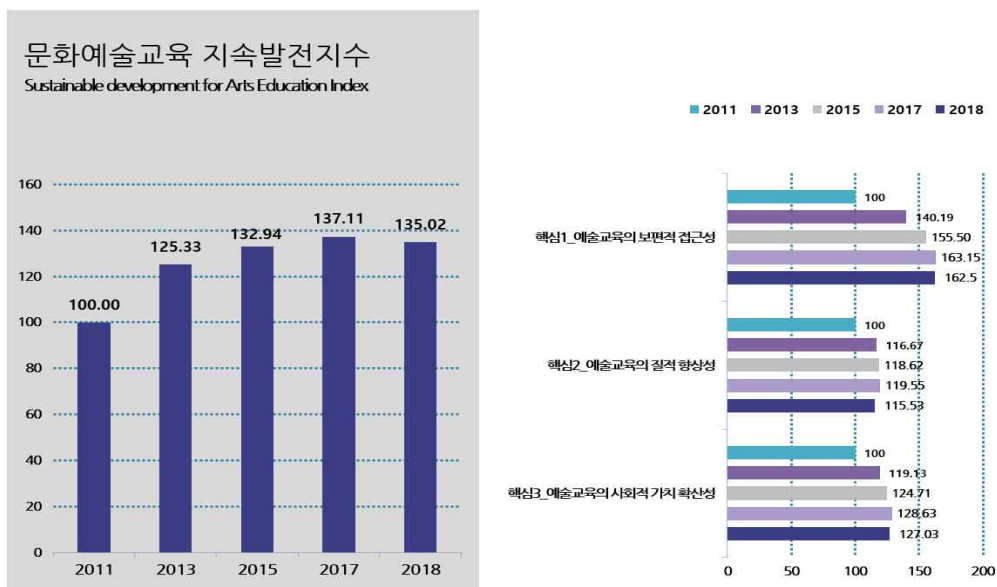
* 1: 국가통계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백서) 3: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통계자료

2. 서울어젠다 국내이행실적 정량적 점검 결과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의 3개 목표와 13개 전략에 근거하여 3개 핵심지수와 13개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 정량적 측정지표를 수집하여 산출함.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는 2000년 서울어젠다를 발의한 다음해 2011년을 기준(2011년=100)으로 산출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5.33점, 2015년 132.94점, 2017년 137.11점, 2018년 135.02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를 구성하는 3개 핵심지수 중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2018년 62.50점까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은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이고,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4〉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100	125.33	132.94	137.11	135.02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00	140.19	155.50	163.15	162.50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100	116.67	118.62	119.55	115.53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100	119.13	124.71	128.63	12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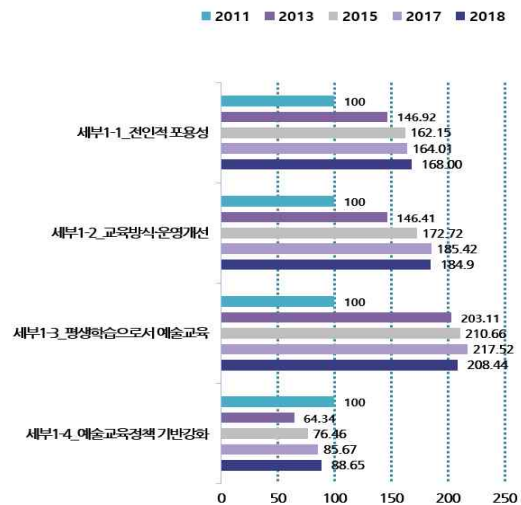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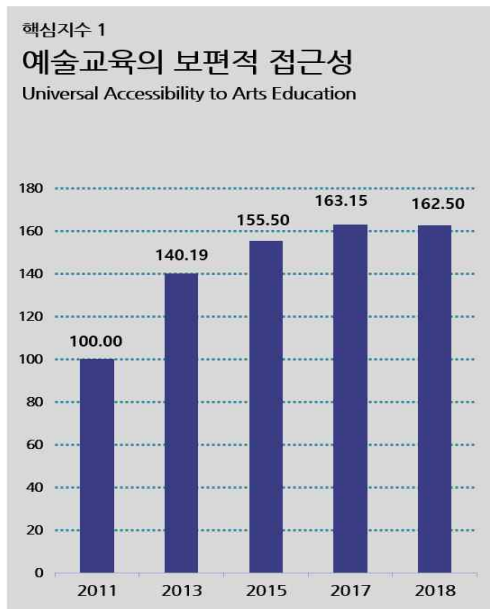
2.1 핵심지수별 결과

2.1.1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는 ‘전인적 포용성’, ‘교육방식·운영 개선’,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의 4개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는 2013년 140.19점, 2015년 155.50점, 2017년 163.15점, 2018년 162.50점으로 나타남.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의 4개 세부지수 중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이 가장 크게 상승하여, 2011년(100점) 기준보다 108.44점이 더 높아짐. 반면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세부지수으로써, 2011년 100점 보다 2018년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남.

〈표 IV-5〉 핵심지수 1 |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핵심지수 1 -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100	140.19	155.50	163.15	162.50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100	146.92	162.15	164.01	168.00
세부지수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100	146.41	172.72	185.42	184.90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100	203.11	210.66	217.52	208.44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100	64.34	76.46	85.67	8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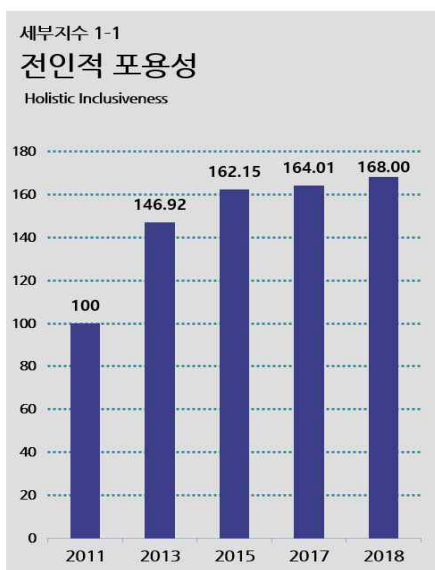
2.1.2. 전인적 포용성 지수

- 전인적 포용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46.92점, 2015년 162.15점, 2017년 164.01점, 2018년 168점으로 산출됨.
- 전인적 포용성 정량지표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인구 1인당 문화예술교육예산’은 2011년 1,092원, 2013년 1,905원, 2015년 1,980원, 2017년 2,144원, 2018년 2,189원으로 점점 증가하였으며, 산출지표(OP)인 ‘인구 100인당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는 2011년 3.84명, 2013년 4.59명, 2015년 5.49명, 2017년 5.06명, 2018년 5.21명으로 2015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년도에 따라 증감이 상이하게 나타남.
- 예산은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를 이용한 것으로, 2013년 103.52, 2015년 105.57, 2017년 108.67, 2018년 110.27을 반영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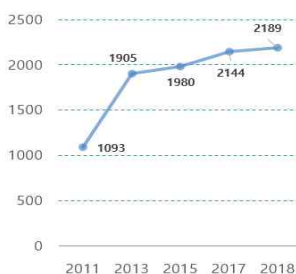
Ⅰ 세부지수 1-1 | 전인적 포용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1-1 전인적 포용성 지수		100	146.92	162.15	164.01	168.00
투입지표(IP)	인구 1인당 문화예술교육예산(원)	1,093*	1,905*	1,980*	2,144*	2,189*
과정지표(TP)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건)					
산출지표(OP)	인구 100인당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수(명)	3.84	4.59	5.49	5.06	5.21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100	103.52	105.57	108.67	110.27

*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반영



IP1-1
인구 1인당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OP1-1
인구 100인당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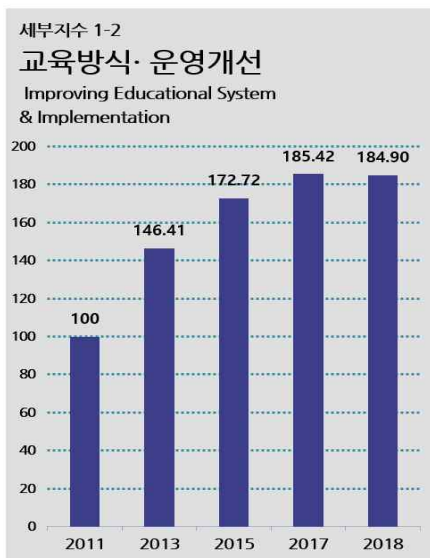
2.1.3. 교육방식·운영 개선 지수

- 교육방식·운영 개선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46.41점, 2015년 172.72점, 2017년 185.42점, 2018년 184.90점으로 산출됨.
- 교육방식·운영 개선 정량지표 산출결과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액’은 2011년 11,497원, 2013년 18,163원, 2015년 20,006원, 2017년 23,144원, 2018년 23,21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출지표(OP)인 ‘학령인구 100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는 2011년 26.30명, 2013년 35.46명, 2015년 45.08명, 2017년 44.59명, 2018년 44.16명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를 이용한 것으로, 2011년 103.52, 2015년 105.57, 2017년 108.67, 2018년 110.27을 반영한 결과임.

| 세부지수 1-2 | 교육방식 · 운영 개선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1-2 교육방식 · 운영 개선 지수		100	146.41	172.72	185.42	184.90
투입지표(IP)	학령인구 1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원)	11,497*	18,163*	20,006*	23,144*	23,210*
과정지표(TP)	학교문화예술교육 주당 수업시수(시)					
산출지표(OP)	학령인구 100인당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명)	26.30	35.46	45.08	44.59	44.16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100	130.52	105.57	108.67	110.27

*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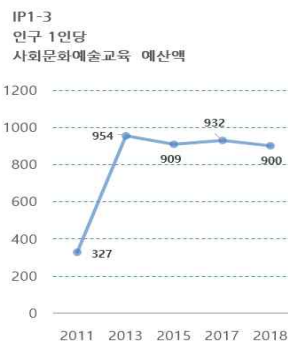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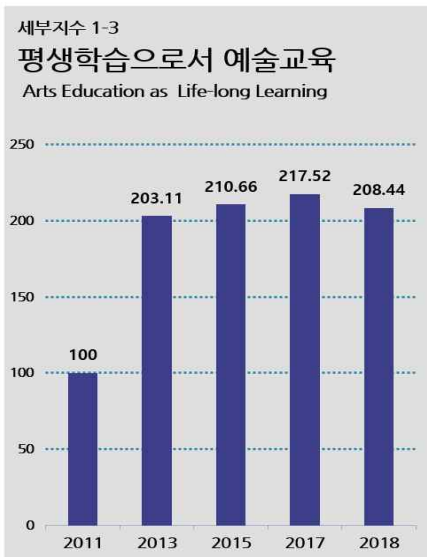
2.1.4.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지수

-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203.11점, 2015년 210.66점, 2017년 217.52점, 2018년 208.44점으로 산출됨.
-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정량지표 산출결과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인구 1인당 사회문화예술교육예산’은 2011년 327원, 2013년 954원, 2015년 909원, 2017년 932원, 2018년 90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산출지표(OP)인 ‘인구 100인당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는 2011년 0.14명, 2013년 0.16명, 2015년 0.20명, 2017년 0.20명, 2018년 0.19명으로 최근 몇 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예산은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를 이용한 것으로, 2011년 103.52, 2015년 105.57, 2017년 108.67, 2018년 110.27을 반영한 결과임.

| 세부지수 1-3 |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지수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지수		100	203.11	210.66	217.52	208.44
투입지표(IP)	인구 1인당 사회문화예술교육예산(원)	327*	954*	909*	932*	900*
과정지표(TP)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건)					
산출지표(OP)	인구 100인당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명)	0.14	0.16	0.20	0.20	0.19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100	130.52	105.57	108.67	110.27

*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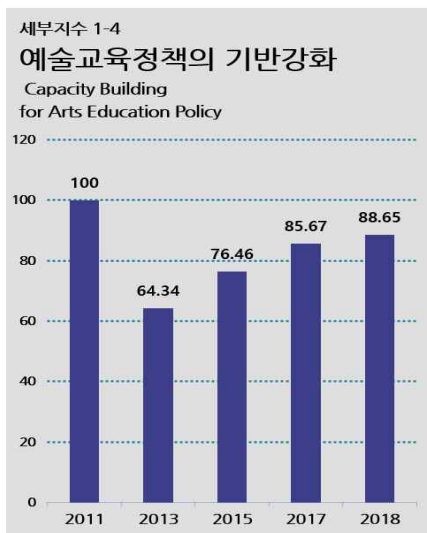
2.1.5.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지수

-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64.34점, 2015년 76.46점, 2017년 85.67점, 2018년 88.65점으로 산출됨.
-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정량지표 산출결과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경제활동인구 1인당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은 2011년 2,059원, 2013년 약 2,346원, 2015년 2,452원, 2017년 2,794원, 2018년 2,734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출지표(OP)인 ‘경제활동인구 100인당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는 2011년 0.02명, 2013년 0.003명, 2015년 0.01명, 2017년 0.01명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11년을 기준(100)으로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를 2013년 103.52, 2015년 105.57, 2017년 108.67을 반영한 결과임.

| 세부지수 1-4 |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지수		100	64.34	76.46	85.67	88.65
투입지표(IP)	경제활동인구 1인당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원)	2,059*	2,346*	2,452*	2,794*	2,734*
과정지표(TP)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건수(건)					
산출지표(OP)	경제활동인구 100인당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명)	0.02	0.003	0.01	0.01	0.01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100	130.52	105.57	108.67	110.27

*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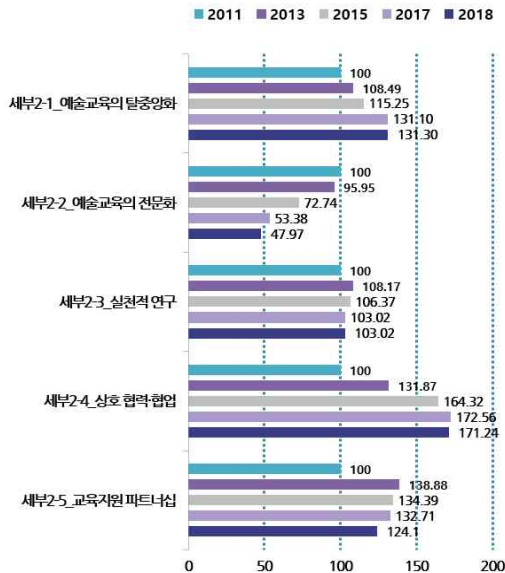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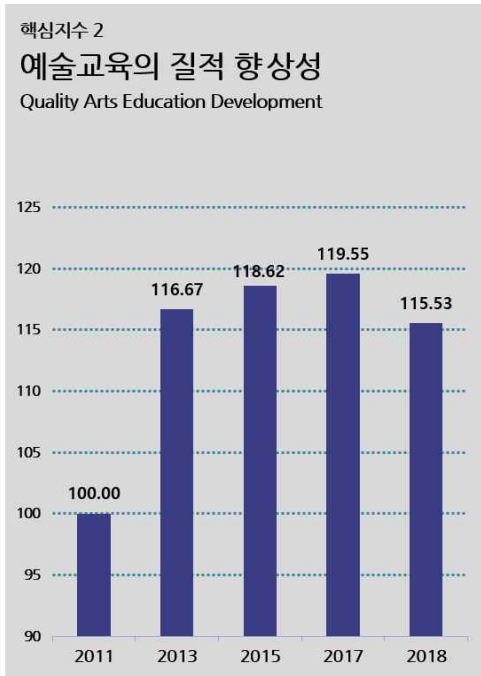


2.2.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예술교육의 전문화’, ‘실천적 연구’, ‘상호 협력·협업’, ‘교육지원 파트너십’의 5개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는 2013년 116.67점, 2015년 118.62점, 2017년 119.53점, 2018년 115.53점으로 나타남. 2018년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는 2011년 기준 100점보다 15.53점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를 구성하는 5개의 세부지수 중 ‘상호 협력·협업’ 지수는 2018년 171.24점으로 2011년 100 기준보다 71.24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예술교육의 전문화’ 지수는 2011년 기준연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6〉 핵심지수 2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핵심지수 2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100	116.67	118.62	119.55	115.53
세부지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100	108.49	115.25	131.10	131.30
세부지수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100	95.95	72.74	53.38	47.97
세부지수 2-3	실천적 연구	100	108.17	106.37	103.02	103.02
세부지수 2-4	상호 협력·협업	100	131.87	164.32	172.56	171.24
세부지수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100	138.88	134.39	132.71	1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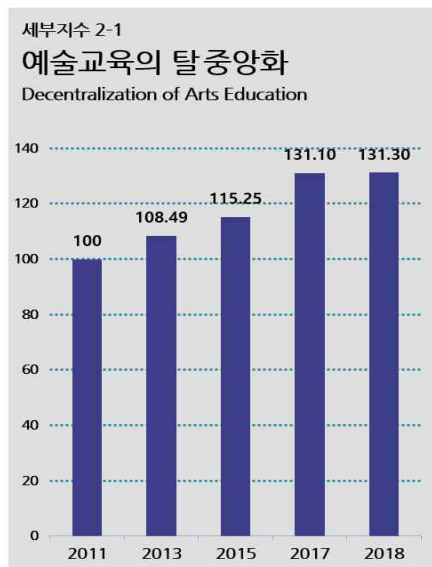
2.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지수

-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08.49점, 2015년 115.15점, 2017년 131.10점, 2018년 131.30점으로 산출됨.
-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정량지표 산출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인구 1인당 서울(수도)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은 2011년 51,498원, 2013년 53,083원, 2015년 55,402원, 2017년 70,768원, 2018년 69,228원으로 나타났으며, 산출지표(OP)인 ‘인구 100인당 서울(수도)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수’는 2011년 0.004개를 2017년까지 계속 유지하였고, 2018년에 이르러 0.005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은 2011년을 기준(100)으로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를 2013년 103.52, 2015년 105.57, 2017년 108.67을 반영한 결과임.

세부지수 2-1 |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지수		100	108.49	115.25	131.10	131.30
투입지표(IP)	인구 1인당 서울(수도)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원)	51,498*	53,083*	55,402*	70,768*	69,228*
과정지표(TP)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수(개)					
산출지표(OP)	인구 100인당 서울(수도)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수(개)	0.004	0.004	0.004	0.004	0.005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100	103.52	105.57	108.67	110.27

*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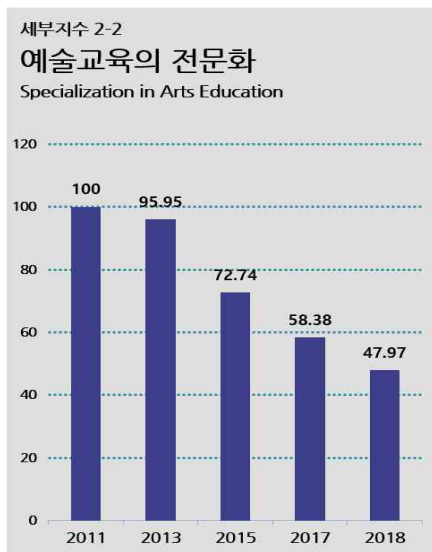
2.2.2. 예술교육의 전문화 지수

- 예술교육의 전문화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95.95점, 2015년 72.74점, 2017년 58.38점, 2018년 47.97점으로 산출됨.
- 예술교육의 전문화 정량지표 산출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지원학교당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은 2011년 5,676,494원, 2013년 5,879,352원, 2015년 3,390,385원, 2017년 3,905,385원, 2018년 3,967,175원이며, 산출지표(OP)인 ‘예술강사 1인당 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는 2011년 0.62회, 2013년 0.54회, 2015년 0.53회, 2017년 0.30회, 2018년 0.16회로 나타남.
 - 예산은 2011년을 기준(100)으로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를 2013년 103.52, 2015년 105.57, 2017년 108.67을 반영한 결과임.

Ⅰ 세부지수 2-2 | 예술교육의 전문화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지수		100	95.95	72.74	58.38	47.97
투입지표(IP)	지원학교당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원)	5,676,494*	5,879,352*	3,390,183*	3,905,385*	3,967,175*
과정지표(TP)	4년제 대학 전체 졸업자 대비 예체능계열 졸업자 비율(%)					
산출지표(OP)	예술강사 1인당 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회)	0.62	0.54	0.53	0.30	0.16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100	130.52	105.57	108.67	110.27

* 2011년을 기준(100)으로 환산한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 지수(adjusted CPI)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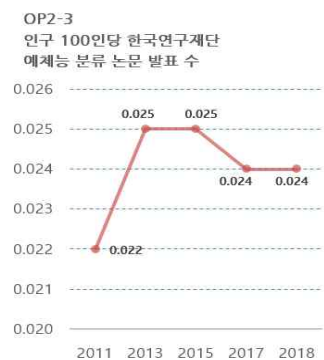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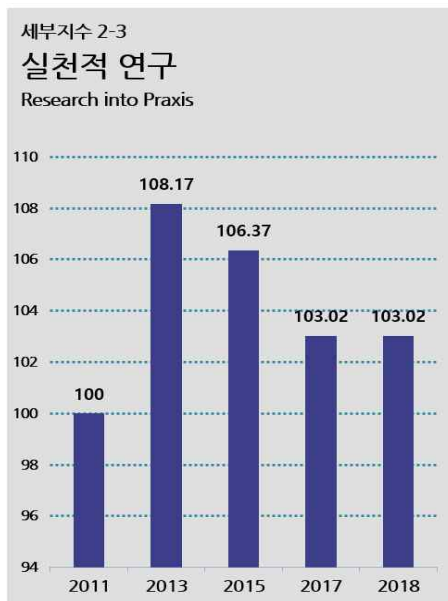


2.2.3. 실천적 연구 지수

- 실천적 연구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08.17점, 2015년 106.37점, 2017년 103.02점, 2018년 103.02점으로 산출됨.
- 실천적 연구 정량지표 산출결과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한국연구재단(KCI)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은 2011년 5.79%, 2013년 5.98%, 2015년 5.53%, 2017년 5.34%, 2018년 5.49%로 나타났으며, 산출지표(OP)인 ‘인구 100인당 한국연구재단(KCI) 예체능 분류 논문발표 건수’는 2011년 0.022건, 2013년 0.025건, 2015년 0.025건, 2017년 0.024건, 2018년 0.024건으로 나타남.

세부지수 2-3 | 실천적 연구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3 실천적 연구 지수		100	108.17	106.37	103.02	103.02
투입지표(IP)	한국연구재단(KCI)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	5.79	5.98	5.53	5.34	5.49
과정지표(TP)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 성과물수(건)					
산출지표(OP)	인구 100인당 한국연구재단(KCI) 예체능 분류 논문발표 수(건)	0.022	0.025	0.025	0.024	0.024



2.2.4. 상호 협력·협업 지수

- 상호 협력·협업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31.87점, 2015년 164.32점, 2017년 172.56점, 2018년 171.24점으로 산출됨.
- 상호 협력·협업 정량지표 산출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학령인구 100인당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학교 수'는 2011년 0.08개, 2013년 0.11개, 2015년 0.13개, 2017년 0.15개, 2018년 0.15개로 기준년도(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출지표(OP)인 '학령인구 100인당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는 2011년 26.30명, 2013년 33.76명, 2015년 43.46명, 2017년 42.77명, 2018년 42.39명으로 나타남.

Ⅱ 세부지수 2-4 | 상호 협력·협업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4 상호 협력·협업 지수		100	131.87	164.32	172.56	171.24
투입지표(IP)	학령인구 100인당 학교문화예술교육강사 파견 학교 수(개)	0.08	0.11	0.13	0.15	0.15
과정지표(TP)	학교교사 1인당 학교교사 문화예술교육 연수 시수					
산출지표(OP)	학령인구 100인당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명)	26.30	33.76	43.46	42.77	4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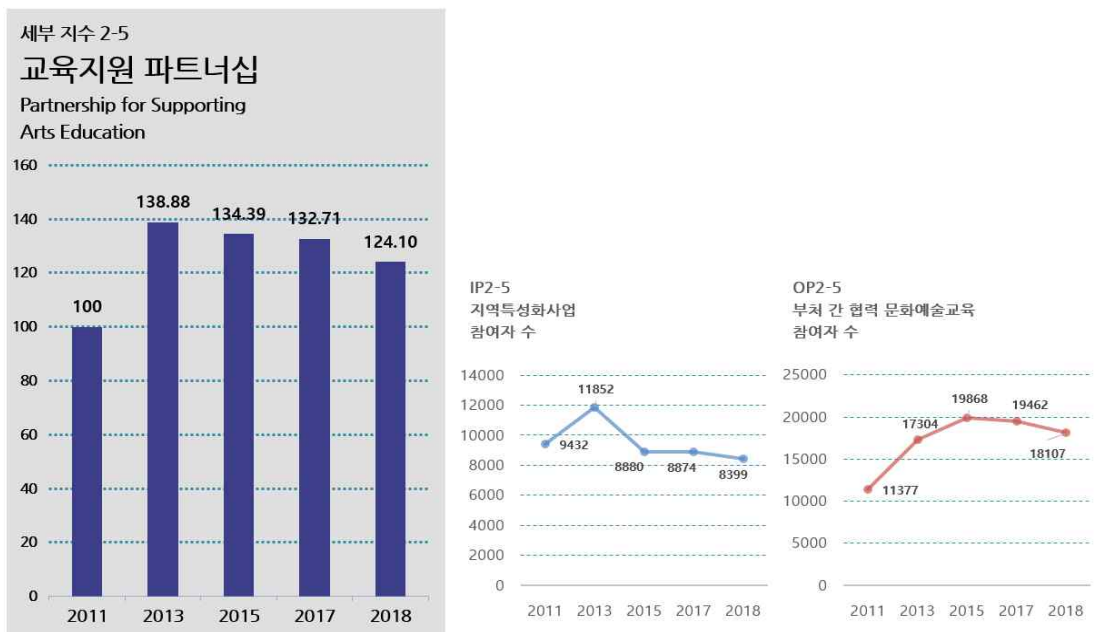


2.2.5. 교육지원 파트너십 지수

- 교육지원 파트너십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38.88점, 2015년 134.39점, 2017년 132.71점, 2018년 124.10점으로 산출됨.
- 교육지원 파트너십 정량지표 산출결과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는 2011년 9,432명, 2013년 11,852명, 2015년 8,880명, 2017년 8,874명, 2018년 8,399명으로 증가하였고, 산출지표(OP)인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는 2011년 11,377명, 2013년 17,304명, 2015년 19,868명, 2017년 19,462명, 2018년 18,107명으로 나타남.

| 세부지수 2-5 | 교육지원 파트너십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지수		100	138.88	134.39	132.71	124.10
투입지표(IP)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명)	9,432	11,852	8,880	8,874	8,399
과정지표(TP)	-					
산출지표(OP)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명)	11,377	17,304	19,868	19,462	18,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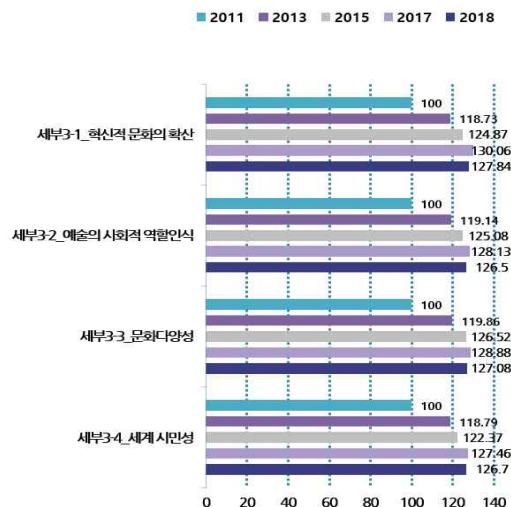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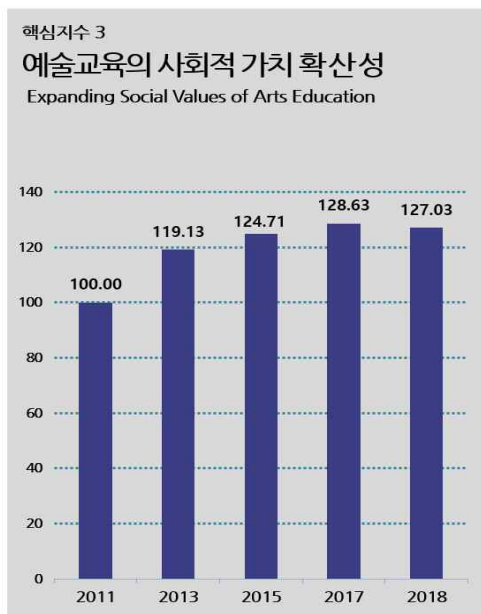


2.3.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

-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는 ‘혁신적 문화의 확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문화다양성’, ‘세계 시민성’의 4개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는 2013년 119.13점, 2015년 124.71점, 2017년 128.63점, 2018년 127.03점으로 나타남. 2018년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는 2011년 기준인 100점 보다 27.03점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를 구성하는 4개의 세부지수는 2011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7〉 핵심지수 3 |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핵심지수 3 -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	100	119.13	124.71	128.63	127.03
세부지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100	118.73	124.87	130.06	127.84
세부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100	119.14	125.08	128.13	126.50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	100	119.86	126.52	128.88	127.08
세부지수 3-4 세계 시민성	100	118.79	122.37	127.46	12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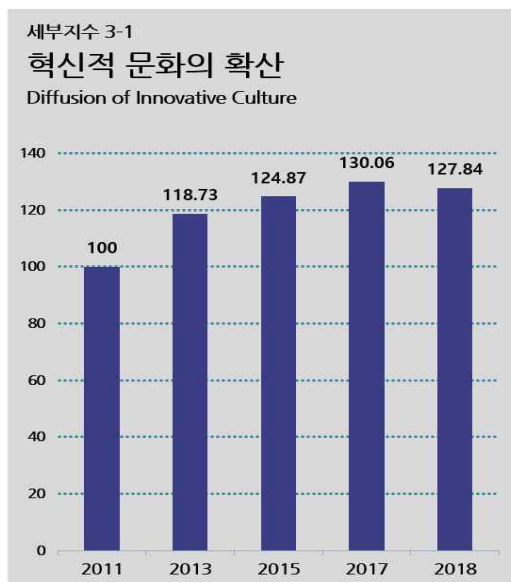


2.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지수

- 혁신적 문화의 확산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8.73점, 2015년 124.87점, 2017년 130.06점, 2018년 127.84점으로 산출됨.
- 혁신적 문화의 확산 정량지표 산출결과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40.19점, 2015년 155.50점, 2017년 163.15점, 2018년 162.50점으로 나타남. 과정지표(TP)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6.67점, 2015년 118.62점, 2017년 119.55점, 2018년 115.53점으로 나타남. 산출지표(OP)인 ‘WIPO 세계혁신지수’는 2011년 53.68점, 2013년 53.31점, 2015년 53.95점, 2017년 57.70점, 2018년 56.63점으로 나타남.

| 세부지수 3-1 | 혁신적 문화의 확산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지수		100	118.73	124.87	130.06	127.84
투입지표(IP)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점)	100	140.19	155.50	163.15	162.50
과정지표(TP)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점)	100	116.67	118.62	119.55	115.53
산출지표(OP)	WIPO세계혁신지수(점)	53.68	53.31	53.95	57.70	5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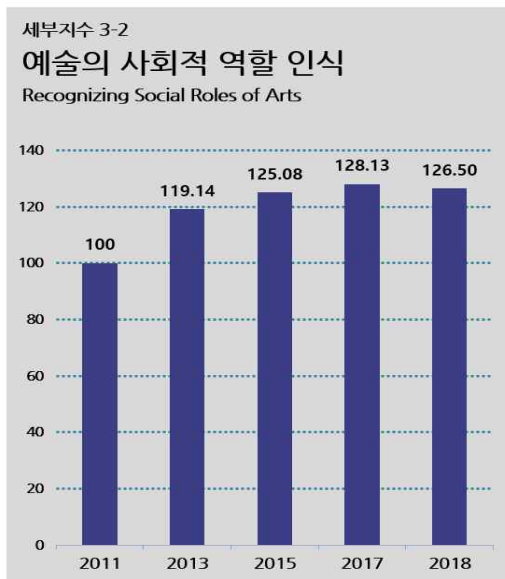


2.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지수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9.14점, 2015년 125.08점, 2017년 128.13점, 2018년 126.50점으로 산출됨.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정량지표 산출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40.19점, 2015년 155.50점, 2017년 163.15점, 2018년 162.50점으로 나타남. 과정지표(TP)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6.67점, 2015년 118.62점, 2017년 119.55점, 2018년 115.53점으로 나타남. 산출지표(OP)인 ‘UNDP 인간개발지수’는 2011년 0.888점, 2013년 0.893점, 2015년 0.898점, 2017년 0.903점, 2018년 0.901점으로 나타남.

세부지수 3-2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지수		100	119.14	125.08	128.13	126.50
투입지표(IP)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점)	100	140.19	155.50	163.15	162.50
과정지표(TP)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점)	100	116.67	118.62	119.55	115.53
산출지표(OP)	UNDP 인간개발지수(점)	0.888	0.893	0.898	0.903	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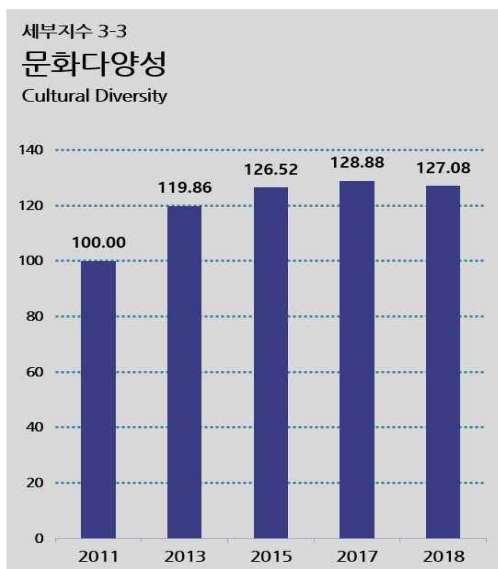
2.3.3. 문화다양성 지수

- 문화다양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9.86점, 2015년 126.52점, 2017년 128.88점, 2018년 127.08점으로 산출됨.
- 문화다양성 정량지표 산출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40.19점, 2015년 155.50점, 2017년 163.15점, 2018년 162.50점으로 나타남. 과정지표(TP)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6.67점, 2015년 118.62점, 2017년 119.55점, 2018년 115.53점으로 나타남. 산출지표(OP)인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1년 51.17점, 2013년 52.56점, 2015년 53.95점, 2017년 53.19점, 2018년 52.81점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지수의 산출 측정지표는 국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로 대체함.

▮ 세부지수 3-3 ▮ 문화다양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3-3 문화다양성 지수		100	119.86	126.52	128.88	127.08
투입지표(IP)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점)	100	140.19	155.50	163.15	162.50
과정지표(TP)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점)	100	116.67	118.62	119.55	115.53
산출지표(OP)	다문화수용성 지수(점)*	51.17	52.56	53.95	53.19	52.81

* 2011년과 2015년, 2018년 지수 값을 활용하여 연간 2013년과 2017년 추정 값 산출



2.3.4. 세계 시민성 지수

- 세계 시민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8.79점, 2015년 122.37점, 2017년 127.46점, 2018년 126.70점으로 산출됨.
- 세계 시민성 지수 산출 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투입지표(IP)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40.19점, 2015년 155.50점, 2017년 163.15점, 2018년 162.50점으로 나타남. 과정지표(TP)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는 2011년 100점을 기준으로 2013년 116.67점, 2015년 118.62점, 2017년 119.55점, 2018년 115.53점으로 나타남. 산출지표(OP)인 ‘IEP 국제평화지수’는 2011년 1.829점, 2013년 1.820점, 2015년 1.701점, 2017년 1.823점, 2018년 1.867점으로 나타남.

▮ 세부지수 3-4 ▮ 세계 시민성 정량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3-4 세계 시민성 지수		100	118.79	122.37	127.46	126.70
투입지표(IP)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점)	100	140.19	155.50	163.15	162.50
과정지표(TP)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점)	100	116.67	118.62	119.55	115.53
산출지표(OP)	IEP 세계평화지수(점)	1.829	1.820	1.701	1.823	1.867



3.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 1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관계자가 참여하였음. 더불어 초기 〈서울어젠다〉 수립 관계자가 포함되어 핵심 및 하위지수 개발의 주요 사항과 전반적인 방향과 연구내용 및 적용범위, 세부적 주의사항, 참고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이 진행되었음. 자문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V-8〉 1차 전문가 자문회의의 주요 내용 요약

전문가	소속
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	공주대학교
김○○	수원대학교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내용
지수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금 더 명확하고 정제된 조작적 정의로 수정 및 국제사회에서 통용 가능한 개념 사용 - 지표 명과 세부 설명을 국제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용어로 변경 - 해외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필요가 있음 - 현재 투입-과정-산출의 구조적인 틀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 - 연구를 진행할 때는 고려 가능한 많은 지표를 고려하고 실제 점검에 있어서 압축할 필요 - 수혜자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방안 고안 - 지금까지 정책연구에서 갖고 있는 한계는 공급자 시선에서 너무 바라본다는 것임 - 상대적으로 수혜자 시선에서 바라보는 실적 점검은 부족
체크리스트	- 수혜자 관점을 적용한 체크리스트 항목 추가
조작적 정의 /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수1의 세부지수의 조작적 정의와 지표 점검 필요 - 접근성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한 포함될 수 있지만, 평생학습과도 중복됨 - 수요자 입장: 개인에게 생애에 걸쳐서 배울 기회가 존재하는가? - 공급자 입장: 사회에서 얼마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 핵심지수[1-1]의 핵심은 '포괄성'이라고 생각 - 교육제도와 정책발전 - 법령 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 조직과 기관을 측정지표로 삽입 필요
지수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몇 년 주기로 시행해야 하는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엔 투입의 과정을 더 보아야하고 어떠한 경우엔 과정, 산출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경량지표들을 재 그룹화 하고, 통계 값이 없을 경우엔 어떤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대안 필요
적용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반영 내용

- 3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본 지수의 산술로직과 관련하여 수학 및 통계학자의 핵심지수3에 대한 산술식에 대한 자문이 진행되었음. 서울어젠다는 내용적으로 투입→과정→산출의 논리 구조로 가지며, 이를 반영하여 SAEI의 핵심지수3은 핵심지수1(투입)과 핵심지수2(과정), 그리고 산출(WIPO국제혁신지수/UNDP인간개발지수/문화다양성지수(한국 문화체육관광부)/IEP국제평화지수)의 측정지표들로 구성됨.
- 2019년 국내 이행실적 추이를 점검한 결과, 2018년에 개발된 핵심지수3 산술식의 경우 산출값에 비해 핵심지수1(투입값)과 핵심지수2(과정값)의 영향력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더 신뢰할만한 SAEI의 개발을 위해 3차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 이용된 산술식을 전반적으로 검증받고, 핵심지수3의 더 나은 타당성 확보 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자문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V-9〉 3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요약

전문가	직책
박○○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내용
SAEI의 산술로직 점검	현재 SAEI 산출로직은 적합하지만 핵심지수3의 산술식에서 핵심지수1과 핵심지수2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적용됨. 추후 SAE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핵심지수3 산술식의 수정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음.
대안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반영 내용
핵심지수3 산술식 수정 제안	<p>1. 대안A : 핵심지수3($G_{t,3}$)을 구할 때, 산술식에서 핵심지수1($G_{t,1}$)과 핵심지수2($G_{t,2}$)의 영향력을 1/3보다 더 적게 한다(1/4 또는 1/5).</p> <p>(예1) 1/4로 줄이는 경우,</p> $(기존\ 세부지수\ 산술식)\ SU_{t,i} = \frac{G_{t,1} + G_{t,2} + (\frac{OP_{t,i}}{OP_{o,i}} \times 100)}{3} \quad \text{은}$ $SU_{t,i} = \frac{G_{t,1} + G_{t,2} + 2(\frac{OP_{t,i}}{OP_{o,i}} \times 100)}{4} \quad \text{로}$ <p>바뀜</p> <p>(예2) 1/5로 줄이는 경우, 기존 세부지수 산출식은</p>

	$SU_{t,i} = \frac{G_{t,1} + G_{t,2} + 2\left(\frac{OP_{t,i}}{OP_{o,i}} \times 100\right)}{4} \quad \text{로}$ <p>바뀜.</p> <p>2. 대안B</p> <p>: 산출지표에서 현재 사용된 4가지 지수(WIPO국제혁신지수, UNDP인간개발지수, 문화다양성지수, IEP국제평화지수)에 다른 4가지 지수를 추가하여 가중 평균을 이용한다.</p> <p>(I group) 4가지 국제지수를 사용하는 현재의 산출지표</p> <p>(II group) 기타 다른 국제지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산출지표</p> <p>* 사용가능한 다른 국제지수들의 예: OECD창의성 지수, 삶의 질 지수 중에서 삶의 만족도 지수 및 커뮤니티 지수, UNESCO 세계시민교육 지수(지표) 등</p> <p>: 핵심지수3($G_{t,3}$)을 구할 때, $G_{t,1}$과 $G_{t,2}$을 합하여 1/3.</p> <p>(I group)는 현재처럼 1/3, 새로운 (II group)에 1/3 가중치를 주어 '가중 평균'을 계산함.</p> <p>: $G_{t,1}$과 $G_{t,2}$의 영향력을 반영되면서, 새로운 국제지수 값이 반영되므로, 현재보다는 더 유용한 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p>
--	--

- 2차와 4차 전문가 자문회의는 SAEI의 도출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 설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함이었음.
- 대부분 SAEI의 정량적 지수에 대한 결과 값 도출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발전 현황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읽어내고 있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음. 다만 핵심지수 3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설정과 이를 가능하게 할 통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집되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영향 면에 있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여와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 IV-10〉 2차와 4차 전문가 자문회의의 주요 내용 요약

전문가	소속
박○○ 이○○	경희대학교 영국 켄트대학교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의 의견 내용
지수 활용성 추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수와 지표의 개념들이 목표를 어떻게 지지해주는지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개념 설정 - '수혜자 중심'과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 제안

전문가	소속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관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공급자 육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 공급자의 양성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발전될 수는 없음 - 예술교육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표개발이 시급함 - 장기적 호흡과 국가별 대응 및 협력 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	직책
백 ○	경희대학교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내용
지수 활용성과 추후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적 평가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변화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 제안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역할에 중점을 둔 지표 삽입 제안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함 -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지표의 적용이 필요함 - 공급자, 매개자, 수혜자의 입장과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지수 개발 제안 - 파트너십과 매개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변화를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방향 권고함 - 사회적 가치의 확산 측면에서 '수혜자 중심'의 측정지표 삽입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측정지표 개발 후속 연구 필요

- 5차와 6차 자문회의는 SAEI의 산술식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응책 및 향후 정책에 필요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짐.
- 5차 자문회의의 경우, SAEI의 로직모델 중 생태학적 이론과 인과관계접근방식에 대해 자문이 진행되었으며, 지수의 구성과 지표선택에 있어 서울어젠다 선언문 구성자체가 이행실적을 점검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이 언급됨.
- 서울어젠다의 발전목표가 지수나 지표개발을 염두하고 개발된 선언문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한계가 연구의 한계일 수 있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수의 간략화 방안을 추천함.
- 정책대표성은 측정지표 개발 시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으로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대표성을 갖는 정책 사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논의됨.
- 그 이유는 성과지표의 인과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의 통제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핵심지수3'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을 최소화할 수가 없는 구조임.
- 또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만 하면 달성되는 지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통계환경에 대한 한계를 지적함.

〈표 IV-11〉 5차와 6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요약

전문가	직책
임○○	카톨릭대학교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내용
정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책 사업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중앙집권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머무르고 있으며, 광역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여전히 국가 정책 사업의 전달체계 차원에서 집행 업무에만 매달리고 있음. - 그 결과 지역사회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 연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활동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무엇보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광역 시도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 생활권 지역과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단체가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만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전문가	직책
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내용
주요한 통계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및 정책체계 : 관련 법, 예산, 조직체계 등 - 정책 투입 지표 :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수혜자 수, 참여 기관 및 단체수, 프로그램 수, 참여 공간수 등 국가 정책 지표 / 지역 정책 지표 2. 예술교육 수요 및 활동 실태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들의 예술교육 인식 및 수요 국민들의 예술교육 참여 실태 3. 생태학적 이론 대입 고려 4. 인과관계접근방식에 있어 유기적 지표설정 고려 필요

V. SAEI의 국외 전문가 검증과정과 타당성 조사

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증
 2. 1차 델파이 조사 정성적 검증
 3. 2차 델파이 조사 정성적 검증

V. SAEI의 국외전문가 검증과정과 타당성 조사

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증

-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의 지수와 정의 내용의 적합도 점검을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UNITWIN 핵심 회원국 자문단(24인)을 대상으로 1차, 2차로 구분하여 조사함. 이 중 3차 델파이 조사에는 7명이 참여함.

〈표 V-1〉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제자문단 리스트

구분	성명(성, 이름)	구분	국가	1차	2차	3차	부여 번호
1	Bolden, Benjamin	INRAE	캐나다	●	●		A1
2	Forero, Camilo	INRAE	콜롬비아				A2
3	Joerissen, Benjamin	INRAE	독일		●		A3
4	Joseph, Krischelle	INRAE	독일	●	●	●	A4
5	Liebau, Eckart	INRAE	독일		●	●	A5
6	LUM, Chee-Hoo	INRAE	싱가포르	●	●		A6
7	Moeller, Ike	INRAE	독일				A7
8	Ofarrell, Larry	INRAE	캐나다		●		A8
9	Unterberg, Lisa	INRAE	독일				A9
10	VU, Giang Thanh	INRAE	싱가포르	●		●	A10
11	Wagner, Ernst	INRAE	독일	●	●	●	A11
12	Zapata Restrepo, Gloria Patricia	INRAE	콜롬비아	●			A12
13	Almoca, Adil	UNESCO	카자흐스탄				B1
14	Coleman, Kathryn	UNESCO	호주	●			B2
15	Jeanneret, Neryl	UNESCO	호주	●			B3
16	Juntrasook, Adisorn	UNESCO	태국				B4
17	LEUNG, Bo-Wah	UNESCO	홍콩	●	●		B5
18	S., Pai	UNESCO	태국				B6
19	Wright, Susan	UNESCO	호주				B7

20	Akuno, Emily Achieng	Associate	케냐	●	●		C1
21	Buck, Ralph	Associate	뉴질랜드	●	●	●	C2
22	Lin, Mei-Chun	Associate	대만				C3
23	Schonmann, Shifra	Associate	이스라엘	●	●	●	C4
24	Jung Yoon	Associate	호주			●	C5

1.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의 타당도 점검을 위한 1차 델파이 조사결과

- 1차 델파이 조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핵심지수 3개와 세부지수 13개에 사용된 ‘명칭’과 ‘정의’의 적합성(appropriateness)에 대한 타당도는 각각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본 연구에서 내용타당도는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과 함께 전문가 의견에 대한 수렴도와 합의도를 이용하여 검증함.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문항 적합성의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참여한 전문가 패널 수에 따라 제시된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함. 1차 조사에 참여한 국외 전문가 패널 수는 총 23명 중 12명이므로 Lawshe(1975)의 응답자 수에 따른 CVR의 최소값 기준에 의거하여 0.56 이상이 되었을 때 내용타당성을 가짐.
 - 단, 세부지수에 대한 조사에서 1~2명의 결측치가 나타나 지표체계의 내용타당도는 12명은 .56이상, 11명은 .59이상, 10명은 .62이상이므로, 각 측정지표에 따라 CVR 값이 .56 ~ .78 이상일 때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함.
- 델파이 기법의 타당도 측정에서 수렴도는 전문가 의견의 수렴 정도를 나타내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전문가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을 의미함. 또한 합의도는 전문가 의견의 합의 정도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하다고 분석하기로 함.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핵심지수1(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과 세부지수 4개 문항과 핵심지수2(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과 세부지수 5개 문항, 핵심지수3(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과 세부지수 4개 문항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1.1.1 핵심·세부 지수의 용어(Terminology) 적합성에 대한 타당도 조사결과

- 핵심지수 1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3.58점이고, 세부지수는 각각 3.58점, 3.18점, 3.58점, 3.73점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 1과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64~1로 사이에 분포하여 최소값 0.56이상을 충족하므로 전반적으로 내용타당성이 확보됨
- 핵심지수 1과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수렴도는 모두 0.5이하로 전문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지만, 합의도가 0.25~0.33으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음.

〈표 V-2〉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명칭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질문 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							
항목	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2	3.58	.515	1	0.5	0.25
세부지수 1-a	전인적 포용성	12	3.58	.515	1	0.5	0.25
세부지수 1-b	교육방식·운영개선	11	3.18	.751	1	0.5	0.33
세부지수 1-c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12	3.58	.515	0.64	0.5	0.25
세부지수 1-d	예술교육정책기반강화	11	3.73	.467	1	0.5	0.25

- 핵심지수 2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3.45점이고, 세부지수는 각각 3.18점, 3.73점, 3.45점, 3.83점, 3.58점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 2와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64~1로 사이에 분포하여 최소값 0.56이상을 충족하므로 전반적인 내용타당성을 확보함.
- 핵심지수 2와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수렴도는 0~0.5이하로 전문가 의견이 어느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지만, 합의도는 0~0.33으로 나타나 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

〈표 V-3〉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명칭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질문 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							
항목	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11	3.45	.522	1	0.5	0.33
세부지수 2-a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11	3.18	.751	0.64	0.5	0.33
세부지수 2-b	예술교육의 전문화	11	3.73	.467	1	0.5	0.25
세부지수 2-c	실천적 연구	11	3.45	.688	1	0.5	0.25
세부지수 2-d	상호 협력·협업	12	3.83	.389	1	0	0
세부지수 2-e	교육지원 파트너십	12	3.58	.515	1	0.5	0.25

- 핵심지수3인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3.58점이고, 세부지수는 각각 3.36점, 3.25점, 3.80점, 3.82점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 3과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83~1로 사이에 분포하여 최소값 0.56이상을 충족하는 높은 내용타당성을 확보함.
- 핵심지수 3과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에 대한 수렴도는 모두 0.5이하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합의도가 0~0.33으로 나타나 전문가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음.

〈표 V-4〉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명칭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질문 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명칭 적합성							
항목	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12	3.58	.669	0.83	0.5	0.25
세부지수 3-a	혁신적 문화의 확산	11	3.36	.505	1	0.5	0.33
세부지수 3-b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12	3.25	.622	0.83	0.5	0.33
세부지수 3-c	문화 다양성	10	3.80	.422	1	0.13	0.06
세부지수 3-d	세계 시민성	11	3.82	.405	1	0	0

1.1.2. 핵심·세부 지수의 정의(Definition)에 대한 타당도 조사결과

- 핵심지수 1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3.67점이고, 세부지수는 각각 3.25점, 3.22점, 3.42점, 3.50점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 1과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67~1로 사이에 분포하여 최소값 0.56이상을 충족하므로 전반적으로 내용타당성이 확보됨
- 핵심지수 1과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수렴도는 모두 0.5이하로 전문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지만, 합의도가 0.25~0.33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음.

〈표 V-5〉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정의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질문 2.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							
항목	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2	3.67	.492	1	0.5	0.25
세부지수 1-a	전인적 포용성	12	3.25	.754	0.67	0.5	0.33

질문 2.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							
세부지수 1-b	교육방식·운영개선	12	3.33	.651	0.83	0.5	0.33
세부지수 1-c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12	3.42	.900	0.83	0.5	0.25
세부지수 1-d	예술교육정책기반강화	12	3.50	.674	0.83	0.5	0.25

- 핵심지수 2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3.45점이고, 세부지수는 각각 3.33점, 3.25점, 3.18점, 3.36점, 3.50점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 2와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67~1로 사이에 분포하여 최소값 0.56이상을 충족하므로 전반적으로 내용타당성이 확보됨
- 핵심지수 2와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수렴도는 모두 0.5이하로 전문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지만, 합의도가 0.25~0.33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음.

〈표 V-6〉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정의에 대한 적합성 평점과 타당도

질문 2.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							
항목	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11	3.45	.688	0.82	0.5	0.25
세부지수 2-a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12	3.33	.651	0.83	0.5	0.33
세부지수 2-b	예술교육의 전문화	12	3.25	.754	0.67	0.5	0.33
세부지수 2-c	실천적 연구	11	3.18	.751	0.64	0.5	0.33
세부지수 2-d	상호 협력·협업	11	3.36	.674	0.82	0.5	0.33
세부지수 2-e	교육지원 파트너십	12	3.50	.522	1	0.5	0.29

- 핵심지수 3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평점은 4점 만점에 평균 3.42점이고, 세부지수는 각각 3.42점, 3.25점, 3.50점, 3.67점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 3과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0.67~0.83 사이에 분포하여 최소값 0.56이상을 충족하므로 전반적으로 내용타당성을 확보함
- 핵심지수 3과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에 대한 수렴도는 0.38~0.5이하로 전문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고 있지만, 합의도는 0.19~0.33으로 나타나 전문가 간 의견이 다양할 수 있음.

〈표 V-7〉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정의 적합성의 평점과 타당도

질문 2.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정의 적합성							
항목	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12	3.42	.669	0.83	0.5	0.29
세부지수 3-a	혁신적 문화의 확산	12	3.42	.669	0.83	0.38	0.29
세부지수 3-b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12	3.25	.754	0.67	0.5	0.33
세부지수 3-c	문화 다양성	12	3.50	.674	0.83	0.5	0.25
세부지수 3-d	세계 시민성	12	3.67	.651	0.83	0.5	0.19

1.2. 정량·정성지수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 2차 델파이 조사에는 국외 전문가 패널 수는 총 23명 중 11명이 참여하였고, 각 국외 전문가는 한국에서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량지수인 측정지표들과 정성지수인 체크리스트 문항들에 대한 적합성(appropriateness)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함.
- 정량지표의 적합성(appropriateness) 조사는 2018년 개발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13개 세부지수의 측정지표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발전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를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임. 각 측정지표들은 정부 및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산출된 통계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발전 수준을 측정하는데 지표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국외 전문가의 의견을 평균 점수(평점)로 분석하였음.
- 정성지표는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13개 세부지수를 설명하는 총 39개 체크리스트 문항들의 적합성(appropriateness)과 중요성(importance)에 대한 평가로 국외 전문가의 ‘평점’과 함께 문항의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각각 측정함.
- 정량지표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도는 평점이 5점 만점에 3.5점 이상(11명 기준, 70% 이상이 긍정 응답)을 충족할 때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기로 함. 또한 정성지표 문항의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한 타당도는 평점이 5점 만점에 3.5점 이상(11명 기준, 70%이상이 긍정 응답)이거나, 참여한 전문가 패널 수에 의거해 제시된 CVR 기준값이 최소값 이상일 때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함. 즉 2차 조사에 참여한 국외 전문가는 11명이므로 Lawshe(1975)의 최소값이 .59이상일 때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게 됨.

1.2.1. 정량지수의 ‘측정지표’ 적합성에 대한 타당도 조사결과

- 핵심지수 1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의 세부지수별 측정지표의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8개 측정지표에서 평점은 최소 3.82점 ~ 최대 4.45점으로 모두 3.5점 이상으로 나타나 국외 전문가들은 핵심지수1의 8개 측정지표로 제시된 통계 지표들을 모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음.

〈표 V-8〉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측정지표별 적합성의 평점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	측정지표		N	평균	표준편차
1-a 전인적 포용성	투입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정부 예산(인구 1인당)	11	3.91	1.16
	산출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인구 100인당)	11	3.91	0.51
1-b 교육방식· 운영개선	투입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11	4.27	0.75
	산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11	4.36	0.64
1-c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투입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교육 예산액(인구 1인당)	11	3.82	0.72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혜자 수(인구 100인당)	11	3.82	0.72
1-d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투입	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액 (경제활동인구 1인당)	11	4.45	0.66
	산출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경제활동인구 100인당)	11	4.00	0.74

- 핵심지수2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세부지수별 투입과 산출 영역에서 측정지표별 적합성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10개 측정지표의 평점이 최소 3.91점 ~ 최대 4.55점이며, 모두 3.5점 이상으로 나타나 2차 조사에 참여한 국외 전문가는 모두 핵심지수2로 제안된 10개 측정지표를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V-9〉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측정지표 적합성의 평점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부지수	측정지표		N	평균	표준편차
2-a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투입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예산액(인구 1인당)	11	4.09	1.38
	산출	서울(수도)를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수(인구 100인당)	11	4.18	1.03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b 예술교육의 전문화	투입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지방교육재정 포함 지원학교 당)	11	4.27	0.75
	산출	학교·사회 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 (예술강사 1인당)	11	4.45	0.78
2-c 실천적 연구	투입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	11	3.91	0.67
	산출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예체능 분류 논문 발표 수(인구 100인당)	11	4.00	0.60
2-d 상호 협력·협업	투입	예술강사(Teaching Artists) 채용학교 수 (학령인구 100인당)	11	4.18	1.03
	산출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11	4.27	0.96
2-e 교육지원 파트너십	투입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	11	4.55	0.66
	산출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11	4.36	0.64

- 핵심지수3인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의 세부지수별 측정지표의 적합성 수준은 최소 3.67점 ~ 최고 4.6점에 이르고 8개 측정지표에서 모두 3.5점 이상으로 나타나 핵심지수3의 측정지표들을 모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음.

〈표 V-10〉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측정지표 적합성의 평점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	측정지표		N	평균	표준편차
3-a 혁신적 문화의 확산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와 질적 향상성 지수의 평균	10	4.60	0.80
	산출	WIPO 세계혁신 지수	10	4.20	1.25
3-b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와 질적 향상성 지수의 평균	9	4.22	0.92
	산출	UNDP 인간개발지수	10	4.10	1.30
3-c 문화다양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와 질적 향상성 지수의 평균	9	4.33	1.05
	산출	한국(여성가족부)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9	3.67	1.41
3-d 세계시민성	투입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와 질적 향상성 지수의 평균	10	4.20	1.08
	산출	IEP 세계평화지수	10	3.90	1.37

1.2.2. 정성지표의 문항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한 타당도 조사결과

- 핵심지수1인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의 체크리스트 문항의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한 타당도를 살펴보면, 먼저 평점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3.5점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에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은 핵심지수1의 체크리스트 문항이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다음으로 내용타당도(CVR)를 살펴본 결과, 핵심지수1의 세부지수 중 <1-b. 교육방식·운영개선>의 ③예술교육원리의 영향력에서 문항 적합성의 CVR 값이 0.27이고, 문항 중요성의 CVR 값이 -0.09로 나타나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영역으로 나타남. 그러나 나머지 체크리스트 문항의 적합성은 .82~1이고, 체크리스트 문항의 중요성은 .64~1로 나타나 핵심지수1의 대부분의 세부지수 영역에서 CVR의 최소값 .59(N=11) 이상으로 나타나 체크리스트 문항의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음.

〈표 V-1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정성지표의 적합성과 중요성 분석결과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N=11)							
세부지수	질문 문항	적합성			중요성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1-a 전인적 포용성	①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가?	4.64	0.64	0.82	4.82	0.39	1
	② 동시대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4.64	0.64	0.82	4.27	0.62	0.82
	③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창의적, 인지적, 정서적, 심미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가?	4.73	0.62	0.82	4.91	0.29	1
1-b 교육방식· 운영개선	① 학교 내 교육현장에서 예술과 연계한 교과 간 융합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4.73	0.86	0.82	4.73	0.86	0.82
	② 예술교육을 매개로 예술 강사, 학교 교사, 교육행정가 간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상호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4.64	0.77	0.64	4.45	0.99	0.64
	③ 예술교육의 원리가 학교 내 타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73	0.96	0.27	3.64	0.98	-0.09
1-c 평생학습으 로서 예술교육	① 다양한 학습자들이 각 지역과 조직에서 문화예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②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교육에 함께	4.64	0.88	0.82	4.18	0.83	0.82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N=11)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③ 전통예술과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4.82	0.57	0.82	4.73	0.62	0.82
1-d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① 문화예술교육 관계부처 및 정책입안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4.73	0.62	0.82	4.91	0.29	1
	②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실천가 및 연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4.91	0.29	1	4.82	0.39	1
	③ 시민과 조직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으로 독려되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 핵심지수2인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체크리스트 문항에 대한 적합성과 중요성의 타당도를 살펴보면, 먼저 평점은 모든 문항에서 3.5점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에 참여한 국외 전문가는 핵심지수2의 체크리스트 문항이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음. 다음으로 체크리스트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CVR)를 살펴본 결과, 체크리스트의 문항 적합성과 문항 중요성의 CVR값이 .82~1 로 나타나 CVR의 최소값 .59(N=11) 이상이므로 모든 영역에서 내용타당도를 확보함.

〈표 V-1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정성지표의 적합성과 중요성 분석결과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N=11)							
세부지수	질문 문항	적합성			중요성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2-a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①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4.82	0.39	1	4.82	0.39	1
	②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4.73	0.45	1	4.55	0.50	1
	③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4.73	0.62	0.82	4.91	0.29	1
2-b 예술교육의 전문화	① 교사 및 예술가의 예술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이고 충분한 학습 절차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4.82	0.39	1	4.82	0.39	1
	②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예술교육자(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4.73	0.62	1	4.73	0.62	1
	③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가?	4.91	0.29	1	4.82	0.39	1
2-c 실천적 연구	① 예술교육 연구들은 실행연구 등을 통해 예술교육 현장의 발전에 실천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4.73	0.62	0.82	4.91	0.29	1
	② 예술교육 실천과 이에 대한 연구의 우수사례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가?	4.45	0.50	1	4.45	0.50	1
	③ 자국의 예술교육 우수 사례 및 연구가 공유되어 세계 예술교육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4.27	0.45	1	4.27	0.45	1
2-d 상호 협력·협업	① 학교 내 예술가와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또는 협업을 하는가?	4.91	0.29	1	4.91	0.29	1
	②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예술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예술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 협력 또는 협업이 이루어지는가?	4.82	0.39	1	4.91	0.29	1
	③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4.64	0.64	0.82	4.82	0.39	1
2-e 교육지원 파트너십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실천을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조직,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②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 간의 협력 관계가 수평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4.45	0.99	0.82	4.45	0.99	0.82
	③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의 협력관계가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 핵심지수3인 ‘예술교육의 사회적 확산성’의 체크리스트 문항에 대한 적합성과 중요성의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평점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3.5점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에 참여한 국외 전문가는 핵심지수4의 체크리스트 문항이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다음으로 체크리스트의 문항 적합성의 CVR값이 .64~1이고, 문항 중요성의 CVR값이 .82~1로 나타나 CVR의 기준값 .59(N=11) 이상이므로 모든 영역에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음.

〈표 V-1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정성지표의 적합성과 중요성 분석결과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N=11)							
세부지수	질문 문항	적합성			중요성		
		평균	표준 편차	CVR	평균	표준 편차	CVR
3-a 혁신적 문화의 확산	①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적, 혁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도록 시행되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②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전반의 창의적, 혁신적 역량 강화에 충분히 기여하였는가?	4.55	0.78	0.64	4.91	0.29	1
	③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는가?	4.82	0.39	1	4.82	0.39	1
3-b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① 사회적, 문화적 잘 삶을 위한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② 사회적 갈등 또는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치유적(복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4.82	0.39	1	4.82	0.39	1
	③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인식이 사회적·문화적 ‘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4.45	0.66	0.82	4.45	0.66	0.82
3-c 문화다양성	① 학습자들의 특수한 상황(저소득층, 장애, 이민자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②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표현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③ 예술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및 교수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3-d 세계시민성	① 문화예술교육은 전 지구적 주요문제(환경오염, 전쟁,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는가?	4.91	0.29	1	4.91	0.29	1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와 소통하는 것을 돕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③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4.91	0.29	1	4.91	0.29	1

2. 1차 델파이 조사 정성적 검증

- 각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서 국외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였음. 서울어젠다 목표와 적절하게 부합하고 지수명으로서 적합한 대표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해당하는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용어에 대한 국제자문단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14〉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 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질문 1.		
항목	지수명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1 (Core sub-index 1)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포함될 필요 있음. (A4, C1) "Accessibility of Sustainable Arts Education(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대안으로 제시 (C1) "Quality(양질)"을 포함하여 양질의 예술교육을 강조 (A4)
세부지수 1-a (Sub-index 1-a)	Holistic Inclusiveness (전인적 포용성)	"Holistic(전인적)"의 가치와 개념을 나열하는 방법 제안 (A1) "Holistic Development(전인적 발전)"으로 '발전'을 명시 (A6, C2) "arts education(예술교육)"이 명시될 필요 있음. (C1) "inclusiveness(포용성)"이라는 단어가 개념어로서 과다하게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 (A6)
세부지수 1-b (Sub-index 1-b)	Enhancement of Education Systems & Implementation (교육방식·운영 개선)	지수의 근거가 되는 '서울어젠다 목표'를 참고할 때, "enhancement(개선)" 대신 "transformation(변화)"에 가까운 단어 또는 직접 사용을 고려해야 함. (A6) 예술교육의 정규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system") 편입(A11), 구조화된 교육과정("systematic and structured educational programme")에의 편입(C1)으로 변경을 제시함.
세부지수 1-c (Sub-index 1-c)	Arts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추가적으로 "intergenerational(세대간의)"을 포함 (A4, A6)
세부지수 1-d (Sub-index 1-d)	Capacity Building for Policy Development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policy development(정책기반강화)" 대신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arts education(예술교육의 계획과 실행)"으로 대체하는 것 제안 (C1) "policy development(정책기반강화)"가 관련 세부전략 ¹⁴⁾ 에 대하여 적절한 대표성을 갖는가에 대한 재고 필요 (A6)

14) 관련 세부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음. "Strategy 1.d Build capacities for arts education leadership, advocacy and policy development."

- 세부지수 1-b ‘Enhancement of Education Systems & Implementation(교육방식·운영 개선)’에서 지칭하는 바가 예술교육이 정규교육체계의 일부로 인정되고 포함되는 변화와 개선한다는 것을 국제자문단의 추가의견을 통해 확인 가능함. 해당내용은 지수별 정의에서 명확히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해당하는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명칭에 대한 국제자문단 의 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15〉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 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질문 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에 대한 의견	
항목	지수명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2 (Core sub-index 2)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향상("Enhancement")과 관련하여 해당 가치가 개념(conception)상에서 뿐만 아니라 실행("implementation," "delivery," "execution," "provision")면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 (A1, A6, C1, C2) - 예술교육의 질적인 면에 있어 향상, 개선(enhancement)의 의미보다 확립 및 보장(assurance)한다는 의미가 포함될 것을 제안 (A11) - 향상, 개선(enhancement)을 삭제하여 양질(quality)의 예술교육에서 질적인 면을 강조 (B2)
세부지수 2-a (Sub-index 2-a)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구조적 중앙 분권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과 수용자 또는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예술교육을 지향함을 명시 하도록 제안 (A6, C1, C2) - "responsive to context (맥락에 상응하는)" (A6, C2), - "relevant and appropriate (연관성 깊고 적합한)" (C1)
세부지수 2-b (Sub-index 2-b)	Sustainable Training in Arts Education (예술교육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ining(훈련, 연수)"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일방향적, 단일성에 대한 우려로 해당 단어 교체를 제안 (B2, C2) - "Learning and Teaching" (B2), "Teacher Education" (C2) - "professional and technical preparation(전문성 및 기술적 준비)"을 "training"의 대체어로 제시 (C1)
세부지수 2-c (Sub-index 2-c)	Practice-based Research (실천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research)와 현장 실행(practice) 간 상호연계를 통한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개념을 대표하는 단어의 선정에 있어 'practice-based(실천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보편적 인식과 상용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임. (A6, C2) - 이에 따라 "connecting (A6, C2)," "nexus (B2)," "oriented (A11)"와 같이 '연결'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 채택을 제안 - "Research informed practice¹⁵⁾ of arts education(연구기반 실행 예술교육)" 제안 (C1)
세부지수 2-d (Sub-index 2-d)	Educator-Artists Collaboration (상호 협력·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수의 가치와 개념을 나열하는 방법 제안 (B3)
세부지수 2-e (Sub-index 2-e)	Cross-sector Partnerships (교육지원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의견 없음.

-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해당하는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용어에 대한 국제자문단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16〉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 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질문 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에 대한 의견	
항목	지수명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3 (Core sub-index 3)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내용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Social(사회적)"을 "Social and Cultural(사회적, 문화적)"로 구분하여 작성 (A6) - "Advocating(주창)"이라는 단어 대신 전략내용에서 채택한 "Apply(적용)"을 유지할 것 제안 (A1, A11)
세부지수 3-a (Sub-index 3-a)	Advancing Innovative Capacity (혁신적 문화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내용을 반영한 "Creative and Innovative(창의적, 혁신적)"로 수정 제안 (A1, A11, B3, C1)
세부지수 3-b (Sub-index 3-b)	Acknowledging Social Role of the Arts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사회적)"을 "Social and Cultural(사회적, 문화적)"로 구분하여 작성 (A1, A4, A6, C2) - "Role(역할)" 대신 전략내용과 동일하게 "Well-being(웰빙, 안녕)"으로 대체 (A1, C2) - "Acknowledging(인식)"의 어감이 약하므로 "실천(practice)"과 같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단어를 채택해야 함. (A11)
세부지수 3-c (Sub-index 3-c)	Cultural Diversity (문화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를 추가하는 대안 제시 (A4) - 대안으로 "Arts in educating for cultural diversity and responsiveness(문화적 다양성과 민감성 교육에서의 예술)" 제안 (C2)
세부지수 3-d (Sub-index 3-d)	Global Citizenship (세계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arts education)을 해당 세부지수 명칭에 포함 (C1)

2.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 정의에 대한 적합도 1차 델파이 조사결과

- 핵심지수 3개와 세부지수 13개의 정의에 대한 국제자문단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의견에서 정의의 표현을 간략하게 수정하기를 제시하거나, 보다 서술어젠다 전문에 명시된 표현을 추가적으로 표기할 것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의 부분에서 크게 부적합성을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은 없었음.

15) 해당 제시어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연구와 연계되어 그 결과 및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깊이와 의미가 매우 풍성하여 질적 향상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개념, 'Research Informed Practice in Education (RIPE)'과 연관성이 있음. 이는 최근 교육자 양성과 관련하여 국제 관련분야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7〉 핵심지수와 세부지수 정의에 대한 국외 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질문 2.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정의에 대한 의견		
항목	정의 (Working Definition)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1 (Core sub-index 1)	The level of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in terms of well-structured programmes based on one's interests and aptitude across the lifespan, regardless of age, gender, social background, and religion, as a fundamental compon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연령, 성별, 등의 리스트에 “region of living(거주 지역)”을 추가 (A11) 부가적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 삭제 (A1)
세부지수 1-a (Sub-index 1-a)	To indicate the degree of arts education system that affirms the foundation for creative, cognitive, emotional, aesthetic and social capabilities of children, youth and lifelong learners and to enhance their access to arts education.	서울어젠다에서 명시된 ‘예술교육의 성과를 위한 양질의 평가 시스템 (evaluation system)’ 부분 포함 (A11) 부가적 설명, 또는 조건 명시에 해당하는 부분 삭제 (A1, C2)
세부지수 1-b (Sub-index 1-b)	To indicate the transformative impact of arts education within a nation's education systems to change existing structures and methods by fostering democratic and horizontal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	내용에서 부가적 설명을 생략하여 핵심정의 부분을 명료히(A1, C2) 드러내고, 동시에 모호한 부분(“democratic and horizontal interactions”-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은 재고 (A6)
핵심지수 2 (Core sub-index 2)	The level of institutional, practical and research efforts that encompass developing high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and its related policy making, training arts educators, and researching as well as monitoring arts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nsure a high quality of arts education in the entire process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정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명료화 할 필요가 있음. (C1, C2) “평가(evaluation)” 추가 (A11)
세부지수 2-a (Sub-index 2-a)	To indicate how diverse entities, such as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s, private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arts educat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dedicated to developing arts education policies as well as implementing those in practice, in order to provide arts education that is responsive to local needs, infrastructure and cultural contexts.	정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명료화 할 필요가 있음. (C1, C2) 서울어젠다를 기준으로 하여 “양질의(of high quality)”라는 표현 추가 (A11)
세부지수 2-d (Sub-index 2-d)	To indicate how various ways of collaboration have been facilitated and employed to encourage educators and artists to work together as well as openly discuss about delivering curricula in different	정규 교과과정 외의 예술교육을 포함하므로 “curricula(커리큘럼)” 대신 프로그램(programmes)로 대체 필요 (A11)

질문 2.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정의에 대한 의견		
항목	정의 (Working Definition)	의견 분석 내용
	learning environments for high quality arts education.	
세부지수 3-b (Sub-index 3-b)	To indicate the degree of a society's awareness on the role and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derived from various arts education activities influencing citizens'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해당 지수의 정의는 서울어젠다 해석 시, "awareness(인식)"보다 "development(개발)"에 방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봄. 곧, 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 있음. (A11)

3. 2차 델파이 조사 정성적 검증

-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의 지수와 정의 내용의 적합도 점검을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표 III-18〉 델파이 조사 참여 국외 자문단 리스트

구분	성명(성, 이름)	소속	국가	1차	2차	3차	부여번호
1	Bolden, Benjamin	INRAE	캐나다		●		A1
2	Forero, Camilo	INRAE	콜롬비아				A2
3	Joerissen, Benjamin	INRAE	독일		●		A3
4	Joseph, Krischelle	INRAE	독일		●		A4
5	Liebau, Eckart	INRAE	독일		●		A5
6	LUM, Chee-Hoo	INRAE	싱가포르		●		A6
7	Moeller, Ike	INRAE	독일				A7
8	Ofarrell, Larry	INRAE	캐나다		●		A8
9	Unterberg, Lisa	INRAE	독일				A9
10	VU, Giang Thanh	INRAE	싱가포르				A10
11	Wagner, Ernst	INRAE	독일		●		A11
12	Zapata Restrepo, Gloria Patricia	INRAE	콜롬비아				A12
13	Almoca, Adil	UNESCO	카자흐스탄				B1
14	Coleman, Kathryn	UNESCO	호주				B2
15	Jeanneret, Neryl	UNESCO	호주				B3
16	Juntrasook, Adisorn	UNESCO	태국				B4
17	LEUNG, Bo-Wah	UNESCO	홍콩		●		B5
18	S., Pai	UNESCO	태국				B6
19	Wright, Susan	UNESCO	호주		●		B7
20	Akuno, Emily Achieng	Associate	케냐		●		C1
21	Buck, Ralph	Associate	뉴질랜드		●		C2
22	Lin, Mei-Chun	Associate	대만				C3
23	Schonmann, Shifra	Associate	이스라엘		●		C4

3.1. 측정지표의 타당도 점검을 위한 2차 델파이 조사결과

3.1.1. 핵심·세부 지수의 적합성(appropriateness) 조사결과

- 각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함.
 - 측정지표(정량)에 대한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실현가능성(Feasibility) 조사
 - 측정지표에 대한 국가별 대안 조사. (투입지표 위주)
-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해당하는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에 대한 국제자문단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19〉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 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구분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항목	측정지표 투입/산출	의견 분석 내용
1-a 전인적 포용성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정부 예산 (인구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의 경우, 과목 별 예산을 측정하지 않고 교육 전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술교육 예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또한 음악과 연극관련 수업과 같은 과외 활동(co-curricular)을 위한 예산은 존재하지만, 이것이 예술교육의 예산에 포함되어 책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C1) - 뉴질랜드의 경우, 예술교육의 예산에 대해 강조하는 편이기는 하나, 이 역시 분명하게 정의되어있지는 않음. (C2)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formal 그리고 informal한 예술교육에서 해당 지수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예술교육과 체육교육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 때문. (A11) - 이에 대한 측정은 한 기관이 아닌, 다 수의 정부기관을 통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C1) - 뉴질랜드의 경우, 이런 설문은 정기적으로 10년마다 이뤄짐. (C2)
1-b 교육방식·운영 개선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경우, (1) 선생님들에게 투자된 금액 (2) 학교 건물, 교실, 가구 등과 같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 그리고 (3) 미술 재료에 쓰인 금액으로 구분됨. (A11) - 이는 역량기반교육과정(competency based curriculum)에 따라 학생들의 재량발달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출발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C1) - 예술교육에 지정된 예산은 존재하지만, 다른 교육 분야의 예산과 구분해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C2)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예술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음. 하지만 어떤 예술교육인지 (음악, 미술, 공예, 미디어, 무용, 무술) 그리고 선생님의 재량과 주마다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A11) - 이는 역량기반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재량발달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출발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 (C1)

구분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항목	측정지표 투입/산출	의견 분석 내용
1-c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교육 예산액 (인구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평생이라는 표현 역시 모든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함. (A11) - 케냐의 경우,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C1) - 뉴질랜드의 경우, 간헐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지만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음. (C2)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혜자 수 (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데이터는 비정부기관들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 (C1) - 이 데이터는 연구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보고 해야 함. (C2)
1-d 예술교육 정책 기반강화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경제활동인구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경우, 예술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은 예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예술분야라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볼 것을 추천함. (A11) - 데이터는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과 고등교육기관들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 (C1) - 뉴질랜드의 경우, 이러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듯. (C2)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 (경제활동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정의가 불분명함. (B7)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해당하는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에 대한 국제자문단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V-20〉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지수 명칭에 대한 국외 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구분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항목	측정지표 투입/산출	의견 분석 내용
2-a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경우,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자체적인 예산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A11) - 교육은 위임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학습프로그램들이 존

구분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항목	측정지표 투입/산출	의견 분석 내용
	예산액(인구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하지 않는 이상 지방 정부들은 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 (C1) -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C2)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시설 수(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관들이 예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함. (A11) - 이러한 데이터는 교육부가 아닌 문화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C1) - 문화부(Ministry of Culture)가 이러한 통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C2)
2-b 예술교육 전문화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지원학교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로 예술관련 전공들(arts-related majors)의 정의를 달리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요구됨. (B7) - 대학교육위원회(Commission for University Education)가 해당 데이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C1) - 이미 조사된 내용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C2)
	학교·사회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 (예술강사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경우, 예술가들을 통괄해서 훈련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음. (A11) - 학교의 미술선생님들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A6) - 연수의 의미가 불명확함. (B7) - 예술을 가르치는 예술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술교육 분야에 이들 개인을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C1) -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가 존재하지 않음. (C2)
2-c 실천적 연구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관련 학술지가 무조건 실천적 바탕(practice-based)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A6) - 지수명의 '국가에서'라는 표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를 국제 범위로 넓히는 것을 제안함. 또한, 어떠한 학술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예를 들어, 심사(peer reviewed)를 하는 학술지를 의미하는지 아닌지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 (B7)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예체능 분류 논문 발표 수 (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수들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함. (C2) - '수, 양(number)'이 '질(quality)'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 이럴 경우 질에 관한 지수의 정의 역시 요구됨. (B7)
2-d 상호 협력·협업	예술강사 (Teaching Artists) 채용 학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하는 예술가를 고용하는 것이 상호 협력·협업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짐. (A6) - 채용이외에도 '봉사활동(voluntary work)' 혹은 '학생-선생의 참여(student-teacher participation)'와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구분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항목	측정지표 투입/산출	의견 분석 내용
	(학령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것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 (B7) - 설문지로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이기는하나, 현재 뉴질랜드에는 존재하지는 않음. (C2)
	주요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째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의 수가 협력을 의미하는지 그 상관관계가 불분명. (A6) - 지수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짐. 즉, 모든 예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정 예술을 의미하는지가 명료하지 않음. 또한 예술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이는지 역시 고려해야 함. (B7) - 뉴질랜드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음. (C2)
2-e 교육지원 파트너십	지역특성화 사업 참여자 수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들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 '사업'이라는 용어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 의한 사업이며 고용인은 몇 명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어떨지 제안함. (A11) - 어떤 파트너십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함. (B7)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e의 투입과 산출지수의 차이를 모르겠음. (A11)

3.1.2. 핵심지수와 세부지수 정의에 대한 적합도 2차 델파이 조사결과

- 핵심지수 3개와 세부지수 13개의 정의에 대한 국제자문단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SAEI의 지수와 국제 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이나, 측정된 지수에 대한 우려점이 존재. 적합성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점수가 과연 존재할지가 의문. 따라서 측정 전 지수에 대한 이해가 숙지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지수가 어떻게 발전 그리고 형성되었는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핵심지수1과 2를 통해 진정한 “core idea”를 도출 할 수 있을지는 의문. 또한 설문지에서 사용된 질문들이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함. 따라서 지표의 정의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을 추천함. (A11)
 - 설문지의 정의와 예시들에 명확성이 떨어지며 질문들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답변들이 무척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샘플사이즈가 커야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듯. (B7)

- 핵심지수3의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관한 질적 지표들에 관한 질문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음. 질문들은 훌륭하지만 이를 측정하는 형식은 매우 불명확함. (C2)
- 지수들이 대체적으로 무척 긍정적임. 조금은 보수적인 정의도 필요해 보임. (C4)

〈표 V-21〉 핵심지수와 세부지수 정의에 대한 국외 자문단 의견 분석결과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정의에 대한 의견	
항목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1	
세부지수 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의미는 있겠으나,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적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전인적 포용성(holistic education)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이 우려됨. (B7) - 여기서 ‘포함하는(integrated)’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함. 또한 ‘동시대 그리고 실험적(contemporary and experimental)’인 것 보다 ‘전통과 현대(traditional and contemporary)’를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임. (A6)
세부지수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이 교육이라는 큰 틀에 포함 된 것 인지, 다른 과목들 중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인지가 불명확함. (A6)
세부지수 1-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째서 ‘함께함(togetherness)’이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에서 강조되는 지 그 상관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짐. (A6)
세부지수 1-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A11)
핵심지수 2	
세부지수 2-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A11)
세부지수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하는 예술가들만 포함하지 말고, 예술선생님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A6) - 중요한 지수이지만 막상 측정하면 지수 결과가 예상과는 매우 다르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C2)
세부지수 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비영어권국가나 국제연구에서 주로 배제되었던 나라들에 대해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A11)
핵심지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지수 3의 SAEI 점수가 적합한 측정방법인지 설득력이 떨어짐. 또한 이 점수가 어떻게 세부지수가 설명하는 정의들에 부합하는지가 불분명함. (A6) - 핵심지수 3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짐. (C2)

3.1.3. SAEI 측정지표의 국가별 존재 여부 2차 델파이 조사결과

- 아래의 표는 2차 델파이 조사의 일부로, 자문위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별 측정지표(30개)가 소속된 국가에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묻은 결과임. 총 11명의 국외 전문가들은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홍콩, 케냐, 이스라엘 그리고 뉴질랜드 소속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측정지표별 존재 여부를 8개 국가로 종합하였음.
- 설문 항목은 세부지수별로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측정지표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X),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not sure, -)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음.

〈표 V-22〉 국가별 SAEI 핵심지수 1의 정량지표별 현황

구분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항목	측정지표 투입/산출	캐 나 다	독 일	싱 가 포 르	홍 콩	케 냐	이 스 라 엘	뉴 질 랜 드	호 주
1-a 전인적 포용성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정부 예산 (인구 1인당)	X	X	-	-	-	X	○	-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인구 100인당)	X	X	-	-	○	X	○	-
1-b 교육방식·운 영 개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액 (학령인구 1인당)	X	X	-	-	○	X	-	-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X	○	○	-	○	X	-	-
1-c 평생학습 으로서 예술교육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교육 예산액 (인구 1인당)	X	-	-	X	-	X	○	-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혜자 수 (인구 100인당)	X	X	-	X	-	X	○	-
1-d 예술교육 정책 기반강화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경제활동인구 1인당)	X	X	-	X	○	X	-	-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 (경제활동인구 100인당)	X	-	-	X	-	X	X	-

- 종합적으로 SEAI 핵심지수 1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됨. 8개국 중 케냐와 뉴질랜드의 해외 전문가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응답한 측정지표들이 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경우엔 측정지표가 모두 존재하지 않다고 응답함. 경력 있는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통해 해당 국가의 측정지표 존재 여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향후 교차검증을 통해 해당 국가의 측정지표 보유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위의 표를 국가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먼저 독일의 경우, 교육방식 운영·개선의 산출을 측정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에 대한 지표는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외, 세부지수 1.a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와 세부지수 1.c의 산출지표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수혜자 수’ 그리고 세부지수 1.d의 투입 측정지표인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은 존재하지 않다고 답함. 또한 세부지수 1.c의 투입 측정지표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 정규과정 외 교육 예산액’ 그리고 세부지수 1.d의 산출 측정지표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음. 1.b의 투입을 위한 측정지표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액’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 두 가지로 응답됨.
- 싱가포르의 경우, 세부지수 1.b의 산출 측정지표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지표들에 대해서는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홍콩의 경우, 세부지수 1.a와 1.b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들이 존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세부지수 1.c와 d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음.
- 케냐의 경우에는 세부지수 1.a의 산출 측정지표인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세부지수 1.b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액’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그리고 세부지수 1.d의 투입 측정지표인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이 존재한다고 응답함. 그러나 세부지수 1.a의 투입 측정지표인 ‘중앙정부에서 공식 집계된 문화예술교육 정부 예산’, 세부지수 1.c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들 그리고 세부지수 1.d의 산출 측정지표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을 담고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함.
- 뉴질랜드의 경우, 세부지수 1.a와 1.c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들은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세부지수 1.b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 그리고 세부지수 1.d의 투입 산출지표인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액’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그러나 세부지수 1.d의 산출 측정지표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관계자 연수 참여자 수’는 존재하

지 않는다고 응답.

〈표 V-23〉 국가별 SAEI 핵심지수 2의 정량지표별 현황

구분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항목	측정지표 투입/산출	캐 나 다	독 일	싱 가 포 르	홍 콩	케 냐	이 스 라 엘	뉴 질 랜 드	호 주
2-a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액(인구 1인당)	X	X	X	X	X	-	○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시설 수 (인구 100인당)	X	X	X	X	-	-	○	-
2-b 예술교육 전문화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지원학교 당)	X	○	-	X	○	X	○	-
	학교·사회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 (예술강사 1인당)	X	○	-	-	-	○	○	-
2-c 실천적 연구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전체 학술지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	X	○	-	X	-	X	-	-
	해당 국가에서 발행되는 예체능 분류 논문 발표 수 (인구 100인당)	X	○	-	X	-	X	-	-
2-d 상호 협력·협업	예술강사(Teaching Artists) 채용 학교 수 (학령인구 100인당)	X	○	-	X	-	X	○	-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학령인구 100인당)	X	○	○	X	○	○	○	-
2-e 교육지원 파트너십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명)	X	○	-	-	○	X	○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명)	X	X	-	-	-	○	○	-

- 전반적으로 핵심지수 1보다 핵심지수 2를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 10개를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실천적 연구를 묻는 ‘전체 대비 예체능 분류 학술지 비율’과 ‘예체능 분류 논문 발표 수’에 대해서만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나머지 모든 측정지표가 존재한다고 기입함. 독일 역시 7개의 측정지표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음.
- 구체적으로, 독일은 세부지수 2.a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 그리고 세부지수 2.e의 산출 측정지표인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은 존재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세부지수 2.b, 2.c 그리고 2.d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 그리고 세부지수 2.e의 투입 측정지표인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는 존재한다고 답함.
- 싱가포르의 경우, 세부지수 2.a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는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세부지수 2.b, c, e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는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응답. 그러나 세부지수 2.d의 산출 측정지표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은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세부지수 2.d의 투입지수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예술강사(Teaching Artists) 채용 학교 수’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않음.
- 홍콩의 경우에는 세부지수 2.a, c, d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와 b의 투입 측정지표인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세부지수 2.b의 산출 측정지표인 ‘학교·사회예술강사 연간 연수’ 그리고 세부지수 2.e의 투입과 산출을 위한 측정지표에 대해서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응답.
- 케냐는 세부지수 2.a의 투입 측정지표인 ‘서울(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액’은 존재하지 않고, 세부지수 2.b의 투입 지표인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 2.d의 산출지표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와 2.e의 투입 측정지표인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은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측정지표들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함.
- 이스라엘은 세부지수 2.b의 투입 측정지표인 ‘학교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액’과 세부지수 2.c의 투입 측정지표 그리고 세부지수 2.e의 투입 측정지표인 ‘지역특성화사업 참여자 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함. 그러나 세부지수 2.b의 산출 측정지표인 ‘학교·사회예술강사 연간 연수 회수’ 그리고 세부지수 2.d의 산출 지수인 ‘주요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와 2.e의 산출 측정지표인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은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며, 나머지 측정지표들은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함.
- 뉴질랜드는 세부지수 2.a, b, d 그리고 e의 투입과 산출을 위한 측정지표가 모두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세부지수 2.c의 투입과 산출 측정지표의 존재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표 V-24〉 국가별 SAEI 핵심지수 3의 정량지표별 현황

구분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항목	측정지표(산출)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홍콩	케냐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3-a 혁신적 문화의 확산	WIPO 세계혁신지수	-	○	X	X	-	X	-	-
	연구진 재확인 결과 (2018년 기준)	52.98	58.03	59.83	54.62	31.07	50.83	39.17	51.98
3-b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UNDP 인간개발지수	-	○	-	X	-	X	-	-
	연구진 재확인 결과 (2018년 기준)	0.926	0.936	0.932	0.933	0.590	0.903	0.917	0.939
3-c 문화다양성	다문화수용성 지수	-	-	X	X	-	X	-	-
3-d 세계 시민성	IEP 세계평화지수	-	○	X	X	-	X	-	-
	연구진 재확인 결과 (2018년 기준)	1.372	1.531	1.382	X	2.354	2.764	1.312	1.435

- SAEI의 로직모델의 이론적 설계는 프로젝트 프레임워크(Project Framework)에 의거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핵심지수 3에서 투입 값은 핵심지수 1의 총합이며, 과정값은 핵심지수 2의 총합으로 구성됨.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의 투입과 산출의 측정지표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항은 삭제하였음.
- 핵심지수 3의 산출 값은 국제지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핵심지수 1, 2와 상이하게 국제지수를 활용한 연유는 지수의 설계단계에서 최대한 지수의 국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음. 따라서 문화다양성(3.c)을 측정하고 있는 국내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범국가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수들임. 그렇지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수의 존재 여부에 대해 독일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응답하지 않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교차검증을 시행한 결과, 세계 시민성을 측정하는 산출지표로 사용된

IEP 세계평화지수에서 홍콩을 제외하고 7개 국가는 세계평화지수의 산출 대상국이었으며, 혁신적 문화의 확산을 측정하는 WIPO 세계혁신지수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측정하는 UNDP 인간개발지수 값을 8개 국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앞의 핵심지수 1과 2의 측정지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교차검증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상을 묻는 정성적 설문을 제외하고 지표의 존재 여부와 같은 설문을 할 때는 참여 전문가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의 삽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1.4. 국가별 SAEI의 측정지표 존재현황의 시사점

- 설문에 참여한 자문위원단들 중 INRAE회원들은 서울어젠다 선포 이후 결속 된 그룹으로, 서울어젠다와 관련 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음.
- SAEI의 측정지표 존재 현황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겪을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각 국가별로 나타나는 개별성과 국가별 특징을 구분 짓고 이를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줌. 또한 비슷한 측정 지표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을 묶어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
- 회신을 준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SAEI의 측정지표가 자신의 국가에 적당한 지에 관해서는 응답을 하였으나, 설문에서 제시된 측정지표가 자신들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독일, 캐나다 그리고 홍콩의 응답자들의 경우, 본 연구가 제시한 측정지표들이 매우 합당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설문에서 제시된 측정지표가 자신들의 국가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따라서 이를 통해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본 연구가 제시한 측정지표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싱가포르 자문위원의 경우, 설문에서 제시한 측정지표들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답하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답하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싱가포르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케냐의 응답자 역시 본 연구가 제시한 측정지표들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답하면서도 케냐에 비슷한 지표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함. 이는 자문위원들이 측정지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상적이고 대략적으로 설문에 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답변의 신뢰성을 축소시킴. 그러나 이러한 공백이 다음 연구에 참고 되어 기획된다면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측정지표에 대해 무

척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측정지표에 대해 우려를 보인 자문위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몇 명은 SAEI를 통해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함. 다만, 국제적인 규모로 연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며, 국가 비교과정에서 국가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예술교육에는 매우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반면, 정치경제적으로는 국제비교 연구에는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따라서 문화예술과 예술교육을 연구할 때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만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연구하기보다는 다양한 배경의 나라들을 포함하여 진행한다면 예술교육에 대해 지금보다도 확장된 이해와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본 연구가 수집한 데이터와 도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지수와 지표들이 국가별로 어떻게 이해되며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

VI. SAEI 정성지표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국가별 비교 분석

1. SAEI의 정성지표 조사 개요
2. 한국 SAEI의 정성지표 조사 결과: 2018년도와 2019년
3. 국가별 SAEI의 정성지표 조사 비교결과
4.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적 특징

VI. SAEI의 정성지표를 적용한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국가별 비교 분석

1. SAEI의 정성지표 조사 개요

- 서울어젠다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중 정성지표(체크리스트 문항)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국제 조사에는 2019년 10월 캐나다의 제 3회 국제 UNITWIN Conference(캐나다)와 독일의 2019 WAEE: The 9th World Alliance for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여한 전문가와 기타 UNITWIN 핵심 회원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종 35명이 참여함. 국내 조사는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 대학과 연구소 및 기관의 전문가 15명이 참여함. 따라서 3차 델파이 조사에는 문화예술 국제 및 국내 전문가 ‘총 50명(국제 35명과 국내 15명)’이 참여함.
- 국외 전문가 조사에는 ‘총 13개국’ 35명이 참여함. 구체적으로 캐나다 10명, 미국은 6명, 독일 4명, 호주 4명, 뉴질랜드 2명, 네덜란드 1명, 방글라데시 1명, 영국 1명, 중국 1명, 콜롬비아 1명, 싱가포르 2명, 케냐 1명, 이스라엘 1명이 참여함.
- 3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총 13개국의 국외 전문가 35명의 문화예술 관련 ‘경력’은 최소 2년 ~ 최대 50년에 이르며, 평균 20.36년으로 나타남. 한국의 국내 전문가 15명의 경력은 최소 10년 ~ 최대 30년이며, 평균 15.13년으로 나타남.
- 정성적 지표의 체크리스트 문항은 13개의 세부지수별 3문항씩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함.

〈표 VI-1〉 3차 델파이 조사 참여 국내외 전문가 리스트

구분	국가	소속 및 역할	분야	경력
1	캐나다(10)	Arts Administrator in an Arts & Learning Org.	정책전문가	15
2		Arts Administrator	정책전문가	8
3		Museum Educator	교육전문가	17
4		Art Educator(Secondary School)	교육전문가	10
5		Program Coordinator/ Arts Educator	교육전문가	6
6		Master of Education Student/ Drama Teacher	교육전문가	5
7		Professor	교수	30
8		Educator/ Performer	교육전문가	30
9		Program Manager for 2 non-profits	교육전문가	20
10		Queen's University	교수	50
11	미국(6)	Lecturer in Dance Studies	대학강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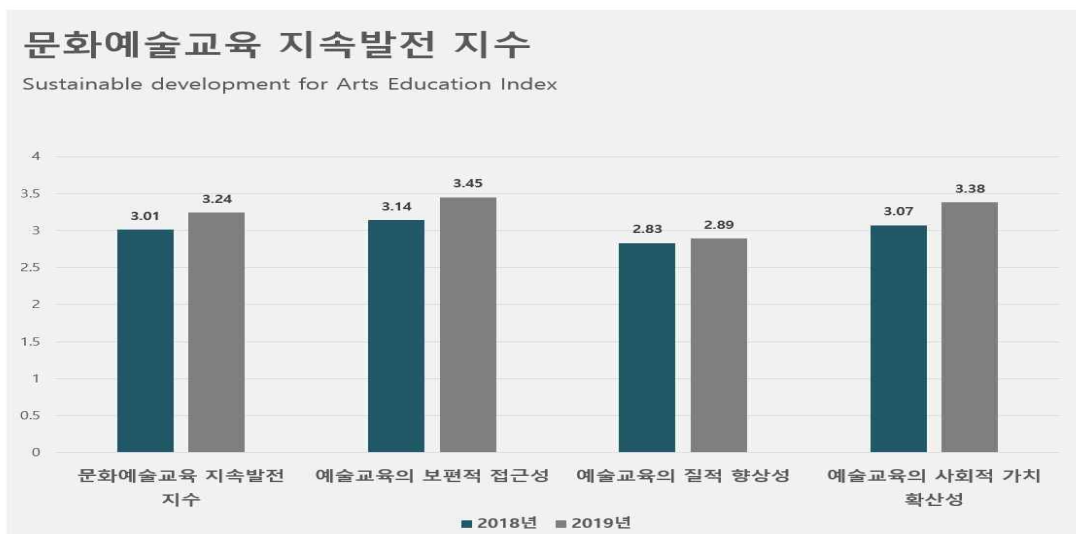
12		Professor Dance Education	교수	30
13		Geroge Mason University	교수	20
14		Tulane University	교수	10
15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교수	20
16		Santa Fe Art Institute	교육전문가	10
17	독일(4)	Professor	교수	35
18		Professor	교수	35
19		Research Analyst	연구원	2
20		Friederichian	현장전문가	20
21	호주(4)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대학강사	2
22		Teacher Trainer	교육전문가	25
23		Lecturer	대학강사	40
24		Designer	교육전문가	5
25	뉴질랜드(2)	The University of Auckland	교수	20
26		The University of Auckland	교수	50
27	네덜란드(1)	Dutch Center of Expertise for Arts and Cultural Education	연구원	20
28	방글라데시(1)	Theater	정책전문가	7
29	영국(1)	University Lecturer	대학강사	25
30	중국(1)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연구원	7
31	콜롬비아(1)	Universitaria Juan N Corpas	교육전문가	15
32	싱가포르(2)	Centre for Arts Research in duation(CAR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교수	15
33		Researcher/ Centre for Arts Research in Education(CAR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연구원	5
34	케냐(1)	The Technical University of Kenya	교수	30
35	이스라엘(1)	University of Haifa	교수	50
36	한국(15)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30
37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연구원	20
38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1
39		상명대학교 문화정책연구소	교수	13
40		상명대학교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교수	10
41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정책전문가	20
42		수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	교수	16
43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예술정책연구실	예술강사	13
44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현장전문가	12
45		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예술강사	13
46		아트컬처 너랑나랑	예술강사	12
47		스윗뮤직가든	예술강사	11
4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책전문가	14
4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장전문가	15
5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17

2. 한국 SAEI의 정성지표 조사결과: 2018년도와 2019년

- 국내 전문가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 점수를 이용함. 2019년 전문가 평가결과 의 분석을 위해 동일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2018년 전문가 평가결과를 비교함. 이것은 2019년에 참여한 전문가(15명)가 2018년 전문가(20명)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전문 경력자로서 그들이 평가한 2019년 지속발전 수준과 2018년 전문가 조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변화 추이를 어느 정도 포착할 것으로 예측함.
- 2011년 서울어젠다 채택 이후 국내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정도는 2018년 ‘보통이다’ 의 3.01점에서 2019년 3.24점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별로 살펴보면, 2019년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3.38점)’,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89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VI-2〉 국내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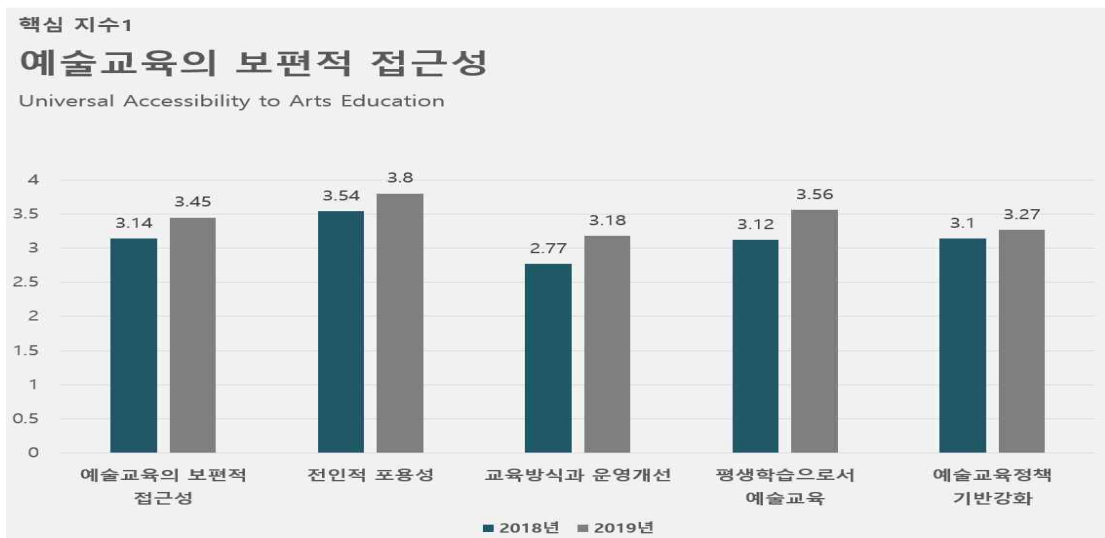
구분		2018년(N=19)	2019년(N=15)	증감률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3.01	3.24	7.64%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3.14	3.45	9.87%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83	2.89	2.12%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3.07	3.38	10.1%



- 위와 같이 2019년 3개 핵심지수 수준은 2018년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의 경우 2018년 2.83점에서 2019년 2.89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추가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에서도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영역이 가장 낮은 증가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핵심지수의 세부지수별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2018년 대비 2019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에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2019년 세부지수별 결과는 ‘전인적 포용성’이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3.56점)’, ‘예술교육 정책 기반강화(3.27점)’, ‘교육방식·운영 개선(3.18점)’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결과는 모두 증가했고, 특히 ‘교육방식·운영 개선’이 14.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예술교육 정책 기반강화(4.14%)’와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1.41%)’로 낮은 수준의 증가 비율이 보여, 정책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확산 방안(표 V-21 참고)이 적극 모색되어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핵심지수 1 | 국내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정성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8년(N=19)	2019년(N=15)	증감률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3.14	3.45	9.87%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3.54	3.80	7.34%
세부지수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2.77	3.18	14.8%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3.12	3.56	1.41%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3.14	3.27	4.14%



○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의 세부지수 문항별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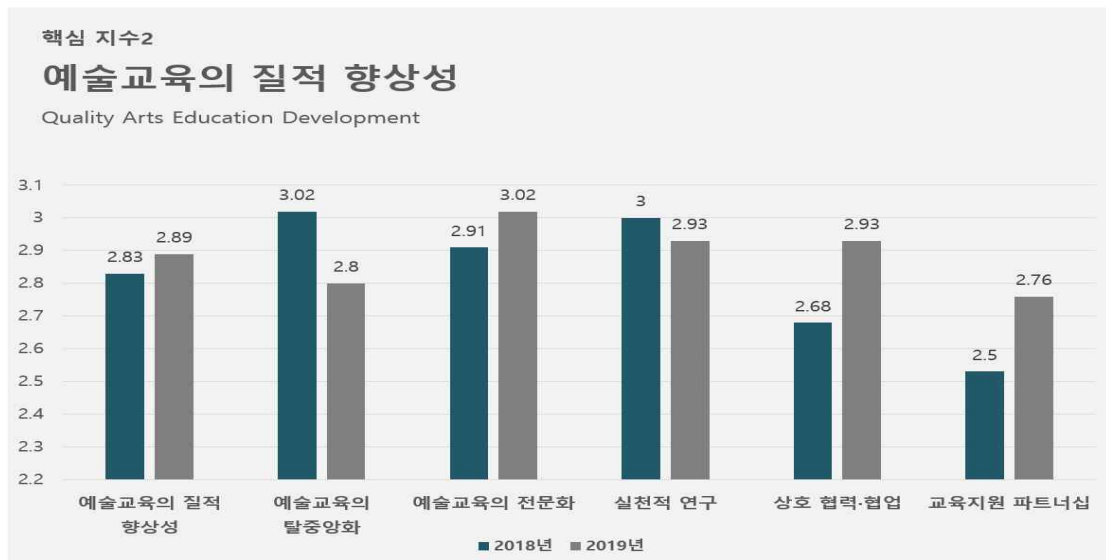
Ⅰ 핵심지수 1 | 국내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정성지표 문항별 산출결과

세부 지수	체크리스트 문항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1-1] 전인적 포용성	①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가?	3.79	3.80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동시대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3.26	3.53	3.54	3.80
	③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창의적, 인지적, 정서적, 심미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가?	3.58	4.07		
[1-2] 교육방식· 운영 개선	① 학교 내 교육현장에서 예술과 연계한 교과 간 융합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3.11	3.21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예술교육을 매개로 예술 강사, 학교 교사, 교육행정가 간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상호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2.68	3.07	2.77	3.18
	③ 예술교육의 원리가 학교 내 타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53	3.27		
[1-3] 평생학습 으로서 예술교육	① 다양한 학습자들이 각 지역과 조직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3.32	3.87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3.32	3.60	3.12	3.56
	③ 전통예술과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2.74	3.20		
[1-4] 예술교육 정책 기반강화	① 문화예술교육 관계부처 및 정책입안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3.21	3.40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실천가 및 연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3.21	3.40	3.14	3.27
	③ 시민과 조직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으로 독려되고 있는가?	3.00	3.00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2019년 세부지수별 결과는 ‘예술교육의 전문화(3.02점)’가 가장 높지만 중간 수준이고, 그 다음으로는 ‘실천적 연구(2.93점)’, ‘상호 협력·협업(2.93점)’이며, ‘예술교육의 탈중앙화(2.8점)’, ‘교육지원 파트너십(2.76점)’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을 도모하기 위해 5개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예술교육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원 결과의 환류체계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질적 성과 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대비 2019년의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증가한 영역은 ‘예술교육의 전문화(3.78%)’, ‘상호 협력·협업(9.33%)’, ‘교육지원 파트너십(9.09%)’로 나타남. 반면 전년대비 감소한 영역은 ‘실천적 연구(7.56%)’와 예술교육의 탈중앙화(2.33%)’로 나타나,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지역의 교육자원 지원(표 V-22 참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핵심지수 2 | 국내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정성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8년(N=19)	2019년(N=15)	증감률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83	2.89	2.12%
세부지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3.02	2.80	△ 7.56%
세부지수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91	3.02	3.78%
세부지수 2-3	실천적 연구	3.00	2.93	△ 2.33%
세부지수 2-4	상호 협력·협업	2.68	2.93	9.33%
세부지수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2.53	2.76	9.09%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세부지수 문항별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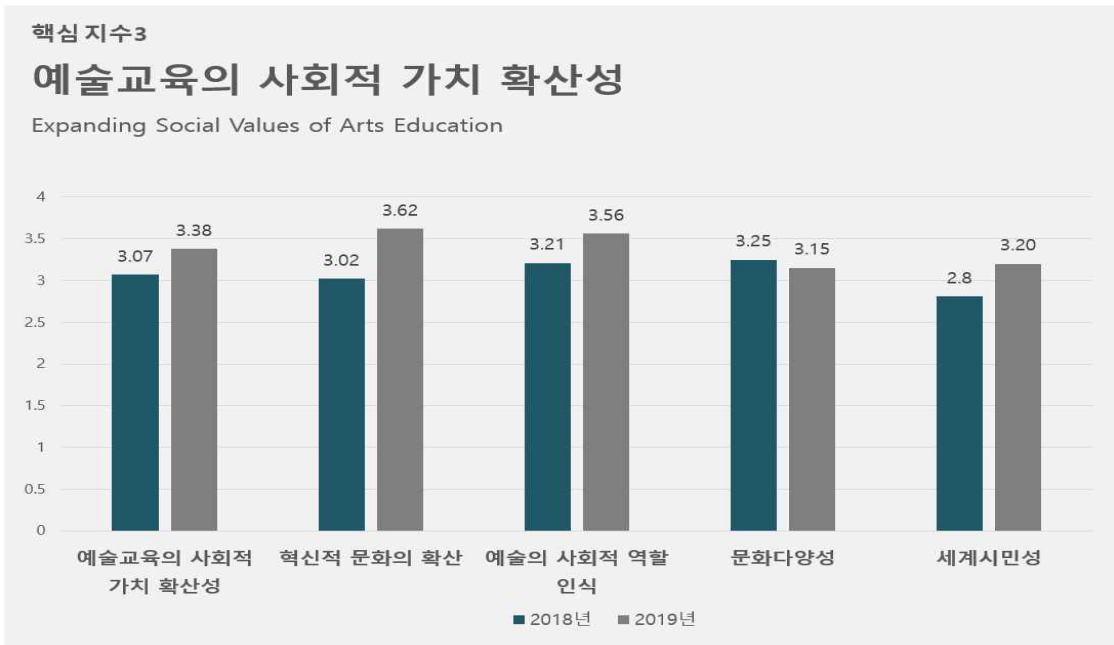
Ⅰ 핵심지수 2 | 국내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정성지표 문항별 산출결과

세부지수	체크리스트 문항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①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3.11	2.67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3.11	3.00		
	③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2.84	2.73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① 교사 및 예술가의 예술교육 전문성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학습 절차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3.00	3.07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예술교육 자(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3.05	3.13		
	③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가?	2.68	2.87		
[2-3] 실천적 연구	① 예술교육 연구들은 실행연구 등을 통해 예술교육 현장의 발전에 실천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3.00	3.40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예술교육 실천과 이에 대한 연구의 우수사례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가?	3.32	2.80		
	③ 자국의 예술교육 우수 사례 및 연구가 공유되어 세계 예술교육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2.68	2.60		
[2-4] 상호 협력·협업	① 학교 내 예술가와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또는 협업을 하는가?	2.58	3.07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예술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예술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 협력 또는 협업이 이루어지는가?	2.95	2.93		
	③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2.53	2.80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실천을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조직,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2.74	2.87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 간의 협력 관계가 수평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2.37	2.40		
	③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의 협력관계가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2.47	3.00		

-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2019년 세부지수별 결과는 ‘혁신적 문화의 확산’이 3.62점으로 가장 높게 나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3.56점)’이며, ‘세계 시민성(3.2점)’과 ‘문화다양성(3.15점)’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대비 2019년 결과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혁신적 문화의 확산(19.9%)’, ‘세계 시민성(13.9%)’,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10.9%)’은 2019년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반면 ‘문화다양성’ 영역은 전년대비 3.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수준의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표 V-23 참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것으로 요구함.

Ⅱ 핵심지수 3 | 국내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정성지표 산출결과

구분		2018년(N=19)	2019년(N=15)	증감률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3.07	3.38	10.1%
세부지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3.02	3.62	19.9%
세부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3.21	3.56	10.9%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	3.25	3.15	△ 3.08%
세부지수 3-4	세계 시민성	2.81	3.20	13.9%



○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의 세부지수 문항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Ⅰ 핵심지수 3 | 국내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정성지표 문항별 산출결과

세부지수	체크리스트 문항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3-1] 혁신적 문화 확산성	①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적, 혁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도록 시행되고 있는가?	3.21	3.60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전반의 창의적, 혁신적 역량 강화에 충분히 기여하였는가?	2.79	3.60		
	③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는가?	3.05	3.67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① 사회적, 문화적 잘 삶을 위한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3.42	3.87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사회적 갈등 또는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치유적(복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3.16	3.33		
	③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인식이 사회적·문화적 ‘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3.05	3.47		
[3-3] 문화 다양성	① 학습자들의 특수한 상황(저소득층, 장애, 이민자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37	3.33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표현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	3.37	3.33		
	③ 예술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및 교수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3.00	2.80		
[3-4] 세계 시민성	① 문화예술교육은 전 지구적 주요문제(환경오염, 전쟁,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는가?	2.63	3.00	2018년 평균	2019년 평균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와 소통하는 것을 돕고 있는가?	3.26	3.53		
	③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2.53	3.07		

3. 국가별 SAEI의 정성지표 조사 비교결과

- 연구에 참여한 13개 국가 전문가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정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중간 점수(3점) 이상을 평가한 전문가는 뉴질랜드(3.81점)와 네덜란드(3.01점), 영국(3.07점), 중국(3.54점), 케냐(3.18점), 이스라엘(3.13점)로 나타남.
-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국외 전문가의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미국(2.67점)과 호주(2.99점), 방글라데시(2.92점), 콜롬비아(1.67점)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들로 나타남.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국외 전문가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의 견해를 밝힌 국가는 뉴질랜드(3.37점), 네덜란드(3.27점), 영국(3.13점), 중국(3.53점)으로 나타나, 나머지 8개 국가들의 전문가는 자국의 질적 향상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
-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국외 전문가의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미국(2.68점)과 독일(2.79점), 싱가포르(2.58점), 네덜란드(2.58점), 콜롬비아(1.75점)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국가들로 나타남.
- 세 개의 핵심지수에서 모두 3점 이상인 국가는 뉴질랜드와 영국, 중국이고, 모두 3점 이하인 국가는 미국과 콜롬비아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중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같이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과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비해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음.

〈표 VI-3〉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

참여 국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캐나다(N=10)	2.86	3.00	2.57	3.00
미국(N=6)	2.69	2.67	2.72	2.68
독일(N=4)	2.80	3.11	2.50	2.79
호주(N=4)	3.02	2.99	2.81	3.26
뉴질랜드(N=2)	3.81	4.09	3.37	3.96
싱가포르(N=2)	2.91	3.33	2.83	2.58
네덜란드(N=1)	3.01	3.17	3.27	2.58
방글라데시(N=1)	2.97	2.92	2.00	4.00
영국(N=1)	3.07	3.09	3.13	3.00
중국(N=1)	3.54	3.50	3.53	3.59
콜롬비아(N=1)	1.58	1.67	1.33	1.75
케냐(N=1)	3.18	3.83	2.53	3.17
이스라엘(N=1)	3.13	3.42	2.80	3.17

※ 국가의 순서는 응답자가 많은 국가의 순으로 나열함

-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국외 전문가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미국과 호주, 방글라데시,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들로 나타남.
- 세부지수1-1: 전인적 포용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미국(2.78점)과 방글라데시(2.67점), 콜롬비아(1.33점)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가로 나타남.
- 세부지수1-2: 교육방식·운영 개선에 대한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의 견해를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 중국, 이스라엘로 나타나, 나머지 10개 국가의 전문가들은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영역에 있어 교육방식과 운영개선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음.
- 세부지수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캐나다(2.87점)와 미국(2.61점), 호주(2.89점), 영국(2.33점), 콜롬비아(2점)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국가들로 나타남.
- 세부지수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의 전문가 평가가 나타난 국가는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영국, 중국, 케냐, 이스라엘 등의 7개 국가였음.
- 4가지 세부지수에서 모두 3점 이상인 국가는 뉴질랜드와 중국, 이스라엘이고, 모두 3점 이하인 국가는 미국과 콜롬비아로 나타남. 특히 4가지 세부지수들 중 ‘세부지수1-2: 교육방식·운영 개선’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전문가 국가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중국으로 나타남.

| 핵심지수 1 | 국가별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정성지표 산출결과

참여 국가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세부지수 1-2: 교육방식· 운영 개선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캐나다(N=10)	3.00	3.37	2.93	2.87	2.83
미국(N=6)	2.67	2.78	2.50	2.61	2.78
독일(N=4)	3.11	3.67	2.75	3.08	2.92
호주(N=4)	2.99	3.33	2.92	2.89	2.83
뉴질랜드(N=2)	4.09	4.67	3.83	4.17	3.67
싱가포르(N=2)	3.33	3.83	2.67	4.33	2.50
네덜란드(N=1)	3.17	4.33	2.00	3.33	3.00
방글라데시(N=1)	2.92	2.67	2.67	3.00	3.33
영국(N=1)	3.09	3.67	2.67	2.33	3.67
중국(N=1)	3.50	3.67	3.00	4.00	3.33
콜롬비아(N=1)	1.67	1.33	2.00	2.00	1.33
케냐(N=1)	3.83	4.33	2.33	5.00	3.67
이스라엘(N=1)	3.42	4.00	3.67	3.00	3.00

※ 국가의 순서는 응답자가 많은 국가의 순으로 나열함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에 대한 국가별 세부지수 수준이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중국, 싱가포르로 나타났고, 나머지 8개 국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
- 세부지수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의 7개 국가로 나타남.
- 세부지수2-2: 예술교육의 전문화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가 중간 점수 3점 이상을 보인 국가는 네덜란드, 중국, 케냐 등의 3개 국가이며, 나머지 10개 국가의 전문가들은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영역에서 자국의 예술교육의 전문화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음.
- 세부지수2-3: 실천적 연구에서 전문가 견해가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중국, 케냐, 이스라엘 등 8개 국가들로 나타남.
- 세부지수2-4: 상호 협력 및 협업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의 전문가 평가가 나타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의 6개 국가였음.
- 세부지수2-5: 교육지원 파트너십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의 5개 국가들로 나타남.
- 5가지 세부지수가 모두 3점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와 중국이고, 3점 이하인 국가는 캐나다와 독일, 콜롬비아였음. 5가지 세부지수들 중 ‘세부지수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와 ‘세부지수2-5: 교육지원 파트너십’의 낮은 평가는 미국과 케냐에서 나타남.

| 핵심지수 2 | 국가별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정성지표 산출결과

참여 국가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부지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세부지수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세부지수 2-3: 실천적 연구	세부지수 2-4: 상호협력·협업	세부지수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캐나다(N=10)	2.57	2.76	2.64	2.67	2.50	2.26
미국(N=6)	2.72	2.61	2.95	3.28	2.56	2.22
독일(N=4)	2.50	2.42	2.17	2.92	2.42	2.58
호주(N=4)	2.81	3.08	2.58	2.83	3.00	2.58
뉴질랜드(N=2)	3.37	3.67	2.50	4.17	3.17	3.33
싱가포르(N=2)	2.83	3.17	2.50	2.83	3.17	2.50
네덜란드(N=1)	3.27	3.33	3	3	3.67	3.33
방글라데시(N=1)	2.00	2	2	2	-	-
영국(N=1)	3.13	3	2.67	3.67	3.33	3
중국(N=1)	3.53	3.67	4	3	3.33	3.67
콜롬비아(N=1)	1.33	1	1	1.67	2	1
케냐(N=1)	2.53	2	3.33	3.33	2.33	1.67
이스라엘(N=1)	2.80	3	2.33	3	3.33	2.33

※국가의 순서는 응답자가 많은 국가의 순으로 나열함

-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국외 전문가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콜롬비아를 제외한 8개 국가들로 나타남.
- 세부지수3-1: 혁신적 문화의 확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영국, 중국, 케냐 등의 6개 국가로 나타남.
- 세부지수3-2: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에 대한 평가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은 미국(2.61점)과 싱가포르(2.5점), 네덜란드(2.33점), 영국(2.67점), 콜롬비아(2.33점), 케냐(2점)를 제외한 7개 국가들에서 나타남.
- 세부지수3-3: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중간 점수 3점 이상인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의 7개 국가들에서 나타남.
- 세부지수3-4: 세계 시민성에서 중간 점수 3점 이상의 평가는 미국(2.78점)과 독일(2.5점), 싱가포르(2.67점), 네덜란드(2.33점), 콜롬비아(1점)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국가로 나타남.
- 4가지 세부지수에서 모두 3점 이상인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중국이며, 모두 3점 이하인 국가는 미국과 싱가포르로 나타남. 특히 4가지 세부지수들 중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과 ‘세부지수3-4: 세계 시민성’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전문가 국가는 독일, 방글라데시, 콜롬비아로 나타남.

Ⅱ 핵심지수 3 | 국가별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정성지표 산출결과

참여 국가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세부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	세부지수 3-4: 세계 시민성
캐나다(N=10)	3.00	2.84	3.18	2.81	3.15
미국(N=6)	2.68	2.56	2.61	2.78	2.78
독일(N=4)	2.79	2.92	3.08	2.67	2.50
호주(N=4)	3.26	3.08	3.42	3.14	3.50
뉴질랜드(N=2)	3.96	3.83	3.83	4.00	4.17
싱가포르(N=2)	2.58	2.33	2.50	2.83	2.67
네덜란드(N=1)	2.58	2.33	2.33	3.33	2.33
방글라데시(N=1)	4.00	5	4	3.67	3.33
영국(N=1)	3.00	3	2.67	3	3.33
중국(N=1)	3.59	3	3.67	3.67	4
콜롬비아(N=1)	1.75	2.67	2.33	1	1
케냐(N=1)	3.17	3.67	2	2.33	4.67
이스라엘(N=1)	3.17	2.67	3.67	3.33	3

※국가의 순서는 응답자가 많은 국가의 순으로 나열함

4.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적 특징

- 3차 델파이 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국내외 예술교육 전문가의 답변을 정성 분석하여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서울어젠다 핵심지수 세 가지(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를 중심으로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을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음.
-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정성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표 VI-4〉 SAEI 핵심지수를 통해 본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

국가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차가 나타남. 행정인력의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 필요 자원 지원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강사를 포함한 매개 인력 간 협력과 소통이 성숙해야 하는 단계 민간, 공공, 학계 간 협력 관계와 지원 그리고 예술 전문 교육에 대한 지역차 존재 예술강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연수 관리 체계 필요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 정리가 선행될 필요 있음.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타인에 대한 이해, 세계 시민성 등 사회적 가치 확산성은 향후 더욱 향상되어야 함.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단, 예술교육 시수 결정은 학교 자율임.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도록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밖 예술교육과 취미 활동으로의 예술교육은 민간 분야에 의존도가 높음. (8:2 정도)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도록 정책 마련 	-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국가 (표준) 커리큘럼에 포함된 예술 교과는 무용, 드라마, 음악, 시각예술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가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예술 교과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 	-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공유됨. 다만 과학 등 STEM 교과 교육과의 우선순위 경쟁에서는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 클래식 예술 장르에 집중된 예술적 표현 중심 교육 제공 담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많은 반면 양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한 예술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 ‘지속 가능성’과 같은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및 실행이 어려움.

국가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의 예술교육 참여 기회 부족 예산 부족 	<p>예술교육 실행과 실천에 대한 논의는 적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부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평등한 제공이 주요 이슈 중 하나임. 창의 자본(creative capital) 형성의 근간이 예술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교원 부족 현상 예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예술단체 간 협력이 부족 예술가-교사 간 협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다만 언어 및 수리와 같은 교과에 비하여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국립예술위원회 지원을 통한 비정규 예술교육(informal, non-formal) 분야의 신장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분야 연구 및 예술가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부족함. 교육부에서 미술, 음악 분야 교사를 위한 전문가 역량 개발 아카데미(Singapore Teachers Academy for the Arts)를 설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포용과 관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좋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는 하나, 예산 부족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적음. 또한 사립 교육체계에서 예술교육이 주로 시행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른 지역 편차가 큼. 	-	-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교육의 커리큘럼 변화를 비롯한 전환의 시기 예술교육을 통한 기술과 역량 개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남. 예술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낮음. 자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자원 부족 교사와 예술가 간 협력이 부재 협력 없이 예술강사 홀로 일하는 경우가 다수 	-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문화적 의제 시각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사고의 통합과 실천을 예술교육 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국가	의견 분석 내용		
핵심지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은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언어와 수리영역보다 차순위에 속함. 2019-2025년 사이 예술교육 및 타 교과와 커리큘럼에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 교류'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강화하고자 예술교육자와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형성하고, '상호 문화 교류' 개념과의 연결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확대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2025년 사이 예술교육 및 타 교과와 커리큘럼에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 교류'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정성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공통점으로 '자원 부족 경험'이 나타남. 환경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공공 지원이 부족하여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질적 향상성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독일과 싱가포르에서 예술교육이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나 언어, 수학, 과학, 공학 등 STEM 교과 수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드러냄. 직접적인 언급을 없었으나 네덜란드와 케냐에서도 예술교육이 다른 교과에 비해 차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특히 케냐에서는 직능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이 시행되어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학부모의 인식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 외 해외 전문가들은 학교 과정의 일부인 교과 과정으로서의 예술교육을 포함하여 자국의 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응답을 하였음. 반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국내법 상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한정하여 해당 질문에 응답을 했다는 지점임.
 - 이는 한국의 정책 환경 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고,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사업과 역량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상 범주를 학교 교과 과정 내 예술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보편적 정의하고 한다면, 적합한 국가 비교를 위해서는 국내 통계자료 역시 예술교과 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다만, 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차별 비교와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에 대한 향상과 개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보다 넓은 범주의 통계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은 제외됨.
- 본 조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수준에 대한 국제 이행실적 상황과 미래 적용을 위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활용하고자 함. 3차 델파이 조사에 국외 전문가로서 참여한 13개 국가들 중에서 인간개발지수(HDI)가 한국 보다 상위인 국

가들을 대상으로 함. 인간개발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 항목 중 인간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득지수와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로 산정하고 있음.

- 2018년 UNDP에서 발표된 국가별 인간개발지수에서 한국은 22위로 나타남. 국외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13개 국가들 중 한국보다 HDI가 상위 국가인 호주(3위)와 독일(5위), 싱가포르(9위), 캐나다(12위), 미국(13위), 뉴질랜드(16위) 등 총 6개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수준을 분석함.
- 본 조사에서 국외 전문가 35명은 자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체크리스트 문항에 대해 핵심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의 질문들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평균 점수를 기술 분석하였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정성적으로’ 예술교육환경에 대해 제시한 전문가의 견해 등을 분석함.
- 국외 전문가가 자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전문가는 자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수준을 가장 높다고 평가함.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였고, 독일과 캐나다, 뉴질랜드가 2.8점대로 나타났고, 미국이 2.6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3가지 핵심지수에 대한 한국의 전문가는 7개 국가들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5〉 인간개발지수 상위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

구분		호주 (N=4)	독일 (N=4)	싱가포르 (N=2)	캐나다 (N=10)	미국 (N=6)	뉴질랜드 (N=2)	한국 (N=15)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3.02	2.80	2.91	2.86	2.69	3.81	3.24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2.99	3.11	3.33	3.00	2.67	4.09	3.45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81	2.50	2.83	2.57	2.72	3.37	2.89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3.26	2.79	2.58	3.00	2.68	3.96	3.38

4.1 한국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접근성’이 신장하였으나 지역차가 분명히 존재함. 이러한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차이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성’ 측면에서도 나타남.
-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민간 및 공공 분야, 학계 간 협력에서도 그 차이가 발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강사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향상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가치 확산성’과 관련하여 국내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아직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의, 예컨대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혼용과 정립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타남.
-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인정, 세계 시민성 등의 사회적 가치는 그 효과나 영향에서 기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4.2 네덜란드

- 초·중등교육에서 예술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교육에 대한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예술교육의 접근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변수로 작용됨.
-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과거 일반교사가 예술교과까지 담당하던 것이 2009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어 보다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방과 후 예술교육과 취미활동 또는 생활예술의 관점에서의 예술교육은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3 뉴질랜드

- 무용, 드라마, 음악, 시각예술에 대한 예술교육이 국가표준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 초·중등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위 네 가지 장르의 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정작 교육을 시행하는 교사들의 역량과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진술되고 있음.
- 따라서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측면이 관찰됨.
- 뉴질랜드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전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3.81점으로 높게 나타남. 3가지 핵심지수들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4.09점)’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은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3.96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3.37점)’은 핵심지수 1과 3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뉴질랜드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N=2)

구분		평점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3.81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1-1. 전인적 포용성	4.67
	세부지수1-2. 교육방식 운영개선	3.83
	세부지수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4.17
	세부지수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3.67
	평 균	4.09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부지수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3.67
	세부지수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50
	세부지수2-3. 실천적 연구	4.17
	세부지수2-4. 상호 협력·협업	3.17
	세부지수2-5. 교육지원 파트너십	3.33
	평 균	3.37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3.83
	세부지수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3.83
	세부지수3-3. 문화다양성	4.00
	세부지수3-4. 세계 시민성	4.17
평 균		3.96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항 조사결과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2018년보다 2019년에 3가지 핵심지수 영역에서 그 수준이 모두 향상하였다고 평가함. 구체적으로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과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은 0.3점 이상 증가하였음. 그러나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영역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요구됨.
-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영역에 대한 5가지 세부지수를 2018년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전문가들은 ‘예술교육의 탈중앙화’와 ‘실천적 연구’ 영역이 감소한 반면 ‘상호 협력과 협업’과 ‘교육지원 파트너십’ 영역은 증가하였고, 특히 ‘예술교육의 전문화’ 영역은 그 수준이 다소 향상되긴 하였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집중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항 조사에서 국가별 비교 평가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국외 전문가의 평가 응답률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13개국 33명의 국외 전문가 참여했지만 한 국가 당 참여 인원이 2명 이상인 국가는 5개에 미치지 못하여 체크리스트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어려움.
- 국가별 응답인원의 부족으로 국가별 비교 평가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UNDP의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 순위를 활용하여 최상위권 국가에 속한 국외 전

문가의 체크리스트 문항의 평가 결과와 국내 전문가 조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함. 2018년 HDI가 높은 최상위권 4개 국가(호주 3위, 독일 5위, 캐나다 12위, 미국 13위)의 국외 전문가의 체크리스트 문항 평가를 비교한 결과로부터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수준은 3개 핵심지수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것은 2011년 서울어젠다 이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의 활성화 전략이 2014년 문화기본법 및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과 맞물려 나타난 문화예술생태계의 긍정적 변화, 또는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 국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개발한 SAEI의 정량적 측정지표(통계 정보)와 정성적 측정지표(체크리스트)는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과 질적 향상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실적 점검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4.4 독일

-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치·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예술의 본질적 가치(arts for arts' sake)를 중심으로 예술교육과 그에 대한 정책이 집중되어 있으며,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예술의 도구적 활용에는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이 관찰됨.
- 독일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전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2.80점으로 나타남. 3가지 핵심지수를 비교하면,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3.11점)’이 가장 높고, 다음은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2.79점)’이며,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2.50점)’을 가장 낮게 평가함.

| 독일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N=4)

구분		평점	예술교육환경 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2.80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3.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공유됨. • 다만 과학 등 STEM 교과 교육과의 우선순위 경쟁에서는 취약 • 취약계층의 예술교육 참여 기회 부족 • 예산 부족
	세부지수 1-2. 교육방식 운영개선	2.75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3.08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2.92	
	평 균	3.11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부지수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양 클래식 예술 장르에 집중된 예술적 표현 중심 교육 제공 담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많은 반면 양질의 예술교육 실행과 실천에 대한 논의는 적음. 예산 부족
	세부지수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17	
	세부지수2-3. 실천적 연구	2.92	
	세부지수2-4. 상호 협력·협업	2.42	
	세부지수2-5. 교육지원 파트너십	2.58	
	평 균	2.50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한 예술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 '지속 가능성'과 같은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 및 실행이 어려움.
	세부지수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3.08	
	세부지수3-3. 문화다양성	2.67	
	세부지수3-4. 세계 시민성	2.50	
	평 균	2.79	

4.5 미국

- 예술교육 분야의 예산과 인력 확보가 주요 이슈로 나타남.
- STEM 교과 중심의 교육 정책과 시장중심의 예술정책이 공공 분야의 예술교육 지원에 환경적 한계로 작용됨. 더불어 재산세(property tax)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교육 예산으로 인해 예술교육의 접근성 또한 경제적 환경에 따른 지역차가 큰 것으로 진술됨.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과 관련하여 예술가-교사 간, 학교-예술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 미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전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2.69점으로 나타남. 3가지 핵심지수를 비교하면,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2.72점)'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그 다음은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2.68점)'과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2.67점)'으로 낮게 평가함.

| 미국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N=6)

구분		평점	예술교육환경 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2.69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1-1. 전인적 포용성	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의 평등한 제공이 주요 이슈 중 하나임. 창의 자본(creative capital) 형성의 공간이 예술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교원 부족 현상
	세부지수1-2. 교육방식 운영개선	2.50	
	세부지수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2.61	
	세부지수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2.78	
	평 균	2.67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세부지수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예술단체 간 협력이 부족 예술가-교사 간 협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 있음.
	세부지수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95	
	세부지수2-3. 실천적 연구	3.28	

향상성	세부지수2-4. 상호 협력·협업	2.56	
	세부지수3-5. 교육지원 파트너십	2.22	
	평 균	2.72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2.56	• 예술교육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
	세부지수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2.61	
	세부지수3-3. 문화다양성	2.78	
	세부지수3-4. 세계 시민성	2.78	
	평 균	2.68	

4.6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예술교육은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중심으로 많은 부분 지원 및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록 언어 및 수리영역 교과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서 예술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어, 국립예술위원회는 비정규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음.
- 그러나 예술분야에서의 연구, 예술가의 전문적 역량 증진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평가 되었음. 흥미로운 것은 교육부에서 미술과 음악 분야 교사를 위한 연수기관인 ‘예술을 위한 교사 아카데미(Singapore Teachers Academy for the Arts)’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라는 것임.
-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의 민족 다양성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됨.
- 싱가포르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전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2.91점으로 나타남. 3가지 핵심지수를 비교하면,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3.33점)’이 가장 높고, 다음은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2.83점)’이며,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2.58점)’을 가장 낮게 평가함.

Ⅰ 싱가포르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N=2)

구분		평점	예술교육환경 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2.91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1-1. 전인적 포용성	3.83	• 예술교육은 초·중등교육에서 의무화되어 있음. • 다만 언어 및 수리와 같은 교과에 비하여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세부지수1-2. 교육방식 운영개선	2.67	
	세부지수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4.33	

	세부지수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2.50	• 국립예술위원회 지원을 통한 비정규 예술교육 (informal, non-formal) 분야의 신장이 나타남.
	평 균	3.33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부지수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3.17	• 예술분야 연구 및 예술가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부족함. • 교육부에서 미술, 음악 분야 교사를 위한 전문가 역량 개발 아카데미(Singapore Teachers Academy for the Arts)를 설립하였음
	세부지수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50	
	세부지수2-3. 실천적 연구	2.83	
	세부지수2-4. 상호 협력·협업	3.17	
	세부지수2-5. 교육지원 파트너십	2.50	
	평 균	2.83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2.33	• 문화 다양성과 문화적 포용과 관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
	세부지수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2.50	
	세부지수3-3. 문화다양성	2.83	
	세부지수3-4. 세계 시민성	2.67	
	평 균	2.58	

4.7 호주

- 호주의 예술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문화적 의제를 교육기관에서 시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함. 이때, 교육기관이란 학교를 비롯하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에 속한 개인 및 그룹(인종, 문화, 이해관계 등 기반)을 해당 예술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다른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듯 호주에서도 예술교육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언어와 수리영역 보다 차순위에 속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사고의 통합과 실천을 예술교육 현장에서 강화하고자 예술교육자와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
- 현재 호주 예술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는 것임. 이러한 개념을 ‘상호 문화 교류’ 개념과 통합하여 학교와 지역, 공공과 민간 영역에 확대하고자 함.
-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 및 집단 간에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교육 활용을 고려하고 있음. 2019-2025년 사이 예술교육 및 타 교과와 커리큘럼에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 교류’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호주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3.02점으로 나타남. 3가지 핵심지수를 비교하면,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3.26점)’이 가장 높고, 다음은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2.99점)’이며,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2.81점)’을 가장 낮게 평가함.

I 호주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N=4)

구분		평점	예술교육환경 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3.02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문화적 의제 시각화에 기여 예술교육은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언어와 수리영역보다 차순위에 속함. 2019-2025년 사이 예술교육 및 타 교과의 커리큘럼에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 교류'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세부지수 1-2. 교육방식 운영개선	2.92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2.89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2.83	
	평 균	2.99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부지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사고와 예술적 사고의 통합과 실천을 예술교육 내에서 강화하고자 예술교육자와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세부지수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58	
	세부지수 2-3. 실천적 연구	2.83	
	세부지수 2-4. 상호 협력·협업	3.00	
	세부지수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2.58	
	평 균	2.81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상호 문화 교류' 개념과의 연결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확대하고자 함. 2019-2025년 사이 예술교육 및 타 교과의 커리큘럼에 '상호 문화 이해,'와 '상호 문화 교류'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세부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3.42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	3.14	
	세부지수 3-4. 세계 시민성	3.50	
	평 균	3.26	

4.8 캐나다

- 캐나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전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점수는 2.86점으로 나타남. 3가지 핵심지수를 비교하면,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3점)'과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3점)'은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2.83점)'은 핵심지수 1과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 캐나다의 문화예술교육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주에서 운영되며 각각 해당 주 문화협회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유형은 예술인이나 공연단을 학교에 순회 공연하게 하거나 학교에 상주하면서 워크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교육의 형태를 띰.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은 방과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교과 활동과 교과 외의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스타일을 개발시키기 위한 학교 내 여러 클럽 등이 존재함. 특히 예체능 중심의 프로그램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

- 캐나다는 장르중심이 아닌 통합형 예술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성적과는 무관함. 프로그램 선택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한국과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 정규교사나 지역사회의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음.
- 지역 내 대학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만함.

Ⅰ 캐나다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정성지표 산출결과(N=10)

구분		평점	예술교육환경 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		2.86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중심이 아닌 통합형 예술 교육을 지향 • 방과 후 활동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성적과는 무관하며, 프로그램 선택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의사에 맡김 •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유형은 예술인이나 공연단을 학교에 순회 공연하게 하거나 학교에 상주하면서 워크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교육의 형태를 띠.
	세부지수 1-2. 교육방식 운영개선	2.93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2.87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2.83	
	평 균	3.00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부지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양화	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는 한국과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 정규교사나 지역사회의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음. • 캐나다의 문화예술교육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주에서 운영되며 각각 해당 주 문화협회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 지역 내 대학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려 노력.
	세부지수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64	
	세부지수 2-3. 실천적 연구	2.67	
	세부지수 2-4. 상호 협력·협업	2.50	
	세부지수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2.26	
	평 균	2.57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부지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문화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는 특성이 있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함. • 예술교육 기관 및 단체에서도 예술교육 매개자들이 이러한 가치를 성찰하고 교육 참여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세부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3.18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	2.81	
	세부지수 3-4. 세계 시민성	3.15	
	평 균	3.00	

VII. 결론

1. 연구 결과
2. 정책 제언

VIII. 결론

1. 연구 결과

1.1 연구의 개요

- 이 연구는 2020년 서울어젠다 선포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2018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김인설 외)에서 고안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적용하여 한국의 지난 10년간의 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변화의 특징을 밝히고, 국제사회에서 SAEI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적 연구로 수행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는 서울어젠다의 3개 핵심목표와 13개 전략에 기초하여 3개의 핵심지수, 13개의 세부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의 정량지표(투입지표 13개, 과정지표 4개, 산출지표 13개)와 3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형태의 정성지표로 설계되었음.¹⁶⁾
 - SAEI의 정량지표 종합 값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보고통계¹⁷⁾와 국제지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11년으로 설정하고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까지 2년 주기 변화와 함께 최근 2018년 자료를 추가로 분석함.
 - SAEI의 정성지표는 정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는 한계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합산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해석을 돕도록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설계함.
 - SAEI의 로직모델의 이론적 설계는 프로젝트 프레임워크(Project Framework)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음. SAEI의 정량지표 산출방식은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라스파이레스의 산식(Laspeyres' Formula)을 참고하여 완성되었음.
- 앞서 밝힌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1단계는 2018년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일부 보완하는 작업으로 선행연구 검토와 총 6차의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수의 종합 체계, 산출식을 점검하고, 보다 접근성과 근접성이 높은 통계자료로 정량적 측정지표를 일부 수정하였음. 이후 수정된 정량지표를 이용하여 2011년도를 기준으로 2년 단위의 국내 이행실적을 점검함.

16) 이 외에 추가적으로 9개의 과정지표가 존재하나, 지수산출의 간략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합지수의 산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1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해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출한 보고, 신고, 등록, 신청 등 서류상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집계함으로써 작성한 통계(통계교육원, 2015)

- 2단계는 국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SAEI의 핵심 및 세부지수의 명칭, 개념의 적절성, 산술방식, 정량지표, 정성지표를 영문으로 전환한 후,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과 합의도, 의견 수렴도, 중요도 등을 총 2차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음.
- 3단계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전문가 총 50명을 대상으로 검증된 정성지표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음. 추가로 2019년 10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UNITWIN 학술대회와 11월 독일에서 개최된 WAAE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SAEI의 평정 방식과 국가별 상황에 대한 국외 전문가 의견을 현장 수집하였음.

1.2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국외 전문가 검증 결과

-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델파이 조사결과,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핵심지수 3개와 세부지수 13개에 사용된 명칭과 조작적 정의의 적합성(appropriateness)에 관한 내용 타당도, 의견 수렴도, 합의도 항목은 모두 0.64~1점 사이로 높은 수준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음.
-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2차 델파이 조사는 핵심지수와 세부지수를 산정하는 측정지표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정량적 측정지표 30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점검하였으며, 정성적 측정지표 39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동일한 척도를 통하여 검증하였음.
 - SAEI의 30개 정량적 측정지표 타당성의 경우, 5점(매우 적절)을 기준으로 최고점이 4.6, 최하점이 3.67로 분석되어 적용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국외 전문가의 의견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표준편차는 0.51~1.37로 나타남.
- 해당 국가별 측정지표 보유 여부 조사의 경우, 독일과 뉴질랜드, 이스라엘은 일부 국가통계자료가 존재한다고 답하였으나,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중국 제외), 케냐의 전문가는 해당 자료가 없거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음.
-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보고통계 존재 현황이 나라별로 상이하고 집계 방식이나 시스템이 불투명하거나 용어가 공통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별 비교를 위한 표준화된 계량적 지수의 도입은 장기적이고 긴밀한 국가별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SAEI의 39개 정성지표(체크리스트)의 내용타당도의 경우, 문항 적합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39개 지표 중 38개 항목이 1점 만점 기준 0.8 이상의 높은 내용 타당도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SAEI의 측정지표는 비계량적 접근을 통한 정성지표의 활용이 우선될 것으로 판단됨.

1.2 국내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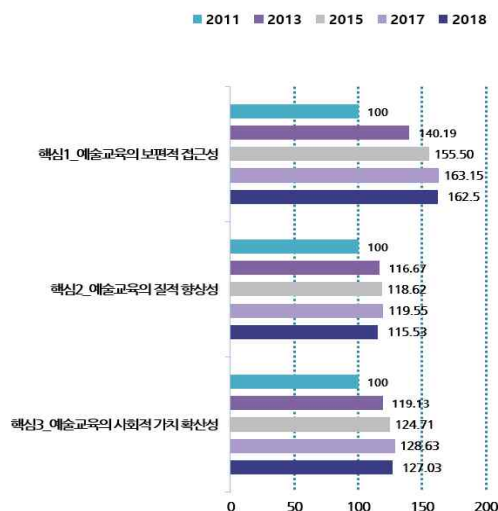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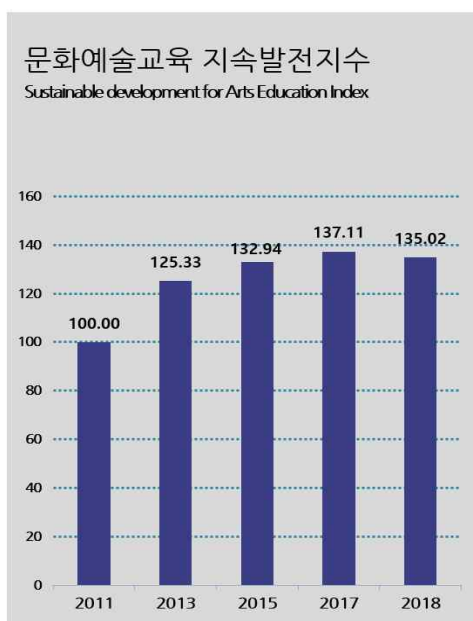
1.2.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량적 점검

- SAEI를 활용한 서울어젠다의 정량적 실적 점검은 제36회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어젠다가 정식으로 채택된 2011년을 기준(100점)으로 산정되었음. 2011년 이후 한국은 2013년 125.33점, 2015년 132.94점, 2017년 137.11점, 2018년 135.02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3개의 핵심지수 중 상승세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핵심지수 1: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으로,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장을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함.
- 그러나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핵심지수 3: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정책의 설계와 현장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발견되었음. 특히,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은 2013년 이후 별다른 상승 동향을 보이지 않고 점수가 유지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이러한 추이는 2018년 기초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도 동일함.
-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인 핵심지수 2의 종합결과는 해당 세부지수 요소인 ‘예술교육의 탈중앙화’와 교사와 예술가 간 ‘상호 협력과 협업’은 꾸준히 발전해 오거나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그러나 ‘예술교육의 전문화’와 ‘실천적 연구’, ‘교육지원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세부지수 값은 계속해서 하락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주의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표 VII-1〉 SAEI_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량지표 종합 산출결과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8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100	125.33	132.94	137.11	135.02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100	140.19	155.50	163.15	162.50
세부지수 1	전인적 포용성	100	146.92	162.15	164.01	168.00
세부지수 2	교육방식 · 운영 개선	100	146.41	172.72	185.42	184.90
세부지수 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100	203.11	210.66	217.52	208.44
세부지수 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100	64.34	76.46	85.67	88.65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100	116.67	118.62	119.55	115.53
세부지수 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100	108.49	115.25	131.10	131.30
세부지수 2	예술교육의 전문화	100	95.95	72.74	53.38	47.97
세부지수 3	실천적 연구	100	108.17	106.37	103.02	103.02

세부지수 4	상호 협력 · 협업	100	131.87	164.32	172.56	171.24
세부지수 5	교육지원 파트너십	100	138.88	134.39	132.71	124.10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100	119.13	124.71	128.63	127.03
세부지수 1	혁신적 문화의 확산	100	119.73	124.87	130.06	127.84
세부지수 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100	119.14	125.08	128.13	126.50
세부지수 3	문화다양성	100	119.86	126.52	128.88	127.08
세부지수 4	세계 시민성	100	118.79	122.37	127.46	12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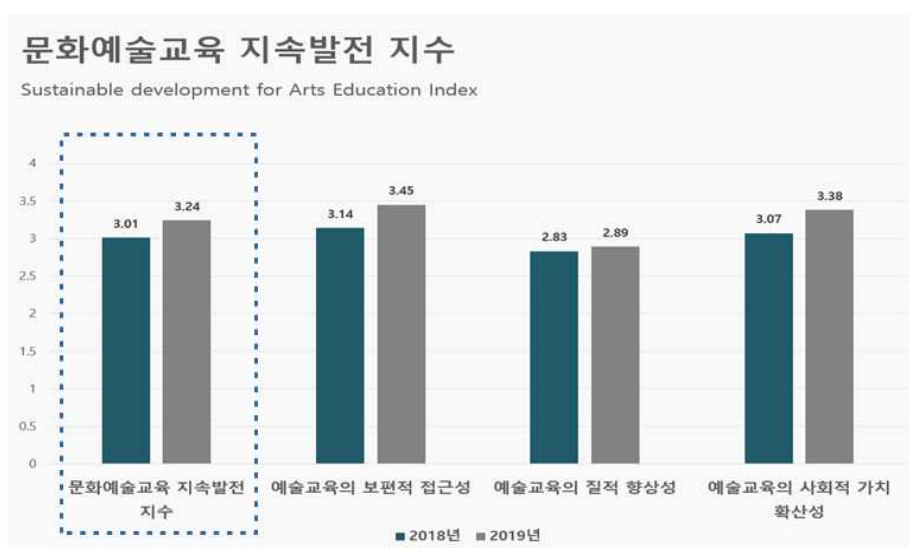
1.2.2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성적 점검

- 전술한 정량지표 점검결과는 정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정성지표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남.
-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SAEI의 정성지표 결과값 중 유일하게 보통 이하로 평가된 부분은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2.89/5.00)’로 이는 전술된 SAEI의 정량지표 분석결과와도 일치함.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은 5점 리커트 척도 기준 3.24점,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은 3.38점으로 평가되었음.
 -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영역에 속한 다섯 개의 세부지수를 2018년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전문가들은 ‘예술교육의 탈중앙화’와 ‘실천적 연구’ 영역이 감소했지만 ‘상호 협력과 협업’과 ‘교육지원 파트너십’ 영역은 증가하였고, 특히 ‘예술교육의 전문화’ 영역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과정에 있어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사회 문화에

술교육의 확산에 이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교육의 탈중앙화’와 ‘실천적 연구’에 대한 집중적이고 다양한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표 VII-2〉 SAEI_서울어젠다 국내 이행실적 정성지표 종합 산출결과

구분		2018년(N=19)	2019년(N=15)	증감률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3.01	3.24	7.64%
핵심지수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3.14	3.45	9.87%
세부지수 1-1	전인적 포용성	3.54	3.80	7.34%
세부지수 1-2	교육방식·운영 개선	2.77	3.18	14.8%
세부지수 1-3	평생학습으로서 예술교육	3.12	3.56	1.41%
세부지수 1-4	예술교육정책 기반강화	3.14	3.27	4.14%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2.83	2.89	2.12%
세부지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3.02	2.80	△ 7.56%
세부지수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2.91	3.02	3.78%
세부지수 2-3	실천적 연구	3.00	2.93	△ 2.33%
세부지수 2-4	상호 협력·협업	2.68	2.93	9.33%
세부지수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2.53	2.76	9.09%
핵심지수 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3.07	3.38	10.1%
세부지수 3-1	혁신적 문화의 확산	3.02	3.62	19.9%
세부지수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인식	3.21	3.56	10.9%
세부지수 3-3	문화다양성	3.25	3.15	△ 3.08%
세부지수 3-4	세계 시민성	2.81	3.20	13.9%



1.3 SAEI의 정성지표를 활용한 국가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 분석결과에 앞서, SAEI의 정성지표는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수준의 우위를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척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음. 즉, SAEI의 정성지표는 평정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서울어젠다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정량지표의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조사대상인 국가의 현 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다만, 정성지표는 평정자의 주관에 중심이 되기에 정량지표의 결과보다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전문가의 의견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는 서울어젠다 이행에 대한 실천적 노력으로 국제협력 연구의 시작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조사결과, 미국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외 다수의 참여국 전문가들은 서울어젠다 이행에 있어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으로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을 지목하였음. 이는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 정성지표 조사결과와도 매우 유사한 결과이기도 함. 즉, 본 연구에 참여한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서면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을 종합하면, 국가별 환경이 상이하긴 하나 공통으로 예산을 포함한 공공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질적 향상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교과과정에 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화 현상과 이에 따른 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에 대한 필요도 공통적으로 수집됨.
- 이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당위성과 가치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은 여전히 단순한 여가의 일부이거나 정부의 교육지원제도 내에 방과 후 취미 활동 등으로 여겨지는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VII-3〉 SAEI_서울어젠다 국가별 이행실적 정성지표 종합 산출결과

참여 국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핵심지수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핵심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핵심지수3: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캐나다(N=10)	2.86	3.00	2.57	3.00
미국(N=6)	2.69	2.67	2.72	2.68
독일(N=4)	2.80	3.11	2.50	2.79
호주(N=4)	3.02	2.99	2.81	3.26
뉴질랜드(N=2)	3.81	4.09	3.37	3.96
싱가포르(N=2)	2.91	3.33	2.83	2.58
네덜란드(N=1)	3.01	3.17	3.27	2.58
방글라데시(N=1)	2.97	2.92	2.00	4.00

영국(N=1)	3.07	3.09	3.13	3.00
중국(N=1)	3.54	3.53	3.50	3.59
콜롬비아(N=1)	1.58	1.67	1.33	1.75
케냐(N=1)	3.18	3.83	2.53	3.17
이스라엘(N=1)	3.13	3.42	2.80	3.17

※국가의 순서는 응답자가 많은 국가의 순으로 나열함

2. 정책 제언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어젠다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실천전략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주체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2.1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2.1.1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계생산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지원 및 개선

- 국내 이행실적 점검에 활용된 SAEI의 정량적 지표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통계에 의존도가 높은 편임. 물론 2018년 기초연구와 비교했을 때 비공식적 통계자료의 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기관의 통계자료의 높은 의존도를 갖는다는 것은 지표의 타당도에도 또 국가 비교지수로서 활용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지속적인 통계자료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발전을 점검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되었음.
- 풍부한 통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 통계작성 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여 측정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 자료를 공식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중앙과 지역별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민간 영역의 데이터는 더욱 수집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2.1.2 예술교육의 탈중앙화(자치와 분권)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마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책 사업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의 설립으로 지역

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은 피할 수 없음.

- 예시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여전히 국가 정책 사업의 전달체계 차원에서 집행 업무가 대부분으로, 지역사회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연관된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치 분권에 따라 문화정책 체계 내 주요 주체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방식을 재조정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소통 및 협력망 구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는 문체부와 광역자치단체장만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향후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역문화진흥계획에 문화예술교육 계획이 포함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3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실천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연구의 종합적 분석결과, 서울어젠다 이행에 있어 다양한 정책 개선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 항목인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분야에 있어 다양한 주제로 환류 가능한 실천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이 발견되었음.
- 이를 위하여 문체부는 교사와 예술가에 대한 예술교육 전문성과 공동의 협업체계 지원뿐 아니라 이들의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연구 지원서비스와 지식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관·학 또는 민·관 중심의 이원체제 내에서 발전해 온 것을 고려하여,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에 연구의 환류 체계를 동인하는 문체부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는 실정임.
 - 예시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성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나아가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역량을 보유한 인력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

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역할

2.2.1 서울어젠다 대한 범지구적 가치 제고와 이해 확산을 위한 노력

- 국제사회에서 서울어젠다가 갖는 위상과 의미는 국내에서 인지되고 있는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예시로 2019년 11월 21일 제 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진(Promoting Awareness of Arts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Arts and Education Week)”에 관한 결의안에서 서울어젠다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 서울어젠다의 이러한 범지구적 가치와 이해 확산에 있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매우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음. 진흥원은 서울어젠다 2010년 발의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주체인 동시에 현재 서울어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협의체인 UNESCO-UNITWIN(University Twining and Networking)의 정회원이기도 함.
- 그러나 서울어젠다에 대한 범지구적 가치와 이해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예술교육현장의 동의와 지지가 수반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진흥원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가치 제고 전략과 국내사회에서 가치 제고 전략을 구분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서울어젠다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전략방안 중 하나로 진흥원은 현재 기관이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UNESCO-UNITWIN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술교육 연구’ 협의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UNITWIN의 설립목적은 3가지로 ① 서울어젠다와 예술교육 정책 및 실행 연계, ② 국제 예술교육의 실행, 교육학, 정책 모니터링, ③ 예술교육 모범사례 맵핑(mapping)으로 요약됨. 우선으로 진흥원은 첫 번째 목적인 서울어젠다의 정책과 실행 연계 부분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진흥원은 UNITWIN 소속 회원들에게 서울어젠다의 국·내외적 위상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적극적 협력과 요청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흥원 내 국제교류 사업과 연계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지속해서 수행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내 가치 제고 방안의 경우, 서울어젠다 선포 이후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이자 유산인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매년 5월에 열리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은 서울어젠다에 대한 가치 제고와 이해 확산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진흥원은 이 주간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어젠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을 가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에 매년 서울어젠다를 주요 주제로 다루는 특별 세션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즉,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서울어젠다의 실천적 이행에 대한 논의나 현장에서의 고민을 공유하는 지속적이고 주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함.
 - 서울어젠다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통해 매년 축적된 자료와 공유된 현장의 논의와 경험은 서울어젠다에 대한 범지구적 가치 제고와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이해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됨.

2.2.2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화된 환경조성과 지원체계 마련

- 2018년과 2019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분석되었음. 다시 말하면,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계획이 가장 강력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어젠다에서 정의되는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은 단순히 예술강사의 교육역량이나 커리큘럼 개발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자면,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치권과 인프라, 자원, 환경,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협의체, 학교, 단체 및 기타 주체 간 동등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파트너십, 그리고 실천적 연구가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관련 정책과 정책 네트워크, 자원에 관한 면밀하고 심층적인 조사와 대안이 요구되며, 진흥원의 적극적인 태도와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한 개발이 요청됨. 다만, 이러한 노력은 진흥원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함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주요 정책 주체인 진흥원, 지자체, 문체부, 학계의 역동적이며 유기적인 협업과 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2.2.3 예술강사의 전문화를 위한 효과적인 연수 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서울어젠다의 두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에 더하여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예술교육의 전문화(세부지

수 2.2; 서울어젠다 전략 2.b)'로 조사되었음. 여기서 전문화란, 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연수 자체에 대한 질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그리고 예술강사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흥원은 예술강사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모색하길 제안함.

- 과거에 강연 위주의 연수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픈소스(open-source) 기반의 아카이빙(archiving) 구축과 동아리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의 일방향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상호 협력과 지식공유를 지향하는 연수 시스템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체계는 지원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계의 경쟁을 야기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적 자원들의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경쟁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더해 SAEI의 정성지표 분석결과, 예술강사의 역량강화 외에도 이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과 평가체계 정립은 교육자의 경험 축적과 성장 과정을 성찰하고 담아내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가능함. 따라서 현재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함.

2.2.4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실제로 진흥원은 2010년 서울어젠다 선포라는 주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이후 서울어젠다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연계와 이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점검체계나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임.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가통계는 극도로 부족하며, 현존하는 통계 데이터값의 정확성(accuracy) 또한 품질평가(quality assessment)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통계자료 구축에 관한 연구를 작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통계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추후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기대되는 시점임.
- 구체적인 사안으로, 중앙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SAEI의 정성지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전문가 패널 구축과 관리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도 서울어젠다 목표의 근본적인 지향점을 반영한 SAEI의 핵심 및 세부지수

개념 및 정의의 구축은 가능했으나, 도출된 개념에 근접성(proximity)을 충분히 갖춘 정량적 측정지표로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는 매우 한정적이었음.

- 특히, ‘핵심지수 3: 사회적 가치 확산성’에 해당하는 지수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추가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에 관한 연구를 위탁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진흥 기관으로서 서울어젠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요함과 동시에 SAEI의 측정지표로서 신뢰성과 접근성, 그리고 연속성을 담보한 통계자료 생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2.5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연도별 산출과 지속적 공표

- 일반적으로 개발된 지수가 사장되는 이유는 지수의 복잡한 구조와 측정지표 수집에 있어 겪는 어려움 때문임. 또한, 개발 시점에서의 필요로 도출된 지수와 그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나 행정상의 이유로 연도별 산출과 공표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개발된 초기 지수는 지속적인 연도별 산출과 공표과정에 의해 보완과 진화가 이루어짐. 따라서 앞서 언급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진흥원 차원에서 문화예술 지속발전지수(SAEI)의 연도별 산출과 지속적인 공표를 수행하길 제안함. 매해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표체계와 평정 방식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방안과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에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국내이행실적 점검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수준을 연 단위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다시 말해,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해당 정책의 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주기적으로 산출·공표하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유한다면, 예술교육 현장에서 서울어젠다에 대한 인식도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동시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과 수행단체,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해 또한 함양 가능함.

2.2.6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를 활용한 단위 사업별 평가지표 구성

- 진흥원 내부 사업별 성과지표에 SAEI의 측정지표를 간략화하여 일부 적용한다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자료의 장기적인 축적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을

위한 지표체계에 기초한 일종의 컨설팅 자료로써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물론 단위사업이 진행되는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해당 평가지표가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선 서울어젠다에 명시된 목표와 실천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임.
- 따라서 각각의 단위사업에서 평가 점수는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는 지표를 통해 산출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일반에서의 공통점수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SAEI를 활용한 단위 사업별 평가지표 구성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트렌드와 방향성 제고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2.2.7 SAEI의 국내 활용 목적과 국제 상용화의 이분화 전략 모색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국가 비교지수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예술교육의 실천 단계와 해당 국가의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예술교육에 대한 정의와 범주, 측정의 범위를 획일화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SAEI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지수 측정에는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임. 다만 이러한 태생적 한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고민과 협의가 수반될 필요성을 직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별 예술교육 현황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예술교육(arts education)’에 대한 실천의 범위가 국가별 교육정책 및 법적 정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술교육의 범주에 정규교과에서 시행되는 일반 예술 교과과정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음.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국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각국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추가로 이러한 구분을 위하여, MONAES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formal education’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informal education’으로, 이외 기타 문화예술교육(학원 및 개인 레슨 포함)을 ‘non-formal education’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바 있음.
- 이러한 차이는 향후 SAEI의 국제적 상용화 과정에서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와 맥락과의 타협 방안을 도출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함. 다시 말해, 국내 문화예술교육 추이를 측정 및 관측할 수 있는 도구로 SAEI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상용화하여 한국에서 예술교육 지수측정을 실용화한 선례를 제시할 수 있음. 동시에, 현재 개발된 SAEI의 국제적 상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국가통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 예술교육 국제 네트워크의 동의와 수용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국제적 상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뢰할만하고 내용적으로 타당한 국제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진흥원 차원에서 국가당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됨. 더불어 SAEI의 정량지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국의 통계 자료원이 국가별로 어느 기관에 의해 어떤 방식에 의해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구성이 명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2.2.8 SAEI의 국제적 수용과 확대를 위한 단계적 전략과 장기적 협력 추진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 비교연구는 당위적으로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될 사항임. 그러나 각 나라의 예술교육 정의와 정책, 사회적 인식, 발전 정도가 상이한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개발된 SAEI를 즉각적으로 국가 비교연구를 위해 투입·적용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국제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협의체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공동연구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
- 따라서 진흥원은 국내 문화예술교육 연구와 국제교류의 연결성을 높이고 상호 환류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2020년 진흥원이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교육주간’과 같은 국제행사와 진흥원이 정회원으로 가입된 UNESCO-UNITWIN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예술교육의 고양, 분야에 근접한 상황적, 환경적 맥락에 대한 상호이해 및 협의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관찰됨.
- 국내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이은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연구와 2019년 하반기에 기획된 〈서울어젠다 10주년 계기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 연구'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서울어젠다 목표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이를 계기로 진흥원은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 타 국가의 예술교육 현황과 변모하는 개념 및 담론 경유하여 보편적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연구와 노력을 병행하도록 지원 및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3.1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 개발 노력

-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는 관할 영역에 따라 진흥원(전국단위), 광역센터(광

역지사체단위), 기초센터(기초지자체단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그러나 이러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센터와 문화재단들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자치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수행범위와 행정상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임. 문화예술교육 자원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과 관심, 실천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교육의 탈중앙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에 대한 조사와 지역민의 수요조사, 문화권 향유수준 등을 우선 파악하여야 함. 다시 말하면, 지역분권과 자치·행정의 범위 내에 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또한 포함되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생성한 정책데이터에 바탕을 둔 정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자원의 개발 이전에 지역의 문화지형을 파악하는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전술한 연계 기능을 지원해 줄 중앙정부와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됨.
- 가능하다면, 이러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에 SAEI의 핵심지수와 세부지수의 측정지표를 참고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조사하고, 개발하며, 산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통계구축에 있어 긍정적인 환류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3.2 지역의 학교와 예술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협업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교육 연계 강화와 협력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주체 간 협력에 대한 안건은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정책 사안임.
- 그러나 연구 결과, 지역의 예술단체와 문화시설, 학교, 지자체의 상호협력과 파트너십은 여전히 큰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분석되었음.
 - 예시로, SAEI의 정성지표 조사결과에서 ‘상호협력과 협업(세부지수 2.4)’의 경우,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예술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예술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 협력 또는 협업이 이루어지는가?”라는 항목에 2018년은 2.95점 2019년은 2.93으로 그 수준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음.
- 이는 양적 팽창을 통해 학교와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사회문화예술교육 체계로 확장해 왔으나, 아직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취약한 상태임을 방증함.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의 학교와 예술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위한 확대방안을 지역 내 상

황에 맞게 고안할 필요가 있음.

2.3.3 문화예술교육진흥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확대

-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예술교육의 탈중앙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지역 단위 실행자원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또한, 지역 내 자원을 분석하고 그 역량을 엮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 지역의 문화자원과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주요한 문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함.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지원과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 등에 대한 개정 노력 등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4 학계의 역할

2.4.1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적 기여와 현장을 위한 실행연구 독려

- SAEI의 ‘핵심지수 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중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학계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 실천적 기여를 위한 학술적 접근으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SAEI의 정성지표 조사결과, 세부지수 3.3에 해당하는 ‘실천적 연구’는 2018년 평균 3.0, 2019년 평균 2.93으로 집계되었음. 2019년 SAEI 정성지표 조사에 예술강사가 다수 참여하였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이는 학계가 생산한 예술교육관련 연구의 기여 여부에 대한 현장의 시선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식생산을 위하여 학계는 방법론적으로 실행연구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으로 교육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교육 현상 및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 내는 사람으로, 교사들은 연구자들이 생산한 이론적 지식을 실천하는 실행가로 인식되어왔음. 말하자면, 교사는 연구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를 소비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음.
- 실행연구는 학습상황에서 교육자이자 연구자가 상황의 진행, 교수 활동, 학습자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적 탐구 활동으로, 교육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의 교육

방식 또는 환경의 보완과 학습자의 성취 향상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임. 따라서 실행연구는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이에 의한, 수업을 진행하는 이를 위한 연구의 성격을 가진 활동이기도 함.

- 실행연구는 실천적 연구이기도 하며, 예술강사가 스스로 자신의 교육 기법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술적 접근 방법이기도 함. 따라서 학계는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에 실천적 기여를 위하여 실행연구에 관한 관심과 담론을 확장하길 제안함.

2.4.2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노력

- 학계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이고, 그 가치와 효과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수사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서울어젠다 목표 3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길 제안함. 혐오문화,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 지구 온난화 및 플라스틱의 역습,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학계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임.
- 이는 소위 ‘연구’를 통한 ‘실천적 옹호’ 활동으로, 대학, 연구기관,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 교육 연구기관은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뉴미디어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이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노력 또한 동반되길 희망함.

2.4.3 서울어젠다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연구 지원

- 서울어젠다의 세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SAEI의 ‘핵심지수 3: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용을 증명해 내고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학계의 책무와 역할은 막중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교육과 세계시민성(SAEI 세부지수 3.4)의 관계는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다양성(SAEI 세부지수 3.3)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역할 인식(SAEI 세부지수 3.2)은 어떻게 확장가능한가? 혁신적 문화의 확산(SAEI 세부지수 3.1)에 문화예술교육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학계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고 연구될 주제이기도 함.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 서울어젠다에 관한 학계의 학술적 관심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의 학회와 공공 및 민간 연구소의 관심과 협력 또한 요청되는 사안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 강병직(2016). 문화예술 기반 학교 창의성지수 개발 연구-초등학교급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연구논총, 45, 147-17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UNESCO 제6차 세계성인교육학회 중간회의 수원-오산 선언문 성인학습과 교육(ALE)의 힘: 2030년을 향한 비전.
- 김영연, 이영애(2010). 제 2 차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와 우리 음악교육. 음악교육연구, 39, 209-221.
- 김용주, 오봉옥, 최영출, 박병식, 김광구, 정도상, 정지혜(2009). 문화예술교육 장기성과평가모형 구축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인설, 김영주, 권선영, 이성희(2018). 2018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정석, 황선재, 송유진, 김혜영(2013). 지표 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 환경 및 행태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4(3), 79-114.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박소연, 박용호(2016). 학교문화예술교육 효과측정지표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1(2), 22-53.
- 변준석, 심수진, 황선재(2019). 지표 작성 방법론: 정책지표 설계와 활용. 대전: 통계개발원.
- 송미숙, 김경은(2012).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 본 세계의 문화예술교육-제 2 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와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무용사학, 13, 219-246.
- 송미숙, 김경은(201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단체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무용연구, 31(2), 77-102.
- 원영실, 김은경(2014). 음악 (국악) 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개발. 영재교육연구, 24(2), 191-215.
- 윤소영, 박두용(2014). 한국인의 여가행복지수 개발 및 적용. 여가학연구, 12, 149-173.
- 이정희(2018). 문화예술기관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극장 신규 평가지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1), 209-243.
- 이주현, 서지원, 조동진(2011). 국가 수자원관리를 위한 치수정책 평가지표. 물 정책 경제, 17, p.. 111-122

임경은(2010).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기범(2010). 배경과 실천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정체성. 음악교육공학, 11, 25-40.

전주희(2018).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연희(2011).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미술과 교육, 12(1), 51-70.

정원정, 박재현. (2018). 국가지원 예술경연대회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0(2), 11-22.

조덕원, 이웅규, 고두갑.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예술지능지수 개발 연구. 한국도시연구, 30(3), 105-137.

조용환(2015).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8(4), 1-49.

최셋별, 이명진. (2013). 문화자본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의 문화 자본 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31-60.

한국교육개발원(2007)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지수 개발

한국교육개발원(2008) 우리나라의 교육지수 개발 연구: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9). 문화예술교육 장기 성과평가모형 구축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0). 문화예술교육 핵심 용어 정립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0-2017).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a). 문화예술교육사업 성과 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b). 지속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2).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및 추진전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2005~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a).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최종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b). 문화예술교육 성과관리 최종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지수(Art Index)개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홍성만, 임채홍, 하민철(201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우선순위 탐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77-105.

황연주, 정연희(2004).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석과 전망. 미술교육논총, 18(3), 1-28.

I 국외문헌

- Al-Amri, M. (2012). Multidiscipline-based Art Education Model: A Possible Wa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rts in Society*, 6(4), 77-92.
- Americans for the Arts, Roland J. Kushner, Randy Cohen (2016) National Arts Index report 2016: VITALITY OF ARTS AND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2002-2013,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sites/default/files/NAI%202016%20Final%20Web%20Res.042216.pdf>
- Arts Council England(2013). Quality Metrics National Test.
- Arts Council England(2014). Quality Metrics National Test.
- Arts Council England(2015). Quality Metrics National Test.
- Arts Council England(2016). Quality Metrics National Test.
- Bille, T., & Olsen, F. (2018). Measuring the quality and impact of arts and culture. 2E5-acdhha!, 229.
- Bowen, D., and B. Kisida (2019). Investigating Causal Effects of Arts Education Experiences: Experimental Evidence from Houston's Arts Access Initiative. Research Report.
- Catterall, J. S. (2012).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Findings from Four Longitudinal Studies. Research Report# 5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De, M. (2014). Rethinking UNESCO's commitment to education for peace &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rough art: From the Bristol Seminar to the Seoul Agenda.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2/2014, 172.
- Dudt, S. (2012). From Seoul to Bonn: a journey through international and European music education policies(pp. 126-137). In *Listen Out: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Music Education*.
- Eckart Leibau, Ernest Wagner, Max Wyman (2013) Monitoring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1
-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9) 50-State Comparison: Arts Education Data Collection and Reporting
- https://www.ecs.org/50-state-comparison-arts-education-data-collection-and-reporting/?fbclid=IwAR2buzaJD_vX-5oP5lwc2b7ynwOwCS1TipRlusEkZ_PPQt3fh04w3thltWM
- Ferro L. (2017). How to Build Knowledge in Arts Education for the Future? Some Priority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Comparative Research
- Harland, J., Kinder, K., Lord, P., Stott, A., Schagen, I., Haynes, J., & Paola, R. (2000). Art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Effects and effectiveness. Slough: NFER, 566.
- Head, Brian W. and Alford, John. (2015). Wicked Problems: Implication for Public Policy and

- Management. Administration & Society, 47(6), 711-739.
- Hentschke, L. (2013). Global policies and local needs of music education in Brazil. Arts Education Policy Review, 114(3), 119-125.
- Hille, A., and J. Schupp (2015). How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affects the development of skill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44, 56-82.
- Hooper-Greenhill(2002). Developing a scheme for finding evidence of the outcomes and impact of learning in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report paper of Learning Impact Research Project(LIRP).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 Hooper-Greenhill, E., Dodd, J., Moussouri, T., Jones, C., Pickford, C., Herman, C., & Toon, R. (2003). Measuring the outcomes and impact of learning in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the Learning Impact Research Project end of project paper.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 <http://www.icpublicpolicy.org/conference/file/reponse/1435144699.pdf>
- IJdens, T., Bolden, B., & Wagner, E. (2017)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5
- IJdens, T. (2015). Comparative policy research in arts education: prolegomena for a review(extende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Policy, Milan, July 1-5 2015, Panel : T18P05 - Institutions, ideas, and networks in cultural policy.
- IJdens, T., & Wagner, E. (2017). Summary of the MONAES Project. In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7).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Comparative Research Seven Years after the Seoul Agenda(vol.5)(pp. 27-41). Münster, Germany: Waxmann.
- IJdens, T., Wagner, E., & Liebau, E. (2017). MONAES Frame of Reference and Methodology. In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7).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Comparative Research Seven Years after the Seoul Agenda(vol.5)(pp. 42-63). Münster, Germany: Waxmann.
-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2). Monitoring National Arts Education Systems(MONAES): A pilot study investig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Agenda in the world.
-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3).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vol.1). Münster, Germany: Waxmann.
-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4).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vol.2). Münster, Germany: Waxmann.

-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5).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The Wisdom of the Many – Key Issues in Arts Education(vol.3). Münster, Germany: Waxmann.
-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6a).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At the Crossroads of Arts and Cultural Education: Queries Meet Assumptions(vol.4). Münster, Germany: Waxmann.
-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6b). Monitoring National Arts Education Systems(MONAES): Some Results of Two Surveys among Arts Education Experts around the World. Th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 Research in Seoul, Republic of Korea, July 5-9 2016.
-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7).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Comparative Research Seven Years after the Seoul Agenda(vol.5). Münster, Germany: Waxmann.
- Kairavuori, S., & Sintonen, S. (2016). Arts Education. In *Miracle of Education* (pp. 211-225). Sense Publishers, Rotterdam.
- Keuchel, S. (2014). ‘Arts Education Development Index (AEDI) – A Comparative International Empirical Research Approach in Arts Education.’ In: Larry O’Farrell, Shifra Schonmann and Ernst Wagner (Eds.),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4), pp. 42-51. Münster: Waxmann.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 Leong, S. (2012). Navigating the emerging futures in music education. *Journal of Music, Technology & Education*, 4(2-3), 233-243.
- Leong, S. (2013). Cultural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s in Hong Kong(pp. 27-39). In *Creative arts in education and culture*. Springer, Dordrecht.
- Leong, S. (2013). Monitoring UNESCO’s Seoul Agenda in Practice: Challenges and Beginnings,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Volume 1
- Moussouri, T. (2002).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Learning Outcomes in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The report paper of Learning Impact Research Project(LIRP).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 National Campaign for the Arts (2017) ARTS INDEX 2007 – 2016,
<https://forthearts.org.uk/wp-content/uploads/2017/11/Arts-Index-17-v7.pdf>
- O’Farrell, L. (2013). Reviewing UNESCO’s road map and Seoul agenda: Guidelines and an action plan to advance arts education.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1, 17-22.

Olaya, O. L. (2010). The implementation of the Road Map – its phases of appropriation, comprehension and investment towards the construction of the regional observatory of arts educat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2010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발표자료집(p. 6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Roland J. Kushner, Randy Cohen (2016) Local Arts Index, LAI, 2009-2015,

<file:///C:/Users/ADMINI~1/AppData/Local/Temp/BNZ.5d3ab5e13bd56a11/36984-0001-Documentation.pdf>

Seabø, A. B. (2017). Quality in Arts Education in School and Teacher Education: Reflection on Some Results from MONAES. In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2017).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Arts Education around the World: Comparative Research Seven Years after the Seoul Agenda(vol.5)(pp. 180-184). Münster, Germany: Waxmann.

Seidel, S., Tishman, S., Winner, E., Hetland, L., & Palmer, P. (2009). The qualities of quality: Understanding excellence in arts education. Cambridge, MA: Project Zero,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nook, B. H., & Buck, R. (2014). Policy and practice within arts education: Rhetoric and reality.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5(3), 219-238.

Susanne Keuchel (2014) Arts Education Development Index (AEDI) – Ein international-vergleichender empirischer Forschungsansatz in der Kulturellen Bildung,
<https://www.kubi-online.de/artikel/arts-education-development-index-aedi-international-vergleichender-empirischer>

Teunis IJdens (2016)Monitoring National Arts Education Systems (MONAES): Some Results of Two Surveys among Arts Education Experts around the World,
https://www.eno-net.eu/sites/default/files/monaes_exploratory_analysis_2016.pdf

THE NEW JERSEY ARTS EDUCATION CENSUS PROJECT (2008) Within Our Power, the Progress, Plight and Promise Of Arts Education for Every Child
http://www.quadrantresearch.org/wp-content/uploads/2014/01/NJ_2007_Report_WOP.pdf

The United Natio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UNESCO (2015). "The 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
https://en.unesco.org/gem-report/sites/gem-report/files/2015Report_EDI2012_Annex.pdf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5). ‘Quick Guide to Education Indicators for SDG4,’

UNESCO (2016).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2016). 3rd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Wagner, E. (2013). Monitoring Arts Education. In: Eckart Liebau, Ernst Wagner and Max Wyman (Eds.),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Education(2013), pp. 101-112. Münster: Waxmann.

Wimmer, M. (2018). From The Seoul Agenda to Another Road Map for Arts Education Why a UNESCO Document Causes Not Only Inclusion but Exclusion. In International Yearboo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 5. Münster, Germany: Waxmann.

■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발표. (2018.01.11. 보도자료)

UNESCO한국위원회(2011). 「UNESCO, 한국이 제안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선포」. (2011.11.08.보
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0)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발
전방안’ 발표」. (2010.6.9. 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시대적 요구를 담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
름과 동향」. (2015.09.14. arte 365 아르떼 리포트 <http://www.arte365.kr/?p=45440>)

■ 홈페이지 및 통계자료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fiscaldata.go.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index>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https://www.wipo.i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www.oecd.org

유엔개발계획, UNDP: www.undp.org

국제 비영리 경제평화연구소, IEP: <http://economicsandpeace.org/>

부록

1. 1차 델파이 해외 전문가 조사 설문지
2. 2차 델파이 해외 전문가 조사 설문지
3. 3차 델파이 해외 전문가 조사 설문지
4. 3차 델파이 국내 전문가 조사 설문지
5. 서울어젠다 전문 (영문, 국문)

1. 1차 국외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International Expert Group Survey: 1st Round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Dear Colleagues,

Last year, the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and a team of researchers developed a globally applicable index call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based on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which was announced at the second UNESCO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in 2010.

The SAEI was initially developed through A Basic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Seoul Agenda in Korea (2018) and was based on the three goals and thirteen strategies of the Seoul Agenda.

To reflect the Seoul Agenda's goals and strategies, the SAEI consists of three core indexes: 1) accessibility, 2) quality enhancement, and 3) advocating for social impacts of arts education, as well as thirteen sub-indexes. Based on these, the study suggests forty-two quantitative indicators and thirty-nine qualitative indicators (i.e., checklists) to measure the degree of development in arts education since 2011, the year after the Seoul Agenda was announced.

※ A Basic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eoul Agenda, The Korean Case (2018)

Research Period: Sep. 2018 – Dec. 2018

Publisher: KACES

Planning: R&D Team, Educational Affairs Division of KACES

Principal investigator: Dr. InSul Kim

(Associate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year, we are conducting an advanced research project called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This survey is part of this year's research project, and its purpose is to share ideas and refine the SAEI, which was initially designed from our 2018 study. One of the important steps in this year's study is to gain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SAEI, as last year's study was fairly based on the context in Korea. Thus, we kindly ask for your feedback and wisdom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current version of the SAEI.

The survey will be conducted in three rounds; this is the first round. For this round, we require your feedback on the selected terms and their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SAEI's core and sub-indexes (please refer to p. 3-9). The results of this survey will then be used to form the second-round survey: testing the validity of the SAE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e third-round survey will be used as a pilot study to test the final version of the SAEI's qualitative indicators (i.e., checkli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urveys.

Your opinions will be extremely important in building a common ground for developing a globally applicable index that can be reviewed, implemented, and used for the global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AEI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2019)

Survey Period (for the 1st round): June 30, 2019 – July 5, 2019

Following Survey Period (2nd & 3rd round): July 8, 2019 – August 8, 2019

Research Period: May 2019 – November 2019

Planning: R&D Team, Educational Affairs Division of KACES

Principal investigator: Dr. InSul Kim

In addition to the surveys, we kindly ask you to submit an agreement form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so that we can send you the compensation for taking part in this study. The form can be found in Attachment 2 of this document along with the Compensation Payment Information (please refer to p. 10-11). FYI, we have also attached a brief summary of the 2018 research process at the end of this document.

We would also like to announce that the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will be hosted under the theme of the Seoul Agenda in May 2020, commemorating the agenda's 10th anniversary. This will serve as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share the results of our study and discuss the Seoul Agenda, as well as to lay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iscussion on sharing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s in arts education.

※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020

Date and Venue: 4th Week of May, 2020 in Korea

Details: TBA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personnel. Thank you.

Organizations: KACES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incipal Investigator: Professor InSul Kim, Ph.D.

Question 1.

How do you r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lected terms of the SAEI's core and sub-indexes?

The below table shows the Seoul Agenda's three goals and thirteen strategies¹⁸⁾, along with the SAEI's three core and thirteen sub-indexes. Please r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lected terms of the SAEI; if you think there are alternative terms that better reflect the Seoul Agenda's original goals and strategies, please feel free to share your opinions.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Appropriateness (please check one)	Suggestions for Alternatives
► Goal 1 Ensure that arts education is accessible as a fundamental and sustainable component of a high quality renewal of education	► Core Sub-index 1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1.a Affirm arts education as the foundation for balanced creative, cognitive, emotional, aesthetic and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youth and life-long learners	▷ Sub-index 1.a Holistic Inclusiveness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1.b Foster the constructive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s and structures through arts education	▷ Sub-index 1.b Enhancement of Education Systems & Implement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18) We have emailed you a full version of the Seoul Agenda as one of attachments for your convenience. Also, the full version of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is available on: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creativity/arts-education/official-texts/development-goals/>

▷ Strategy 1.c Establish systems of lifelong and intergenerational learning in, about and through arts education	▷ Sub-index 1.c Arts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1.d Build capacities for arts education leadership, advocacy and policy development	▷ Sub-index 1.d Capacity Building for Policy Development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Goal 2 Assure that arts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mes are of a high quality in conception and delivery	▶ Core Sub-index 2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2.a Develop agreed high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that are responsive to local needs, infrastructure and cultural contexts	▷ Sub-index 2.a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2.b Ensure that sustainable training in arts education is available to educators, artists and communities	▷ Sub-index 2.b Sustainable Training in Arts Educ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2.c Stimulate exchang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n arts education	▷ Sub-index 2.c Practice-based Research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2.d Facilitate collaboration between educators and artists in schools and in out-of-school programmes	▷ Sub-index 2.d Educator-Artists Collabor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 Strategy 2.e Initiate arts education partnerships among state holders and sectors	▷ Sub-index 2.e Cross-sector Partnerships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Goal 3 Apply arts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social and cultural challenges facing today's world.</p>	<p>▶ Core Sub-index 3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p>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trategy 3.a Apply arts education to enhance the creative and innovative capacity of society</p>	<p>▷ Sub-index 3.a Advancing Innovative Capacity</p>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trategy 3.b Recognize and develop the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dimensions of arts education</p>	<p>▷ Sub-index 3.b Acknowledging Social Role of the Arts</p>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trategy 3.c Support and enhance the role of arts education in the promo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cohesio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p>	<p>▷ Sub-index 3.c Cultural Diversity</p>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trategy 3.d Foster the capacity to respond to major global challenges, from peace to sustainability through arts education</p>	<p>▷ Sub-index 3.d Global Citizenship</p>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Question 2.

How do you rate the appropriateness of each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SAEI's core and sub-indexes?

The below table shows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the SAEI's three core and thirteen sub-indexes. FYI, every operational definition has been carefully constructed based on the original statement of the Seoul Agenda. In particular, please refer to the reference number that are provided in the table when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to r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given definitions. If you have other suggestions to make them better, please feel free to share your thought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Working Definitions	Reference on Seoul Agenda (Full Version)	Appropriateness (please check one)	Suggestions for Alternatives
<p>► Core Sub-index 1</p> <p>The level of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in terms of well-structured programmes based on one's interests and aptitude across the lifespan, regardless of age, gender, social background, and religion, as a fundamental compon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p>	Goal 1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1.a</p> <p>To indicate the degree of arts education system that affirms the foundation for creative, cognitive, emotional, aesthetic and social capabilities of children, youth and lifelong learners and to enhance their access to arts education.</p>	1.a 1.a (iii)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1.b</p> <p>To indicate the transformative impact of arts education within a nation's education systems to change existing structures and methods by fostering democratic and horizontal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p>	1.b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1.c</p> <p>To indicate how contributing a nation's current arts education systems would be to lifelong and intergenerational learning of participants at all ages.</p>	1.c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1.d</p> <p>To indicate the degree of support provided to arts education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ho make and reform relevant policies, for their capacity building with the concurrent effort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n crucial aspects of arts education.</p>	1.d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Core Sub-index 2</p> <p>The level of institutional, practical and research efforts that encompass developing high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and its related policy making, training arts educators, and researching as well as monitoring arts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nsure a high quality of arts education in the entire process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p>	Goal 2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2.a</p> <p>To indicate how diverse entities, such as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s, private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of arts educat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dedicated to developing arts education policies as well as implementing those in practice, in order to provide arts education that is responsive to local needs, infrastructure and cultural contexts.</p>	2a. 2e. (ii)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2.b</p> <p>To indicate how systemically operating the arts education training for educators, artists, and communities through sustainable professional learning mechanisms, and its quality monitoring procedures.</p>	2b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2.c</p> <p>To indicate how actively engaging with link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nd distributing research as well as exemplary arts education practices through international structures, in order to consolidate high quality arts education.</p>	2c. (i) 2c. (ii) 2c. (iii)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2.d</p> <p>To indicate how various ways of collaboration have been facilitated and employed to encourage educators and artists to work together as well as openly discuss about delivering curricula in different learning environments for high quality arts education.</p>	2d. (i) 2d. (ii) 2d.(iii)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2.e</p> <p>To indicate how actively different entitie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involved in democratic ways of commutations and cooperation through building partnerships in order to provide strong support for arts education.</p>	2e. (i) 2e. (ii) 2e. (iii)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Core Sub-index 3</p> <p>The level of manifestation by applying arts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in one's nation to resolve social and cultural challenges both level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p>	Goal 3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3.a</p> <p>To indicate the impact of various arts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mes on fostering creative and innovative communication skills of individuals and thus to contribute to cultivating a new generation of innovative minds in favor of the holistic development of society.</p>	Goal 2 3a.(i) 3a.(ii) 3a.(iii)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3.b</p> <p>To indicate the degree of a society's awareness on the role and importance of arts education derived from various arts education activities influencing citizens'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p>	3b.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3.c</p> <p>To indicate the impact of various arts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mes on fostering bett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artistic and cultural expressions; and therefore, help to grasp the arts education's contribution to promoting democratic values encompassing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cohesio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 a society.</p>	3c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p>▷ Sub-index 3.d</p> <p>To indicate the impact of various arts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mes on fostering the capacity to respond to major global challenges, from peace to justice and sustainability and thus to equip/build social responsibilities as global citizens.</p>	3d. (ii)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A Form of Agreement on Participating in Survey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AEI(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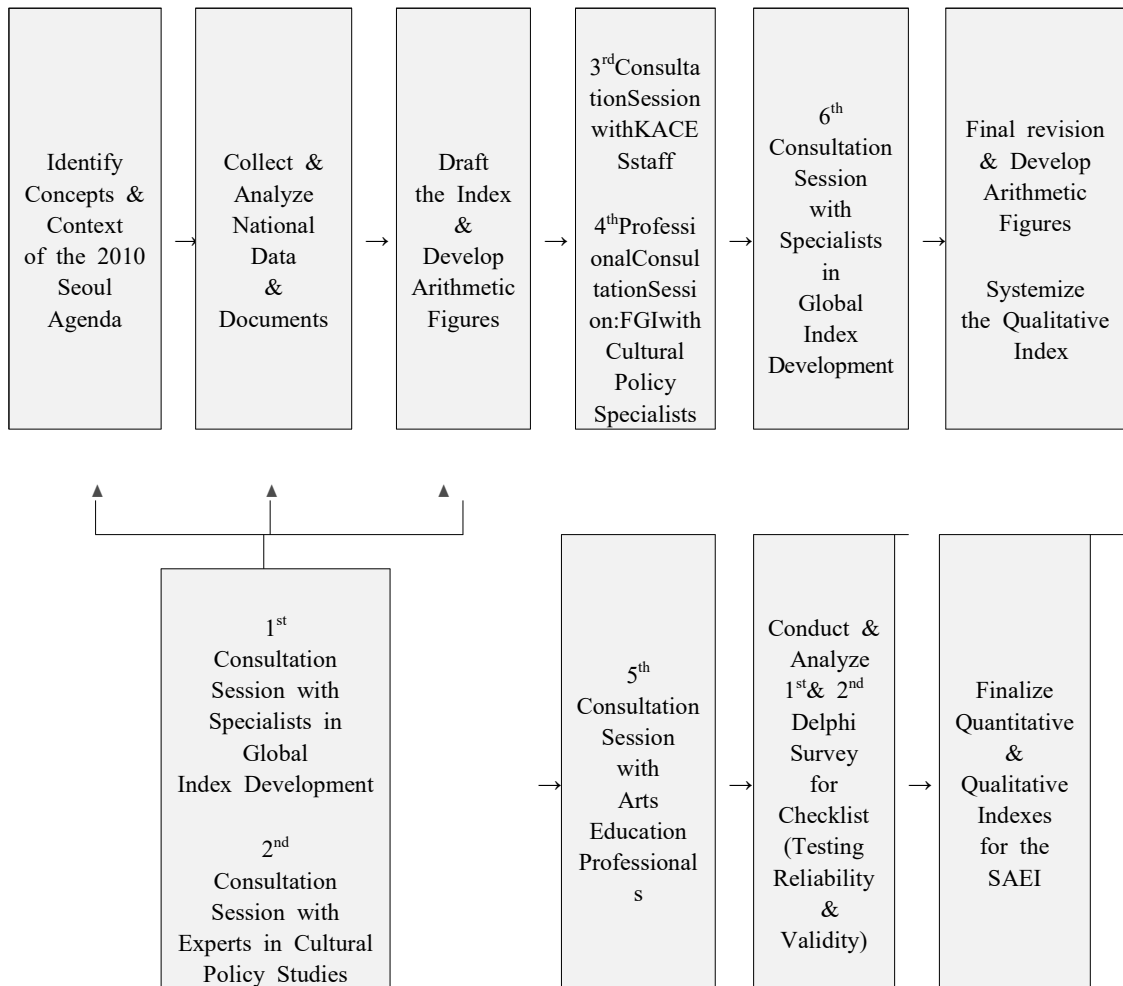
Country		
Submission Date		
Participation		Wish to Participate (✓)
Respondent Information	Name	
	Institution	
	Telephone	
	Email	
Do you need a Webinar for further explanation on SAEI and the research proces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Not sure

The review on the performances of the *Seoul Agenda* will be conducted in the second half of 2019, based on the finalize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Should you choose to provide our research team with your country's data; the results will be shared after the analysis is complete. We expect to measure the extent of development and change in arts education, as well as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shortfalls of each country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ill serve as valuable data that offers insight into the global development of and changing trends of arts education. More details on the plans, schedules, and methods for reviewing global implementation will be distributed shortly.

A Brief Summary of the Research Process: *A Basic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eoul Agenda, The Korean Case (2018)*

- KACES initiated this basic study in September 2018 to review performances of the *Seoul Agenda*, focusing on the Korean case. The four-month research project was conducted by a team of researchers, which was led by Dr. InSul Kim, who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cess>



- The study elaborates upon the concept of the *Seoul Agenda* and identifies core values, based on which the SAEI was developed to review performances of the *Seoul Agenda*. The SAEI is designed to measures 1) accessibility 2) quality enhancement and 3) social advocacy of arts education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anners based on the three goals and 13 strategies of the *Seoul Agenda*.
- Measures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for each indicator have been suggested through the study. The index also provides calculated values via figures from quantitative measurement. Additionally, checklist questions have been added to provide qualitative analysis as a form of qualitative indicators that complements the unquantifiable aspects of the index.
-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EI, which composed of 3 core-sub indexes, 13 sub-indexes, and sets of indicators; 20 specialists in cultural policy and arts education fields participated in six FGI sessions and two sets of Delphi survey.
- In addition, a pilot study, which was conducted in Korea, has been completed on the performances of KACES in order to verify the index. The statistics report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national statistical data, and international indexes, which was announced by UNESCO and OECD, were used for calculating the index values for a time series. This was done based on a cycle of three years, and have been analyzed in 2014 and 2017 (2011 being the base year). The SAEI qualitative indicators(checklist questions) were tested by 19 specialists in the related fields, as a too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indexes.

2. 2차 국외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International Expert Group Survey: 2nd Round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Dear UNITWIN Members,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for your thoughtful input and insightful comments on the first-round survey about the SAEI. We have carefully reviewed each of your comments to refine and improve the current version of the SAEI. We believe that arts education provides a fertile ground for civic eng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and hope that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spread this idea.

The second-round survey for the SAEI index is about measurements based on the working definitions. The SAEI index is made up of twenty-three (quantitative) measurements that we call ‘indicators.’ Along with these indicators, thirty-nine checklists (i.e., qualitative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to supplement and interpret the quantitative results of the SAEI.

► About Index and Indicators of the SAEI

1. About Index

- Index is defined as ‘a measure of the value of a variable relative to its value at some base date or state (The Oxford Dictionary of Statistics).’ An index allows us to understand how something being observed has changed. In the SAEI Index, this change has now been measured over an eight-year period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Seoul Agenda, focusing on the year of 2011, 2014, and 2017.
- An index also allows people to compare a number of different sources of information on the same scale, often set so that its base value is 100. That is the approach used here. If a particular figure increases over time then the corresponding index will increase, and if a figure decreases the index will drop. From the index you can gauge the extent

of change. The base value of the SAEI is begins with the year of 2011.

2. About Indicators (quantitative measurements)

-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the SAEI's quantitative indicators (i.e., the measurements), the two conditions must meet: 1) national/state statistical data that are trustworthy, and 2) annual or regular statistics (i.e., longitudinal data).
- Where this data was not available, two rules have been applied: 1) The earliest year available for the data is the base year; in most cases this is 2010/2011. 2) If data is available from an earlier year but gaps exist in later years then the data has been brought forward to fill the gaps. This keeps the Index as comparable as possible across the years.
- This approach means that the Index has been built using best practice,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data is not complete in every area. We aspire to use the most accurate and appropriate data possible in the Index.

3. Weighting the Index

- We have considered the following specific variables when creating the Index: Financial figures across the years have been adjusted to take account of inflation using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 There is no weighting applied to the data in terms of how the twenty-three indicators are combined to create the overall Index; each of the indicators contributes equally to the point.

The 2018 study on the SAEI was designed to examine the achievements of the *Seoul Agenda*, and the logic model of the SAEI, as well as each core and sub-index's definition and concept, were reviewed by teams of experts (n=14) in the field of arts education, cultural policy, and other related fields. Also, two rounds of a Delphi survey were conducted to refine the SAEI's qualitative indicators. The SAEI's calculations were designed based on the Laspeyres formula, and financial figures across the years have been adjusted to account for inflation using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 = Baseline year • t = Measurement year • i = Index number • IP = In-put indicators • TP = Through-put indicators • OP = Out-put indic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 = Core Index • SU = Sub Index • CPI = Consumer Price Index • α = Inverted version of CPI to 100
---	--

Formula for Core Index (G)1 & (G)2's Sub Index	Formula for Core Index (G)1 & (G)2
<p>► Basic Formula ㉔</p> $SU_{t,i} = \frac{(\frac{IP_{t,i}}{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G_{t,1} = \frac{\sum_{i=1}^4 SU_{t,i}}{4}$
<p>► Formular with CPI</p> $SU_{t,i} = \frac{(\frac{IP_{t,i}}{\alpha \times IP_{o,i}} \times 100) + (\frac{OP_{t,i}}{OP_{o,i}} \times 100)}{2}$ $\alpha = \frac{CPI_t}{CPI_o} \times 100$	$G_{t,2} = \frac{\sum_{i=5}^9 SU_{t,i}}{5}$

Formula for Core Index (G)3's Sub Index	Formula for Core Index (G)3
<p>► Basic Formula for G3 ㉕</p> $SU_{t,i} = \frac{G_{t,1} + G_{t,2} + (\frac{OP_{t,i}}{OP_{o,i}} \times 100)}{3}$	$G_{t,3} = \frac{\sum_{i=10}^{13} SU_{t,i}}{4}$

The total value of the SAEI comes with the average values of each core index. The formula can be expressed as follows.

$$SAB I_t = (\frac{G_{t,1} + G_{t,2} + G_{t,3}}{3})$$

The results of the 2018 study on the SAEI (in Korea) are presented in the table below.

Year	2011	2014	2017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100	152.48	149.43

Core Index 1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100	174.92	170.04
Sub-index 1	Holistic Inclusiveness	100	162.52	164.01
Sub-index 2	Enhancement of Education Systems & Implementation	100	143.08	162.15
Sub-index 3	Arts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100	270.39	217.52
Sub-index 4	Capacity-Building for Policy Development	100	123.69	136.48
Core Index 2	Quality Arts Education Development	100	142.60	140.11
Sub-index 1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100	110.69	131.58
Sub-index 2	Sustainable Training in Arts Education	100	99.80	72.34
Sub-index 3	Practice-Based Research	100	103.90	102.39
Sub-index 4	Educator-Artist Collaboration	100	151.95	172.56
Sub-index 5	Cross-Sector Partnerships	100	246.67	221.67
Core Index 3	Advocating for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100	139.93	138.13
Sub-index 1	Advancing Innovative Capacity	100	140.16	139.21
Sub-index 2	Acknowledging Social Role of the Arts	100	139.47	137.28
Sub-index 3	Cultural Diversity	100	140.54	139.43
Sub-index 4	Global Citizenship	100	139.54	136.61

In this round, we will ask for your thoughts on the selected indicators of the SAEI based on the working definitions. The third-round survey, which will be our last, will be used as a pilot study to test the final version of the SAEI's qualitative indicators (i.e., checklist). All of your answers will be carefully collected and reflected in this year's research repor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If you are willing to participate, we can also calculate the SAEI score for your country. In that case, you may have further questions in terms of

selecting the measurements (i.e., statistical data) for your country since every country's national statistics data and selection criteria are established in different conditions. This task will launch after the third survey, and we will provide you with more information on this in mid-August.

Again, your input will be extremely important in building a common ground for developing a globally applicable index that can be reviewed, implemented, and used for global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contact the following personnel. Thank you.

InSul Kim, Ph.D. in Cultural Policy & Arts Management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Question 1.

How do you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lected quantitative indicators and the condition of your country for adopting the SAEI's core and sub-indexes?

The below table shows the SAEI's quantitative indicators of the 2018 study, focused on a Korean case. To tell the truth, it was extremely difficult for us to find and select appropriate, reliable measurements due to the limitation of official and yearly (or at least regularly) collected statistical data in the field of arts education.

Although we aspire to use the most accurate and appropriate data possible in the index, this means that the selected indicators have some shortfalls in terms of representing the working definitions of each core and sub-indexes. Regardless of this, we tried our best to meet those standards. In this section, we would like to ask your evaluation on the quantitative indicators and share your country's condition on selecting the measurements.

I. Quant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1: *Universal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SAEI ► Core index 1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Working Definition: The level of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in terms of well-structured programmes based on one's interests and aptitude across the lifespan, regardless of age, gender, social background, and religion, as a fundamental compon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Appropriateness as Indicator (i.e., measurement)	Does your country offer similar official statistics yearly or regularly?	Does your country offer better or alternative official statics? (Suggestions & Comments)
▷ Sub-index 1.a	Input Indicator	Government budget for arts education (per capita)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Holistic Inclusiveness	Output Indicator	Number of participants in arts education (per 100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1.b	Input Indicator	Government budget for arts education in schools (per school-age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Enhancement of Education Systems & Implementation	Output Indicator	Number of recipients of arts education in schools (per 100 school-age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1.c	Input Indicator	Government budget for out-of-school education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capita)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Arts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Output Indicator	Number of out-of-school program recipients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100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1.d	Input Indicator	Government budget for training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Capacity Building for Policy Development	Output Indicator	Number of participants among personnel at major supporting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per 10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	---	---	--	--

II. Quant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 2: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SAEI ► Core index 2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Working Definition: The level of institutional, practical and research efforts that encompass developing high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and its related policy making, training arts educators, and researching as well as monitoring arts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nsure a high quality of arts education in the entire process 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Appropriateness as Indicator (i.e., measurement)	Does your country offer similar official statistics yearly or regularly?	Does your country offer better or alternative official statics? (Suggestions & Comments)
► Sub-index 2.a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Input Indicator	Arts education budget of local governments (per capita)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Number of arts education facilities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per 100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2.b Sustainable Training in Arts Education	Input Indicator	Ratio of arts-related majors to all majors in four-year universities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Annual training hours of teaching artists (per Teaching Artist)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2.c Practice-based Research	Input Indicator	Ratio of academic papers in arts-related fields to all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the country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Number of academic papers in arts-related fields published in the country (per 100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2.d Educator-Artists Collaboration	Input Indicator	Number of schools that hire teaching artists (per 100 school-age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Recipients of arts education in schools (per 100 school-age popul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2.e Cross-sector Partnerships	Input Indicator	Number of cooperating government agencies for arts educ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Number of cooperating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for arts education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III. Quant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3: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SAEI ▶ Core index 3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Working Definition: The level of manifestation by applying arts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in one's nation to resolve social and cultural challenges both level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Appropriateness as Indicator (i.e., measurement)	Does your country offer similar official statistics yearly or regularly?	Does your country offer better or alternative official statistics? (Suggestions & Comments)
▶ Sub-index 3.a Advancing Innovative Capacity	Input Indicator	The average of Core SAEI No. 1 & No. 2 Index Scores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A Score of the Global Innovation Index (GII) by WIPO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3.b Acknowledging Social Role of the Arts	Input Indicator	The average of Core SAEI No. 1 & No. 2 Index Scores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A Score of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DI) by UNDP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3.c Cultural Diversity	Input Indicator	The average of Core SAEI No. 1 & No. 2 Index Scores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A Score of Korean Multicultural Acceptance Index (KMAI) by Korean government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 Sub-index 3.d Global Citizenship	Input Indicator	The average of Core SAEI No. 1 & No. 2 Index Scores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Output Indicator	A Score of the Global Peace Index (GPI) by IEP	<input type="checkbox"/> Very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Somewhat 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Very inappropriat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t sure <input type="checkbox"/> No	

Question 2.

Do you have any concerns or additional comments on the quantitative indicators of SAEI index? Please feel free to share with us.

Question 3.

How do you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alitative indicators (i.e., checklists) of the SAEI?

We understand that numbers can be deceiving; they can in-fact be used to mislead with half-truths. Having this in mind, thirty-nine checklists (i.e., qualitative indicators) were developed to supplement and interpret the total score of the quantitative indicators of the SAEI. These qualitative indicators are one of the outcomes of the 2018 study, which were reviewed by teams of experts (n=14) in the field of arts education, cultural policy, and other related fields in Korea. This time, we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alitative indicators of the SAEI.

For the evaluation of each item's appropriateness, please score each item as below: ►Very appropriate: 5
►Appropriate: 4 ►Somewhat Appropriate: 3 ►Inappropriate: 2 ►Very inappropriate: 1

For the evaluation of each item's importance, please score each item as below:►Very important: 5 ►Important: 4
►Somewhat important: 3 ►Unimportant: 2 ►Very unimportant: 1

I. Qual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1: *Universal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SAEI	► Core index 1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Appropriateness (Score 1 to 5)	Importance (Score 1 to 5)	Comments & Suggestions
▷ Sub-index 1.a	Are there institutions and resources to protect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arts education?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participation in integrated arts education that covers various art genres including contemporary and experimental arts?			

Holistic Inclusiveness	Does arts education pursue holistic education that promotes development in various aspects (creative, cognitive, emotional, esthetic, and social) of learners?			
▷ Sub-index 1.b Enhancement of Education Systems & Implementation	Is convergence connecting arts to school subjects actively pursued in education programs within schools?			
	Are relationships among teaching artists, school teachers, and education administrators horizontal and democratic?			
	Are the principles of arts education applied in teaching and learning other subjects in schools?			
▷ Sub-index 1.c Arts Education as Lifelong Learning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diverse groups of learners to have access to arts education?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various age groups to participate in arts education together?			
	Are there arts education programs for promoting traditional arts and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 Sub-index 1.d Capacity Building for Policy Development	Do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ymakers recognize the role of arts education and the importance of policy development?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to build their capacities in order to improve arts education policies?			
	Are the importance of and participation in arts education socially promoted and encouraged?			

II. Qual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 2: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SAEI	► Core index 2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Appropriateness (Score 1 to 5)	Importance (Score 1 to 5)	Comments & Suggestions
▷ Sub-index 2.a Decentralization of Arts Education	Are there processes for studying local needs and requests to well-execute arts education?			
	Are there committe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well-execute arts education?			
	A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s well as facilities for arts educat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local needs and requests?			
▷ Sub-index 2.b Sustainable Training in Arts Education	Are learning processes and systems for supporting the respective specialties of arts teachers and artists sustainable and sufficient?			
	Are there sufficient training programs for teaching artists (TAs)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arts education?			
	Hav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for managing education quality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 Sub-index 2.c Practice-based Research	Does academic research in arts education make practical, significant, and meaningful contributions in arts education?			
	Are exemplary cases of arts education practices and research actively shared in your country?			
	Are exemplary arts education cases and research in your country being actively shared in order to contribute to global arts education development?			

▷ Sub-index 2.d Educator-Artists Collaboration	Are artists and teachers in schools actively cooperating or collaborating for high-quality education?			
	Are schools, loc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tively cooperating or collaborating to ensure that arts education is provided in various learning environments?			
	Are various arts education institutions in communities attracting participation from various community members including parents?			
▷ Sub-index 2.e Cross-sector Partnerships	Are cooperative relationships well developed amo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private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civic groups for arts education support and practice?			
	Are relationships horizontal among private, public,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regard to arts education?			
	Are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private, public,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regard to arts and culture education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quality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III. Qual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 3: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SAEI	▶ Core index 3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Appropriateness (Score 1 to 5)	Importance (Score 1 to 5)	Comments & Suggestions
▷ Sub-index 3.a	Is arts education exercised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cultivating creative and innovative thinking?			
	Has arts education sufficiently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creative and innovative capacities of society?			

Advancing Innovative Capacity	Is arts education considered a major factor when pursuing to strengthen creative and innovative capacities of society?			
▷ Sub-index 3.b Acknowledging Social Role of the Arts	Does arts education take an important part in education for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Does arts education play a therapeutic (restorative) role after a social conflict or disaster?			
	Do people acknowledge and willing to share the value of arts education?			
▷ Sub-index 3.c Cultural Diversity	Is there enough arts educational support for the marginalized (e.g. low income, disabilities, immigration, etc.)?			
	Does arts education conduct practices that acknowledge and respect different forms of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s?			
	Are arts education training programs being operated to ensure communication skills and teaching methods for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 Sub-index 3.d Global Citizenship	Does arts education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of major global issues (e.g. pollution, wars, human rights, etc.)?			
	Does arts education promot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enhance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Does arts education help people recognize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global citizens?			

Question 4.

Do you have any concerns or additional comments on the qualitative indicators of SAEI index? Please feel free to share with us.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in this important endeavor.

3. 3차 국외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International Expert Group Survey: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Dear Colleagues :

You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entitled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by Adop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This study is being led by Dr. InSul Kim who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is supported by the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Last year, we have develop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 based on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which was announced at the second UNESCO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in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last year’s research by adopting the SAEI in a global setting. We would like to kindly ask your opinion about your country’s arts education landscape (i.e., policy, system, partnership, quality, etc) through the lens of the qualitative indicators of SAEI. The information in this study will be used only for research purposes and in ways that will not reveal who you are. Risks to participants are considered minimal. There will be no costs for participating, nor will you benefit from participating. No one other than the researchers will know your individual answers to this questionnaire.

If you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please answer the questions on the questionnaire as best you can. It should take approximately *5–10 minutes* to complete.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project, feel free to contact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is study, Dr. InSul Kim or Dr. Hyesun Shin.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human subjects in research is available through the IRB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 Hub RM419,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6118.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in this important endeavor.

Sincerely,
InSul Kim, PhD

Q1. How do you evaluate your own country's arts education landscape (i.e., system, policy, quality, and etc.)?

We understand that numbers can be deceiving; they can in-fact be used to mislead with half-truths. With this in mind, thirty-nine checklists (i.e., qualitative indicators) were developed to supplement and interpret the total score of the SAEI's quantitative indicators. These qualitative indicators are one of the outcomes of the 2018 study, which were reviewed by experts (n=26) around the world in the field of arts education, cultural policy, and other related fields. In this round, we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about your own country's arts education landscape (i.e., educational system, policy, quality, partnership, and etc.) by looking through the lens of SAEI.

To evaluate your own country's arts education landscape, please score each item as below:

▶ Almost always: 5 ▶ Often: 4 ▶ Sometimes: 3 ▶ Seldom: 2 ▶ Never: 1

Qual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1: *Universal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 Core index 1 Accessibility of Arts Education	Your Opinion
Are there institutions and resources to protect the right of all citizens to participate in arts education in your county?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participation in integrated arts education that cover various art genres including contemporary and experimental arts?	
Does arts education pursue holistic education that promotes development in various aspects (creative, cognitive, emotional, esthetic, and social) for learners?	
Is there a convergence in connecting arts to school subjects that is actively pursued in education programs within schools?	
Are relationships among teaching artists, school teachers, and education administrators horizontal and democratic?	
Are the principles of arts education applied in teaching and learning other subjects in schools?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diverse groups of learners to have access to arts education?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various age groups to participate in arts education together?	

Are there arts education programs for promoting traditional arts and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Do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ymakers recognize the role of arts education and the importance of policy development?
Are opportunities provided for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to build their capacities in order to improve arts education policies?
Are the importance of and participation in arts education socially promoted and encouraged?

Qual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 2: *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

<p>► Core index 2</p> <p>Quality Enhancement of Arts Education</p>
Are there processes for studying local needs and requests to execute arts education well in your county?
Are there councils or committe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agencies/institutions to practice arts education well?
Ar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s well as facilities for arts educat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local needs and requests?
Are learning processes and systems for supporting the respective specialties of arts teachers and artists sustainable and sufficient?
Are there sufficient training programs for teaching artists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arts education?
Hav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for managing education quality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Does academic research in arts education make practical, significant, and meaningful contributions in arts education?
Are exemplary cases of arts education practices and research actively shared in your country?
Are exemplary arts education cases and research in your country being actively shared in order to contribute to global arts education development?
Are artists and teachers in schools actively cooperating or collaborating for high-quality education?
Are schools, loc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tively cooperating or collaborating to ensure that arts education is provided in various learning environments?

Are various arts education institutions in communities attracting participation from various community members including parents?	
Are cooperative relationships well developed amo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institutions, private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civic groups for arts education support and practice?	
Are relationships horizontal among private, public,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regard to arts education?	
Are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private, public,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regard to arts and culture education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the quality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Qualitative Indicators for Sub Index of SAEI No. 3: Advocating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 Core index 3 Advocating for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Your Opinion
Is arts education exercised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cultivating creative and innovative thinking in your country?	
Has arts education sufficiently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creative and innovative capacities of society?	
Is arts education considered to be a major factor when pursuing the strengthening of the creative and innovative capacities of society?	
Does arts education take an important part in education for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Does arts education play a therapeutic (restorative) role after a social conflict or disaster?	
Do people acknowledge and are they willing to share the value of arts education?	
Is there enough arts educational support for the marginalized (e.g. low income, disabled, immigrants, etc.)?	
Does arts education conduct practices that acknowledge and respect different forms of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s?	
Are arts education training programs being operated to ensure communication skills and teaching methods for enhancing cultural diversity?	
Does arts education contribute to raising awareness of major global issues (e.g. pollution, wars, human rights, etc.)?	
Does arts education promot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enhance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Does arts education help people recognize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global citizens?	

Question 2.

1) **Experience in Arts Education:** Approximately _____ years

1) **Your Occupation:**

Question 3. Could you please briefly describe the main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arts education in your country?

Question 4. Do you have any concerns/additional comments on the qualitative indicators of SAEI or about the research? Please feel free to share with us

Thank you so much for your endeavor!

4. 3차 국내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2019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정성지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뢰로 『2019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서울어젠다:예술교육 발전목표’(UNESCO, 2011)가 채택된 이후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2018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를 개발하였습니다.

2019년 연구는 기초연구를 확장하여 해외 학자들의 의견을 담아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를 정교화하고, 정성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 조사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진은 본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한국의 국내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내 전문가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에 관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응답자의 보안을 철저히 보호해드리고, 응해주신 조사내용은 오직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시된 의견은 종합 정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연구책임자 김인설 교수

공동연구 : 신혜선, 차지민, 서리나 박사
보조연구 : 서민정, 김미연



조사목적 및 내용

- 조사목적: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적용
-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일정		조사 방법
		시작일	종료일	
1차	▶ 국외 전문가 대상 SAEI의 구조 및 개념 타당도 조사	2019. 6. 23.	2019. 7. 10.	델파이 조사
2차	▶ 국외 전문가 대상 SAEI의 정량지표 타당도 평가	2019. 7. 20.	2019. 8. 10.	
3차	▶ 국외 전문가 대상 SAEI의 정성지표 타당도 평가	2019. 7. 20.	2019. 8. 20.	
4차	▶ 국외 전문가 대상 SAEI의 정성지표 1차 측정 (오프라인)	2019. 10. 23.	2019. 11. 2.	
	▶ 국외 전문가 대상 SAEI의 정성지표 2차 측정 (온라인)	2019. 11. 15.	2019. 11. 30.	
✓ 5차	▶ 국내 전문가 대상 SAEI의 정성지표 측정	2019. 11.20.	2019. 11.30.	

※ 작년에 수행된 2018년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SAEI의 구조 및 개념, 측정지표의 타당도 조사와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연구는 국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SAEI에 대한 검증을 시행함.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프레임워크

-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서울어젠다 이행실적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개발한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rts Education Index, SAEI)를 적용하여 UNESCO 회원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입, 운영, 성과의 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음.
- 2019년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 개발된 SAEI를 국제사회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지수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있음.
- 본 조사는 국내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것이며,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 중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수집을 목적으로 함.
- SAEI 지수는 국가별 상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 기반의 정량적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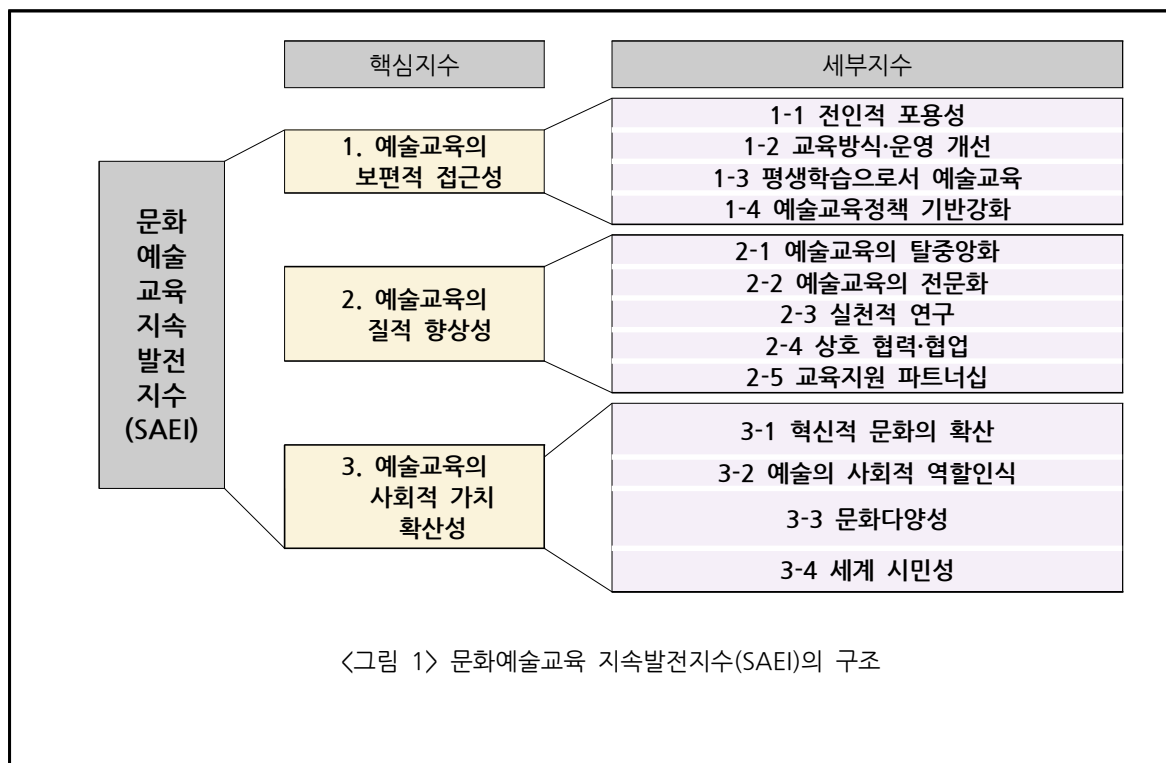
정지표와 국가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적 측정지표(체크리스트)로 설계되었음.

- 정량지표는 각 세부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기존의 국내 통계자료 및 국제지수를 활용하여 측정지표(투입, 과정, 산출)를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종합지수 산식 중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음.
- 정성지표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서울어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

목표1	예술교육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구성요소로서 접근
전략 1	전세대의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능력 개발
전략 2	교육 시스템과 구조의 건설적 변화
전략 3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과 세대 간 교육 시스템 수립
전략 4	예술교육 리더십 강화, 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예술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 축적
목표 2	예술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높은 질적 수준을 확립
전략 1	지역의 요구사항, 인프라, 문화적 맥락에 맞는 예술교육을 위한 합의와 기준 개발
전략 2	교육자와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연수의 지속적 시행
전략 3	예술교육의 연구와 실천사이의 상호교류 장려
전략 4	학교 안팎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자 사이의 협력 장려
전략 5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 간의 예술교육 협력관계
목표 3	사회적·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가능한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 적용
전략 1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예술교육 적용
전략 2	사회·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술교육의 역할 인식과 발전
전략 3	사회적 책무 및 통합, 문화 다양성, 문화 상호 간 대화를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의 역할 지원
전략 4	예술교육으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 지구적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역량 개발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는 서울어젠다에서 제시된 목표와 전략, 실천방안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서울어젠다의 3개 목표와 이를 위한 13개 전략에 해당하는 핵심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됨.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정성적 지표 조사

정성지표(체크리스트) 평가

- 아래 <표 1>는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정성지표입니다. 이는 서울어젠다의 상위목표에 따른 13개의 전략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채택 이후인 2011년과 비교하여 현재(2019년)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정도를 평가(붉은색 영역 안에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세부지수별 정성적 지표(체크리스트) 평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체크리스트 문항	(해당 칸에 ✓ 표시)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핵심 지수1 예술의 보편적 접근성							
세 부 지 수	[1-1] 전인적 포용성	①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가?					
		① 동시대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괄하는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①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창의적, 인지적, 정서적, 심미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가?					
	[1-2] 교육방식·운 영 개선	① 학교 내 교육현장에서 예술과 연계한 교과 간 융합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① 예술교육을 매개로 예술 강사, 학교 교사, 교육행정가 간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상호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① 예술교육의 원리가 학교 내 타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1-3] 평생학습으 로서 예술교육	① 다양한 학습자들이 각 지역과 조직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① 다양한 연령층이 문화예술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① 전통예술과 세대 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1-4] 예술교육정	① 문화예술교육 관계부처 및 정책입안자들은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체크리스트 문항	(해당 칸에 ✓ 표시)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책 기반강화	역할과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① 문화예술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실천가 및 연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가?						
		① 시민과 조직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참여가 사회적으로 독려되고 있는가?						
핵심 지수2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세 부 지 수	[2-1]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①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역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2-2] 예술교육의 전문화	① 교사 및 예술가의 예술교육 전문성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학습 절차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예술교육자(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①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와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는가?						
	[2-3] 실천적 연구	① 예술교육 연구들은 실행연구 등을 통해 예술교육현장의 발전에 실천적 기여를 하고 있는가?						
		① 예술교육 실천과 이에 대한 연구의 우수사례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가?						
		① 자국의 예술교육 우수 사례 및 연구가 공유되어 세계 예술교육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2-4] 상호 협력·협업	① 학교 내 예술가와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또는 협업을 하는가?						
		①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예술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예술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 협력 또는 협업이 이루어지는가?						
		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관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체크리스트 문항	(해당 칸에 ✓ 표시)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5] 교육지원 파트너십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실천을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조직,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①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 간의 협력 관계가 수평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①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민·관·학 기관들의 협력관계가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핵심 지수3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세 부 지 수	[3-1] 혁신적 문화 확산성		①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적, 혁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도록 시행되고 있는가?					
			② 문화예술교육은 사회 전반의 창의적, 혁신적 역량 강화에 충분히 기여하였는가?					
			③ 사회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는가?					
	[3-2]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① 사회적, 문화적 잘 삶을 위한 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② 사회적 갈등 또는 재난 이후의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치유적(복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③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인식이 사회적·문화적 '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3-3] 문화다양성		저① 학습자들의 특수한 상황(저소득층, 장애, 이민자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표현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가?					
			③ 예술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및 교수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3-4] 세계 시민성		① 문화예술교육은 전 지구적 주요문제(환경오염, 전쟁,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는가?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와 소통하는 것을 돕고 있는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	체크리스트 문항	(해당 칸에 ✓ 표시)				
		전혀 그렇 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③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선생님의 교육 또는 연구 경험은 총 몇 년이십니까? ____년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정성지표(체크리스트)는 안내문에 제시된 서울 어젠다 선언문에 의거해 개발된 지표입니다. SAEI 정성지표에 대한 선생님의 관점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작성)

5. 서울어젠다 전문 (영문 | 국문)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is a major outcome of UNESCO's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hel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on 25 – 28 May 2010. Convened at the initiative of UNESCO, in close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ference gathered more than 650 officials and experts in arts education from 95 countries. The programme included a Ministerial round table, keynote speeches, panel discussions, parallel workshops, regional group discussions, an encounter with NGOs and foundations, and a special session on Arts Education and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Work on the *Seoul Agenda* began a year prior to the Conference during a meeting in

July 2009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C) at UNESCO Headquarters, and culminated in a presentation of the document to the participants during the closing session of the Conference. In preparation for the Conference, the IAC continued to refine the goals via e-mail exchanges in the months following the meeting in 2009.

An amended version, which took into account comments and proposals received from members of the IAC was prepared during a meeting immediately preceding the Conference. This version of the *Seoul Agenda* was circulated to experts during the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debates were monitored throughout the Conference by the General Rapporteur and revisions were made to the document to reflect priorities and insights offered by the Conference participants. Revisions of an editorial nature were subsequently completed by the General Rapporteur to reflect responses received from participants after presentation of the Seoul Agenda at the close of the Conference.

Preamble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reflects the conviction of the IAC members and the experts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that arts education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constructive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s that are struggling to meet the needs of learners in a rapidly changing world characterized by remarkable advances in technology on the one hand and intractable social and cultural injustices on the other. Issues that concerned the IAC included but were not limited to peace,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s well as the need for a creative and adaptive workforce in the context of post industrial economies. Equally, participants agreed that arts education can make a direct contribution to resolving the social and cultural challenges facing the world today. Of crucial importance to the success of arts education in meeting these challenges is the need to achieve high standards in the conception and delivery of programmes. The Seoul Agenda takes these three issues as its organizing principles. As a product of UNESCO's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the Seoul Agenda is intended to build on the UNESCO Road Map for Arts Education that was a major outcome of the First World Conference held in Lisbon, Portugal, in 2006. The Road Map offered an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that provided guidance for advancing the qualitative development and growth of arts education. A central goal of the Seoul Conference was to reassess and encourage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Road Map. The Seoul Agenda will serve as a concrete plan of action that integrates the substance of the Road Map within a structure of three broad goals, each accompanied by a number of practical strategies and specific action items. The Seoul Agenda calls upon UNESCO Member States, civil societ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o recognize its governing goals, to employ the proposed strategies, and to implement the action items in a concerted effort to realize the full potential of high quality arts education to positively renew educational systems, to achieve crucial social and cultural objectives, and ultimately to benefit children, youth and life-long learners of all ages.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GOAL 1: Ensure that arts education is accessible as a fundamental and sustainable component of a high quality renewal of education

Strategies

- 1.a Affirm arts education as the foundation for balanced creative, cognitive, emotional, aesthetic and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youth and life-long learners**

Action Items

1.a (i) Enact policies and deploy resources to ensure sustainable access to:

- comprehensive studies in all arts fields for students at all levels of schooling as part of a broad and holistic education,
- out of school experiences in all arts fields for a diversity of learners in communities,
- interdisciplinary arts experiences including digital and other emerging art forms both in school and out of school;

1.a (ii) Enhance synergy between the different aspects of development (creative, cognitive, emotional, aesthetic and social);

1.a (iii) Establish high quality evaluation systems in order to ensure the well-rounded development of learners in arts education.

1.b Foster the constructive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systems and structures through arts education

Action Items

1.b (i) Apply arts as an educational model introducing artistic and cultural dimensions in other academic disciplines;

1.b (ii) Foster a creative culture among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through arts education;

1.b (iii) Apply arts education to introduce innovative pedagogies and creative approaches to curricula that will engage a diversity of learners.

1.c Establish systems of lifelong and intergenerational learning in, about and through arts education

Action Items

1.c (i) Ensure learners from all social backgrounds have lifelong access to arts education in a wide range of community and institutional settings;

1.c (ii) Ensure opportunities for arts education experiences among different age groups;

1.c (iii) Facilitate intergenerational learning in order to safeguard knowledge of traditional arts and foster intergenerational understanding.

1.d Build capacities for arts education leadership, advocacy and policy development

Action Items

1.d (i) Build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capacities for arts education policy reform including participation of marginalized populations and under-privileged groups in arts education policy-planning processes;

1.d (ii) Enhance communications and advocacy by reinforcing relations with the information media, establishing an appropriate language for communication, and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virtual networking systems to link existing national and regional initiatives;

1.d (iii) Communicate the individual and social impact of arts education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values of arts education and to encourage support for arts educ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GOAL 2: Assure that arts education activities and programmes are of a high quality in conception and delivery

Strategies

2.a Develop agreed high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that are responsive to local needs, infrastructure and cultural contexts

Action Items

2.a (i) Establish high standards for the delivery of arts education programmes in school and the community;

2.a (ii) Institute formally recognized qualifications for teachers and community facilitators of arts education;

2.a (iii) Provide necessary and appropriate facilities and resources for arts education.

2.b Ensure that sustainable training in arts education is available to educators, artists and communities

Action Items

2.b (i) Offer necessary skills and knowledge for teachers (general and arts) and artists working in education through sustainable professional learning mechanisms;

2.b (ii) Integrate artistic principles and practices with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ractising teachers;

2.b (iii)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rts education train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quality monitoring procedures such as supervision and mentoring.

2.c Stimulate exchang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in arts education

Action Items

2.c (i) Support arts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globally and link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c (ii) Encourage cooperation in developing arts education research and distribute research as well as exemplary arts education practices through international structures such as clearing houses and observatories;

2.c (iii) Consolidate high quality evidence of the impact of arts education and assure its equitable distribution.

2.d Facilitate collaboration between educators and artists in schools and in out-of-school programmes

Action Items

2.d (i) Encourage schools to initiate partnerships between artists and teachers in delivering curricula;

2.d (ii) Encourage community organizations to cooperate with teachers in providing arts education programmes in a variety of different learning environments;

2.d (iii) Elaborate cultural projects within various learning environments actively involving parents, family members and community members.

2.e Initiate arts education partnerships among stakeholders and sectors

Action Items

2.e (i) Build partnerships within and beyond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 role of arts education in society, especially across educational, cultural, social, health, industrial and communication sectors;

2.e (ii) Coordinate the efforts of governm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to strengthen arts educ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s;

2.e (iii) Engage private sector entities including foundations and philanthropic agencies as partners in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programmes.

GOAL 3: Apply arts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social and cultural challenges facing today's world

Strategies

3.a Apply arts education to enhance the creative and innovative capacity of society

Action Items

3.a (i) Apply arts education throughout schools and communities to foster the creative and innovative capacity of individuals and to cultivate a new generation of creative citizens;

3.a (ii) Apply arts education to promote creative and innovative practices in favor of the holistic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cieties;

3.a (iii) Employ emerging innovation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source of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3.b Recognize and develop the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dimensions of arts education

Action Items

3.b (i) Encourage recognition of the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dimensions of arts education including:

- the value of a full range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rts experiences,
- the therapeutic and health dimensions of arts education,
- the potential of arts education to develop and conserve identity and heritage as well as to promote diversity and dialogue among cultures,
- the restorative dimensions of arts education in post-conflict and post-disaster situations;

3.b (ii) Introduce knowledge about social and cultural well-being in training programmes for arts education professionals;

3.b (iii) Apply arts education as a motivating process to enhance learner engagement and reduce education dropout levels.

3.c Support and enhance the role of arts education in the promo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cohesio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Action Items

3.c (i) Give priority to recognition of the learner-specific context and encourage educational practices adapted to the local relevancy of the learners including minorities and migrants;

3.c (ii) Foster and enhanc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diverse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s;

3.c (iii) Introduce intercultural dialogue skills, pedagogy, equipment and teaching materials in support of training programmes in arts education.

3.d Foster the capacity to respond to major global challenges, from peace to sustainability through arts education

Action Items

3.d (i) Focus arts education activities on a wide range of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global mig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3.d (ii) Expand multi-cultural dimensions in the practice of arts education and increase intercultural mobility of students and teachers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3.d (iii) Apply arts education to foster democracy and peace in communities and to support reconstruction in post-conflict societies.

※ 서울어젠다의 국문 선언문은 서울어젠다의 전략 2.a와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세부지수 2-1에 해당하는 '예술교육의 탈중앙화' 항목이 제외되어 표기되어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어젠다에 합의한 193개국에 대한 예우로 UNESCO에 명시된 영문 서울어젠다 전문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음을 미리 밝힘.



국문 번역본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

목표 1 :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전략 1.a 어린이와 청소년의 조화로운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발달의 근간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한다.

- 1.a (i) 광범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모든 수준의 학교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모든 예술분야에서의 포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1.a (ii) 지역공동체 내의 모든 예술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예술교육 경험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1.a (iii) 예술교육에 대한 그러한 접근성 보장이 지속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a (iv) 학교 안과 학교 밖 모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범 학문적 예술 경험에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1.a (v)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적 실천면에서 창의적이고 질 높은 예술 경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 1.a (vi) 예술교육에서 학습자의 원숙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략 1.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및 세대간 교육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 1.b (i) 광범위한 지역공동체와 (공공)기관 환경 내에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예술교육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1.b (ii)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 1.b (iii) 전통적 예술 지식을 보존하고 세대간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대간 학습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략 1.c 예술교육을 통해 정규·비정규 교육시스템 및 구조의 재구축을 촉진한다.

- 1.c (I) 다른 학문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정의 교육적 모델로서 예술을 적용하도록 한다.
- 1.c (II) 예술교육을 통하여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 간에 창의적 문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 1.c (III)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적극 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법을 도입하여 예술교육에 적용하도록 한다.

전략 1.d 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하며 예술교육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 1.d (I) 예술교육 옹호와 정책 개혁을 위하여 실무자와 연구자의 역량을 육성하여야 한다.
- 1.d (II) 예술교육의 가치를 일반 대중이 느끼도록 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술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알려야 한다.
- 1.d (III) 정보매체와 예술교육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소통 언어를 확립하여야 한다.
- 1.d (IV) 국제적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그리고 예술교육 옹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별,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 기반 네트워킹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목표 2: 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은 그 착상과 전달 면에서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전략 2.a 학교 및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 2.a (I) 자기표현 수단, 지식의 통로, 학문 완성의 길 등과 같은 예술교육의 여러 상이한 기능들을 인식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2.a (II) 교육과정을 전달함에 있어 예술가와 교사 간의 파트너십을 시작하도록 학교 당국을 독려하여야 한다.
- 2.a (III) 학교 활동과 관련된 지역공동체에서 예술가들의 협력을 통해 예술교육을 위한 방법과 시설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 2.a (IV) 예술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관여시켜야 한다.

전략 2.b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술교육 훈련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

- 2.b (I) 예술교사와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 2.b (II) 예술적 원리와 실천을 교사양성교육과 교사재교육 속에 통합하여야 한다.
- 2.b (III) 감독과 멘토링과 같은 양질의 모니터링 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예술적 원리와 실천의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략 2.c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도록 한다.

- 2.c (I) 정부, 교육 및 문화부문, 지역사회, 민간부문 안팎에서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 2.c (II) 예술교육의 원리, 정책, 실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조직, 정부 및 고등교육기관의 노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 2.c (III) 교육, 문화, 산업, 커뮤니케이션 부문 간에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 2.c (IV)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에 있어 재단 및 자선기관들을 파트너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전략 2.d 예술교육에 있어서 이론, 연구, 실천 간에 논의 및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 2.d (I) 전세계적으로 예술교육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와 실천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d (II) 음저버토리와 같은 국제적인 크리어링 하우스(장애제거기구) 구조를 통해 연구결과 및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 2.d (III) 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고품질의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목표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전략 3.a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교육을 적용한다.

- 3.a (I) 예술교육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혁신적 시민과 노동자의 새로운 생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 3.a (II) 학교 내 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교과목으로 전이될 수 있는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 3.a (III) 학교 밖 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창의적·혁신적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략 3.b 사회적·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시킨다.

- 3.b (I) 광범위한 전통예술 및 현대예술 경험물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3.b (II) 예술교육의 치유적·보건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 3.b (III) 정체성 및 문화유산을 개발·보전함에 있어서 예술교육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 3.b (IV) 갈등 및 재난을 거친 후의 상황에서 예술교육의 복원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장려하여야 한다.
- 3.b (V) 사회문화적 복지를 예술교육 훈련에 통합하여야 한다.

- 3.b (vi) 학생 참여를 촉진하고 중도 탈락율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으로 예술교육을 활용하여야 한다.

전략 3.c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및 문화상호간 대화를 촉진함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제고하여야 한다.

- 3.c (i) 무엇보다도 학습자 특유의 맥락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3.c (ii)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표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과 이해를 위해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3.c (iii) 필요한 교사훈련, 교수법, 장비 및 학습재료의 제공으로 다문화 예술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략 3.d 세계평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 까지 주요한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교육 역량을 촉진한다.

- 3.d (i)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같은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들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3.d (ii)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문화간 이동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3.d (iii) 예술교육 교과과정에서 지구적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 3.d (iv) 민주주의, 세계 시민성, 문화 다양성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술교육을 적용하여야 한다.